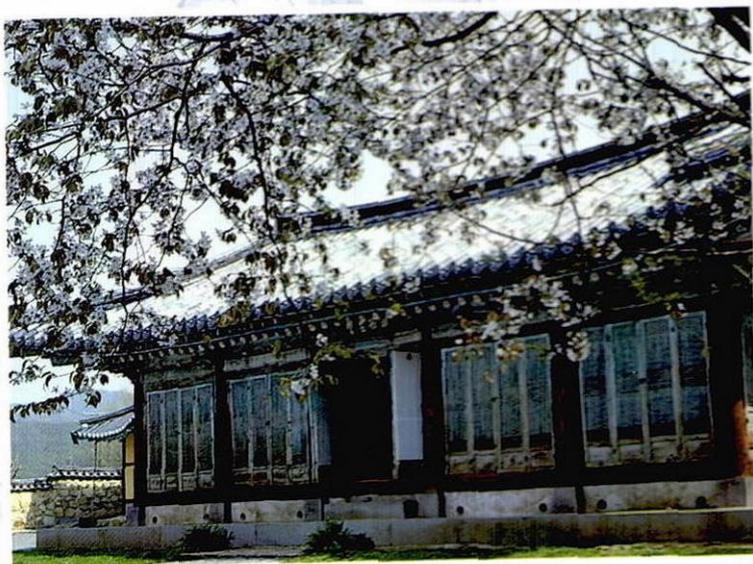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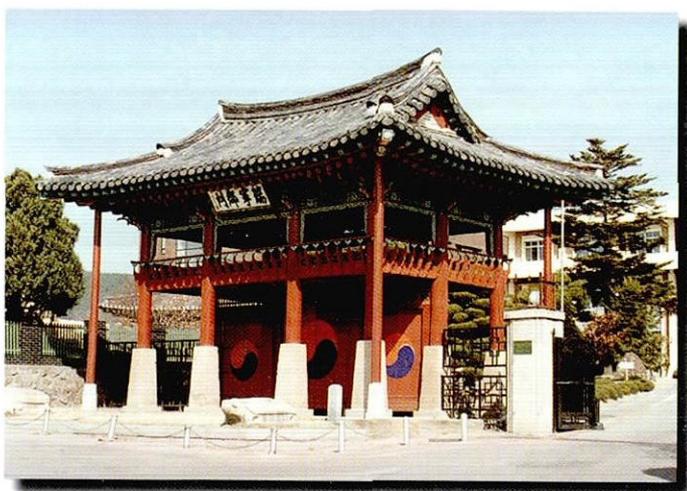
서산시지 제2권

서산의 역사



서산시지 제2권

서산의 역사



시 상 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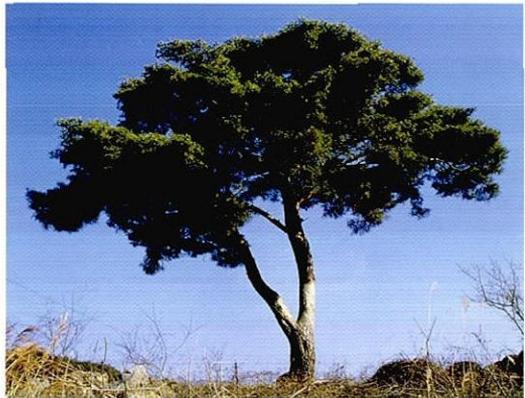


① 서산시의 영문표기문자인 “S”자와 시나무의 소나무를 형상화하였으며, 서산시 전체의 자연조건인 대자연의 풍요로움과 쾌적한 환경을 나타냄. (녹색)

② 서산시의 대표적 문화재인 마애삼존불상과 뫼 “山”을 형상화하였으며, 무궁한 도약, 전진, 발전을 나타냄. (백색)

③ 서산시의 맑고 푸른바다를 형상화하였으며, 서해안 중심지로서 온시민의 화합, 단결을 나타냄. (청색)

※ 서산시 심볼마크의 의미는 서산시 전체의 자연조건인 대자연의 풍요로움과 무궁한 도약, 전진, 발전을 나타내며, 서해안 중심지로서의 온시민의 화합, 단결을 보다 쾌적하고 살기좋은 도시 미래를 향한 발전하는 도시이미지를 상징함.



■ 까 치

시민들이 미래를 밝고 희망차게 살아가는 모습을 상징.

■ 소나무

사계절의 푸르름은 씩씩한 시민의 기상을 상징.

■ 국 화

시민의 인정어린 순수함을 상징.

시민의 노래

서산에 살리라



1. 가 야-산 푸른 숲에 해 뜨-는 아 침
2. 옥 너-봉 솔밭 에는 푸 르-른 달 빛



활 기-찬 거리 마다 꿈 이-넘 치-고
넉 넉-한 가슴 마다 사 랑-의 노-래



미 래-로 가는 고장 서 산-의 숲 곁
가정 마-다 마을 마다 아 늣-한 불 빛



서 해-안 물결 타고 내 일-이 온 다
들 리앉은 얼굴 마다 웃 음-꽃 편 다



아 아 축복 의 땅 내 사랑서 산 시



살-리 라 여 기살리라 서 산에 살 리 라

밝은 미래를 꿈꾸는 새 서산



우리 고장의 모든 발전과정과 역사적 사실을 집대성한 “서산시지(瑞山市誌)”를 발간하게 된 것을 15만 시민들과 함께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서산은 옛부터 인심이 온후하고 문화예술을 사랑하며 충, 효, 예를 숭상하는 높은 선비정신으로 성현들을 많이 배출한 자랑스런 고장입니다.

이러한 옛 선현들의 발자취와 지혜의 숨결을 찾아 상세하게 재조명하여 이번 에 발간하는 “서산시지(瑞山市誌)”는 1982년 “서산군지(瑞山郡誌)” 증보판을 발간한지 15년이 지난 지금 새로이 발전된 그간의 변화상과 전에는 기록하지 못하였던 부분들을 보충하여 지리, 역사, 문화, 산업 등 모든 분야에 걸친 발자취를 생생하게 기록 게재 했습니다. 하지만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앞으로 보완하고 숨겨진 사실들을 계속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서산시지(瑞山市誌)”의 발간은 우리서산의 실상을 바로 알고 역사속에서 얻어지는 경험적인 교훈과 자긍심을 일깨우며 서산사랑의 마음을 심어주고 위상을 드높이 세우는 귀중한 문헌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충분하지 못한 여건속에서도 “서산시지(瑞山市誌)” 발간을 위하여 심혈을 기울여 주신 공주대학교 이해준 교수님을 비롯한 집필위원과 편찬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1998년 4월 일

서산시장 김 기 흥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우리 서산

우리 서산시의 역사, 사회, 전통문화를 비롯한 경제의 발전상과 변천사를 일목요연하게 체계적으로 정리한 서산시지(瑞山市誌)를 발간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또한 금번에 발간한 서산시지(瑞山市誌)가 15만 시민과 후손들이 행정, 문화, 경제 등 서산 역사의 발전상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정보서로서 유익한 자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우리 시는 문화적으로 옛부터 예행의 고장, 충절의 고장으로 옛 선조들의 전통과 미풍양속을 이어받은 유서깊은 고장으로 널리 알려져 있으며, 경제적으로는 미곡생산을 중심으로한 1차산업의 기반고에서 발전을 거듭하여 1,2,3차 산업의 균형을 이루고 서해안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도·농복합형 도시로 성장하였습니다.

이제 민주주의의 초석인 지방자치제도가 정착되면서 시의 지리적 특성을 최대한 살려 조화와 균형을 이룬 문화의 도시, 교육·행정의 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옛 선조들의 전통 미풍양속을 되살려 예향의 도시, 충절의 도시란 옛 명성을 되찾을 수 있도록 시민 모두의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하겠습니다.

모쪼록 본 서산시지가 15만 시민과 후손들이 서산시민으로서 자긍심을 높여 주는 계기가 되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발간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서산시지(瑞山市誌)를 집대성하기까지 수고하신 이해준 교수님과 편집위원님들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다시 한번 서산지역 역사서를 발간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1998년 4월 일

서산시 의회의장 김 관 기



島島小

三層平海峽
三層平海峽

距邑六重
北谷
南谷
西谷
東谷

湖古三

斷行及名故昔相合下其後珍設
斷行及名故昔相合下其後珍設
斷行及名故昔相合下其後珍設
斷行及名故昔相合下其後珍設

唐津界

河文界

山天工

東表千里

洞野

洞野

洞野

島波古
島波古
島波古

洞野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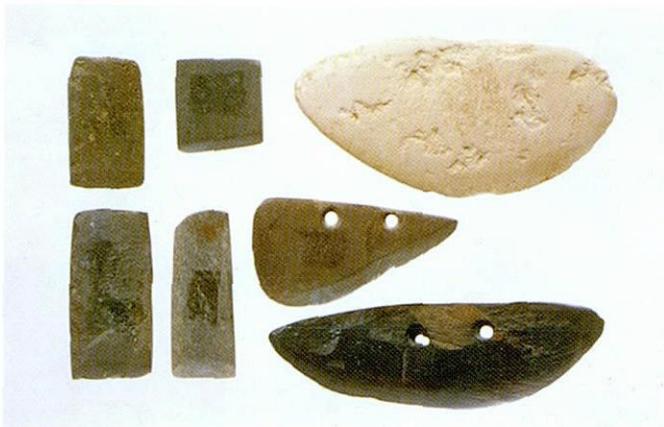
洞野



▲ 인지면 둔당리 고인돌



▲ 민무늬바리토기(해미면 휴암리 출토)



◀ 반달 돌칼도끼, 숫돌
(해미면 휴암리 출토)



서산마애삼존불(국보 제84호)



▲ 금동여래입상



▲ 철조여래타불상(보원사지 출토)



서령동헌 (충청남도지정 유형문화재 제41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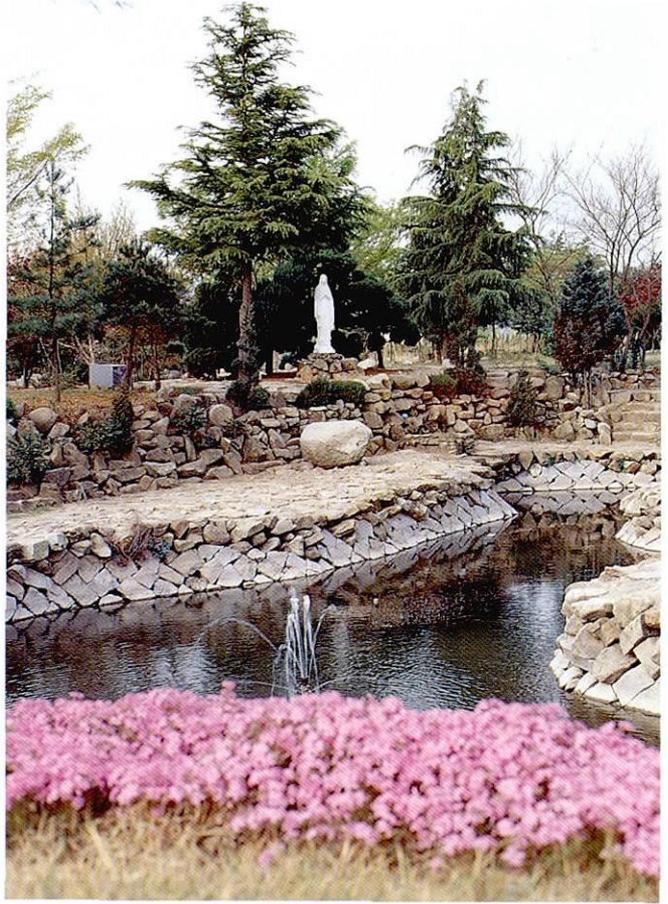
해미읍성 (사적 제116호)







▲ 생매장 유해발굴지에 세워진 『해미순교탑』



▲ 생매장터 『진동봉』



▲ 호아나무



▲ 천주교 생매장 순교성지 『여섯골』

瑞山郡城郭周四千七百十五

民戶六千七百二十戶

田四千八百四十四結五十九卜

苗二千三百七十三石二十斗

穀物稅數

會付米一石十二斗

皮穀一千三百七十三石二十斗

未捧四千四百六十三石二十斗

軍兵稅數

拉營軍一百十四石

安興鎮東伍軍九百七名

舟師東伍軍一百二十五名

者月島 魏島 是之島 猪島
 長古島 大也島 羅孫島 最金島
 能島 時州地 拔長 毒島 他多
 民 寧民 農中 嶋里 要兒 梁三
 吉山 備苗 在 布 苗 司 坂
 寫 畫 四



防船一隻
 兵船一隻
 東距海界二千里
 西距奉安縣三千里
 南距海水
 北距海水

身州了

大寺洞面 初竟

豆峙面 初竟

吾山面 初竟

郡内面 初竟

未邊面 初竟

馬山面 初竟

蘆吉面 初竟

永豐倉面 初竟

大山面 初竟

栗串面 初竟

仁政面 初竟

文智畝面 初竟

地谷面 初竟



海美縣城郭周圍四千三百方尺

民戶二千三百四十七戶

田三千三百四十七結五東

苗一千三百三十四結八十四上東

穀物棍數

會付米六斗

末捧八百十四斗

皮穀一石四斗

末捧五百六十五石六斗

軍兵棍數

監營軍三十一名

兵營軍六十四名

左營鎮東伍軍三百零五名

舟師東伍軍二百零六名

安興鎮東伍軍七十名

方橋山 慈門山

白岳山 江堂山 備

備在布守故添



東距 德山界十里

西距 瑞山界十里

南距 洪州界二十里

北距 唐津界二十里

東面 初竟三里

一道面 初竟三里

二道面 初竟三里

益意面 初竟三里

西面 初竟三里

南面 初竟三里

防船一隻

兵船一隻

伺候船一隻

서산시지 편찬위원 및 집필위원

● 서산시지 편찬위원회

김기홍 (시장, 위원장)
김관기 (시의회의장)
신서균 (부시장, 부위원장)
우상훈 (시의회부의장)
홍성배 (문화공보담당관)
이해준 (공주대 교수)
김현구 (서산문화원장)
김기풍 (서산향토사가)
이은우 (국편지방사료조사위원, 전천안시
립중앙도서관장)
신상찬 (국편지방사료조사위원)

● 집필책임자 및 집필자

제1책 서산의 지리

이문중 (집필책임자 : 공주대학교 지리학
과 교수)
이은우 (국편지방사료조사위원, 전천안
시립중앙도서관장)
정환영 (공주대학교 지리학과 교수)
최원희 (공주대학교 지리학과 교수)
홍춘표 (공주대학교 화학과 교수)
강현규 (공주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

제2책 서산의 역사

이해준 (집필책임자 : 공주대학교 사학과
교수)
이남석 (공주대 박물관장)
유원재 (공주교육대학교 교수)
문수진 (신구전문대 교수)
지수걸 (공주대학교 역사교육과 교수)

제3책 서산의 정치와 행정

이준원 (집필책임자 : 공주대학교 지방행
정학과 교수)
이덕연 (공주대학교 법학과 교수)

제4책 서산의 산업과 경제

이문중 (집필책임자 : 공주대학교 지리학
과 교수)
이철성 (건양대학교 교수)

제5책 서산의 민속문화

구중희 (집필책임자 : 공주대학교 국어교
육과 교수)
김삼기 (국립민속박물관 학예연구사)
양종승 (국립민속박물관 학예연구사)
유병환 (공주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
강현규 (공주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
이형우 (공주대학교 강사)

제6책 서산의 현대문화

이은우 (국편지방사료조사위원, 전천안
시립중앙도서관장)
문권혁 (서산 향토문화연구회장)
신상찬 (서산향토사가)
오윤희 (한서대학교 교수)

제7책 서산의 문화유적

이남석 (집필책임자 : 공주대학교 박물관장)
이해준 (공주대학교 사학과교수)
서정석 (충남발전연구원 연구원)
이 훈 (공주대학교 박물관 학예연구사)
조원창 (충남매장문화재연구소 연구원)
이현숙 (충남매장문화재연구소 연구원)

제8책 서산의 자람

윤용혁 (공주대학교 역사교육과 교수)
조규익 (승실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구중희 (공주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
김현구 (서산문화원장)
이해준 (공주대학교 사학과 교수)
김종윤 (서산시 문화관광계장)
김용래 (서산시 문화재계장)

● 윤문 및 교열위원

김현구 (서산문화원장)
김기풍 (서산향토사가)
이은우 (국편지방사료조사위원, 전천안시
립중앙도서관장)
문권혁 (서산향토문화 연구회장)
신상찬 (국편지방사료 조사위원)

목 차

제1절 선사시대의 서산

1. 구석기·신석기시대의 서산	19
2. 청동기시대의 서산	22
3. 원삼국시대(原三國時代)의 서산	28

제2절 백제시대의 서산

1. 백제의 서산지방 점령	34
2. 백제 웅진도읍기의 서산지방	38
3. 백제 사비도읍기의 서산	41
2. 백제시대 서산의 행정구역	43

제3절 통일신라~고려시대의 서산

1. 통일신라시대의 서산	46
1) 통일후 제도정비와 서산	46
2) 신라하대의 서산	51
2. 후삼국의 정립과 서산	52
1) 최치원(崔致遠)과 부성군(富城郡)	52
2) 통일전쟁과 서산	54
3. 고려초의 서산지역	56
1) 고려의 제도정비와 서산	56
2) 조운제도와 서산	60
4. 고려시대 서산지역의 불교	63
1) 선종(禪宗)의 발달과 서산	63

2) 법인국사 탄문과 보원사	66
5. 고려후기의 서산	70
1) 무신집권기의 서산	70
2) 원 간섭기의 서산	72
3) 삼별초, 왜구의 침탈과 서산.....	77

제4절 조선시대의 서산지역

1. 조선의 군·현제도 개편과 서산	82
1) 「세종실록 지리지」의 기록	83
2) 「동국여지승람」의 기록	88
2. 서산에 설치된 국가의 시설들	96
1) 향·소·부곡	96
2) 역원과 봉수	99
3) 진영	101
3. 조선전기의 서산지역 성씨와 인물	106
1) 지리지에 나타나는 성씨들	108
2) 서산의 토착성씨	112
4. 「조선왕조실록」에 보이는 조선전기 사회상	118
5. 서산지역의 사족 활동과 의병	124
1) 서산지역 사족 동향	124
2) 왜란·호란과 의병활동	132
6. 조선후기의 사회변화	137
1) 왜란직후 혼란의 수습	137
2) 임란이후의 이거성씨들	141
3) 서산사족의 성장과 활동	145
4) 조선 후기의 서산지역 사회상	152
7. 18세기 말~19세기 전반	177
1) 세도정권과 농민항쟁	1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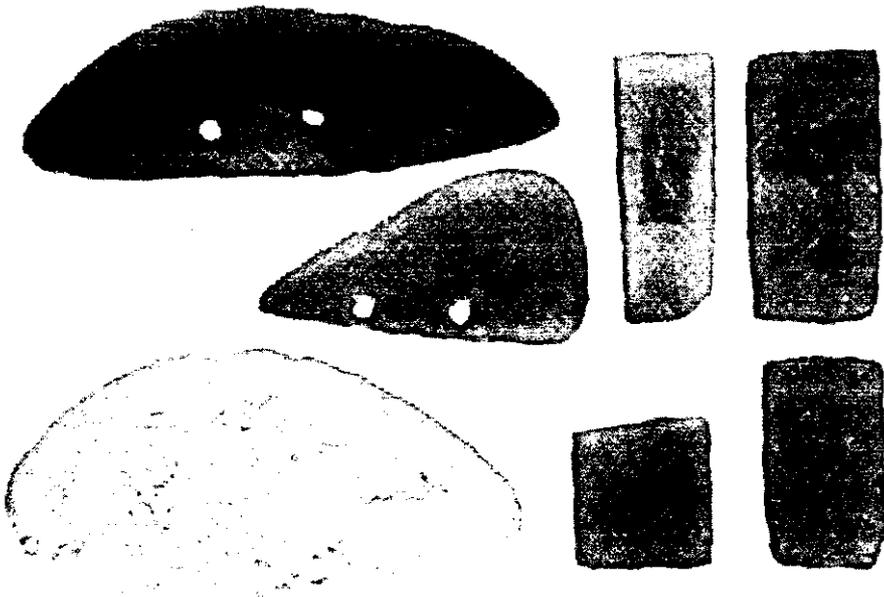
2) 대원군 정권과 이양선의 출몰	180
--------------------------	-----

제5절 근현대사와 서산지역

1. 구한말의 서산	185
1) 행정구역	185
2) 인문지리환경	186
3) 서산의 동학농민전쟁과 의병전쟁	197
2. 일제하의 서산	211
1) 일제시기 서산의 인문지리 환경	211
2) 서산의 농업과 상공업	225
3) 서산의 대지주와 ‘관료 - 유지 지배체제’	231
4) 일제 시기 서산의 민족운동	252

제1절 선사시대의 서산

1. 구석기·신석기시대의 서산
2. 청동기시대의 서산
3. 원삼국시대(原三國時代)의 서산



(집필자 : 이남석)

제1절 선사시대의 서산

충남의 서북부에 자리하고 있는 서산지역은 해수면이 얇은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데다가 리아스식 해안선을 이루고 있어 선사시대 이래로 문명 형성의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다. 따라서, 이 지역에서는 이미 선사시대부터 찬란한 문명을 꽃피워왔으며, 역사시대에 들어와서는 중국과 가장 가까운 지리적 조건으로 중국의 선진 문물을 수입하는 창구가 되었다. 또한,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에는 삼남지방(三南地方)의 조세미(租稅米)를 개경(開京)과 한양(漢陽)으로 운송하는 조운로(漕運路)의 중요 경유지중 하나가 되었다. 이렇게 볼 때 서산지역은 선사시대 이래로 우리 역사의 한 가운데에 서 있었으며, 그로 인해 민족의 흥망성쇠를 결정하였던 지역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서산지역의 발자취를 선사시대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일목요연하게 살펴보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지만 서산지역의 발자취를 체계적으로 이해할 만한 관련 자료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몇몇 안되는 기록마저도 극히 단편적인 사실만을 전하고 있어 역사적인 변천 과정을 입체적으로 이해하기에는 많은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서산지역의 역사적 변천 과정을 전하고 있는 『新增東國輿地勝覽』에 의하면 삼국시대 이래로 서산지역에는 4개의 군현이 있었다. 기군(基郡)과 지육현(知六縣), 여촌현(餘村縣), 우견현(牛見縣) 등이 그것인데, 이 4개의 군현이 오늘날처럼 서산시 하나로 통합된 과정에 대해서는 매우 간략하게 설명되어 있다. 예컨대 기군(基郡)같은 경우

“본래 백제의 기군(基郡)이었는데, 신라에서 부성(富城)으로 고쳤으며, 고려 충렬왕 10년에 읍 사람 정인경(鄭仁卿)이 공로가 있어 서산(瑞山)으로 고친 다음 지군사(知郡事)로 승격하였고…조선 태종 13년에 지금의 이름으로 고쳐 군(郡)으로 하였다”

라고 설명하고 있다. 다른 3개의 현(縣) 역시 백제 때의 명칭과 고려시대 때의 명칭, 그리고 조선시대에는 주변지역과 통합되면서 오늘날처럼 바뀐 명칭 등이 간략하게 나열되어 있다. 이처럼, 서산지역의 변천과정을 전하는 문헌기록은 서산의 지명이 어떻게 변화해서 오늘날의 명칭으로 되었는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설명이

가능하지만 그렇게 명칭이 변하게 된 이유라든가, 주변지역과 분리, 혹은 통합되는 이유 등에 대해서는 별다른 설명이 남아 있지 않다. 다시 말해서 백제시대의 기군(基郡)이 시군 통합 이전의 서산시의 모체가 되며, 지육현은 오늘날의 지곡면(地谷面)·대산읍(大山邑)·성연면(聖淵面)·팔봉면(八峰面) 등 서산의 북부지역에 해당되고, 여촌현은 음암면(音岩面)·운산면(雲山面) 등 서산의 동부지역과 당진군의 정미면(貞美面)·대호지면(大湖之面)에 걸친 지역이며, 우견현은 해미(海美)·고북(高北) 등 서산의 동남쪽에 해당된다는 사실은 알 수 있지만, 백제시대 때 이렇게 4지역으로 분리된 이유라든가, 이들 지역이 당진군이나 홍성군 등과 분리되어 서산시로 된 이유에 대해서는 전혀 알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더구나, 백제 이전 시기에 대해서는 명칭조차도 정확히 알 수 없는 것 또한 사실이다.

물론, 이것은 서산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나라 대부분의 지역이 마찬가지 이기는 하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최근에 조사된 고고학적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선사시대의 서산지역의 모습을 살펴보고, 아울러 단편적이기는 하지만 여기 저기 남아 있는 사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백제시대 때 4개 군현으로 나누어져 있던 이유라든가, 이러한 4개의 군현이 오늘날 처럼 하나의 지역으로 통합되는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물론, 서산지역은 아직 고고학적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진 바가 없고, 발굴조사 또한 극히 미진한 상태이기 때문에 선사시대 서산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는 없다. 따라서, 자연히 선사시대 서산의 모습은 비슷한 환경의 다른 지역과 비교하면서 추정해 볼 수 밖에 없을 것이다.

1. 구석기·신석기시대의 서산

해방 전까지만 해도 일제 어용학자들에 의해 우리 나라의 구석기시대는 전면 부정되었다. 1935년에 함경북도 온성군 강안리(=종성군 동관진)에서 철도부설공사를 하던 도중 털코뿔이·털코끼리를 비롯한 추운지역에 어울려 살았던 옛짐승의 뼈와 두점의 석기가 발굴되었음에도 일본의 역사 보다 한국의 역사가 먼저 시작될 수 없다는 억지 논리로 구석기문화의 존재를 전면 부정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1963년에 함경북도 용기군 굴포리 서포항의 조개더미 유적에서 구석기 문화층과 석기가 찾아지고, 남한에서도 역시 1964년에 충남 공주군 장기면 석장리 유적이 조사되면서 구석기시대의 존재는 틀림없는 사실로 인정받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1980년대 이후 구석기유적에 대한 조사와 연구가 급증하면서 남북한 양쪽에서 발견된 구석기 관련 유적이 모두 28군데에 이르게 됨에 따라 이제 구석기시대

유적은 전국 각지에 분포해 있는 것으로 믿게 되었다. 아울러, 조사의 진전에 따라 단순한 석기나 동물의 화석을 수습하는 단계에서 벗어나 집자리의 흔적이라든가 사람화석, 인골, 꽃가루, 숯 등이 발견됨으로써 당시의 주거 환경과 얼굴 모습, 그리고 예술활동 등을 짐작해 볼 수 있게 되었으며, 석기 제작소라든가 열매, 씨앗, 짐승털 등도 발견되어 구석기인들의 생활 모습을 이해하는 데에 큰 진전을 이루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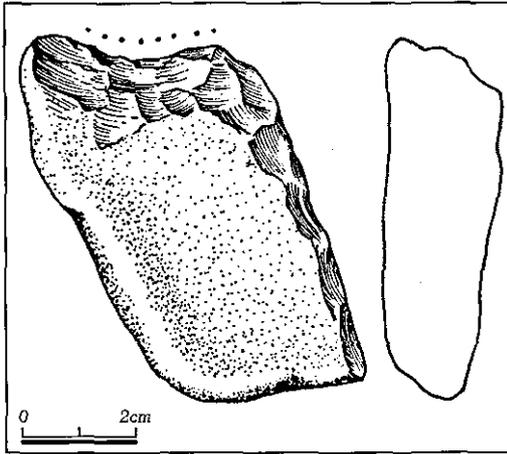
더구나 최근에는 출산지가 한정되어 있어 구석기유적에서는 좀처럼 찾아보기 힘든 흑요석과 같은 것도 발견되어 당시 사람들의 문화교류나 교역·이동 경로 등도 밝힐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사실은 해방 전의 사정과 비교하면 괄목할 만한 진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다양한 유적의 분포와 급진전한 연구 결과에 의해 이제 우리 나라의 어느 지역이나 해당지역의 역사적 변천 과정을 살펴볼 때에는 구석기시대까지 연원을 소급해 보는 것이 자연스럽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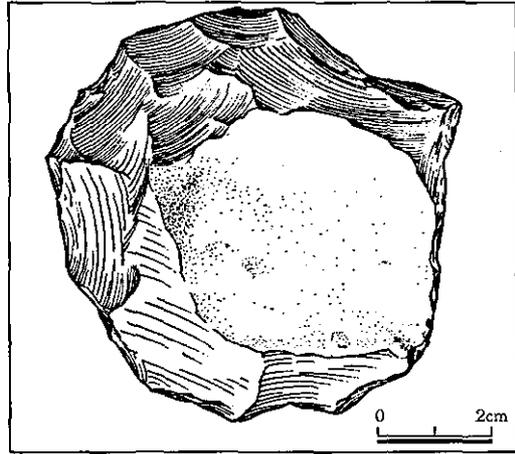
서산지역 역시 예외는 아니라고 하겠는데, 실제로 서산지역은 천수만과 가로림만 등을 끼고 있어 해안선이 발달해 있고, 넓은 평야가 시내 전역에 펼쳐져 있어 서산지역 역시 구석기인들이 활동하는데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서산지역은 지금까지 간단한 지표조사만 한 번 이루어졌을 뿐 별다른 조사 활동이 이루어진 바 없으며, 발굴 조사 역시 극히 일부지역에서만 한정적으로 이루어졌고, 그나마 구석기유적에 대한 발굴 조사는 단 한 차례도 이루어진 적이 없어 역사의 첫 장인 구석기시대의 문화 성격이나 특징을 제대로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다만,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지표조사를 통하여 구석기유물이 발견된 몇몇 유적이 있어 이를 통해 구석기시대 서산의 일단을 살필 수 있다.

서산지역에서 구석기시대 유물이 발견된 유적으로는 석남동 유적과 성연면 일남리 유적, 음암면 도당리 유적, 그리고 대산 대로리 유적 등을 들 수 있다. 석남동 유적에서는 오목날의 밀개가 수습되었으며, 일남리 유적에서는 격지와 잔손질이 많이 된 볼록날의 큼개가 수습되었고, 도당리 유적에서는 격지와 찌르개 등 2점의 석기가 수습되었다. 대로리유적에서도 찌개와 밀개 등 2점의 타제석기가 수습되었는데, 그 중 밀개는 445g 가량 되는 것이었다.

이처럼 서산지역에서 발견된 구석기시대유적은 매우 적은 수에 불과하지만 이는 역시 조사가 미비한 탓이며, 앞으로 조사 여하에 따라서는 더 많은 유적이 발견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음암 도당리 유적은 해안에서 멀리 떨어진 내륙 깊숙한 곳으로, 이곳에서도 구석기시대의 전통을 간직한 석기가 나오고 있다는 사실은 서산 지역의 구석기시대가 생각보다 훨씬 장기간 동안 펼쳐졌으며, 아울러 서산지역 전역이 구석기인들의 활동 무대였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러한 사실은 비록 지표조사에 의해 수습된 유물이기는 하지만 이 지역에서 수습된 유물들의 제작 수



〈그림〉 석남동 출토 오목날 밀개



〈그림〉 일남리 출토 볼록날 규개

법으로 보아 중기 구석기시대까지 연대가 소급될 수 있다는 사실을 통해서도 어느 정도 뒷받침된다고 하겠다. 또한, 이웃한 태안지역에서 발견된 “사냥돌”은 구석기 시대의 특징을 지닌 유물로, 당시 사람들의 사냥행위에 관한 일면을 살펴볼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되고 있으며, 역시 태안의 창리유적에서 발견된 소를 나타낸 형체 예술품은 당시 사람들의 살림살이에 동물이 차지하는 비중과 당시인들의 예술적인 감각을 짐작해 볼 수 있는 자료가 된다.

타제석기와 동굴유적을 특징으로 하는 구석기시대는 대체로 기원전 1만년 경에 끝나고, 뒤이어 등장하는 것이 신석기시대다. 우리나라의 신석기시대는 대체로 기원전 6천년 경부터 기원전 1천년 경까지 전개되었는데, 구석기시대가 식량채집 단계였다면 신석기시대는 식량생산시대였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으며, 이로써 구석기시대와 달리 정착생활을 하게 되었다는 사실 또한 전시대와는 다른 점이다. 뿐만 아니라 농경에 의해 생산된 식량을 요리·저장하기 위한 토기의 등장과 마제석기(磨製石器)의 성행도 구석기시대와 신석기시대를 구별하는 요소들이다.

그런데, 이러한 신석기시대의 개시와 구석기시대의 종말 사이에는 약간의 시간적인 공백이 있는 것이 사실이며, 그에 따라 우리나라 신석기시대의 문화를 담당한 사람들과 구석기문화를 담당한 사람들이 어떠한 관계에 있으며, 또한 이들이 어떠한 경로를 거쳐 한반도에 정착하게 되었는가는 아직도 정확한 설명이 어려운 상태이다. 그렇지만 신석기시대인들 역시 초기에는 강가나 해안가 등지에 살면서 어로(漁撈)나 수렵(狩獵), 채집(採集) 등으로 삶을 영위하였다고 보는데는 문제가 없으며, 다양한 형태와 문양의 토기를 남겨 시간의 흐름과 더불어 그들의 사고방식도 변화하였음을 전해주고 있다.

우리나라의 신석기 시대는 시대구분상 크게 신석기시대라고 분류하여 사용하지

만 이 시기에 사용된 토기의 형태라든가 토기에 시문된 문양에 따라 우리 나라의 신석기문화는 크게 4개의 권역으로 구분되면서 각지역은 시기에 따라 문화상 점진적인 변화양상도 나타난다. 우선 지역적 구분으로 동북한지역과 서북한지역, 중서부지역, 남해안지역 등이 그것인데, 지리적인 위치로 본다면 서산지역은 당연히 중서부지역의 문화권에 속할 것이지만 아직 이렇다 할 유적이 조사된 바 없기 때문에 구체적인 특징은 알 수 없다. 다만, 구석기유적과 마찬가지로 지표조사의 과정에서 신석기시대 유물이 발견되어 신석기시대 서산지역 모습의 일단을 짐작해 볼 수 있게 해 준다. 유물이 발견된 곳은 대산면 웅도리 유두목 마을인데, 이 곳에서는 신석기시대 전기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는 갈판과 갈돌이 발견되었다.

서산지역에서는 유두목 유적 한 곳에서만 신석기시대 유물이 확인되었지만, 이웃한 태안군에서는 안면읍(安眠邑) 고남리(古南里) 감나무골 등지에 신석기시대 패총(貝塚)이 남아 있는 것이 확인되고 있다. 이로써 볼 때 서산·태안지역의 신석기시대 유적은 강가인 내륙지역 보다는 바닷가에 분포하고 있는 것을 특징으로 꼽을 수 있으며, 이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이 시기에는 바닷물의 높낮이가 여러 차례 변화를 거친 시기였던 만큼 사람들도 바닷물의 높낮이에 따라 이동이 있었을 터인데, 이 때의 이동은 단순한 이동이 아니라 문화의 전파나 교류를 전제로 한 것이었다. 그런데, 이 지역은 한반도와 중국의 산둥·요동반도와의 중간에 해당되기 때문에 지형적인 특성상 문화의 교류·전파에 있어 중심적인 역할을 하였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이 지역의 신석기시대 문화는 중서부지역의 다른 신석기시대 문화와는 다른 특징을 구비하고 있을 가능성도 높다. 태안군 고남리 패총에서 발견된 매우 정선된 태토의 빗살무늬토기라든가 동체(胴體)에 구멍이 뚫려 있는 빗살무늬토기의 존재는 바로 이 지역 신석기문화의 특징을 잘 말해주는 것이라 하겠다.

2. 청동기시대의 서산

청동기시대라고 하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청동의 주조·생산이 이루어지고 그 사용이 보편화되기 시작되는 단계부터 말해야 하지만 현재 우리 나라에서는 무문토기의 사용이 청동기시대의 시작을 알려주는 또 다른 지표가 되고 있으며, 이로써 무문토기문화시대는 곧 청동기시대라는 생각이 보편화 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청동기시대의 상한 연대는 학자들에 따라서 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기원전 10세기 이전으로 보고 있다. 이 시기는 무문토기(無文土器)의 사용·살농사의 실시·거석분묘(巨石墳墓)의 출현·마제석기(磨製石器)의 활발한 사용과 정착취락

이 그 특색이며, 청동기문화는 이러한 문화적 기반위에 청동기가 수용되면서 나타나는 도구와 생활의 변혁을 특색으로 하고 있다.

이 시기의 유적은 주로 강을 따라 펼쳐진 평야를 앞에 둔 언덕진 곳에서 발견되고 있다. 이로 미루어 보아 청동기인은 빗살무늬토기를 사용하던 신석기인과는 달리 구릉지대를 무대로 생활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입지조건은 청동기인의 식생활이 농경에 크게 의존하고 있었음을 나타낸다. 청동으로 만든 농구는 발견되지 않고 있지만, 청동제의 도끼나 칼 같은 연모는 그들이 나무로 각종 농구를 만들었을 것임을 말하여 준다. 이미 벼농사가 이때에 시작된 것은 벼를 추수할 때 손에 쥐고 이삭을 자르는데 사용했던 것으로 보이는 반월형석도(半月形石刀)나 땅을 가는데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유구석부(有溝石斧)를 사용한 사실로써 알 수 있다.

이처럼 이 시기에 들어서서 농경의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한곳에 오랫동안 정주(定住)하며 취락을 형성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인구의 증가와 함께 생활 영역의 광역화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 시기의 유적이나 유물이 구석기·신석기 등 전 시기의 유적·유물에 비해 현저히 많이 눈에 띄는 이유도 바로 그 때문이다.

다음의 <표 1>에서 보듯이 발굴조사나 지표조사를 통하여 서산지역에서 지금까지 확인된 청동기시대 유적은 모두 23곳에 달한다. 생활유적인 주거지 2지역, 분묘(墳墓)유적인 고인돌 2지역, 유물산포지 13지역, 패총(貝塚) 3지역이고, 그 밖에 시대 미상의 선돌(立石)유적이 모두 6개 지역에서 확인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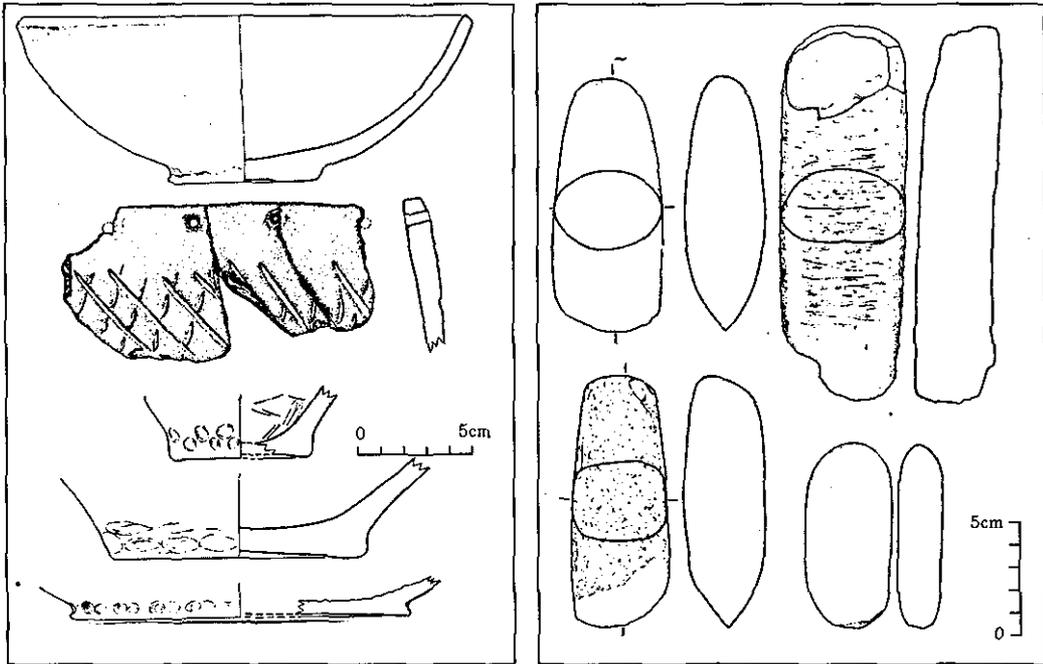
일단 유적의 수에 있어서 전시대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게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앞서서도 설명하였듯이 이 시기에 들어서서 이렇게 유적의 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은 역시 농경생활로 인한 인구의 증가와 생활의 여유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농경 생활이 이처럼 문화 활동을 촉진시킨 것만은 아니다. 농경의 발달로 잉여산물이 생김에 따라 문화 활동이 활발해진 반면에 한편으로는 이러한 잉여산물의 재분배 과정에서 이를 많이 소유하는 사람과 적게 소유하는 사람 사이에 사회분화가 이루어지게 되었고, 이러한 과정이 반복 되면서 부익부 빈익 빈 현상이 가중되어 지배자층과 피지배자층이 생겨나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의 양상은 이전시대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매우 큰 변화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시기에 들어서서 나타난 이러한 변화는 어떤 특정한 한 집단내에서만 발생한 것이 아니라 집단과 집단 사이의 관계에서도 나타나게 되었다. 즉, 한 집단 내에서 잉여산물을 많이 소유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이 생겨났듯이 집단과 집단간에도 많은 수확량을 거두어 잉여산물을 많이 소유하는 집단과 그렇지 못한 집단이 생기면서 집단간의 불균등한 발전이 야기되었던 것이다. 집단간에 나타나기 시작한 이러한 불균등한 발전은 보다 강력한 집단과 그렇지 못한 미약한 집단을 낳게 되었고, 마침내 강력한 집단이 약소한 집단을 병합하는 현상으로까지 발전하게 되었다. 이로써 종래의 씨족공동체사회는 붕괴되고 이제는 점차 강자와 약자가 구별되고, 이러한 구별

〈표 1〉 서산지역의 청동기시대 유적과 유물

	유 적 명	위 치	종 류	출 토 유 물
1	휴암리 주거지	해미면 휴암리	주거지	무문토기, 마제석기, 장신구
2	대로리 주거지	대산읍 대로리	주거지	무문토기편, 갈판, 마제석부
3	휴암리 무문토기 산포지	해미면 휴암리	토기 산포지	무문토기편
4	일남리 선사유물 산포지	성연면 일남리	석판묘(?)	석촉, 석검
5	오지리 선사유물 산포지	대산읍 오지리 1구	?	마제석부
6	소정 선사유물 산포지	고북면 신송리 소정	유물 산포지	마제석촉
7	초막골 선사유물 산포지	고북면 정자리 1구 초막골	〃	마제석촉
8	날새 선사유물 산포지	고북면 신상리 날새마을	〃	마제석촉
9	아래황골 선사유물 산포지	고북면 신정리 아래황골	〃	마제석기
10	예덕리 선사유물 산포지	성연면 예덕리 2구	〃	마제석기
11	소동 선사유물 산포지	운산면 소동리 1구 소동	〃	마제석촉
12	산막 선사유물 산포지	운산면 갈산리 1구 산막	〃	마제석검
13	진산 선사유물 산포지	팔봉면 진장리 1구 진산	〃	마제석부
14	무장리 무문토기 산포지	지곡면 무장리 3구	토기 산포지	무문토기편
15	불당골 선사유물 산포지	음암면 신장리 불당골	유물 산포지	마제석촉, 마제석부
16	상노치 선사유물 산포지	음암면 상흥리 상노치	〃	마제석검, 마제석촉
17	강수리 선사유물 산포지	부석면 강수리 버드령치	〃	마제석기
18	남정리 선사유물 산포지	인지면 남정리 2구	〃	마제석기
19	토끼섬 패총	대산읍 운산리 토끼섬	패 총	토기편
20	호리 패총	팔봉면 호리	패 총	토기편
21	대죽리 패총	대산읍 대죽리	패 총	토기편
22	둔당리 고인돌	인지면 둔당리 둔당1구	고 인 돌	석촉
23	남정리 고인돌	인지면 남정리 정동(공세골)	고 인 돌	

이 고정화 되는 계급사회로 이행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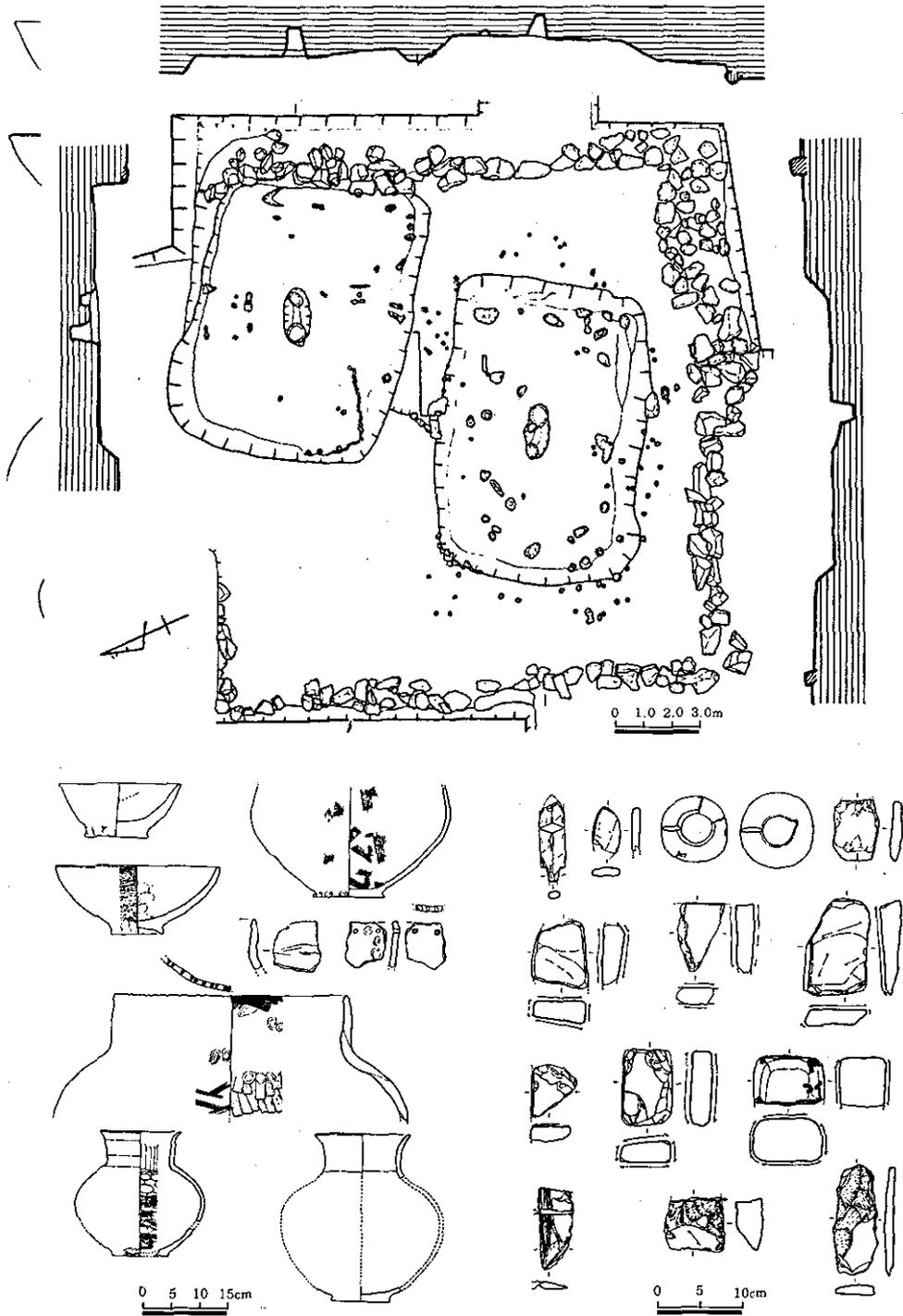
이 시기 들어 나타나기 시작한 이러한 불균등한 발전과 그로 인한 집단간의 긴장 관계는 그들의 주거지에서 찾아볼 수 있다. 예를 들어 대산읍 대로리 주거지는 비록 정식 발굴 조사를 거친 것이 아니고 간단한 수습조사에 그친 것이기는 하지만 이 시기 다른 지역의 집터와는 달리 산의 경사면을 이용하여 높은 지대에 위치하고 있는 사실이 주목된다. 이러한 입지조건은 농경의 비중이 높았던 이 시기의 일반적인 주거 환경과는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보령군 오천면 교성리에서 발견된 주거지와 더불어 소위 “고지성집락(高地性集落)”이라고 불러야 할 것인데, 이러한 고



〈그림〉 대로리 주거지 출토유물

지성집락이 나타나는 것은 바로 위에서 설명한 집단간의 긴장관계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서산지역 역시 청동기시대 후기에 들어 집단간의 갈등관계가 야기되고 있었음을 짐작해 볼 수 있으며, 이는 또한 반대로 이 시기에 서산지역에는 여러 집단이 자리하고 있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결국, 백제시대에 이 지역에 설치된 4개의 군현(郡縣)은 청동기시대 이래로 이 지역에 뿌리를 두고 성장한 여러 집단들 중 유력 집단을 바탕으로 한 것이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아직 이 지역의 청동기시대 유적·유물은 제대로 조사되지 못해 청동기시대에서 백제로의 발전 과정을 명확하게 밝힐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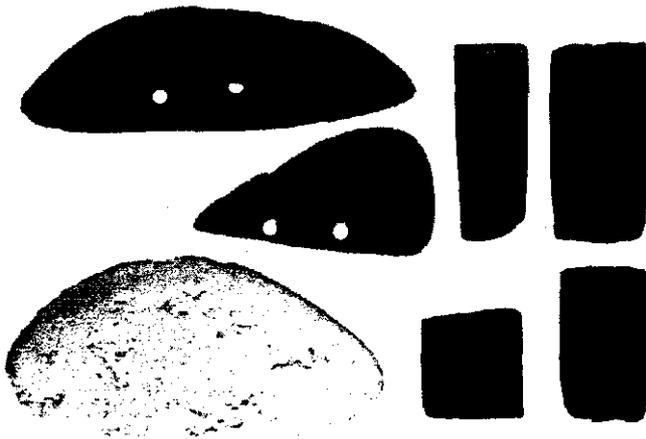
한편, 서산지역의 청동기문화를 살펴보면 빼 놓을 수 없는 것이 해미면에서 발견된 주거지유적이다. 이 휴암리유적은 1967~1970년에 4차에 걸쳐 국립박물관 조사반에 의하여 발굴되었는데, 10여 채의 수혈주거지(竪穴住居址)가 확인되었다. 주거지의 평면 형태는 대부분이 장방형이지만 그 중에는 원형(圓形)의 것도 있어 주목을 끌었다. 지금까지 확인된 청동기시대 주거지는 경기도 이북과 영남 등 우리나라 대부분 지역에서는 장방형의 주거지가 확인되고 있는 반면에 충남과 전북, 전남에서만 원형 주거지가 확인되고 있다. 그런 점에서 해미면 휴암리의 원형 주거지는 우리나라에서 확인된 최초의 원형 주거지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원형 주거지는 존속 시기라든가 분포 범위로 보아 장방형 주거지와 더불어 우리나라 청동기문



〈그림〉 휴암리 주거지 평면도 및 출토유물



〈그림〉 민무늬 바리토기
해미면 휴암리 출토
(부여박물관 소장)



〈그림〉 반달 돌칼도끼, 숫돌
해미면 휴암리 출토
(부여박물관 소장)

화를 꽃피운 양대 산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원형 주거지가 갖는 이러한 중요성에 입각하여 학계에서는 “해미형주거지(海美型住居址)”라고 부르고 있다. 해미형주거지는 구조적인 특징과 분포 범위를 통해서 볼 때 장방형 주거지에서 점진적으로 변천한 것이 아니라 우리 나라 이외의 인접지역에서 발달한 원형주거지 문화가 건너온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그런 점에서 서산지역은 원형 주거지 문화가 최초로 정착한 지역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역사시대에 들어서서 이 지역이 선진문물을 수입하는 창구(窓口)가 되었던 것은 결코 우연만은 아닌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청동기시대의 서산지역은 해미형주거지 문화를 최초로 수용하고, 이것을 다시 남쪽으로 전파시킨 문화의 선구자적인 지역이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원삼국시대(原三國時代)의 서산

원삼국시대란 청동기시대와 삼국시대의 중간에 해당되는 시기로 서력 기원 개시 전후부터 시작하여 서기 300년 경까지의 약 3세기간을 가리킨다. 이 시기는 종래에 삼한시대(三韓時代)나 부족국가시대, 혹은 초기 철기시대 등으로 부르기도 하였는데, 삼국사기(三國史記)의 기록에 의하면 삼국이 이미 형성되어 있던 시기였던 만큼 삼한시대나 부족국가시대라고 하는 것은 옳지 않으며, 삼한시대라는 명칭은 또한 남한지역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타당치 않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시기는 삼국시대의 원초기(原初期), 또는 원사(原史) 단계의 삼국시대라는 뜻으로 원삼국시대라고 일반적으로 부르고 있다.

이 시기가 되면 앞선 시기인 청동기시대와는 사회 전반에 걸쳐 여러 가지 차이점이 엿보인다. 먼저, 이 시기에는 청동기의 실용성이 소멸되고 대신 철기가 크게 발달하여 널리 보급되기에 이른다. 이는 청동기시대에 청동기를 소유하던 것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철기를 소유할 수 있게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러한 철기의 보급은 곧바로 철제 농기구의 발달을 가져오게 되는데, 이로써 우경(牛耕)의 시작과 더불어 한층 발전된 농경시대를 맞이하게 된다. 특히, 벼농사는 이 시기에 들어서서 커다란 발전을 보이게 된다. 아울러, 이러한 공구의 변화와 짝하여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각종 생활문화도 바뀌게 되는데, 토기의 경우에는 종래의 무늬없는 연질(軟質)의 무문토기(無文土器)에서 보다 단단한 회색의 와질토기(瓦質土器)로 바뀌게 되고, 가죽 공예에 구멍을 뚫기 위한 것이라고 믿어지는 골각기(骨角器)도 나타난다. 묘제(墓制)에 있어서는 바로 앞선 시기인 청동기시대를 대표하는 고인돌이 소멸하고 대신 토광묘가 발달을 보이게 된다.

이 시기에 들어서서 나타난 이러한 사회 제분야의 변화는 자체내의 발전이라기 보다는 낙랑군(樂浪郡)을 통한 한문화(漢文化)의 자극의 결과라고 할 수 있는데, 전시대에 비해 획기적인 변화·발전을 보이게 된다. 그 결과 낙동강 하류에서 생산되는 철이 오히려 낙랑(樂浪)이라든가 일본으로 수출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원삼국시대의 유적들은 우리 나라 전역에서 조사되고 있는데, 영남지역에서는 김해, 양산, 동래, 고성, 창원, 성산 등지의 유적이 알려져 있고, 호남지역에서는 낙수리, 대곡리, 군곡리 등의 유적이 알려져 있으며, 중서부지역의 유적으로는 춘천의 중도, 가평 마장리, 양평 대심리, 수원 서둔동, 청주 송절동유적 등이 있다. 충남지역 역시 많지는 않지만 이 시기의 유적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데, 서천(舒川) 오석리(烏石里), 천안(天安) 청당동(淸堂洞), 공주(公州) 하봉리(下鳳里), 보령(保寧) 관창리(寬倉里)유적 등이 이 시기에 해당되는 유적들이다.

지금까지 발견된 이 시기의 유적 대부분이 분묘유적(墳墓遺蹟)이기 때문에 전

시대의 각각의 요소들이 어떻게 변화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불분명한 점이 많이 남아 있기는 하지만 지금까지 조사된 유적을 통해서 볼 때 몇가지 면에서는 뚜렷한 차이를 인정할 수 있을 듯하다.

예를 들어 일상 생활용기인 토기의 경우, 적갈색의 연질(軟質)에서 중국식의 회도(灰陶)기법이 가미된 회백색의 와질(瓦質)로 변화하고 있고, 토기의 표면에 무늬가 전혀 없던 무문토기(無文土器)에서 박자(拍子)를 이용한 승석문(繩蓆文), 격자문(格子文), 선문(線文) 등의 타날문(打捺文)이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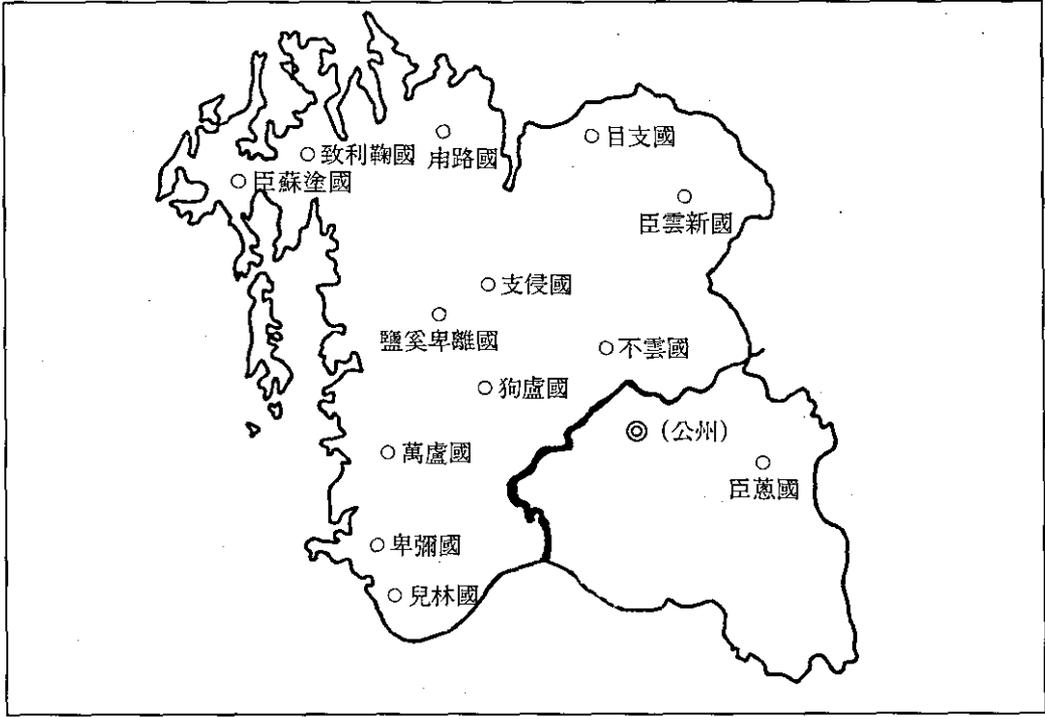
뿐만 아니라 철기의 경우에는 전 시대에 비해 그 양과 질적인 면에서 많은 발전이 있게 되며, 종류 또한 무기, 농경구, 공구류 등으로 다양해 진다. 그리고, 기술적으로도 이전 시기와는 달리 주조품 이외에 단조품도 등장하게 된다.

주거지의 경우에는 이전 시기부터 사용되어 오던 수혈주거지(竪穴住居址)가 주류를 이루고 있지만 지상가옥으로의 전환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들도 발견되는데, 예를 들어 김해(金海) 부원동유적(府院洞遺蹟)에서는 초석이 있는 주거지가 일반 수혈주거지와 함께 나타나고 있으며, 춘천(春川)의 중도(中島)에서는 강돌을 깔 뒤 그 위에 진흙을 덮은 새로운 양식의 화덕시설을 갖춘 집자리가 조사되기도 하였다.

이 시기에 들어서서 주목되는 변화는 역시 묘제(墓制)다. 즉, 이 시기에 고구려 지역에서는 대형의 적석총(積石塚)이 축조되고 있으며, 한반도 남부에서는 석곽묘(石槨墓)와 함께 토광묘가 주된 묘제로 자리하게 된다. 특히, 최근의 조사에 의하면 토광묘의 주변에 주구(周溝)가 둘러져 있는 특이한 형태의 주구토광묘(周溝土槨墓)가 이 시기부터 나타나고 있어 이전 시기와 뚜렷한 묘제상의 차이점을 보여주고 있다.

이 시기에 들어서서 나타나는 이상과 같은 여러 변화는 앞 시기와는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앞 시기와는 다른 좀 더 강력한 정치제의 존재를 상징하게 한다. 이러한 정치체를 가리켜 우리는 일반적으로 삼한(三韓)이라고 부르고 있거니와, 『三國志』나 『後漢書』와 같이 이 시기 우리 나라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중국쪽 사서(史書)에 의하면 이 시기 한반도 남부에는 마한(馬韓), 진한(辰韓), 변한(弁韓)이 자리하고 있었으며, 그 중 마한에는 54개의 소국(小國)이, 그리고 진한과 변한에는 각각 12개씩의 소국이 자리하고 있었다고 한다. 이들 삼한의 소국들은 큰 것은 1만 여가(萬餘家)로부터 작은 것은 600~700가(家)에 불과한 것에 이르기까지 그 규모가 매우 다양한 편이었으며, 2,000~3,000명 정도의 인구에, 크기는 대체로 오늘날의 군(郡)단위 정도의 세력 범위를 갖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또한, 이들 소국(小國)은 신지(臣智)나 읍차(邑借)와 같은 수장(首長)들에 의해서 통치되었으며, 토지가 비옥하여 벼농사를 짓고 오곡을 재배하는 토착농경사회의 구조를 하고 있었다.

이 시기에 서산이 어떠한 상황하에 놓여져 있었는가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



〈사진〉 충남지역내 마한 소국의 위치 비정도

로 밝혀진 바가 없다. 시내 전역에 넓은 평야가 펼쳐져 있고, 해안선이 발달해 있는 등 선사문화가 꽃필 여건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 시기에도 인류의 문화 활동이 폭넓게 이루어지고 있었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아직 조사의 미흡으로 그러한 구체적인 상황을 확인할 수 없다. 즉, 대산읍(大山邑) 대로리(大路里)의 청동기시대 주거지나 인지면 둔당리·남정리 고인들의 존재를 통해서 볼 때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서산지역에도 청동기시대에는 인류의 문화활동이 폭넓게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러한 사정은 원삼국시대에까지 간단없이 계속되고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사정을 짐작해 볼 수 있는 유적은 좀처럼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다만, 대산면 대로리2구 명지(明智)마을 고분은 원삼국시대에 서산지역에서 전개되었던 문화발전 양상을 짐작해 볼 수 있는 하나의 자료가 된다.

명지마을 고분군은 대산면 대로리 명지마을에 있는 토광묘군이다. 이곳에는 약 20 여기의 토광묘가 군집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 중 3기가 조사되었다. 조사된 토광묘는 길이 8m, 너비 7m, 높이 40cm 정도의 타원형 분구(墳丘)를 하고 있었는데, 환두대도(環頭大刀), 쇠스랑, 철부(鐵斧), 낫 등의 철제유물과 함께 원저토기(圓底土器) 등과 같은 토기류가 출토되었다.

이 토광묘는 시기적으로 삼국시대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원삼국시대

의 전통을 그대로 잇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원삼국시대 서산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는 자료도 된다. 즉, 토광묘라는 묘제는 마한(馬韓)의 다른 지역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환두대도의 존재는 이 지역의 수장층(首長層)이 강력한 정치체를 형성하고 있었음을 말해준다고 볼 수 있다. 아울러, 철제 쇠스랑과 낫의 존재는 이 지역이 이미 원삼국시대부터 농경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었음을 쉽게 짐작케 하며, 다양한 철기 유물과 함께 철정(鐵鋌)의 존재는 이미 이 시기에 제철 기술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음을 말해주는 것으로 보아도 큰 무리가 없을 것이다. 이처럼, 단편적인 자료에 불과하지만 명지리의 토광묘에서 출토된 유물을 통해서 볼 때 서산지역은 이미 원삼국시대부터 활발한 농경을 바탕으로 주변지역을 통합한 중심세력이 자리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마한의 54국 중 치리국(致利鞠國)이나 혹은 자리모로국(咨離牟盧國), 신소도국(臣蘇塗國), 염로국(用路國) 등을 서산지역에 비정하는 것은 이러한 사정을 반영하는 것이다.

제2절 백제시대의 서산

1. 백제의 서산지방 점령
2. 백제 웅진도읍기의 서산지방
3. 백제 사비도읍기의 서산
4. 백제시대 서산의 행정구역

제2절 백제시대의 서산

서산지역은 인문지리나 자연지리적으로 서해안의 가장 중요한 요충지로서 고대에서부터 한국사에 그의 역할을 다해왔다. 서해안으로 형성된 이 지역의 구릉지대와 하천의 발달은 선사시대부터 사람들에게 천혜의 생활 터전을 제공하였다. 오늘날 이 지역에서 많은 선사시대의 유적들이 발견되고 있는 것은 바로 그러한 역사와 문화의 모습을 흔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다. 마한으로 불려지는 초기 철기시대에도 그러한 중요성이나 생활 조건은 마찬가지로여서 이 지역에는 당시의 주요 지역 세력들이 존재하고 있었다고 추정된다. 이에 대하여는 앞장에서 살핀 바와 같다. 그러나 오늘날의 서산지역이 가장 활발한 역사활동의 무대로 본격 등장한 것은 역시 백제시대에 이르러서였다고 할 수 있다.

1. 백제의 서산지방 점령

그러면 이처럼 독자적이고 토착적인 문화를 형성, 발전시켜 왔던 서산지역이 백제에 편입된 것은 과연 어느 시기였을까? 또 그후 백제사에서 서산지역은 과연 어떠한 역할을 하게 되었을까?

우선 오늘날의 서산지역이 한강유역에서 건국된 백제에 의하여 어느 시기에 백제의 영토로 편입되게 되었을까 하는 문제부터 살펴보기로 하자.

백제는 마한 54개국중의 하나인 백제국(伯濟國)이 다른 소국들을 아우르면서 점차 고대국가로의 기틀을 이룩하였다. 한강유역에 위치하였던 백제소국과 같이 소국의 규모를 이룬 정치집합체로는 오늘날의 경기도·충청도·전라도 지역에 모두 54개가 위치하고 있었다고 전해진다. 그런데 『삼국사기』에 의하면 한강유역의 백제가 이러한 54개의 마한 소국들을 완전히 병합하여 백제의 영토로 편입시킨 시기를 백제의 시조인 온조왕 27년(A.D 9)으로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근래의 고고학이나 고대사연구의 결과물들에 의하면 이러한 『삼국사기』의 내용을 그대로 신빙할 수 없다는 의견들이 지배적이다.

왜냐하면 온조가 마한의 54개국을 모두 아울렀다고 기록하고 있는 시기에도 마한의 세력들은 독자적인 정치와 외교, 문화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흔적들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3세기 초기에 편찬되어진 중국의 『진서』에는 마한의 독자적인 역사활동들이 여러 군데에서 발견되고 있다. 아마도 이러한 사실은 백제의 역사를 편찬할 때 건국주의 위업을 과장하기 위하여 나타난 현상으로 생각된다. 백제가 어떠한 과정을 통하여 마한을 병합하였는가 하는 문제를 『삼국사기』에 의거하여 좀 더 상세히 살펴보면

온조왕 13년 : 웅천(熊川)으로 마한과 남쪽으로의 경계를 정함

온조왕 24년 : 웅천(熊川)에 책을 세워 마한과 분쟁을 일으켰으나 백제에서 양보함

온조왕 26년 : 마한을 습격하였으나 원산(圓山)과 금현(錦峴)의 두성이 항전을 계속함

온조왕 27년 : 원산과 금현성을 함락시켜 드디어 마한을 완전하게 멸함

온조왕 27년 : 대두산성(大豆山城, 아산지역)을 축조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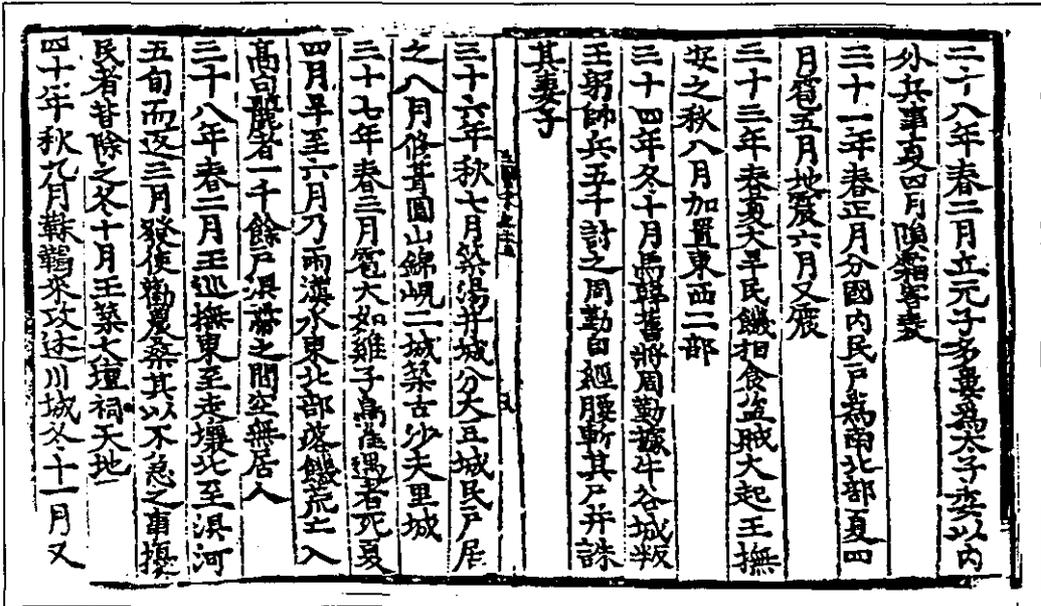
온조왕 34년 : 마한의 구장인 주근이 우곡성에서 반란을 일으켰으나 진압

온조왕 36년 : 탕정성(湯井城, 온양)을 쌓고 27년에 축조한 대두산성의 민호를 이주케 함

온조왕 36년 : 마한의 구성인 원산 금현성을 수리하고 고사부리성(古沙夫里城)을 쌓음

등으로 여러 기록이 보이고 있다. 이러한 『삼국사기』의 온조왕조의 백제와 마한의 관계 기사들을 통하여, 물론 그 시기의 문제는 남아 있지만, 백제의 마한 복속과정을 엿볼 수 있다. 다시말하면 사건의 발생 순서에 대한 유추는 분명 가능하다고 생각되는 것이다.

우선 백제가 고대국가로 성장하는데 있어 타개하여야 할 최대의 현안문제는 오늘날의 한강유역에 자리잡았던 백제를 동·남·북으로 둘러 싸고 있는 세력, 즉 북으로의 낙랑, 동으로는 동예, 남으로는 마한을 여하히 극복하느냐에 있었다. 한강유역에서 성장하기 시작한 백제가 이들을 극복하지 않고는 백제가 고대국가로 발전할 수는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백제는 이들을 슬기롭게 극복하였다. 특히 이들 중에서 가장 위협적이었으며, 어려웠던 극복의 상대는 역시 남에 위치하였던 마한의 세력이었다. 위의 『삼국사기』에 의하면 이러한 마한의 세력을 온조왕대에 이미 멸망시킨 것으로 기록하지만,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후대의 사서 편찬과정에서 유추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마한은 잘 아는 것처럼 54개의 소국으로 광범위하게 분포되었던 세력이다. 그리고 백제는 바로 이러한 마한의 54개국의 한 소국으로부터 출발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백제가 마한의 맹주국이었던 목지국의 세력을 누르



〈삼도〉『삼국사기』 온조왕 36년조 기사

고 명실상부한 백제국으로 성장하기 위하여는 많은 시간과 여러 역사적 사실들이 있었을 것이다.

백제가 우선 남쪽에 위치하고 있던 마한과 처음으로 국경상의 분쟁을 야기하는 곳은 바로 용천(熊川)이었다. 이때의 용천이 과연 어느지역을 가르키고 있는지는 아직도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지만, 그 뒤에 이루어지고 있는 탕정(온양) 등지에서의 경역 호학보와 관련되는 기록들을 토대로 한다면 오늘날의 안성천에 해당한다고 생각된다. 즉 백제는 오늘날의 안성천을 경계로하여 마한과 백제는 접경하였으며, 이곳에서 여러 형태의 분쟁을 맞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때의 분쟁은 백제의 일방적인 양보로 해결되고 있다. 그러나 백제로서는 마한의 세력을 온존시키고서 국가적 발전을 거둘 수 없는 처지였기 때문에 이후로도 마한에 대한 공격을 집요하게 계속하였고, 급기야 마한을 멸망시키고 오늘날의 아산지방에 있었다고 추정되는 대두산성(大豆山城)을 쌓고 마한과 경계를 이루었다. 그후 온조왕 36년에는 다시 남으로 탕정성(湯井城, 온양)을 축조하고 있다. 그런데 백제의 이러한 남쪽으로는의 진격이 온양지역에 이르른 이후에는 더이상 남쪽으로는의 영토 확장사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 점은 매우 주목할 사항인데, 이후에는 남쪽으로는의 영토확장이 아니라 동쪽으로는의 대대적인 영토확장이 이루어지고 있었기 때문이 아니었나 추정된다. 그것은 이 시기에 남쪽으로는의 영토확장이 소기의 목적을 어느 정도 달성했다고 보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런데 서산지역과 관련하여 우리는 여기에서 온양지역을 경계로 하였던 당시의 사정을 유념하여 볼 필요가 있다. 온양은 바로 차령과 금강으로 지형이 남과 북으로 분명히 갈라지는 곳으로 그만큼 전략적으로도 중요한 지역이다. 이러한 사실들은 백제가 마한의 세력을 아우르면서 남으로의 영토확장 과정이 오늘날의 차령과 금강이라고 하는 자연지형을 경계로 일시 경계선이 형성되어있었던 사실들을 알게 한다. 과연 한강유역에서 성장하기 시작한 백제가 어느 시기에 이르러 남으로 오늘날의 차령과 금강의 지역에 이르게 되는가 하는 문제는 자세하게 알 수 없다. 물론 그 시기가 『삼국사기』가 기록하는 바처럼 이미 온조왕대에 이루어졌던 것으로는 생각하기 어렵다.

이에 대하여 좀더 구체적으로 기록을 검토하여 보자. 중국측 사서인 『진서』 등에 의하면 마한활동이 3세기대에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었고, 근래에 이루어진 고고학적 연구 성과들도 『삼국사기』의 기록내용과는 배치된다. 더욱이 『삼국지』에는 한(韓)과 중국군현과의 전쟁기록이 보이는데, 이에 의하면 오늘날의 직산·천안지역에는 아직도 마한의 중심세력인 목지국이 도사리고 한(漢)의 세력과 대항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적어도 3세기 말까지는 백제가 직산·천안지역까지 이르지 못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그후 백제의 고이왕대에 이르면 이러한 중국의 한세력과 마한의 전쟁의 와중에서 백제는 세력이 약화된 마한의 중심세력인 직산·천안지역의 목지국 세력을 누르고 그의 영토를 차지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사실을 더욱 신빙성있게 하는 것은 『삼국사기』에 고이왕을 제2의 건국주로 기술하고 있다는 점이다. 고이왕대에 이르면 이전에 계속하여 수세에 처하였던 말갈의 세력을 누르고 우세를 확보하기도 하였을 뿐만아니라 북으로 낙랑과 대방을 집요하게 공격하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사실들은 바로 고이왕 27년의 제도정비로 나타나게 되었던 것이다.

고이왕은 동에 위치하여 계속적으로 침략을 자행하여온 말갈의 세력을 누르고, 북으로 한사군에 대하여도 공격을 계속하여 성과를 거두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고이왕의 동이나 북으로의 영토확장은 그 보다 더욱 시급하였던 마한과의 관계를 정리하지 않고는 불가능하였다고 생각되며, 그런 점에서 그 시기에 마한과의 관계 또한 일단 정리된 것이 아닌가 추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백제가 오늘날의 차령과 금강에 이르는 지역을 확보한 것은 적어도 백제의 고이왕을 전후한 시기로서 이해된다. 즉 3세기말, 4세기초에 이르러야 가능하였다고 판단된다.

백제가 이처럼 차령과 금강의 지역을 경계로 하게 되었던 시기에 서산지역도 그 예하에 복속되었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즉 오늘날의 서산지방이 백제의 중심세력과 연계되어 영토로 편입되는 것은 3세기 경에 이르러서 가능하였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서산지방이 백제에 의하여 점령당하기 이전에도 이지방에는 선주한 세력들이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과연 이들이 어느세력인지에 대하여 그리고 그의 규모 등에

대하여는 현재로서는 자세하게 알 수 없다. 이제까지의 연구에서 서산지역에는 마한의 54개 국가운데 치리국(致利鞠國)이 존재하였다고 지적된 바가 있으나, 사실 그 구체적인 근거들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에 대한 정확한 연구는 이 지역의 당시 문화유적에 대한 발굴조사나 유물의 발견을 통한 앞으로 연구에 기대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서산지역에 구전되는 바로는 치리국국이 있었다고 비정되는 서산시 지곡면 산성리 부성산을 중심으로하는 반경 2km 이내에는 부족국가가가 있었던 것을 확인시켜주는 지명등이 너무나 많다. 예컨대 대궐재, 망군말, 두령당이, 관장골, 피난뫼, 솔대백이, 가말골[寺村], 탑산, 닷개, 두령땡이, 전구령목, 옥터밭, 왕산이, 쇠땡이 등등이 바로 그것이다.

2. 백제 웅진도읍기의 서산지방

백제는 한강유역의 한성에서 5세기동안 고대국가로서의 위세를 떨쳤다. 그러나 북에서 성장한 고구려의 남침으로 인해 도읍을 웅진으로 옮겨야 했다. 고구려의 장수왕은 백제의 개로왕을 공격하여 한성을 함락시킴과 동시에 개로왕을 사로 잡아 죽이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문주왕은 신라에 응원군을 요청하여 한성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미 한성은 점령당하였고, 개로왕은 죽음을 당한 뒤였다. 이에 문주왕은 나머지의 세력을 수습하여 오늘날의 공주인 웅진으로 도읍을 급히 천도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문주왕이 웅진으로 천도를 단행하게 되었던 이유 가운데서 가장 큰 이유는 아마도 웅진의 전략적 이점에서 비롯되었던 듯하다. 당시의 최대의 현안 문제는 바로 고구려의 남침위협이었다. 이러한 고구려의 위협을 막아낼 수 있는 지역은 바로 북으로 차령이 가로막고, 동으로는 계룡산이 막아주고 다시 이 사이를 급강이 차단하고 있는 웅진이 바로 가장 적합한 천도지점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백제의 웅진천도 시기는 고구려에 의한 불의의 천도로, 웅진에 도읍을 정하고 있을 당시의 백제사는 실로 어려움의 연속이었다. 정치적, 경제적인 기반을 갑자기 잃어버린 백제의 왕권은 불안정하였고, 여기에 더하여 천도 직후에는 병관좌평이었던 해구의 전횡으로 더욱 불안하였다. 해구는 왕권의 불안정을 틈타 국권을 전횡하였으며, 급기야는 문주왕을 시해하기도 하였다. 뒤를 이은 삼근왕대에 이르러서도 정치적인 불안은 계속되었다. 웅진도읍기에 어느 정도의 정치적 안정을 이루게 된 것은 바로 동성왕대에 이르러서였다. 동성왕은 왕권의 안정을 도모하였을 뿐만아니라 도성제를 갖추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그림〉 부성산성 전경

그러나 웅진은 고구려의 남침에 대적하기 위하여는 좋은 위치이지만 한 국가의 도읍지로서는 너무나 협소한 지역이었다. 그리고 금강이 범람하면 웅진시의 민가를 침수시키는 등의 도읍지로서 적합하지 못한 곳이었다. 그러므로 동성왕은 도읍을 사비로 옮길 계획을 수립하고 그의 계획을 진행하게 되었다. 그러나 도읍을 옮긴다는 것은 당시의 귀족들에게는 상당한 이해관계가 내재되어 있었다. 이러한 귀족들의 이해관계에서 동성왕은 사비지역의 가장 요충지인 가림(임천)에 성을 축조하는 과정에서 백가에 의하여 시해를 당하게 되었다. 그러므로서 동성왕의 사비천도 계획은 좌절되고 말았던 것이다. 동성왕의 뒤를 이은 무령왕은 백제가 고구려에 의하여 웅진으로 불의의 천도를 단행한 이후 실추되었던 동북아시아사상에서의 국제적인 지위를 다시 만회하였다. 그러므로서 백제가 다시 동북아시아의 강자로 등장하는 계기를 만들게 되었던 것이다. 즉 무령왕은 양에 사신을 보내 백제가 다시 어려움을 수습하고 강국이 되었음을 알리고 또한 양에서도 이를 인정하여 무령왕에게 영동대장군(寧東大將軍)에 봉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이때는 잠잠하였던 고구려가 다시 말갈의 세력을 앞세우고 백제의 북경을 위협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방비를 위하여 사비로의 천도는 이루어 질 수 없었다. 무령왕이 이룩한 이러한 국내외적으로 안정은 뒤를 이은 성왕에게 사비천도의 여건을 조성하여 주었다. 성왕은 주도면밀한 사비천도의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실행하였으니 538년 드디어 백제의 사비도읍은 이루어진다.

이러한 웅진도읍기의 정치적인 변화는 서산지방의 통치력에도 심대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었다. 백제가 웅진으로 도읍을 천도한 이후 북쪽으로 형성된 국경이 과연 오늘날의 어느 지역일까 하는 문제에 대하여 자세하게 알 수 없다. 그러나 당시 고구려에 의하여 한강유역의 중심지인 한성이 함락되었으며 또한 웅진으로 천도한 백제는 왕권의 불안이라는 최대의 위기에 처해 있었던 점을 감안한다면 오늘날의 서산지방은 웅진도읍 초기에는 고구려세력과 대치하고 있던 접경지역이 아니었을 까 한다. 이러한 웅진초기의 서산지방에 대한 백제의 약화되었던 통제력은 동성왕대의 왕권 안정과 무령왕대의 국제적 지위의 확보가 이루어진 시기부터는 다시 통치력이 회복되었을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동성왕과 무령왕대에는 한강유역과 위천(葦川)에서 무녕왕(武寧王) 12년(512)에 무녕왕이 고구려를 대파시켰다는 기록에서 수차 고구려세력을 격파하고 있는 사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즉 웅진도읍기의 말기에는 서산지방은 다시 백제의 통치력이 미쳤을 뿐만아니라 고구려에 대한 방어선의 일부로서 그의 역할을 다하였다. 이러한 사실들은 오늘날 서산지방에 남아있는 백제시대의 많은 산성들이 이를 입증하고 있다. 그러나 이보다도 이곳에서 서산지방과 관련하여 주목하여야 할 것은 바로 중국과의 교통로로서의 중요성의 부각이라 할 수 있다. 백제의 웅진천도는 백제와 중국관계에도 변화를 초래하였다.

서산 부성산 산상에 있는 토미성(吐美城 : 基城)은 백제의 최 서북단 국경 요충지에 건축된 성터 유적으로서 부근의 닷개(碇浦)는 대당 무역의 거점이었을 가능성이 크다.(1927년 발행된 서산군지의 기항포(寄航浦) 기록에는 지곡 산성리 닷개포에서는 지나염(支那鹽)과 어염(魚鹽) 등의 대중국무역이 최근년까지 이루어졌음을 알리는 기록이 있어 이는 중요 전거로 뒷받침되고 있다)

당시의 대중교통로는 황해를 횡단하는 루트가 아니라 연안을 따라 중국에 이르는 연안로였다. 이러한 사실은 웅진으로 천도한 문주왕은 우선 백제의 고구려 남침과 이에 따른 웅진천도 등의 위급함을 동맹국이었던 중국의 남조에 알리는 사실이었다. 그래서 문주왕은 천도의 이듬해에 사신을 중국에 파견하였으나 고구려 병사들이 이를 방해하여 도달하지도 못하고 돌아온 일이 있다. 그러므로 금강의 중심지인 웅진으로부터 중국에 사신을 파견하거나 문물의 교류가 이루어지기 위하여는 바로 오늘날의 서산지방의 연안을 통해야만 했다. 그렇지 않으면 육로로 서산지방에 까지 이르러 배를 이용하기도 하였다. 그러므로 웅진천도 이후의 서산지방은 대중국의 교통로로서 그의 중요성이 부각되기 시작하였던 것이다.



〈사진〉
서산 운산마애삼존불

3. 백제 사비도읍기의 서산

5대 63년간의 웅진도읍기는 성왕 16년인 538년에 오늘날의 부여인 사비로 도읍을 다시 옮김으로서 끝나고 새로운 사비시대가 개막된다. 웅진은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고구려의 남침을 저지하기 위한 지역으로서의 적합한 지역이었으나 고구려의 위협이 해소된 이후에는 너무나 협소하여 한 국가의 도읍지로서는 적합하지 않았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성왕은 사비로의 천도를 단행하게 되었던 것이다. 성왕이 사비로 도읍을 천도한 이후에 국가의 이름을 남부여라고 고쳤는데, 여기에서 성왕의 새로운 천도의 의지를 살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성왕의 사비천도는 한성에서의 웅진으로의 천도와 성격을 달리한다. 다시 백제가 중흥을 이루기 위한 의욕의 산물인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백제 성왕의 노력은 신라의 배반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즉 이제까지 이루어진 고구려의 남진을 백제와 신라는 소위 라제동맹에 의하여 저지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고구려가 신라를 침입하자 백제는 원군을 보냈으며, 또한 고구려가 백제를 침략하자 신라에서 구원군을 보내오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동맹의 관계가 신라의 진흥왕의 배반으로 무너지고 말았던 것이다. 즉 신라의 진흥왕은 백제와 함께 수복한 한강유역을 독차지하고 이곳에 신주(新州)를 설치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신라의 배반행위는 백제로서는 참지 못할 중대한 사건이었다. 그러므로 백제의 성왕은 그의 책임을 묻기 위하여 신라를 습격하기에 이른다. 그러나 오히려 성왕은 구천의 전투에서 사로잡혀 죽음을 당하게 되었다. 이러한 백제 성왕의 신라에 의한 죽음은 백제사의 앞으로의 전개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게 되었던 것이다. 즉 모든 백제의 국력은 신라에 대한 보복의 차원에서 이루어졌던 것이다.

뿐만아니라 이시기의 백제는 신라와의 동맹의 결렬로 아직 상존하고 있던 고구려의 남진과 신라와의 불화로써 대외적인 어려움을 맞이하게 되었다. 이러한 대외적인 어려움을 백제는 중국과의 외교로서 해결하려 하였다. 백제는 이제까지의 대중국관계를 중국의 남조국가들에 한정시키고 있었지만 이 때에 이르러 이러한 외교상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백제는 중국의 북조국가들에게도 외교관계를 맺게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성왕의 뒤를 이은 위덕왕대의 활발한 대중국관계에 잘 나타나고 있다. 즉 중국의 북조와의 연결로 상존하고 있는 고구려의 견제를 이룩하려 하였다.

그러나 백제의 사비천도 이후 중국과의 관계를 이룩하기 위하여는 중국에 빈번한 사신의 파견이 이루어져야 했다. 오늘날의 서산지방은 이 때에 중요한 하나의 대중국 루트가 되었던 것이다. 한강유역을 신라에 의하여 다시 빼앗긴 상태에서 한강을 이용하기는 불가능하였다.

그리고 당시의 대중국 루트라고 하는 것이 황해를 직접 횡단하는 것이 아니라 고구려 연안을 따라 항해하여 중국에 이르렀던 것이다. 그러므로 한강을 빼앗긴 상태에서는 금강을 이용하여 군산 장항지역까지 내려가서 다시 북으로 항해하는 것과 육로로 서산지방까지 가서 그곳으로부터 항로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었다. 그러나 이들중에서도 금강을 이용하는 방법보다도 오히려 육로로 서산지방까지 이동한후 항로를 이용하는 것이 보다 편리한 방법이었던 것이다. 이러한 사실들은 오늘날 예산·서산지역에서 발견되고 있는 불교 유적들을 통하여 짐작할 수 있다. 예산에서 발견된 4면석불이나 서산의 마애불 등은 아마도 중국과의 대중관계에서 무사한 여정을 기원하기 위하여 조성된 유적들로 생각되고 있다. 그러므로 서산지방은 백제의 남천이후 계속하여 대중국과의 외교적 접촉의 관문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다한 지역이었던 것이다.

4. 백제시대 서산의 행정구역

백제시대의 지방제도에 대하여는 자세하게 알 수 없다. 그러나 백제지방제도의 근본은 성을 중심으로 이루어 졌으며, 이들이 후에 보다 정비된 형태의 지방조직으로 변화했음을 알 수 있다. 백제가 서산지방을 점령하기 이전에는 치리국국(致利鞠國)이 위치하고 있던 지역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들은 아마도 성을 중심으로하는 마한 54개국 중 하나의 소국이었을 것이다. 이러한 성을 중심으로 하였던 치리국국을 백제가 점령하게 되므로 인하여 그의 중심지는 다시 백제의 행정구역으로 편입되었을 것이다. 이처럼 마한소국들을 점령하고 그를 중심으로 지방을 다스리던 제도가 백제의 바로 담로제라고 하는 것이다. 우리측의 자료인 『삼국사기』에는 담로에 대한 기록이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단지 담로제에 대한 기록은 중국정사에 단편적으로 기록되어있는 것이다. 즉 중국의 『양서』에 의하면 백제에는 22개의 담로가 있는데 이곳에는 모두 왕의 자제나 종족을 봉한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양서』가 취급하고 있는 시기가 대체적으로 웅진시대이기 때문에 백제의 담로제도를 단지 웅진시대에 한정하여 설명하려는 의견들도 있으나 이는 잘못된 해석인 것이다. 백제의 담로는 백제가 마한의 소국을 점령하고 이들의 중심지를 백제의 행정구역으로 편입하는 가운데 이루어진 제도인 것이다.

백제가 웅진시대를 지나 사비로 천도를 단행한 이후에는 지방제도에 있어서도 큰 변화를 겪게 된다. 즉 보다 조직적인 제도로 재편되었던 것이다. 성을 중심으로 하던 담로의 기본 골격은 유지하면서 그 지역의 중요성에 의하여 방·군·성(方·郡·城)의 제도를 마련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므로서 백제는 명실상부한 지방제도의 골격을 마련하게 되었던 것이다.

오늘날의 서산지방에 대한 백제시대의 행정구역으로는 사비시대 방군성제도하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생각되는 백제말기의 사실만을 알 수 있다. 즉 백제말기의 서산지방은 기군(基郡)이었다.

그리고 이의 기군에는 지육현(知六縣)과 성대호현(省大號縣)이 소속되어 있었던 것이다. 이들도 물론 산성이 그들의 중심지가 되었을 것이나 오늘날 서산지방의 어느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산성이 이에 해당하는지 자세하게 알 수 없다. 그런데 당시의 가장 큰 범위의 행정단위인 방(方)에 대하여는 서산의 방향이나 여러 가지의 정황으로 추정컨대 백제의 서방성인 도선성(刀先城)에 소속되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서방성의 중심성인 도선성의 위치가 어느 곳인지는 알 수가 없다. 대체로 백제말기의 서산지방은 서방(西方)의 도선성 기군(刀先城 基郡)으로 편입되어 있었다고 추정될 뿐인 것이다.

44 제2절 백제시대의 서산

제3절 통일신라~고려시대의 서산

1. 통일신라시대의 서산

- 1) 통일후 제도정비와 서산
- 2) 신라하대의 서산

2. 후삼국의 정립과 서산

- 1) 최치원과 부성군
- 2) 통일전쟁과 서산

3. 고려초의 서산지역

- 1) 고려의 제도정비와 서산

2) 조운제도와 서산

4. 고려시대 서산지역의 불교

- 1) 선종(禪宗)의 발달과 서산
- 2) 법인국사 탄문과 보원사

5. 고려후기의 서산

- 1) 무신집권기의 서산
- 2) 원 간섭기의 서산
- 3) 삼별초, 왜구의 침탈과 서산



(집필자 : 문수진)

제3절 통일신라~고려시대의 서산

1. 통일신라시대의 서산

1) 통일후 제도정비와 서산

서산지역은 변방에 위치하고 해안에 면하여 있으므로 역사의 중심무대에 서지는 못하였다. 삼한시대에는 마한의 소국인 치리국국(致利鞠國, 현재 地谷)과 신소도국(臣蘇塗國, 현재 태안)이었고 백제시대에는 기군(基郡)이라 하였다고 전해진다. 백제가 한성에 수도를 두고 통치하였을 때에는 변방이라 할지라도 국경지방이라 할 수는 없었을 것이나, 웅진천도 이후로는 서산지역이 백제의 최북단에 위치하여 고구려와 접경을 이루는 지역이었다. 즉 고구려가 아산만에서 죽령에 이르는 선에서 남쪽 경계선을 이루고 있었으므로 육지로는 바로 고구려와 접한 지역이 아니었지만, 해상으로 보면 국경이나 마찬가지로 여겼을 것이다. 서산의 마애삼존불이나 태안의 마애불, 예산의 사면불 등의 백제 불교 문화재가 조성될 수 있었던 것도 이 지역이 확실한 백제의 영토였고 중국과의 교통로로 될 수 있었을 것이다.

한편 백제가 나·당 연합군의 침략으로 수도 사비성을 함락당하고 백제의 역사가 종말을 고하면서 의자왕이 당나라에 잡혀갔지만, 백제의 지방 각 곳에서는 부흥운동이 치열하였다. 왕족 복신(福信)과 승려 도침(道琛)이 일본에 가 있던 왕자 풍(豊)을 받아들여 왕으로 세우고 오늘날의 예산 대흥인 임존성(任存城)을 중심으로 3년여 동안 나·당세력에 저항하였다. 이들 부흥운동군은 한때 당군이 주둔하고 있는 사비성을 포위하여 고립시켜서 신라군이 출동하여 격퇴하여야 할 만큼 강하였던 것이다. 물론 복신이 도침을 죽이고 전권을 행사한다 하여 풍은 복신을 또 죽이는 등 내분을 겪다가 백제 부흥군의 흑치상지(黑齒常之)가 당군에 항복, 오히려 백제군을 공격하므로써 부흥운동은 실패로 끝났다. 이같은 부흥운동의 거점이 예산 대흥의 임존성이었으므로 충남의 서해안지역, 예산·서천·보령·홍성·당진과 함께 서산도 이에 적극 가담하였을 것은 틀림없다. 단지 그 사실을 전해줄 자료를 우리는 아직 구체적으로 발견하지 못하고 있을뿐인 것이다.

부흥운동을 종식시킨 당나라는 백제의 영토에 웅진(熊津), 마한(馬韓), 동명(東



〈사진〉 부성산에서 바라본 지곡 전경



〈사진〉 여미현의 치소로 바장되는 여미리 전경

明), 금련(金漣), 덕안(德安) 등의 5도독부를 두었다가 웅진도독부만 남겼었다. 처음에는 사비성에 당군이 주둔하고 있었으나 후에는 웅진을 중심으로 이 지역을 통치하였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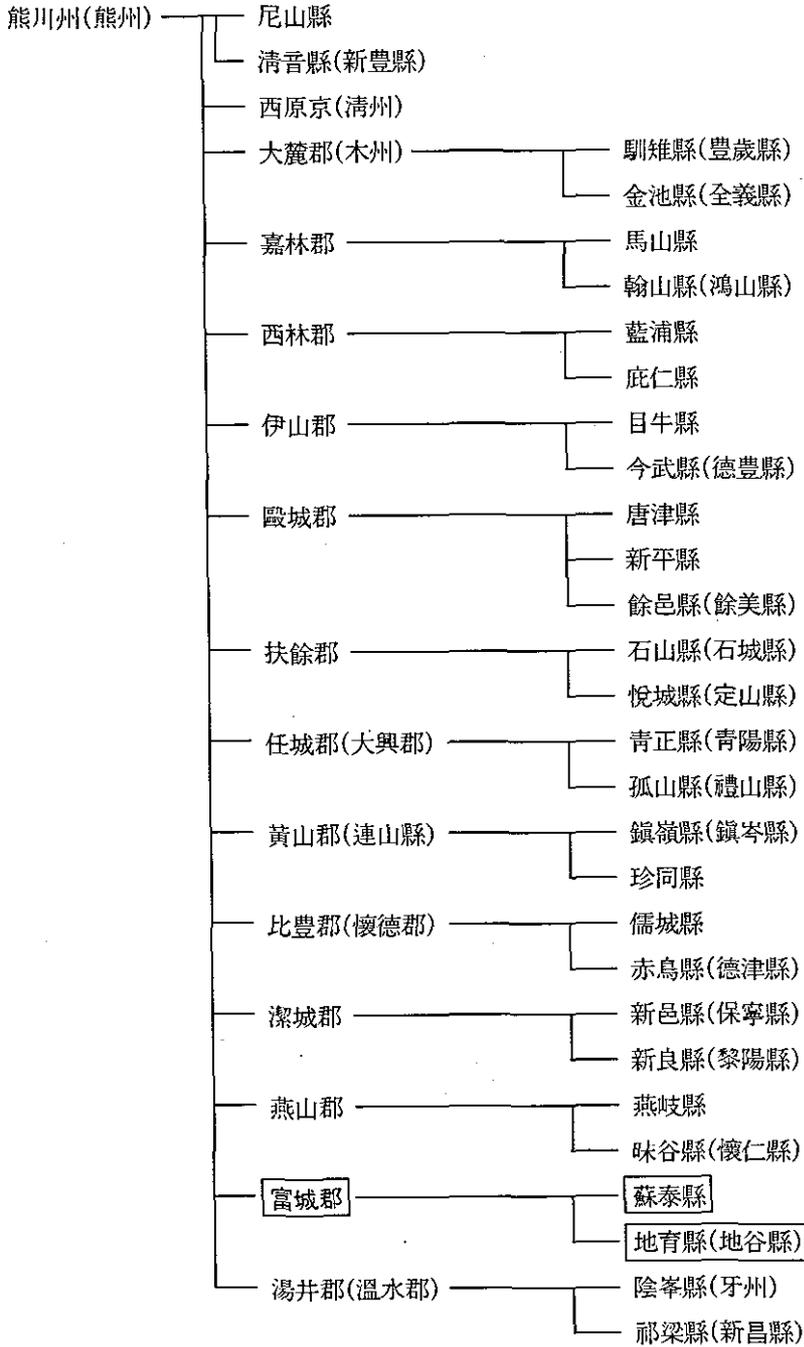
서산지역은 자연적으로 통일신라의 행정구역에 편입되고 말았다. 신라는 통일전 6세기 후반부터 이미 주·군·현제(州·郡·縣制)를 실시하고 있었다. 문무왕을 거쳐 신문왕 때에 중국식으로 행정체계를 갖추고 전국을 9주로 편성하였다. 9주는 원 신라지역에 3개주 사벌주(沙伐州, 尙州), 삼량주(插良州, 良州, 현재의 梁山), 청주(靑州, 康州, 현재의 淸州), 옛 백제지역에 3개주 웅천주(熊川州, 熊州, 현 公州), 완산주(完山州, 全州), 무진주(武珍州, 武州, 현재의 光州), 옛고구려 지역에 3개주 한산주(漢山州, 漢州, 현재의 廣州), 수약주(首若州, 朔州, 현재의 春川), 하서주(河西州, 溟州, 현재의 江陵)를 두었다. 주에는 지방장관으로서 진덕여왕까지는 군주(軍主)라 하고, 통일을 전후한 시기는 총관(摠官)이라 하다가 후에 도독(都督)이라 하여 진골(眞骨) 출신의 고급관리가 임명되었다. 군에는 태수(太守), 현에는 현령(縣令)이 배치되었다.景德왕 16년(757)의 9주의 군은 117개, 현은 293개로 나타난다.

이러한 행정편제 속에서 현재의 서산시 지역은 웅천주(熊川州)에 속한 부성군(富城郡)이었다. 당시 웅천주에 속한 군현은 13개군, 29개현이었고 그 관계는 다음 <표1>과 같다. 부성군에는 두 개의 영현이 있었는데, 소태현과 지육현이다. 소태현은 지금의 태안군 일원이고, 지육현은 지곡면 일대이다. 부성군의 치소가 어디 인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일설에 의하면 지곡면 산성리에 있는 부성산(富城山) 밑에 있었다고 하는데 지금도 이곳에는 태수로 부임해왔던 최치원의 유서를 기리는 부성사(富城祠)라고 사우가 있고, 산성의 옛터가 남아 있다.

부성군과 함께 지금의 서산시 지역에는 운산지역에 여미현도 있었다. 여미현(여미현)은 지금의 운산면 지역으로서 혜성군에 속하였다. 혜성군은 현재의 당진군 면천면 지역이다. 그러므로 통일신라에서는 부성군의 지육현, 혜성군의 여미현이 현재의 서산시 일원의 지역이 되는 셈이다. 『삼국사기』에서 부성군에 관한 기록은 지리지의 편제와 최치원 열전에 최치원이 당나라에서 귀국하여 처음으로 부성군 태수가 되었다는 사실 뿐이다.

통일신라에서도 서산지역은 대중국(당) 교통로로 중시되었을 것이 틀림 없다. 오늘날의 당진(唐津)이 '당에 가는 나루'라는 뜻으로 당진이라 하였지만 서산·태안이 오히려 당에 가는 데는 더욱 편리하였을 것이다. 풍랑이라도 만나면 육지가 가까워서 고려 때에도 주로 중국에 왕래하는 귀항지로 이용하였던 닻개와 소근포 등에 귀착하였을 것이다. 백제 때부터 불상 등이 새겨져 남아 있듯이 통일신라 때에도 많은 사찰이 세워졌을 것이다.

<표1> 통일신라시기의 행정 체제



* ()은 삼국사기 편찬 당시 고려시대 지명



〈사진〉 도비산 부석사

지금의 부석면 도비산(都(島)飛山)의 부석사(浮石寺)는 의상대사(義湘大師)가 세웠다고 한다. 같은 산에는 원효대사(元曉大師)가 세웠다는 동사(東寺)가 있다. 영주 부석사처럼 큰 사찰은 아니지만 서산 부석사에도 의상대사에 얽힌 다음과 같은 흥미로운 전설이 전해지고 있다.

의상대사가 중국에 유학하러 갔을 때에 묵었던 집에 신라 사람인 선묘(善妙)라는 예쁜 아가씨가 있었는데 의상을 사모하여 귀국 길에 따라 가고자 하였으나 수행승인 의상은 이를 거절하고 귀국하는 배를 탔던 것이다. 선묘는 의상의 옷가지를 상자에 넣어 바다에 띄워 부처님께 빌었더니 바람이 불어 주어 배에 오르게 하였다. 또 자신은 용이 되어 의상의 배를 따라 무사 귀환할 수 있게 했던 것이다. 의상이 오늘날 도비산에 절을 지으려 하니 주민들이 반대하여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다. 이때 용이 된 선묘는 뒷산의 큰바위를 들고 이 절을 짓지 못하게 하면 다 죽여 버리겠다 하니 도망가 버렸다. 그래서 그 바위를 부석사 앞의 바다에 던진 것이 부석(浮石, 뜬바위라는 뜻으로 현재 부석면 서쪽 바다에 있던 '거문여'를 말함. 지금은 간석지가 된 서산B지구 안에 있다)이 되었다는 것이다.

근래의 한국 불교의 선승의 증홍조라 일컫는 경허(鏡虛)선사도 이 절에 주석한

적이 있다. 전설을 그대로 믿을 수는 없지만 당시 백제를 멸한 뒤 이 지역 사람들을 무마하고 안정시키기 위하여 각 지방에 사찰을 건립하였을 것이다. 또 중국에 가는 스님들이 자주 들리는 곳이었으리라는 것을 생각하면 쉽게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2) 신라 하대의 서산

김부식은 『삼국사기』를 편찬할 때 신라의 역사를 3대로 구분하여 상대(上代)는 1대 박혁거세로부터 28대 진덕여왕까지, 중대(中代)는 29대 무열왕부터 36대 혜공왕까지, 하대(下代)는 37대 선덕왕(宣德王)부터 마지막 경순왕까지 155년간으로 구분하였다. 특히 신라하대에는 왕권이 쇠퇴하고 지방세력이 서서히 성장하던 때이다.

김주원(金周元)은 무열왕의 후손으로 신라 38대 원성왕(元聖王)이 된 경신(敬信)과 왕위 다툼에서 패하여 강릉으로 낙향하였다. 김주원의 아들로서 아버지가 왕이 못된 것을 원망하고 일으킨 김현창의 난은 공주를 중심으로 오늘날의 전라도의 전부와 경상도 서부 일대까지 참가하는 전국적인 반란이었다. 현재의 경기, 황해 지방인 한산주의 군인세력이 참가하지 않아 실패로 돌아갔지만 이후에는 신라의 왕권이 극히 약화되었다.

신무왕을 도와 왕위에 오르도록 힘을 쓴 김양(金陽)과 사촌간인 김흔(金昕)은 현덕왕 14년(822) 정조사(正朝使)로 입당할 때에 신라 말 선종(禪宗) 9산의 하나인 성주산파(聖住山派)를 개창한 무염(無染)도 함께 입당하였다. 김흔은 청해진의 장보고 군병을 대구에서 방어하다가 패한 후 곧 은퇴하여 '산중재상(山中宰相)'이라고 일컬었던 사람이다. 즉 김흔은 그가 후원하던 민애왕(閔哀王)이 살해되고, 맞싸우던 우징(祐徵)이 김양의 후원으로 즉위하게 되니 이가 신무왕(神武王)이다. 그러므로 김흔은 은퇴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김흔은 이때 무염에게 무열왕의 둘째 아들인 김인문의 수봉지소(受封之所)인 보령에 주석(駐錫)하여 주기를 청하였다. 무염도 역시 김인문의 후손이었다. 성주산파는 보령지방의 태종 무열왕의 둘째 아들인 김인문(金仁問)의 식읍을 중심으로 백제 때의 대사찰이었던 오합사(烏合寺)터에 더 큰 절을 세웠던 것이다. 김흔의 경제력이 기반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성주산파는 절의 규모가 천간이 넘고 문도(門徒)가 2천명이었다는 것으로 보아 그 규모가 가히 추측된다. 나말 선종 9산파 중에서도 으뜸이었다. 당시 성주산파를 모르면 행세를 못했다고 한다. 지금 보령시 성주면에 남아있는 폐사지만 보아도 그 규모와 위세를 알 수 있다. 현재는 국보 8호인 무염의 성주사낭혜화상백월보광탑비(聖住寺朗慧和尚白月保光塔碑)와 우리나라에서는 보기 드물게 금당 앞에 배치한 3탑만이 남아 있다. 이들의 세력은 서산지방에까지 영향력을 뻗었을 것이 틀림없다. 그것은 부성군(富城郡) 태수로 왔던 최치원이 왕명에 의하여 성주산의 개조 무

염 낭혜화상(無染 朗慧和尚)의 비문을 쓴 것을 보아서도 충분히 알 수가 있다. 이 비문은 최치원이 남긴 사산비명(四山碑銘) 중의 하나이며 당시 선종사 연구뿐만 아니라 신라 골품제도에 대한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여 주고 있다.

김인문의 수봉지소인 보령지방에는 김흔과 같은 계통이라고 생각되는 선사(禪師)들이 보이고 있다. 무염의 제자인 여엄(麗嚴)과 수미산파(須彌山派)의 개조인 이엄(利嚴)이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다.

이엄은 그의 해주 광조사진철대사보월승공탑비(廣照寺眞澈大師寶月乘空塔碑)에 보면

성이 김씨이고 그 선조는 경주사람이며, 세상이 어지러울 때 공주에 낙향하여 그 아버지 때에 서산으로 이주하였고 스님은 태안 출신이라(大師法諱利嚴 俗姓金氏 其先鷄林人也 考其國史 實星漢之苗 遠祖世道凌夷 斯虛多難 偶隨萍梗 流落熊川 父章深愛雲泉 因寓富城之野 故大師生於蘇泰)

하였다. 왕족이었던 김인문의 후손이 서산, 태안 지방에 까지 광범위하게 퍼져 살았던 흔적을 이 비문은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이엄이 열두살에 가야갑사(迦耶岬寺)에서 스님이 되었다고 하니 가야산은 지금 서산의 가야산이 틀림없고 갑사라는 절은 지금 없지만 혹시 현재 계룡산 갑사(甲寺)가 당시 갑사(岬寺)라고 하였으니 혼동이 된게 아닌가 생각되기도 한다. 이엄에 대해서는 고려 태조와의 인연 때문에 다음 장에서 보다 상세히 언급하기로 한다.

한편 여엄의 경우도 그의 대경대사비(大鏡大師碑)에 “그의 성이 김씨이고 경주 사람이며 진골이었고 남포(藍浦)에 이주해서 살았다(俗姓金氏 其先鷄林人也 遠祖出於華胄……徙居藍浦)”고 한 것을 보면 원래는 왕족이었으나 김인문의 수봉지소인 보령 지방에 이주하여 살았던 것으로 보인다.

2. 후삼국의 정립과 서산지역

1) 최치원(崔致遠)과 부성군(富城郡)

통일신라는 하대(下代)에 이르러 왕권쟁탈로 인하여 중앙 통제력이 많이 약화되었다. 『삼국사기』 최치원 열전에는 진성여왕 2년(893)에 중국에 가는 신라 사신 정절사(旌節使) 병부시랑 김처회(金處誨)가 바다에 빠져 죽었다는 기록이 있다. 이것은 자연재해라기 보다는 당시 상황으로 보아 중앙정부에서 통제하지 못하는 해적과 같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본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신라본기에 나오지 않고 최



〈사진〉 최치원의 영정과 위패를 봉안한 부성사 전경

치원 열전에 나오는 것을 보면 아마도 최치원이 부성군 태수로 있었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 발생한 일을 기록한 것으로 보인다. 이때 혜성군(현재 면천)태수 김준(金陵)을 고주사(告奏使)로 삼고 최치원은 부름을 받아 하정사(賀正使)로 삼고 있었다.

당시 사정을 기록한 것을 보면 사방에 도적이 끊고 길이 막혀 사행길을 출발하지 못하였다고 한다. 최치원이 부성군태수로 임명된 것은 이 지방이 당나라에 가던 중요한 지점이었기 때문이었을 가능성도 크다. 당나라에서 문명을 떨친 최치원을 연고 없는 변방에 보냈을 것 같지는 않기 때문이고 실제로 서산 지역이 당나라에 가는 중요한 교통로였음을 감안하여 보면 이같은 추정은 전혀 무리가 아니다.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에 의하면 고려 개국공신 복지겸(卜智謙)도 신라 말엽에 복학사(卜學士)라 일컫는 사람이 당나라로부터 면천에 와서 살면서 해적을 물리쳐 죽이고 머물러 남은 백성들을 모아 보전한 바 있었는데 그의 후손이라고 적고 있다. 그의 처음 이름은 사괴(砂瑰)였으며 배현경(裴玄慶)과 더불어 왕건(王建)을 추대하여 고려의 개국공신이 되고 본주의 토지 300경을 하사받아 자손이 대대로 이를 먹고 살았다(新羅末有稱卜學士者 自唐來居于此 能殺海賊 保聚遺民 智謙其後也 初名砂瑰與裴玄慶推戴太祖 爲開國功臣 本州田三百頃 子孫世食之 諡武恭)고 기록되었다. 그는 고려 건국 직후에 환선길(桓宣吉), 임춘길(林春吉) 등의 모반을 미리 발견하여 진압하였고, 시호는 무공(武恭), 태사(太師)를 추증받

고 태조묘정에 배향되었다. 면천북씨의 시조가 된 것은 그가 이처럼 오늘날의 서산·당진지방에 연고가 있기 때문일 것이다.

한편 『고려사』 열전을 보면 박술희(朴述熙)도 오늘날의 면천지역인 혜성군 출신이라 하였다. 그의 아버지 득의(得宜)는 대승(大丞)으로 대광, 정광 다음의 품계로서 아들 박술희의 영향으로 받은 품계인지는 몰라도 높은 계급이었다. 박술희는 어려서부터 천성이 용감하고 육식을 좋아하여 두꺼비나 개미도 먹었다 한다. 18세에 궁예의 위사(衛士, 경호원과 같음)가 되었다가 뒤에 태조를 섬겨 여러번 군공(軍功)을 세워 대광(大匡)에 올랐다. 태조의 장자 무(武)의 어머니는 장화왕후(莊和王后) 나주오씨로 미천한 출신이었다 한다. 왕건은 그렇기 때문에 태자가 되지 못할까 두려워하여 낡은 상자에 자황포(柘黃袍, 천자가 입는 옷)를 담아 오씨에게 내리니 왕후가 박술희에게 보였다.

박술희가 태조의 뜻을 짐작하고 무를 세워 태자로 삼았다. 태조가 임종시에 군국의 일을 부탁하여 이르기를 “경은 태자를 세웠으니 잘 보좌하라” 하여 박술희는 한결같이 그 뜻을 따랐다고 한다.

혜종이 즉위하여서 보필하였으며, 혜종이 병석에 눕자 군사 백명으로 호위하였다. 왕규(王規)가 이를 미워하고 후에 정종(定宗)이 된 왕자 요(堯)가 박술희가 단 뜻이 있을까 의심하여 귀양 보냈으나 왕규가 왕명을 고쳐 그를 죽였다. 박술희는 엄의(嚴毅)라는 시호를 받고 태사삼중대광(太師三重大匡)으로 추증되어 혜종의 묘정에 배향되었다. 태조가 죽기 전에 박술희를 내전에 불러 훈요십조를 전한 것으로 기록되고 있다.

박술희나 복지겸이 혜성군 출신인데 현재 서산군 운산면이 당시 혜성군 영현으로 신라 경덕왕때에 여읍(餘邑)이라 했다가 여미현(餘美縣)으로 바꾸었으니 이 지역 출신이라 추측된다. 이 지역이 일찍부터 궁예의 휘하에 들어 갔다가 고려가 건국되자 일부는 후백제에 귀속되었으나 이 지방 출신들은 고려건국과정이나 후삼국 통일과정에서 기여한 인물들이 많았다.

2) 후삼국 통일전쟁(後三國 統一戰爭)과 서산(瑞山)

상주의 농민 출신이었던 견훤(甄萱)이 서남해안 지방의 비장(裨將)으로 있으면서 이 지방 사람들이 신라의 중앙정부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어 있는 것을 보고 무진주(武珍州, 현재 光州)에서 거병하여 전주에 도움을 정하면서 의자왕의 원수를 갚는다고 후백제를 칭하였다. 한편 궁예(弓裔)는 신라의 버림받은 왕족으로서 북원(北原, 지금의 원주)의 양길(梁吉=良吉)의 부하로 출신하여 영월, 삼척, 강릉, 인제, 철원을 점령하면서 독립하여 고구려를 계승하는 후고구려(後高句麗)라는 뜻인 후고려(後高麗, 후의 摩震, 泰封)를 세웠다. 이때 견훤은 공주까지 진출하고 궁예

도 차령산맥을 넘었던 것 같다. 이때 양국은 오늘날의 금강을 사이에 두고 각축을 벌였던 것이며 현재의 청주·천안 근처가 주로 쟁탈전을 벌였던 곳이다.

홍주(洪州) 또는 운주(運州)라고 하는 오늘날의 홍성지방은 왕건의 주요 공략지였다. 궁예가 다스리던 시기에는 이 지방이 태봉의 영역이었던 것이다. 왕건이 궁예를 몰아내고 고려를 건국한 뒤 2개월만에 웅주(熊州), 운주(運州) 즉 오늘날의 공주·홍성지방 10여 군현이 후백제에 귀속하였다.

그후 이 지역은 태조가 통일하기 전 까지 후백제에 귀속되었던 것이니 현재의 천안·아산·예산을 중심으로 후백제의 북쪽 국경을 공략하였음을 알 수 있다.

태조 8년(925)에는 후백제의 임존성(任存城, 예산 대흥)을 공격하여 3천여 명을 사로잡았다고 하였다. 태조 10년(927) 3월에 태조에게 투항한 운주장군(運州將軍) 궁준(兢俊)은 자진 투항한 것이 아니고 무력으로 굴복시킨 것 같다. 왜냐하면 궁준이 후백제와의 마지막 결전에도 참여한 것을 보면 태조 휘하에서 계속 활약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고, 항복한 대가로 주(州)가 되었을 것이라 추측되기 때문이다. 주(州)는 원래 통일신라 시대에 9주의 명칭에서나 사용했던 것으로 큰 행정구역이기 때문에 파격적인 대우로 보여지기 때문이다.

한편 태조 왕건의 부인인 흥복원부인 홍씨(興福院夫人 洪氏)는 홍주인(洪州人) 삼중대광(三重大匡) 홍규(洪規)의 딸이었다. 소생으로는 태자 직(稷)과 공주가 한 명 있었는데, 이도 태조가 정략적인 결혼을 한 것이었지만 대체로 지역적으로 안배되다시피 한 것을 미루어 보면 홍성지방에 한명의 부인을 두고 싶을 만큼 중요시했음을 추측할 수 있다. 태조 11년(928) 4월에는 운주 옥산(玉山)에 성을 쌓고 수비군을 두었고, 또 예산진을 만들어 주민들을 이주시켰고, 탕정군(湯井郡, 아산 온양)에 성을 쌓고 있다. 그런가 하면 고려가 태조 17년(934) 9월 직접 군사를 이끌고 운주(運州, 홍성) 지방을 원정하여 후백제군을 대패시키고 있으며, 이후 웅진 이북 30여 성이 자진 항복할 때 까지 후백제와 고려의 치열한 접전지역이었던 것을 보아서도 그 전략적 중요성은 짐작된다.

그렇기 때문에 마침내 태조 13년(930) 1월에는 동서도솔(東西兜率)을 합쳐 천안도독부(天安都督府)를 설치하기에 이르렀고, 마지막으로 후백제와의 결전을 위해 집결한 곳도 바로 이곳이었던 것이다. 천안(天安)이라고 이름한 것도 전쟁을 종결시키고 천하를 안정시키고자 한 데서 비롯된 것이다. 지금도 천안부근에는 고려 태조와 연관된 이름이 많이 있다. 태조산(太祖山)이나 성거산(聖居山) 등이 그것이다. 태조가 후삼국을 통일하기 직전 예산(禮山)에서 내린 교서는 사회를 안정시키고 통일 후의 정책을 제시한 고려의 통치이념을 표출한 것이기도 하다.

물론 위의 설명은 서산에 인접한 지역의 동향이었다. 과연 그 과정에서 서산사람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정치적 격변에 참여하였는지는 이 시기의 사정을 전해주는 자료가 특별히 전해지지 않아 밝히기가 어렵다. 다만 우리는 이 시기의 인물들이

친왕전적인 경향을 보이는 인물이었다고, 인접지역의 역사를 통하여 비슷한 입장에 서있지 않았을까 추측만 해볼 뿐이다. 이점은 추후 다른 자료의 검출을 기다려 보완할 부분이다.

3. 고려초의 서산세력

1) 고려의 제도정비와 서산

고려가 건국된 이후 가장 힘들여 온 정책의 하나는 지방세력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통제하며, 나아가 어떻게 하면 중앙의 행정력을 전국 각 지방에 효과적으로 전파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었다. 태조 왕건이 지방관을 파견하지 못한 것도 중앙행정력이 미약한 반면 지방의 호족세력이 강대하였기 때문이다. 태조는 서경(西京)에 대해서는 일찍부터 관심을 기울여 행정기구를 정비하였으나 다른 지방의 관제는 엄두도 내지 못하였다. 태조 13년(930)에 동서도술(東西兜率)을 합쳐 천안도독부를 설치하고 대승 제궁(弟弓)을 도독부사(都督府使)로, 원보(元甫) 엄식(嚴式)을 부사(副使)로 삼고 있는데, 이것은 후백제와의 통일전쟁에서 이 지역이 전진기지로서의 역할이 중시되었고, 그의 친위세력이 확실히 존재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을 것이다.

어쨌든 통일 후 태조는 태조 23년에 지방제도를 개편하였다. 그러면 이때에 서산지역은 어떠한 체제로 탈바꿈 되었을까?

태조가 유훈으로 남겨놓은 훈요십조(訓要十條) 제8조에 보면, 공주강 이남의 인물을 가려 쓰라고 하고 있다. 이것은 태조가 궁예를 몰아내고 고려를 세웠을 때에 공주 이남의 군현이 후백제에 귀속한 적이 있고, 이때 오늘날의 공주 등지의 국경지대에 있던 세력들이 반역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이 지방 사람들을 조심하라고 한 것일 것이다. 이것을 가지고 오늘날의 전라도 사람들은 왕건 때부터 정책적으로 차별대우를 받았다고 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고려에 끝까지 저항한 세력이 후백제였으므로 이를 조심하라는 것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다. 태조가 논산 연산에 개태사(開泰寺)를 창건하고, 산 이름을 천호산(天護山)이라 한 것이라든지, 발원문을 직접 쓴 것이라든가, 태조(太祖)의 진전(眞殿)을 모신 것, 팔만대장경을 주조할 때에 이 절의 주지 수기(守基)가 최종 교정을 책임졌던 사실을 통해서 얼마나 이 지역의 융합과 통제에 신경을 쓰고 있었는지를 느낄 수가 있다.

고려가 처음으로 지방제도를 갖추려 한 것은 성종 때였다. 성종 2년(983)에는 전국에 12목(牧)을 설치하였는데, 12목은 광주(廣州), 양주(楊州), 충주(忠州),

청주(淸州), 공주(公州), 진주(晉州), 상주(尙州), 전주(全州), 나주(羅州), 승주(昇州, 현재 순천), 황주(黃州), 해주(海州)였다. 이때 서산은 공주에 속하였을 것이다. 지방관제의 정비와 함께 중앙행정력이 각 지방에 직접 침투하게 되면서, 각 지방의 호칭에 대한 개정작업이 이루어져 갔다. 성종 11년(992) 주(州)·부(府)·군(郡)·현(縣)·관(關)·역(驛)·강(江)·포(浦) 등의 이름이 이때에 대부분 개칭되었고, 이어 성종 14년(995)에는 전국을 4도호부 10도(道)로 나누었다. 우리나라 역사상 지방관제의 최고단위로서의 도제(道制)는 이 10도의 제정에서 비롯되고 있다. 도제의 실시 이후에도 지방행정은 각 지방의 주요한 주(州) 중심으로 운용될 수 밖에 없었다. 이것은 당(唐)의 도제를 모방하였지만 신라통일기의 9주제(州制) 이래 우리 사회에 익숙해 온 중요한 주(州) 중심으로 행정이 이루어졌던 것이다. 고려의 10도제는 당과 같이 지방관제의 최고 단위이기는 하였으나 그것을 행정구획으로 보기보다는 다만 순찰(巡察), 또는 감찰구획에 불과하였다. 따라서 상주하는 도장관(道長官)은 없었던 것으로 생각한다. 10도의 명칭은 관내(關內), 중원(中原), 하남(河南), 강남(江南), 해양(海陽), 영남(嶺南), 영동(嶺東), 산남(山南), 삭방(朔方), 패서(溍西)였다.

이후 고려시대의 지방관제는 성종에 이어 목종(穆宗)을 거쳐 현종(顯宗) 때에 대대적인 정비되었는데, 현종 9년(1018)의 지방관제 정비로써 고려 일대의 지방관제의 기본구조가 완성되었다. 현종 9년 2월 대폭적인 지방관제 개혁이 일어났으니 즉 안무사(安撫使)를 파하고 4도호(都護)·8목(牧)·56지주군사(知州郡事)·28진장(鎭將)·20현령(縣令)을 설치하였다. 이로써 고려의 지방관제는 4도호(都護) 8목(牧)을 중심으로 그 아래에 중앙에서 지방관을 상주시키는 56개의 주군(州郡), 28개의 진(鎭), 20개의 현(縣)으로 편성되었다. 지방행정의 근간으로서 최상 단위가 되었던 것은 양경(兩京)(혹은 3京) 4도호(都護) 8목(牧)이었다. 이외에도 지방관이 설치된 주·부·군·현(州·府·郡·縣)이 있었으나, 이들은 모두 경·목·도호부(京·牧·都護府)에 영속(領屬)되어 있었다. 그 영속관계(領屬關係)를 고려사 지리사(高麗史 地理志)에서 알 수 있다. 『고려사』 지리지에 기록된 경·목·도호부(京·牧·都護府)의 영속관계를 보면 다음 <표2>와 같다.

이들 고려사기록에 나오는 지명에서 명칭상으로 주·부·군·현(州·府·郡·縣)의 행정단위가 되었다고 해서 이것이 곧 단계적인 행정단위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주(州)에도 목·지사군·속군·속현(牧·知事郡·屬郡·屬縣) 등의 차별이 있었다. 남경유수관 양주(南京留守官 楊州)의 소관군현(所管郡縣) 중 속군현(屬郡縣)인 전주(見州)·포주(抱州)·행주(幸州) 등에서 전주, 포주는 속군, 행주는 속현이었으며, 인주(仁州)·수주(水州)는 지방관이 설치된 지사군(知事郡)이었다. 군(郡)도 지사군과 속군, 현(縣)도 현령관(縣令官)과 속현(屬縣)이 있다. 그러므로 주와 군의 명칭을 가졌을지라도 속군의 위치에 있으면 현령관(縣令

〈표2〉

所管	都護府	防禦郡	知事府	知事郡	縣令官	鎭
南京 (楊州) 忠州 清州 東京 (慶州) 晉州 尙州 全州	樹州 (安南)	蔚·禮·金 ·梁州	天安	仁州·水州	江華	
原州 公州·洪州 密城				嘉林·富城		
羅州	豐	和·高·宜· 湧·文· 長·定·豫 德州 *25	京山·安東 南原	俠州	固城·巨濟	白翎
海州 (安西) 黃州 登州			長興	古阜	臨·進禮 金堤·金溝 海陽·珍島 陵城·耽羅 瓮津	
寧州 (安北)				靈光·靈岩 寶城·昇平 平州·谷州	遂安 鎭·金壤 등 8현	
					6	12

* 寧州의 소관 군현진은 그 수만 제시한다.

〈표3〉

所管	京	大都 護府	牧	大都 督府	都護府	知事府	郡	縣令官	鎭	屬府	屬郡	屬縣
王京	1										1	12
廣楊	1		3		1	1	5	3			22	75
慶尙	1		2			2	6	3			24	89
全羅			2			2	5	8			13	74
交州							3				5	20
西海		1	1				3	2	1		3	14
東界				1	1	2	13	8	16			17
北界	1	1				2	26	6	12			4

* 위의 표는 〈한국사〉 5권(국사편찬위원회편, 1975) pp67~68 인용.

官)의 현(縣)보다도 하위에 있다. 이러한 관계를 고려사 지리지에 의해 지방행정단위별로 도표화 하면 <표3>과 같다. 여기서 지사군(知事郡)과 속군(屬郡), 현령관(縣令官)과 속현(屬縣) 등이 지방행정구조상 엄격히 구분되어 있다.

즉 지사군과 현령관은 지방관이 설치되어 부분적으로는 독자적인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속군(屬郡)·속현(屬縣)은 지방관이 설치되지 않아 완전히 어느 고을에 예속된 상태를 의미한다. 고려시대 서산은 부성군으로서 <표2>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현령관으로서 독립된 군이었다.

고려시대 오늘날 경기 충청도의 지방제도의 변천을 『고려사』 기록에 의하여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성종 14년(996) 10도로 나눌 때 양주(楊州), 광주(廣州) 등 주현은 관내도(關內道)에 속하고, 충주(忠州)·청주(淸州) 등 주현은 충원도(忠原道)로 하고 공주(公州)·운주(運州-洪城) 등 주현은 하남도(河南道)로 하였다. 예종(睿宗) 원년(元年)(1106) 합하여 양광충청주도(楊廣忠淸州道)로 하였다가 명종(明宗) 원년(元年)(1171)에 두개의 도로 나누었다. 충숙왕(忠肅王) 원년(元年)(1314) 양광도(楊廣道)로 하였다가 공민왕(恭愍王) 5년(1356) 충청도(忠淸道)로하여 경(京) 1, 목(牧) 3, 부(府) 2, 군(郡) 27, 현(縣) 78개 이었다. 다음에 이 지역의 주요한 행정구역과 속현(屬縣)을 적어보기로 한다.

- 南京留守官楊州(서울, 楊州) - 屬郡 3, 縣 6, 領都護府 1, 知事郡 2, 縣令官 1
- 安南都護府樹州(富平) - 屬縣 6
- 仁州(仁川) - 屬郡 1, 屬縣 1
- 水州(水原) - 屬縣 7
- 江華縣 - 屬縣 3
- 廣州牧 - 屬郡 4, 屬縣 3
- 忠州牧 - 屬郡 1, 屬縣 5, 領知事郡 1
- 原州 - 屬郡 2, 屬縣 5
- 淸州牧 - 屬郡 2, 屬縣 7, 領知事府 1, 知事郡 2, 縣令官 2
- 公州 - 屬郡 4, 屬縣 8
- 天安府 - 屬郡 1, 屬縣 7
- 嘉林縣(扶餘 林川面) - 屬郡 1, 屬縣 4
- 洪州 - 屬郡 3, 屬縣 1
- 富城縣 - 屬縣 2

한편 洪州(洪城)도 서산지역과 관련이 되는데 그 속군과 속현을 보면,

嚴城郡(沔川), 大興郡(禮山 大興面), 結城郡(洪城 結城), 高丘縣(瑞山 高北面),
保寧縣, 興陽縣(洪城), 青陽縣, 新平縣(唐津 新平面), 伊山縣(禮山 德山), 唐津縣,
餘美縣(雲山面 貞美面 大湖芝面), 驪陽縣(洪城), 貞海縣(瑞山 海美).

등으로 당시 홍주목의 속현으로 여미현이 보이고 있다.

서산의 지명 내지 지방관의 명칭이 변천한 것을 『고려사』를 토대로 정리하여 보면, 서산지역에는 인종 23년(1145) 부성현령을 두었다가, 무신집권기인 명종 12년(1182) 주민의 반란으로 관호(官號)를 삭제당한다. 그후 충렬왕 10년(1284) 지서산군사(知瑞山郡事)로 승격되었다가 34년(1308) 서주목(瑞州牧)으로 되었다. 충선왕 2년(1310) 서령부(瑞寧府)로 되었다가 뒤에 지서주사(知瑞州事)로 되었다.

부성현(富城縣)에는 속현(屬縣)이 둘이 있었으니 지곡현(地谷縣)과 소태현(蘇泰縣)이다. 부성현은 양광도에서 강화현·가림현과 같이 현이면서 독립된 군현에 속하는 3개의 현 중 하나이다. 이곳에는 중앙에서 관리가 파견되던 곳이다. 부성군의 속현이었던 지곡현(地谷縣)과 소태현(蘇泰縣)은 부성현령의 지배를 받는 곳이었다.

부성군의 치소는 현 서산시 지곡면 산성리에 있는 토미성과 연결시켜 이해가 필요하다. 이곳은 신라 진성여왕 7년(893) 최치원이 태수로 부임해왔던 곳으로 그가 집무했던 동헌의 옛터가 부성동(富城洞)에 있었고, 그밖에 관아와 관련된 각종의 지명들이 이러한 연유를 잘 증거해 주고 있다. 부성군은 고려 인종 23년(1145) 현의 관리가 현령을 살해하는 불상사로 인하여 군호를 없애면서 마을 이름도 “이살리(吏殺里)”라고 하였던 것이 조선시대에는 “이사리(而沙里)”로 남았다고 본다.

2) 조운제도와 서산

조운(漕運)이란 조세로 징수한 미곡(米穀), 또는 포목 등을 해상 운송하는 제도로 고려시대부터 시작되었다. 강물을 이용하기도 하는데 교통기관이 발달하지 못하였던 고려시대에는 육지운송보다 수운(水運)에 주력하고 세미(稅米) 수송은 이에 의지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조운제도에 있어서 서산·태안지방이 대단히 중요한 역사를 가지고 있다. 세미는 고려시대에도 주로 삼남지방에서 거두어 들이는데 도성으로 수송하기 위하여 서해안을 이용하지 않을 수 없었다. 고려초부터 수로에 인접한 남방의 여러 곳에 12조창(漕倉)을 두고, 그 밖에 장연(長淵)에도 조창을 두어 예성강(禮成江)으로 연결되게 하였다. 『고려사』 식화지(食貨志) 조운조에 보이는 창고명과 상비선박(常備船舶)을 보면 다음 <표4>와 같다.

〈표 4〉

所在地	倉庫名	定置漕船	所在地	倉庫名	定置漕船
忠州	德興倉(麗水浦)	21隻	羅州	海陵倉(通津浦)	7隻
原州	興元倉(銀蟾浦)	23隻	靈光	芙蓉倉(芙蓉浦)	7隻
牙州	河陽倉(使涉浦)	7隻	靈岩	長興倉(潮東浦)	7隻
富城	永豐倉(忠南瑞山)	7隻	易州	海龍倉(潮陽浦)	7隻
保安	安興倉(濟安浦)	7隻	泗川	通陽倉(通潮浦)	7隻
臨陂	鎮城倉(朝宗浦)	7隻	合浦	石頭倉(螺浦)	7隻

조운선은 삼남지방에서 오늘날의 안면도 서해안으로부터 태안군 소원면·이원면의 서해를 돌아서 북진할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 지역은 풍량이 심하고 암초가 많아 조운선이 파선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를 피하기 위하여 이 지역에 운하를 계획하였는데, 『신증동국여지승람』의 태안군 산천조를 보면 굴포(掘浦)에 대한 기록이 있다. 고려 인종이 안흥정(당시 이름은 難行梁) 아래의 물길에 여러 물과 충돌하는 곳이 되어 있고, 또 암석의 위험한 곳이 있으므로 가끔 배가 뒤집히는 사고가 있으니, 소태현 경계로부터 도랑을 파서 이를 통하게 하면 배가 다니는 데에 장애가 없을 것이라 하여, 인종 2년(1134)에 정습명(鄭襲明)을 보내어 인근 균읍 사람 수천명을 징발하여 조운을 쉽게 하기 위하여 안흥정(安興亭) 밑에 하천을 뚫으나 실패했다고 한다. 안흥정은 서산시 해미면 산수리 현재의 한서대학교 건너 신선봉에 있었던 정자로 현재도 그 터가 남아 있다.

또 고려말에 종실 왕강(王康)은 삼도의 군수(軍需)와 세공(稅貢)을 운반하고 또 어염의 이익으로 공이 많았는데 그가 왕에게 건의하기를 “예전에 파던 도랑이 깊어 판 곳은 10여리나 되고 파지 않은 곳이 불과 7리인데, 만약 마저 다 파서 바닷물로 하여금 유통하게 한다면 매년 조운할 때에 안흥량 4백여리를 통하는 조운을 편리하게 하자”고 하여 인부를 징발하여 다시 파니, 돌이 물밑에 깔려 있었고, 또 조수가 왕래하여 파는대로 메워 버리므로 필경 공을 거두지 못하고 말았다.

태안과 서산의 접경인 굴포(掘浦, 炭浦라고도 함)를 파는 이 굴착사업은 조선조에 들어와서도 추진하였으나 위와 같이 암석이 많고, 조수 때문에 끝내 성공하지 못하였다. 그때 공사하다 중단한 것이 현재 인평저수지로 남아 있다. 당시의 조창 조운제도를 알 수 있는 지명으로는 태안군 평천리 남창이라는 지명이 남아 있다. 안흥이라는 이름도 이지역의 뱃길이 험하여 편안하기를 기원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원래는 난행량(難行梁)이라고 하던 것을 안행량(安行梁)이라 하였다 한다. 『신증동국여지승람』 해미현 산천(山川)조에 안흥정(安興亭)에 관한 기록이 있는데 대명일

통지(大明一統志)에 “나라 중간에 목장지로서 옛날에 객관이 있었는데 안흥정이라 일컬었다.”고 하였다. 또 같은 책 고적(古跡)조에 안흥정은 현(縣)의 동쪽 11리 지점에 있고, 고려 문종(文宗) 31년에 나주도제고사대부소경(羅州道祭告使大夫少卿) 이당감(李唐鑑)이 아뢰기를, “중국 조정의 사신이 왕래하는 고만도(高蠻島)의 정자는 수로가 약간 막혀 있어 선척의 정박이 불편하오니 청하건대 홍주(洪州)의 관하 정해현 땅에 한 정자를 창건하여 맞이하고 보내는 장소로 삼도록 하소서.” 하니 제서(制書)를 내려 그 말에 따랐다고 한다. 송나라 사신으로 고려에 왔다가 쓴 『고려도경(高麗圖經)』의 33권 순선(巡船)에도 안흥이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고려는 땅이 동해(東海, 우리나라의 서해를 중국에서 부른 것)에 접해 있는데도, 선박건조의 기술이 간략하기가 심하다. 중간에 돛대 하나를 세워 놓고 위에는 다락방이 없으며, 다만 노와 키를 마련하였을 뿐이다. 사신이 군산(群山)으로 들어가면 문(門)에 이러한 순선이 10여척이 있는데 다 정기(旌旗)를 꽂았다. 뱃사공과 나졸(邏卒)은 모두 청의(靑衣)를 입고 호각을 울리고 징치고 온다. 각각 돛대 끝에 작은 깃발 하나씩을 세우고 거기에 홍주도순(洪州都巡), 영신도순(永信都巡), 공주순검(公州巡檢), 보령(保寧), 회인(懷仁), 안흥(安興), 기천(淸川), 양성(陽城), 경원(慶源) 등의 글씨를 썼다. 그리고 ‘위사(尉司)’라는 글자가 있으나 실은 포도관리(捕盜官吏)들이다. 입경(入境)해서부터 회정(回程)할 때까지 군산도에서 영접하고 전송하고 하는데, 신주(神舟, 중국사신의 배)가 큰 바다에 들어가는 것을 바라보고서야 자기 나라로 돌아간다.”

고 하고 있다. 이것은 송나라 사신이 고려에 올때 영접하는 상황을 기록한 것으로서 군산 앞바다에서 사신을 맞을 때 보령, 홍성, 안흥 지방의 배가 나왔던 것을 말한다. 또 『고려도경』 37권海道(海道) 4, 마도(馬島:현재의 해미면 양림리) 편에는 객관(客館, 사신을 맞는 집)의 이름이 안흥정(安興亭, 해미면 산수리)이라 하였다.

이와같이 이 지방의 이름에 안흥이니, 안행이니 하는 이름이 나온 것은 바다에서의 안전한 항행(航行)을 바라는 데서 붙여진 이름이었을 것이다. 더구나 고려가 송나라와 외교관계를 가질 때에 이지역을 통해서 운행하였던 것이다. 남송(南宋) 때에는 특히 흑산도, 군산, 안흥을 잇는 뱃길을 이용했을 것이 틀림없다. 안전항행을 기원하기 위한 사찰이 있었으니 『동국여지승람』 태안 불우조에 보이는 안파사(安波寺)라는 절이 바로 그러한 것이었다. 안파사는 태안군 근흥면 정죽리(안흥뒷산) 지령산(知靈山)에 있으며 고려 때 수로가 험악하여 조운선이 여러차례의 실패를 보아 이 절을 세운 것인데 중간에 왜적의 침입을 당하여 거의 다 파괴되었다가 조선 세조 때에 중건하였다고 한다.

조창으로서 고려때의 영풍창은 고려10대 정종때(1034~1046) 세운 것으로 순

성진이 있던 팔봉면 진장리 굴포와 가까운 팔봉면 어송리 창개에 있었던 것으로 현재 창지와 초석이 남아있다.

4. 고려시대 서산지역의 불교

1) 선종(禪宗)의 발달과 서산

통일신라 말기에 발달하기 시작한 선종은 이른바 9산(山)이라는 9개파를 형성하였다. 신라말 지방호족과 선종세력의 융합은 사회발전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충청도 서해안 지역에서 세력을 떨쳤던 선종 승려는 바로 성주산문을 개창한 낭혜화상 무염이었다. 무염은 그의 비에 의하면 무열왕의 둘째 아들 김인문의 후손으로서 몰락한 왕족이었다. 6두품으로 강등된 부친 때부터는 더욱 정치적으로 중앙에 진출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그러나 무염은 불교의 선종을 크게 발전시켜 불교사에서 특히 선종사에서는 태종 무열왕의 업적과 같이 비교되기도 하였다. 절이 천간이 넘고



〈사진〉 신라 철조여래좌상
보원사지 출토
(높이 150cm)
(중앙박물관 소장)

문도가 2천이라는 것으로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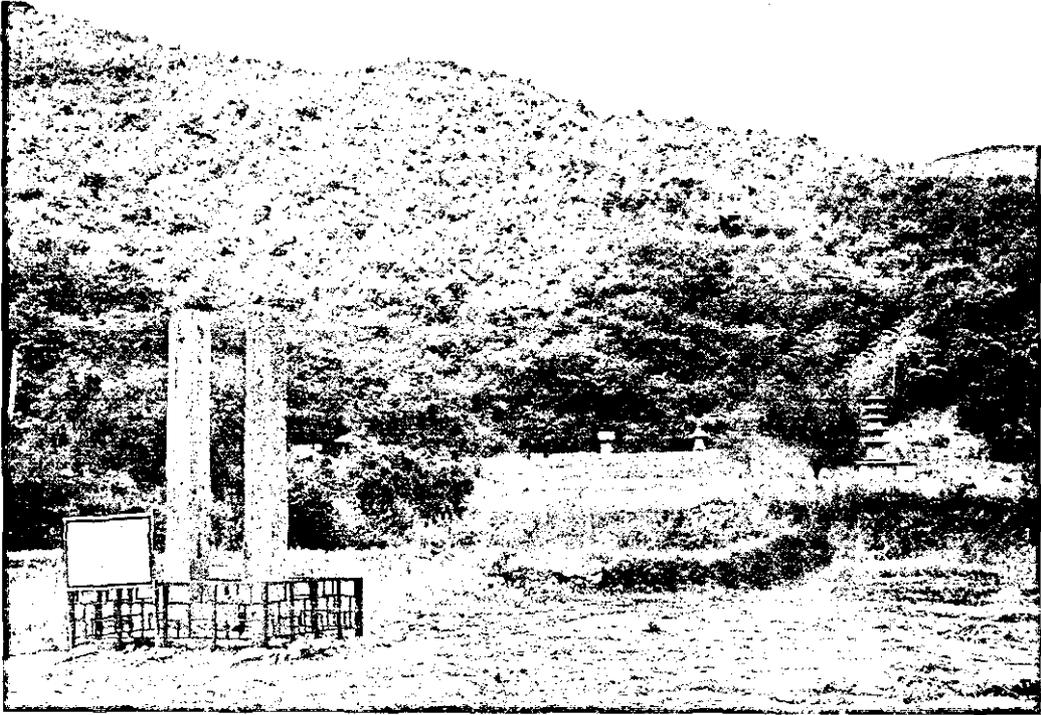
낭혜화상 무염의 성주산과는 오늘날의 보령, 홍성, 예산지방에 세력을 뻗었을 것이다. 그리고 물론 후삼국 시대에 성주산과 자체는 후백제의 영역 안에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의 제자들은 오늘날의 충청도 지역뿐만 아니라 경기도의 고려 영역에 세력을 확장하고 있었다. 여엄(麗嚴)과 이엄(利嚴)이 바로 그들이었고 그들의 행적을 미루어 오늘날의 서산·홍성지방 불교의 선종세력이 고려에게 내부한 것으로 보여진다.

대경대사 여엄(麗嚴, 862-930)에 대해서는 경기도 양평군 용문면 연수리의 미지산(彌智山) 보리사 터에서 발견되어 경복궁으로 옮겨진 보물 361호 보리사대경대사현기탑비(菩提寺大鏡大師玄機塔碑)에 기록된 내용을 보면, 그는 경문왕(景文王) 2년(862)에 보령의 남포에서 태어났다고 한다.

아홉 살에 무량수사(無量壽寺, 현재 부여의 무량사일 것이다)로 출가하여 주종(住宗)의 제자가 되었으며, 화엄경을 공부한 뒤 19세에 구족계(具足戒)를 받았다. 그러나 교종의 가르침이 진실을 분명하게 표현한 것이 아님을 느끼고 참선에 뜻을 두었다. 그 뒤 승엄산 성주사에서 선법을 현양하고 있는 무염스님을 찾아가서 수년 동안 수행하였다. 진성여왕 1년(887)에 무염이 입적하자 남쪽으로 내려가 영각산(靈覺山)에 있는 심광(深光)의 밑에서 수년동안 수행하다가 중국으로 건너가서 운거(雲居)의 지도를 받았다. 수년 동안 정진한 끝에 도를 깨우치고 운거의 법맥을 전해받고 효공왕 13년(909)에 무주(武州, 光州) 승평(昇平)을 통해서 귀국하였다. 그러나 전란이 심하여 월악(月嶽)과 미봉산(彌峯山)으로 피하였다가 소백산에 은거하였다. 그때 그의 덕을 흠모한 고려의 지기주제군사(知基州諸軍事) 강훤(康萱)이 태조에게 상문(上問)하자, 태조가 지평(砥平, 현재 양평) 보리사의 주지로 임명하였다. 그뒤 후학의 지도에 전념하다가 929년 11월 28일 세수 69세, 승납(僧臘) 50으로 입적하였다. 태조는 대경대사(大鏡大師)라는 시호와 함께 현기(玄機)라는 탑호를 내렸다. 제자로는 융천(融闡), 흥정(欣政) 등 5백여명이 있었다.

여엄은 다음에 기술할 이엄(利嚴), 사자산파(獅子山派)의 경유(慶猷), 가지산파(迦智山派)의 형미(迥微)와 더불어 고려 태조의 스승이었고, 해동사무외대사(海東四無畏大師)라 일컬어진다.

진철대사(眞澈大師) 이엄(利嚴, 870~936)은 해주에 있는 광조사진철대사보월승공탑비(廣照寺眞澈大師寶月乘空塔碑)에 의하면, 그의 조상이 계림(鷄林, 경주) 사람으로 낙향하여 서산지방에 정착하였다. 소태(蘇泰)에서 태어났다고 하니 지금의 태안 출신이다. 12세에 가야감사(迦耶岬寺)에서 출하여 덕량(德良)을 스승으로 득도하고 삼장(三藏)을 두루 탐구하였다. 가야감사는 가야산에 감사가 있었는데, 아니면 계룡산의 甲寺를 岬寺라 하였으니 비문의 작자가 혼동한 것인지 알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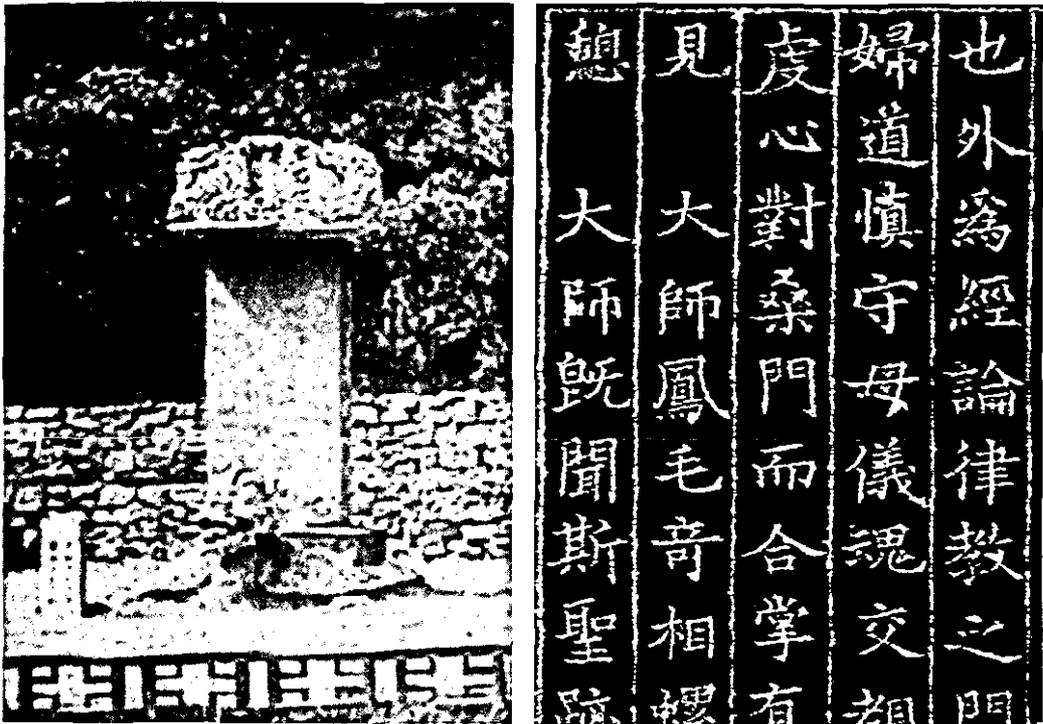
〈사진〉 보원사지 전경

그는 정강왕 1년(886) 도견율사(道堅律師)로부터 구족계를 받고 진성여왕 10년(896) 입절사(入浙使) 최예희(崔藝熙)를 만나 서해항로로 중국에 가서 조동종(曹洞宗)의 개조인 양개(良价)의 제자 도옹(道膺)의 선문(禪門)에서 수도한 지 6년 만에 도옹의 인가를 받았다. 그뒤 중국의 여러 곳을 찾아다니면서 고승들을 만나보고 효공왕 15년(911) 나주(羅州)·회진(會津)으로 귀국하였다. 김해부지군부사(金海府知郡府事) 소율희(蘇律熙)가 승광산(勝光山)에 당우를 짓고 청하였으므로 4년 동안 그곳에 머무르다가, 영동군(永同郡) 남쪽 영각산(靈覺山)으로 옮겼다. 그때 소문을 들은 승속(僧俗)들이 찾아와서 귀의하는 자가 매우 많았다고 한다. 명성을 크게 떨치자 고려 태조는 시중을 지낸 권설(權說)과 태상(太相) 박수문(朴守文)을 보내어 개경으로 초청하여 사나내원(舍那內院)에 맞아들이고 궁중으로 청하여 사자(師資, 스승과 제자관계)의 예로 대우하였다. 태조 15년(932) 왕건은 해주의 수미산에 광조사(廣照寺)를 짓고 머무르게 하였다. 이곳에서 선풍을 일으켜 수많은 문도를 지도하여 수미산파(須彌山派)를 형성하였다. 936년 자신의 세상 인연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고 제자들을 불러 부처의 엄계(嚴誡)를 지키며 정진할 것을 당부한 뒤 법당에서 입적하였다. 세수 67세, 승납 48년이였다. 그는 신라말에서 시작하여 고려초에 형성된 선종 9산 가운데 가장 늦게 성립된 수미산파의 개산조로 제

자로는 처광(處光)·도인(道忍)·정만(貞蔓)·경송(慶崇)·현조(玄照) 등이 있어 수미산파를 유지하면서 기풍을 후세에 까지 전하였다.

2) 법인국사 탄문(坦文)과 보원사(普願寺)

통일신라시대에 의상이 화엄종을 개창하여 서산지방에서도 발달했을 것이다. 부석사라는 절이 세워진 것을 보아서도 알 수 있다. 고려초에 융성한 보원사(普願寺)는 최치원이 쓴 법장화상전(法藏和尚傳)에 이르는 화엄십찰(華嚴十刹)의 하나이다. 즉 화엄종의 10대 사찰에 든다는 것이다. 삼국유사의 의상전에는 화엄 10찰이라 하며 6개의 사찰 이름만 들었는데 거기에는 쓰여 있지 않다. 지금은 운산면 용현리에 있는 보원사의 폐사지만 남아 있는데 고려시대까지는 화엄종의 10대 사찰로서 영주 부석사나, 동래 범어사, 가야산 해인사, 계룡산 갑사 등과 맞먹는 큰 사찰이었음에 틀림없다. 이 폐사지에는 지금 보물 다섯 점이 있으니 보원사지 석조(보물102호), 보원사지 당간지주(보물103호), 보원사지 5층석탑(보물104호), 보원사지 법인국사보승탑(普願寺址 法印國師寶乘塔, 보물105호), 보원사지 법인국사보승탑비(보물106호) 등이다.



〈사진〉 보원사지 법인국사 보승탑비와 탁본

법인국사보승탑비의 비문은 1행에 120여 자씩 5천 5백여 자가 기록되어 있는 방대한 비석이다. 법인국사비에 남아 있는 기록을 가지고 그의 행적과 보원사에 대해 살펴 보기로 한다.

법인국사의 법호(法號)는 탄문(坦文), 자(字)는 대오(大悟), 속성은 고씨(高氏)이며 경기도 광주(廣州) 사람이다. 일찌기 선조때부터 덕을 쌓은 훌륭한 집안이었으며 아버지도 고을을 잘 다스린 선비였다. 어머니는 전씨(田氏)이며 현모양처였다. 신라 효공왕 4년(900) 8월 14일 새벽 동틀 무렵 태어났다. 어려서부터 말을 함부로 하지 않았으며 불상(佛像)만 보면 마음을 경건히 하였으며 출가수도(出家修道)하는 스님을 보면 반드시 합장하고 그 근기(根氣)가 자못 숙성하였다. 다섯살 때 출가하여 세상 번뇌를 잊고 불교계에 마음을 붙이고자 먼저 어머니께 아뢰니 임신중의 꿈을 생각하고 울며 말하기를 “내세에 나를 재도하여 줄 것을 원할 뿐 문간에서 내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지 않겠다.”고 하였다. 이어 아버지께 아뢰니 아버지도 흔쾌히 허락하였다. 스님은 곧 부모에게 하직을 고하였으며 마음을 닦아 성불하고자 결심하고 향산대사(鄕山大寺)의 대덕화상(大德和尚)을 찾아갔다. 다시 신엄대덕(信嚴大德)이 장의사(藏義寺)에서 화엄경을 강설한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가 화엄경을 수학하며 독송하였다.

스님은 하루에 한 권을 읽으면서도 조금도 어려워하지 않았다. 정성껏 스승을 시봉하고 공부하여 그 진취가 날로 향상하였다. 열다섯 살에 드디어 장의산사에서 구족계(具足戒)를 받았다. 처음에 율사가 꿈에 한 신승(神僧)을 만났는데 그가 말하기를 “새로 수계하려는 사미(沙彌) 중 ‘문(文)’이라는 이름을 가진 자가 있으니 이 사미는 비상한 사람이다. 그는 법에 있어 화엄경의 대기(大器)이니 어찌 몸을 수고롭게 하여 수계할 필요가 있겠는가?” 하였다. 꿈에서 깨어 명단을 찾아보니 대사의 이름이 있었다. 율사가 기이하게 여겨 꿈 이야기를 하며 말하기를 “신(神)이 이미 경계하였으니 수구(受具)할 필요가 있겠는가” 하니 대사는 “저의 마음이 돌처럼 움직이지 않는 것이니 어찌 한번 수계하려고 먹은 마음을 변하겠습니까? 원컨대 불타(佛陀)의 법손(法孫)이 되려면 마땅히 보살계를 받아야 합니다.” 하였다. 드디어 계를 받고나서 실천이 더욱 아름다웠다. 이로 말미암아 명성이 천리에 퍼져서 태조왕건이 듣게 되었으며 대사가 승려 중에서 뛰어났고 각수(覺樹) 중에서 뛰어난 지혜로운 자이니 칙제(勅制)를 내려 이르기를 “이미 유년에 기이함을 보여 성사미(聖沙彌)라 하였으니 오늘에는 그 기이함을 나타내어 별화상(別和尚)이라 일컫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였다. 태조와의 관계가 깊었으며 9년(926)에는 후궁인 유왕후(劉王后)가 임신한 후 좋은 태몽을 꾸었으므로 옥같은 아름다운 왕자를 낳기를 원하여 법력을 빌도록 하였다. 태어난 왕자가 바로 광종(光宗)이었다.

탄문은 화엄종의 수장으로 별대덕(別大德)이란 법칭(法稱)을 받았고 법문을 청하는 자가 수없이 많았고, 문도(門徒) 또한 번창하였다. 태조가 죽고 2대 혜종(惠

宗), 3대 정종(定宗) 때에도 왕실을 위한 법회와 사경을 계속하였다. 광종이 즉위 하여서는 더욱더 밀접한 관계를 맺었다. 광종이 왕권강화를 위한 정책을 실시하여 많은 귀족세력을 축출하는데 불교의 힘을 빌리려 했던 것 같다.

이 과정에서 탄문은 잠시 광종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기는 하였으나 귀법사(歸法寺)를 창건하는 등 불교를 중시하면서 인연을 끊을 수가 없었다. 이는 태조가 선종 세력에 의지하여 후삼국을 통일하지만 결국 왕권 강화를 위해서는 교종의 힘을 빌리려 했을 것이다. 광종때에 이르러서는 화엄종 계열인 탄문(坦文), 균여대사(均如大師) 등과 가깝게 되었을 것이다.

스님은 노쇠하여 고산(故山)에 돌아가기를 간청하였다. 이때의 고산은 말할 것도 없이 가야산 보원사였다. 광종은 개성에 있는 귀법사(歸法寺)에 거주토록 요청하면서 국사(國師)가 되어주기를 원하였으나 늙고 병들었음을 핑계로 사양하였다. 그러나 광종이 간절히 요청하여 사양할 수 없게 되었다. 통일신라시대에도 국사(國師)라는 칭호는 있었다. 효소왕(孝昭王) 때 혜통(惠通), 후의 무염(無染)이 국사의 칭호를 받았다. 고려에서는 석문(釋門)의 덕이 높은 자를 왕사(王師)로 삼았고 더욱더 위대한 자를 국사(國師)로 삼았다. 광종(光宗) 때에 삼중대사(三重大師)까지의 승계가 갖추어졌고 처음으로 왕사, 국사제도가 만들어짐에 광종 19년(968)에 혜거(惠居)를 국사로 탄문을 왕사(王師)로 책봉하였으니 탄문(坦文)은 삼중대사(三重大師)였다. 광종 26년에 국사로 책봉받고 곧 사거(死去)하였다.

탄문은 왕사가 되고 국사가 된 최초의 승려였고 생존시에 처음으로 국사로 책봉된 스님이다. 국사로 책봉된다는 것은 이 시대 최고의 명예였다. 국사(國師)에게는 왕이 '제자의 예(弟子之禮)'를 행하고 왕이 구배(九拜)를 올린다 하였다. 진성여왕 때에 국사로 책봉된 심희(審希)는 승탑(繩榻)에 올라가 이국안민지술(理國安民之術)을 왕에게 말한 사실이 있다. 법인국사는 왕을 위하여 경국(經國)의 방법을 말하고 왕이 부처에 의지하여 백성을 교화하는 도리에 더욱 힘쓰도록 했다.

스님이 늙고 병들어 수레를 타고 왕과 헤어질 때 승려와 신도가 물결처럼 모여 들었고 일행이 가야산에 당도하였을 때 그 절의 스님들이 부처님을 영접하는 선악(仙樂)을 갖추었고 법구경(法句經)을 쓴 깃발이 구름처럼 날리고, 나팔과 소라소리가 우뢰와 같이 진동하며 선종 교종승 등 천여명이 영접하여 절로 들어갔다. 왕이 스님의 병이 깊음을 알고 궁중의(宮中醫)인 공봉시랑직문(供奉侍郎直文)에게 특별히 선약(仙藥)을 가지고 가서 곁에서 조석으로 간호하라고 하였다. 광종 26년(975) 대사께서 열반에 들어 영구를 가야산 서쪽 능선에 모셨다. 광종이 죽고 경종(景宗)이 즉위하여서도 태자 때부터 섬겨오던 터였으므로 대사에게 시호를 법인(法仁), 탐묘를 보승(寶乘)이라 추증하였다. 왕이 학자 정언(廷彦)에게 비문을 쓰라고 하였으나 사양하였다. 이는 정언이 스님에 비하여 부족함이 많아 감히 스님의 비문 쓰는 것을 사양하였으나 임금의 간청하여 비문을 썼다.



〈사진〉 무학대사의 성장지, 주석했던 것으로 전해지는 간월암

스님이 태어나던 때는 신라 말의 혼란기였으며 출생지 광주(廣州)는 일찌기 궁예(弓裔)가 세력을 확장한 곳이고 고려가 건국되어서도 확실한 고려의 영토였다. 통일신라 때부터 많은 호족이 성장한 곳이기도하다. 탄문이 서산지방에 주석하게 된 것은 선종의 성주산파와도 인연이 있었을 것 같다. 보원사에 있을 때 삼본화엄경(三本華嚴經)을 받들고 날마다 밤중에 불상을 모신 법당에서 경행(經行)하길 몇 년을 계속하는데 어느날 밤 홀연히 삼보전객실(三寶前客室) 앞에 한 스님이 왔기에 “스님은 어디서 오셨습니까” 하니 대답하기를 “성주원(聖住院)에 거주하는 오백승인데 인연에 따라 지나게 되었으니 원컨대 여기에 머물도록 해주시오” 하였다 한다. 다음날 아침 보니 뜰에 호랑이 발자국만 있었다 하는데 이를 오백나한이 강임(降任)한 것이라 하나 성주산파의 선종 승려들이 보원사의 탄문의 명성을 듣고 귀의한 것이라 추측할 수 있다.

서산지역의 불교는 이후로도 많은 고승을 배출하였다. 고려말의 태고 보우국사(太古 普愚國師)는 홍성 출신이었고, 무학대사(無學大師)는 간월도 간월암에 주석하였다고 하며 그런가하면 무학대사가 출생한 곳으로 인지면 애정리 쑥대기가 서산 사람들에게는 널리 알려져 있다. 서산시에서는 이곳에 유허비를 세웠다.

또한 한말에도 우리나라 최근세 선종의 중흥조라 일컫는 경허(鏡虛) 스님은 고

북의 천장암에서 선종을 날렸으며 개심사(開心寺), 부석사(浮石寺)에 거주하기도 하였다. 그의 제자 만공(萬空) 스님은 수덕사에 계시면서 간월암에 자주 들러 우리나라 불교 중흥의 산실을 제공한 것은 이 지역에 수덕사, 개심사, 부석사 등이 성주산과, 보원사의 맥을 이은 것이라 할 수 있다.

5. 고려 후기의 서산

1) 무신집권기의 서산

무신란 후 농민과 천민의 반란이 치열하게 일어났으니 특히 명종 신종조(明宗 神宗朝)의 30년간에 전국 각지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였다. 명종 6년(1176) 공주 명학소(鳴鶴所)의 망이(亡伊)·망소이(亡所伊)의 난이 천민의 난의 시작이다. 망이·망소이 등은 무리를 모아 산행병마사(山行兵馬使)라 자칭하고 공주를 공격 함락시킴으로써 반란이 시작되었다. 정부에서는 선유하였으나 듣지 않으며, 장사 3천 명을 보내 토벌케 하였으나 오히려 패배하여 많은 군졸을 잃었다. 이에 조정은 무력에 의한 토벌을 그만 두고 회유책을 쓰기로 하였다. 망이의 향리인 명학소를 충순현(忠順縣)으로 승격시켜 현령(縣令)과 현위(縣尉)를 설치하고 다시 관리를 파견하여 선유케 한 것이다. 그러나 난민은 이에 응하지 않고 도리어 예산현(禮山縣)을 공략하여 감무(監務)를 살해함에 이르렀다. 이에 정부는 재차 무력행사를 결의하여 대장군 정세유(鄭世猷)와 이부(李夫)를 처치병마사(處置兵馬使)로 삼아 좌우도로 나누어 남적(南賊)을 치게 하니 망이 망소이는 하는 수 없이 명종 7년 정월에 내항하였다. 정부는 이들을 회유하기 위하여 처형하지 않고 도리어 곡속(穀粟)을 주어 향리로 호송하였다.

그런데 다음달에 다시 망이 등의 반란이 재기하였다. 명종 7년 2월에 망이 등은 다시 반란하여 가야사(伽耶寺)를 침략하고, 3월에는 홍경원(弘慶院, 稷山)을 불사르고 승려 10여명을 죽이고 주지승으로 하여금 강제로 다음과 같은 글을 개경정부에 전하게 하였다.

“이미 우리 향리를 현으로 승격하고 수령을 설치하여 안무하더니, 이제 돌이켜 다시 군대를 발하여 내토하고 나의 모처(母妻)를 붙잡은 의도가 어디 있느냐? 오히려 칼날 아래 죽을지언정 끝끝내 항복하지 않고 반드시 왕경에 이르고 말겠다.”

이 글을 보면 망이(亡伊) 등이 다시 일어난 동기가 관군이 돌이켜 다시 군대를



〈사진〉 손청이 난을 일으킨 가야산 전경

파견하여 토벌하려고 한 데 있는 것 같다. 이리하여 이들은 다시 아주(牙州, 아산)까지 함락하였으니, 이때 청주목(淸州牧)의 치소를 제외하고는 관내의 모든 군현이 이들에게 점령되었다 한다. 이제 정부는 남적에 대하여 강경책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관군을 독려하기 위하여 선지사용별감(宣旨使用別監)을 파견하여 전공의 다소를 심사케 하고, 또 충순현의 호를 취소하는 등 적극적인 방침으로 나갔다. 이 결과 반군은 큰 타격을 입은듯 망이는 사람을 보내 항복을 청하고 마침내 7월에는 망이·망소이 등이 남적처치병마사 정세유에게 붙잡혀 청주옥에 수감됨으로써 1년 반이나 계속된 반란이 진정되었다.

망이·망소이의 난이 계속되는 동안에 또 다른 계통의 남적이 있었다. 명종 6년 11월에 병마사를 자칭한 가야산(伽耶山)의 남적수(南賊首) 손청(孫淸)이 이듬해 2월에 우도병마사에게 붙잡혀 목베어졌는데 가야산은 망이 등이 재반란한 가야사(伽耶寺)가 있는 지방이므로 같은 도당이 아닌가 하지만 손청(孫淸)이 남적수(南賊首)라 하고 또 망이와 같은 병마사를 자칭한 것으로 보아 독립적인 민란으로 본다.

명종 12년(1182)에는 관성(管城 : 충북 옥천)과 부성(富城)에서 민란이 폭발하였다. 부성현 즉 서산에서는 현령과 현위가 서로 반목하여 그 해가 백성들에게 미쳐 고통이 심하매 마침내 그들은 현령(縣令)과 현위(縣尉)가 집무하는 관아를 폐쇄

하고 수령을 감금하였으며 이때 위아(尉衙)의 부하(宰僕)를 살해하였다. 무신란 후에는 외관에 문무교차지법(文武交差之法)이 실행되어 현에는 현령(縣令)·현위(縣尉)가 문관과 무관으로 병차(並差)되었으므로 농민에 대한 수탈이 배가 되었을 뿐 아니라 양인의 불화로 더욱 해가 심하였으니, 이것이 부성현민의 난으로 폭발한 것이다. 관성 부성현의 반란은 무신란 후의 외관제(外官制)의 모순과 수령의 탐학에 대한 농민들의 반항운동이었으며, 정부는 이를 진압한 후 두 현의 현호를 삭제하고 수령을 폐하여 격하시켜 버렸다. 이후 이곳은 “이살리(吏殺里)”로 불려지다가 조선 시대에 “이사리(而沙里)”로 불려지게 되었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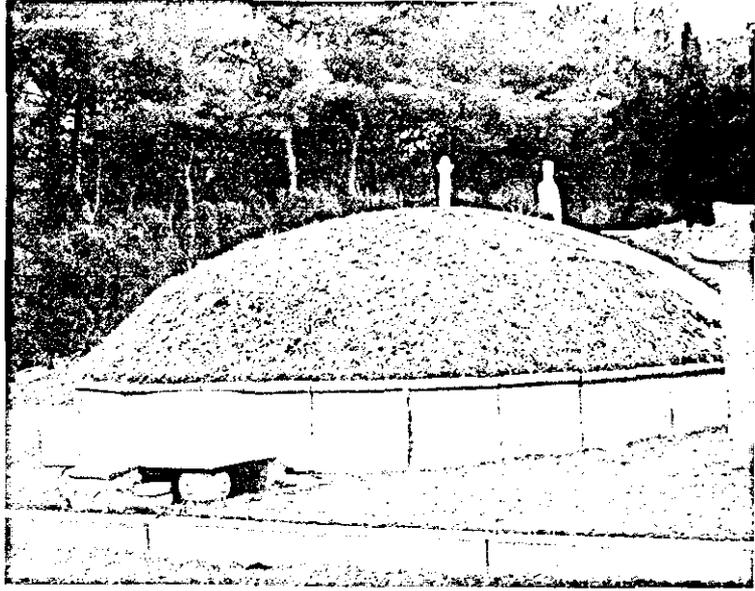
2) 원 간섭기의 서산

몽고가 대륙을 석권하면서 고려에 침략하였다. 40여년의 투쟁 끝에 결국 화의를 맺어 원의 간섭을 받게 된다. 이 시기에 서산 출신 인물들이 중앙무대에 진출하는 사람이 많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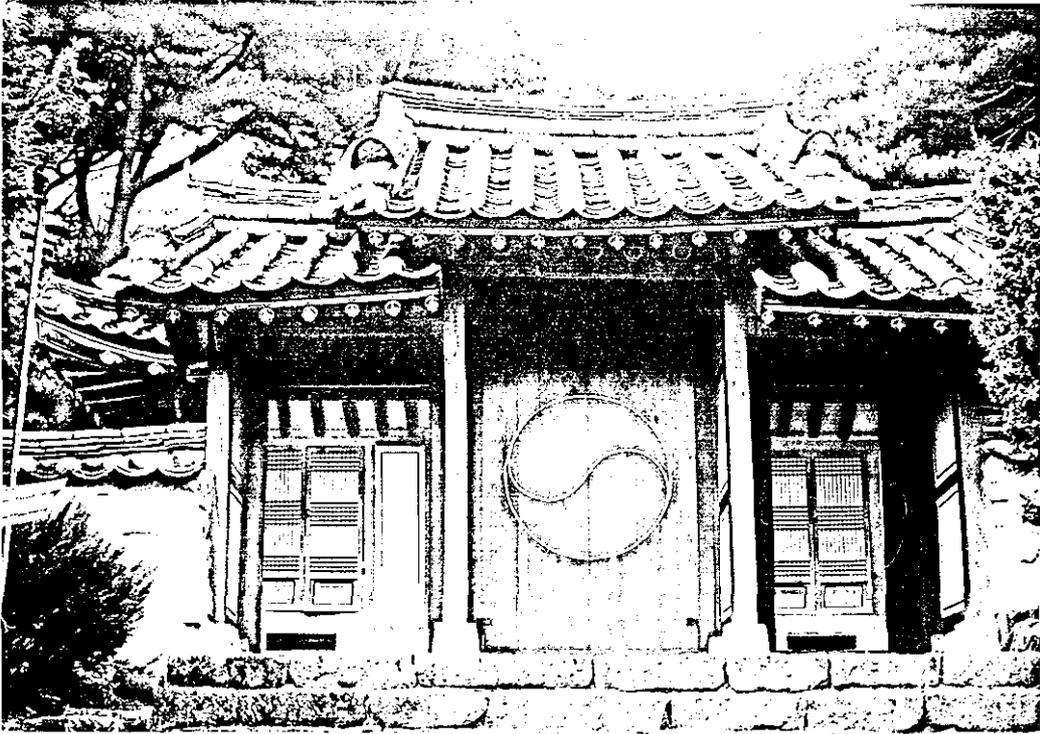
대표적인 인물로서 정인경(鄭仁卿, 1237~1305)을 들 수 있다. 정인경은 고려 사 열전의 기록에 의하면 고종 24년(1237) 송의 형부원의랑을 지냈던 신보(臣保)의 아들로 처음 외교관[舌人]으로 출발하였으나 고종 말에 몽고병이 내침하여 직산 신창(稷山 新昌)에 주둔 할 때 정인경이 밤을 타서 진지를 쳐 공을 세워 제교(諸校)에 임명되었다. 원종 10년(1269) 충렬왕이 세자로서 원에 갔을 때 정인경이 시종(侍從)하였다. 세자가 돌아오다가 파사부(婆娑府)에 이르니 임연(林衍)의 변을 고하는 자가 있었다.

이때 정인경의 아버지가 인주(麟州)를 지키고 있었는데 정인경이 가만이 강을 건너 부친에게 가서 임연의 반역상황을 자세히 알고 와서 세자(世子)에게 고하여 원의 서울에 돌아가 황제에게 알리도록 하였다. 군사를 청하여 와서 치고자 하니 주위의 신하들이 돌아갈 것을 생각하고 머뭇거렸다. 정인경이 홀로 힘써 권하니 세자가 이를 따랐다. 이 공으로 충렬왕이 즉위하자 시종일등공신(侍從一等功臣: 고려 사 열전에는 2등공신으로 되어 있으나 세가에는 1등으로 되어 있다)에 오르고 그 고향인 부성현을 서주군(瑞州郡)으로 삼았다.

충렬왕 5년(1269)장군으로 원나라에 가서 일본원정 준비에 홍다구(洪茶丘)가 간섭하지 못하게 할 것을 건의하였다. 1282년 친종장군(親從將軍)으로서 요동 심양에 가서 유민들을 추쇄(推刷)하여 왔으며, 이듬해 대장군으로서 요양(遼陽)과 북경에 가서 유민들을 추쇄하여 왔고, 1288년 상장군(上將軍)에 올랐다. 충렬왕 16년(1290)에 왕이 동녕부(東寧府, 원이 평안도 지방을 직접 다스리기 위하여 평양에 두었던 관청)를 파하여 다시 우리에게 돌리기를 청할 때 정인경이 부주(敷奏)하기를 심히 상세히 하니 황제가 받아들였다. 왕이 이를 가상히 여겨 부지밀직(副知



〈사진〉
정인경의 묘소



〈사진〉 정인경을 모시고 있는 송곡향현사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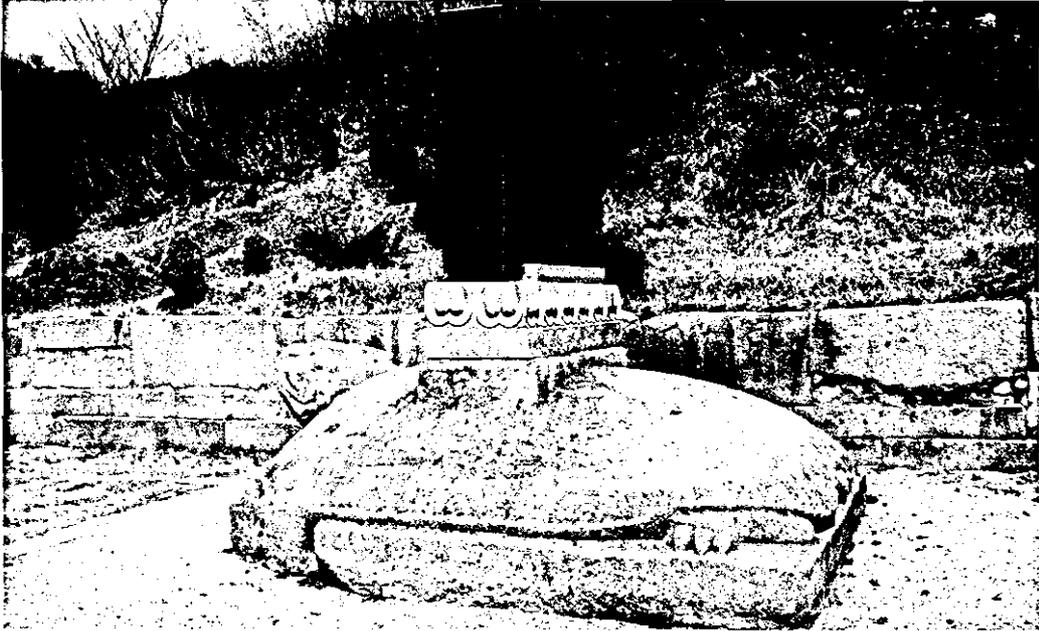
密直)에 오르고, 서북면도지휘사(西北面都指揮使)로서 서경유수(西京留守)가 되었다. 원의 반란군인 합단적(哈丹賊)이 和·登(和州는 永興, 登州는 安邊) 두 지역을 침략하여 접경 왕도가 강화로 피하니 정인경도 서경(西京)을 지키다가 강화로 왔다. 이어 동지밀직사사(同知密直司事)에 올랐으나 이 때 나라에서 양가(良家)의 처녀를 뽑기 위하여 혼인을 금하였는데 정인경이 이를 위반하였다. 이로 인하여 섬으로 유배당하였다가 25년에 판삼사사(判三司事)가 되어 정조사(正朝使)로서 원나라에 다녀왔다. 곧바로 도첨의찬성사(都僉議贊成事)를 거쳐 중찬(中贊)에 이르렀다가 벼슬에서 물러나게 하고 벽상삼한삼중대광추성정책안사공신(壁上三韓三重大匡推誠定策安社功臣)이라는 공신호를 하사하고 또 명하여 영정을 그려 벽에 걸게 하고 녹권(錄券)을 하사하였다. 충렬왕 31년(1305)에 죽으니 나이 69세요, 시호를 양렬(襄烈)이라 하였다.

성품이 근직(勤直)하여 처음에는 외교관으로서 이르는 곳마다 이름이 알려졌다. 일찌기 황제의 명을 받아 무덕장군정동성이문관(武德將軍征東省理問官)이 되었다. 아들로써 신유(信柔), 신영(信英) 등이 있었는데 모두 현달하였다.

조선 광해군 때에 이조정랑(吏曹正郎)을 역임한 한여현(韓汝賢)이 저술한 『호산록』의 기록에는 정인경의 아버지 신보는 중국 절강성(中國 浙江省)에 살던 사람으로 송의 형부원의랑으로 있었는데, 몽고의 징기즈칸이 천하를 통일하고 송(宋)나라가 망하자 원수나라의 신복(臣僕)이 될 수 없다 하여 소주(蘇州) 항구에서 뗏목을 타고 직접 바다를 건너서 간월도(看月島)에 거주하다가 아들 인경과 대사동(大寺洞)에 살면서 스스로 생각하기를 송나라 사람으로서 나라가 망하고 유리표박되었다 하여 매양 송추(松楸, 고향)를 생각하여 고국을 바라다보고 오직 백운이 날아갈 적마다 항상 비통한 심회가 생겨 거주하던 앞 산봉우리에 올라 조석으로 고향을 그리워하며 통곡하였다고 한다. 이후 이곳을 망운대라 하였다.

그가 서산 정씨의 시조이다.

이들에 뒤이어 또 한사람의 뛰어난 서산 인물이 있으니 유숙(柳淑, 1324~1368)이다. 고려사 열전의 기록에 그는 1340년(충혜왕 복위 1) 과거에 급제하여 안동사록(安東司錄)이 되었으며, 이어 강릉대군(江陵大君, 공민왕)을 시종하여 4년간 원(元)에 있었다. 1351년 공민왕이 즉위하자 함께 고려에 돌아와 좌부대언(左副代言)이 되었고, 이듬해에는 연경(燕京)에서 왕을 보좌한 공으로 연저수종(燕邸隨從) 1등공신의 호를 받았다. 이어 우대언 좌사의대부(左司議大夫)를 역임하다가 1352년 조일신의 무고로 파직, 시골에 돌아가 있었다. 조일신이 죽은 뒤 다시 기용, 1354년 우대언 판전교(判典校)·판도판서(版圖判書)·전리판서(典理判書)를 거쳐 1356년에는 추밀원직학사(樞密院直學士)가 되었다. 이어 동지추밀원사 상의회의도감사(商議會議都監事)에 임명되었고, 1359년에는 지추밀원사로 앞서 기철(奇轍) 일당을 잡아 죽이는데 세운 공으로 안사공신이 되었으며 다시 추밀원사에 올랐



〈사진〉 유숙의 비



〈사진〉 유숙을 모신 성암서원

다. 이해 겨울 홍건적이 침입하자 왕에게 권하여 남행하게 하였고, 이어 한림학사 승지동수국사(翰林學士承旨同修國史)를 역임하였으나, 안우(安祐) 등의 위협으로 동경유수(東京留守)로 나갔다. 1362년 지도첨의(知都僉議)로 동 지공거(同知貢舉)가 되어 우시중 홍언박(洪彦博)과 함께 과거를 주관하였으며, 1363년 홍건적의 난 때의 공으로 충근절의찬화공신(忠勤節義贊和功臣)의 호를 받았고 첨의평리(僉議評理)에 올라 서령군(瑞寧君)에 봉하여졌다. 1363년 김용(金鏞)이 흥왕사(興王寺)에서 변란을 일으켰을 때 공을 세워 정당문학겸감찰대부(政堂文學兼監察大夫)가 되어 1등공신에 책록되었으며, 첨의찬성사상의회의도감사에문관대제학지춘추관사(僉議贊成事商議會議都監事藝文館大提學知春秋館事)에 올랐다. 1365년 그의 충직을 두려워 하던 신돈(辛旽)의 모함으로 시골에 들어가 있다가 영광(靈光)에서 신돈이 보낸 자에게 교살당하였다. 공민왕의 묘정에 배향되었으며 시호는 문희(文僖)이다.

유숙의 아들 유실(柳實)도 무예에 능하여 말타고 활쏘기를 잘하였다. 1361년 (공민왕 10) 10여만 명의 홍건적(紅巾賊)이 재차 침입해 오자 왕은 안동으로 피난하였는데 그때 왕을 호종한 공으로 2등공신이 되었고 1363년 김용 일파가 흥왕사에서 난을 일으켰을 때 왕을 피난시킨 공으로 역시 2등공신이 되었다. 우왕이 즉위하여 판도판서가 되었고 1376년 전라도병마사로 있을 때 왜구를 실은 20여척의 배가 임주(林州)에 침입해오자 지익주사(知益州事) 김밀(金密)과 더불어 싸워 물리쳤다. 같은 해 왜구가 또 낭산(朗山, 지금의礪山) 등지에 침입하자 원수 유영(柳滌)과 함께 싸워 30여명을 죽이고 우마 300여 마리를 빼앗아 그 주인에게 돌려주니 우왕이 심히 기뻐하여 후한 상을 내렸다. 이듬해 해주와 평주에 왜구가 침입해오자 최영(崔瑩), 변안열(邊安烈) 등과 함께 이를 격주(擊走)시켰다. 그 뒤 왜의 기병 300여기가 고부 태인 등지에 침입하여 관사를 불태우자 이를 추격하였으나 패퇴시키는데 실패, 전주를 함락당하고 말았다. 계속하여 적에 대항하여 싸웠으나 패하였다. 그리하여 헌사(憲司)로 부터 탄핵을 받아 봉익(奉翊) 이상의 벼슬은 삭탈되어 유배되었다가 곧 석방되어 밀직부사상의(密直副使商議)로 죽었다.

유숙의 증손 유방선(柳方善)은 시를 잘 써서 명성이 있었다. 영락 연간에 화를 만나 영천(永川)에 귀양갔다가 뒤에 사면되어 서거정(徐居正)등 학자들이 많이 그를 따라 배웠으며 『태재집(泰齋集)』이 있다. 유윤겸(柳允謙, 1420~?)은 유방선의 아들로 문과에 급제하여 벼슬이 대사간에 이르고 문장이 능하며 두시언해를 썼다. 서령유씨의 인맥이 고려말에서 조선 초에 명성을 날렸고 서산에 본관을 두고 있는 대표적인 성씨이다. 유숙의 6대조이며 문화유씨 시조인 유차달의 9세손인 성간이 문화유씨(文化柳氏)에서 분파하여 서산지방에 정착하여 서령유씨의 시조가 되었다.

3) 삼별초(三別抄), 왜구(倭寇)의 침탈과 서산

몽고와의 항쟁 끝에 천협의 요새를 기화로 강화천도를 단행하여 몽고에 대항하였다. 몽고와의 강화를 계기로 개경으로 환도하였다. 삼별초는 이에 굴하지 않고 항전을 주장하였다. 삼별초는 남해안으로 이동하였다. 강화도에서 서해안을 따라 진도로 이동할 때 경기도 서해안 남양만(南陽灣)·영흥도(靈興島)를 거쳐 충청도 서해안 즉 태안반도를 거쳐 서해 일대의 도서(島嶼)를 경략하면서 내려가지 않을 수 없었다. 삼별초가 진도에 거점을 두고 항거할 때 전라·경상도 지방이 많이 동조하고 있었다. 아마도 충청도의 서해안 지역인 서산지방은 이들의 영향을 받은바 컸을 것이다.

왜구(倭寇)라는 말은 대략 13세기에서 14세기까지, 또는 16세기에 걸쳐 우리나라와 중국 연안에서 구도행각(寇盜行脚)하던 일본인의 해적(海賊) 집단에 대한 총칭으로 사용된 것이다. 고려말의 왜구는 충렬왕 4년(1278) 원의 쿠빌라이가 고려 주둔 원군(元軍)의 철수를 지시할 때 충렬왕과의 대화 속에서 “왜구지침시차(倭寇之侵始此)”라 하면서 왜구에 대한 대비 문제를 이야기 한데서 처음 찾을 수 있으니 왜구의 본격적인 시작은 충정왕 2년(1350)이 시초라 할 수 있다.

고려말에 있어서 왜구 침입은 고려왕조의 운명을 더욱 채찍질하였다. 왜구침입의 대상지역은 지리적으로 가까운 우리나라였다. 그 중에서도 심한 곳은 남해안지방이고 그 다음이 곡창지대와 조운선의 통로인 서해와 그 연안이었다. 왜구는 남해로부터 서해를 통해 들어오는 조운선 약탈 등을 주요 대상으로 삼았기 때문에 동해안보다 서해안이 왜구의 대상 지역이었다. 왜구 침입은 충정왕 2년으로부터 공양왕 4년(1392) 까지 약 40년에 걸치는 것으로 이 기간 동안에 왜구의 침탈을 면한 곳은 거의 없다. 지역적으로 경상·전라·충청도가 가장 심했으며 경기·황해·강원·평안·함경도 등에 이르기 까지 어느 도도 빠진 곳은 없었다. 특히 삼남지방의 연해안은 물론이고 내륙 깊숙이 까지 왜구가 침입 횡행하였다. 서울인 개경에 가까운 승천부(昇天府)·강화(江華)·교동(喬桐)·예성강(禮成江)에 까지 자주 출몰하여 약탈과 방화를 자행하였다. 그래서 개경에 까지 자주 계엄령이 내려졌고 천도론까지 나올 정도였다. 공민왕에서 우왕대에 까지 규모도 점차 커져 기(騎) 7백에다 보(步) 2천여로서, 3천에 가까운 대부대가 형성되었다.

이들 왜구 때문에 전라도 조운선 2백여 척이 약탈당했으며 조정에서는 조운선이 제대로 통하지 못하자 관리들의 녹봉을 제대로 주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뿐만 아니라 왜구침입로가 확대되자 수로(水路)가 저해를 받아 조운을 파(罷)하기 까지 하였고 왜구 침입이 잦아서 연변 조창 등이 약탈되므로 전라도 연해지방의 창고를 내륙 깊숙한 곳으로 옮기기도 하였다.

왜구를 회유하기 위하여 구도행각의 중지, 회유책으로 공민왕 13년(1364) 6월 경상 전라에 왜인만호부(倭人萬戶府)를 두고서 왜노(倭奴)들을 회유하여 관직을

주는 등의 방법을 썼다. 이러한 왜구초유책에도 불구하고 5년 후인 공민왕 18년에는 거제(巨濟)·남해현(南海縣)에 있는 투화왜인(投化倭人)들이 배반하여 일본으로 돌아갔다. 그 외에도 왜구들은 영주(寧州)·온수(溫水)·예산(禮山)·면주(溍州) 등지의 조운선을 약탈하였는데, 처음에는 그들 왜인들이 거제도에 살면서 영구히 화친을 하겠다고 하므로 고려에서는 이를 믿고 허용하여 주었는데 오히려 도적과 약탈을 일삼았다.

고려에서는 왜구에 대하여 소극적으로는 방지에 주력하고, 적극적으로는 침입 왜구의 토벌과 나아가서는 대마도정벌(對馬島征伐)까지도 단행하게 되었다. 왜구 토벌이라 하지만 토벌군의 패퇴도 한두번이 아니다. 『고려사』 병지(兵志)에 보면 왜구와 싸우다가 패퇴하여 사상자가 대단히 많았다던가 전라도 조선(漕船)이 왜구 때문에 통하지 못하므로 경기 우도와 좌도 병마사로 하여금 호위하게 하였으며 대패하여 병마판관(兵馬判官)과 중랑장(中郎將) 및 사졸(士卒)의 죽음이 10의 8, 9라던가, 전라도 도순어사(全羅道 都巡禦使)는 조운선이 내포(內浦)에 이르렀을 때 왜구와 싸우다가 패배하여 죽은 자가 태반이라 기록하고 있다. 위에서 예산(禮山), 면주(溍州), 내포(內浦) 등은 오늘날 충청도 서해안지방을 말하는 것이다.

왜구는 우왕(偶王) 6년(1380) 8월 가장 큰 규모로 침입해 왔다. 이때 적선 5백척이 금강 어구인 진포구(鎭浦口) 즉 서천에 쳐들어와 대 부대를 상륙시켜 각 주군(州郡)으로 흩어져서 살인 약탈을 자행하여 시체는 산야(山野)를 덮었고 약탈한 곡식을 운반해 가는데 홀린 곡식이 약 1차 가량이나 쌓였다는 것이다. 이에 나세(羅世), 심덕부(沈德符), 최무선(崔茂宣) 등이 출동하여 최무선이 제조한 화포(火砲)를 처음으로 사용해서 큰 전과를 올렸다. 약 40년간에 걸친 왜구와의 싸움에서 특기할 만한 큰싸움은 최영(崔瑩)의 홍산대첩(鴻山大捷), 나세(羅世)의 진포(鎭浦)싸움, 이성계(李成桂)의 황산대첩(荒山大捷), 정지(鄭地)의 남해대첩(南海大捷) 등을 들 수 있다. 이 중 최영의 홍산대첩과 나세의 진포싸움은 바로 충청남도 서해안 지역에서 일어난 것이다.

고려사 우왕 열전에 나타난 서산 지방의 왜구 출몰 기사를 기록해 보면 다음과 같다.

“우왕 원년(1375) 왜가 寧州, 瑞州, 結城을 침구하였다.”

“우왕 4년(1378) 9월 왜가 瑞州를 침략하였다.”

“우왕 7년(1381) 9월 왜가 永州와 瑞州를 침입하였다.”

또 『신증동국여지승람』 태안조에 보면 궁실(宮室)의 객관(客館)에 걸었던 남수문(南守文)의 기문(記文)에서

“……태안읍내가 멀리 바닷가에 위치해 있으니 이는 곧 해상의 구적(寇賊)들이 왕래 출몰하는 요충이다. 고려 말기에 무비(武備)가 허술하고 왜적이 강성하여, 공민왕 22년(1373)에 본군에서 입은 화란이란 몹씨 참혹한 것이어서 수량이 겨우 한두명의 아전을 인솔하고, 임시 서산군에 붙이고 있더니, 우왕 9년(1383)에는 다시 예산현으로 옮겼었다.

공양왕 2년(1390)에 이르러 도적들의 흉악한 노략질이 차츰 줄어들어 다시 서산에 성보(城堡)를 쌓고 순제(尊堤)라 이름하고는 일면 해적의 방이에 대비하며 겸하여 군의 행정을 맡아 다스렸다. ……”

라고 하여 고려말에 서산 태안 지방에 왜구의 피해가 얼마나 많았었는가를 알 수 있다. 이로 인하여 조운에 대한 안전한 수송을 위해 노력한 사실도 알 수 있다. 그런가 하면 『호산록』에 기록된 고려말의 목은 이색(牧隱 李穡)의 시에는 서산지방의 정서가 가장 잘 나타나 있다.

“우연히 아름다운 곳 만났으며 나그네 회포 열었는데,
 열륙 말 시냇가에 매어놓고 푸른 이끼 방석삼아 앉았구려.
 바다에 내리는 비 반쪽만 하얗게 날리며 지나가고,
 구름 덮힌 산은 첩첩으로 푸른빛을 보내오네.
 험란한 세상 길에는 두 다리에 가로 막히었는데
 떨어진 의관을 갖춘 선비는 뜻을 돌리지 못하겠구나.
 우임금이 龍門을 뚫는데 세 번 풍랑을 이용하였으니,
 다른 해에 모름지기 우뢰소리가 들려오리라.
 (遇逢佳處客懷開 斑馬溪邊坐綠苔 海兩半邊飛白去 雲山萬疊送青來
 崎嶇世路脚應遮 零落衣冠志未回 龍化禹門三汲浪 他年須一聲雷)

서산과 남다른 인연을 가졌던 목은 이색은 『동문선』에도 판교(板橋)에 대한 시(詩)를 남겼는데,

판교의 강가에 풀은 연기와 같고,
 찬 조수 떨어진 뒤 한낮이 가까웠다.
 건너 언덕의 작은 배는 불러도 오지 않는데,
 고기잡이들은 고기 판 돈을 나누어 가져 간다.
 (板橋江(溪)畔草如烟 落盡寒潮近午天 隔岸小船呼不應 漁人分去賣魚錢)

라 하여 서산의 지역적 정서를 잘 전해준다. 고려시대 서산은 영육이 교차하던

시대였다. 오늘날의 서산이라는 이름이 만들어진 것도 고려시대이다. 중국의 사신을 맞아들이는 중요한 길목이기도 하였고, 주(州)로 승격되기도 하는가 하면 민란으로 강등되기도 하였다. 또 왜구에게 유린되기도 하였고, 조운선의 수송에 가장 중요한 몫을 담당하기도 하였던 것이다.

제4절 조선시대의 서산지역

1. 조선의 군·현제도 개편과 서산

현재의 서산지역은 조선초에 범위가 확정된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500여 년간 그 행정범위를 유지하여 왔다. 그러나 조선시대 이전의 서산지역에는 독립적인 행정편제를 지닌 여러 군현들이 존재하고 있었다. 즉 서산과 해미지역은 서로 다른 행정조직과 편제를 지니면서 독자적인 역사문화적 배경과 기반을 지니고 있었다. 대체로 이 고려말 조선초의 전환기에는 이같은 지역세력의 모습도 커다란 변화를 맞게 되었던 것이다. 이 시기는 새로운 왕조의 개국과 함께 부원세력의 퇴조와 신흥사대부의 등장, 군현편제의 변화와 이에따른 지방세력의 재편, 그리고 사족과 향리가문의 분기와 지방사회에 있어서의 우위권 경쟁이 시작된 시기였으며, 이에따라 지방세력의 변동과 재편도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여진다.

① 서산군 : 특히 이러한 변화와 재편이 이루어짐에 있어서 서산지역 행정편제의 변화는 매우 커다란 작용을 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고려시대 때 서산은 지곡현과 서산군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지곡현은 부성군의 속현이었고, 부성군은 고려 인종 때 현령(縣令)을 두었다가 1181년(명종 12)에 고을사람 호장이 현령을 가두고 협박하여 결국 역모로 잡히면서 관호를 제거당하여 폐군되어 운주(漣州)에 붙었다. 그 뒤 고을사람 정인경이 고려 고종 말기에 몽고군이 충남의 직산과 신창 두 고을에 와서 진을 치고 있던 것을 밤에 습격하여 많은 전과를 올렸으므로, 그 공로로 부성을 서산으로(1284) 고치고 지군사로 승격되었다. 그뒤 1308년(고종 34)에 다시 서주목으로 승격되었으나 1310년(충선왕 2)에 서령부로 강등되었다가 뒤에 또 지서주사로 강등되었던 것이다.

② 해미현 : 현재의 서산영역에 포함된 해미현은 고려 초기까지 여미(餘美)와 해미(海美)지역으로 나뉘어져 있었고, 이곳은 고구현(高丘縣, 현 홍성군 갈산면 대사리와 고북면을 합친 곳과 현 해미면을 합친 곳)의 일부였으나 고려의 개국시 몽응

역 지방(夢熊驛 地方, 현 해미지방)의 한씨성(韓氏姓)을 가진 사람이 큰 공을 세워 대광(大匡)이라는 벼슬을 받으면서 고구현(高丘縣)에서 분할, 별도의 행정구역인 정해현(貞海縣)이 되었다. 이때의 기록이 『조선왕조실록』 1407년(태종 7)에 자세하게 보이고 있다. 이 기록은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는 것인데

“충청도도관찰사(忠淸道都觀察使)의 보고에 의거하면, 정해현(貞海縣)은 비록 인물이 조잔(凋殘)하고 백성들이 유리되어 볼 품이 없지만, 이산(伊山:현재의 덕산지역)·순성(尊城:현재의 대안지역)·남포(藍浦:현재의 보령지역) 3진(鎭)의 대령(大嶺) 아래에 있는 중심지로서 광활한 요충지이고, 또 완고하고 견실한 석성(石城)이 있고, 현(縣)이 몽웅역(夢熊驛)에 속하여 왕래하는 사신을 맞고 보내는 데 가장 긴요한 곳입니다. 만일 예기치 않은 환란이 있을 때에는 정해현의 인접한 지역뿐만 아니라 홍주(洪州)의 고구(高丘)·운천(雲川)과 서주(瑞州)의 동촌(東村)에 사는 백성들이 모두 석성(石城)에 들어가서 피난할 수 있습니다. 빌건대, 정해현을 여미현에 합병하여 다시 감무를 두고, 해미현(海美縣)이라 부르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고 되어 있다. 그리하여 여미현(餘美縣, 현재의 운산지방과 당진군 정미면·대호지면을 관할하던 곳)과 합쳐지면서 해미현(海美縣)이 되었다.

그 후 1895년(고종 32)에 해미군으로 승격되었다가 1914년 서산군에 합군되니 해미군은 면으로 격하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조선시기의 해미현은 동면과 남면 그리고 일도면, 이도면, 염솔면, 서면으로, 현재의 행정구역상 음암면 일부(부장리, 성암리), 운산면, 해미면, 고북면에 해당하는 지역이다.

조선시기 해미현은 면적으로 보면 서산군에 비해 훨씬 작지만, 서산지역에서 오래된 사찰로 일컬어지는 일락사, 천장사 등의 불교유적이 해미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보면 고려시대까지 해미지역의 문화가 매우 번성하였음을 알게 된다.

대체로 이 시기의 지역사정은 『세종실록지리지』나 『동국여지승람』의 기사를 통하여 그 대강을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 지지류 기록은 매우 개략적이고 단편적이다. 따라서 이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는 조선초에 서산지역에 국가의 지방지배 강화와 관련하여 설치되었던 국가시설의 내용, 그리고 사족적인 분위기를 반영하는 배출인물의 활동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우선 본절에서는 조선초기의 지리지 기록을 소개하고 다음절에서 서산지역에 설치되는 행정, 군사적인 국가시설의 내용과 지역 인물(성씨)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세종실록 지리지』의 기록

(1) 서산군

◎ 세종실록지리지 서산군(瑞山郡)

본래 백제의 기군(基郡)인데, 신라에서 부성군(富城郡)으로 고쳤고, 고려에서 그대로 따랐다. 인종(仁宗) 21년 계해에 현령(縣令)을 두었다가, 충렬왕(忠烈王) 10년 갑신에 고을 사람 대호군(大護軍) 정인경(鄭仁卿)의 공으로 인하여 지서산군사(知瑞山郡事)로 승격하고, 충렬왕 말년 무신에 서주목(瑞州牧)으로 승격하였다가, 충선왕(忠宣王) 2년 경술에 모든 목(牧)을 없앴에 따라 서령부(瑞寧府)로 강등하고, 뒤에 또 강등하여 지서주사(知瑞州事)로 하였다. 본조 태종(太宗) 13년 계사예(例)에 의하여 서산군으로 고쳤다. 속현(屬縣)이 1이니, 지곡현(地谷縣)은 본래 백제의 지육현(知六縣)인데, 신라가 지육현(知育縣)으로 고쳐 부성군(富城郡)의 영현(領縣)을 삼았고, 고려가 지금의 이름으로 고쳤다.

도비산(都飛山) 【군의 서남쪽에 있다.】 사방 경계는 동쪽으로 해미(海美)에 이르기 17리, 서쪽으로 태안(泰安)에 이르기 7리, 남쪽으로 요아량 수영(要兒梁水營)(현 태안군 고남면 영목)에 이르기 95리, 북쪽으로 대산포(大山浦)에 이르기 42리이다.

호수(戶數)가 4백 89호요, 인구(人口)가 1천 8백 87명이다. 군정(軍丁)은 시위군(侍軍)이 12명이고, 진군(鎭軍)이 53명이고, 선군(船軍) 2백 9명이다.

토성(土姓)이 5이니, 유(柳)·송(宋)·두(杜)·문(文)·전(全)이요, 촌성(村姓)이 1이니, 방(房)이요, 속성(續姓)이 1이니, 박(朴)이다. 지곡(地谷)의 성이 3이니, 안(安)·이(李)·문(文)이요, 촌성이 1이니, 박(朴)이다. 없어진 복평향(福平鄉)의 속성(續姓)이 1이니, 유(柳)요, 없어진 광지향(廣地鄉)의 속성이 1이니, 염(廉)이요, 없어진 안면소(安眠所)의 성이 1이니, 유(柳)요, 없어진 화변소(禾邊所)의 속성이 2이니, 유(柳)·송(宋)이요, 없어진 인정 부곡(仁政部曲)의 속성이 1이니, 이(李)요, 없어진 조립 부곡(助立部曲)의 속성이 1이니, 나(羅)요, 없어진 성연 부곡(聖淵部曲)의 속성이 2이니, 김(金)·하(河)이다.

땅이 매마르고 기후가 차다. 간전(墾田)이 7천 2백 83결이요, 【논이 10분의 4이다.】 토의(土宜)는 벼·기장·피·조·보리·매밀·모시·삼·칠이다. 토공(土貢)은 시우쇠·지초·잡깃(雜羽)·족제비털·여우가죽·삿괭이가죽·표범가죽·참가사리(細毛)·황각(黃角)·송어·민어·홍어·상어·큰 새우(大蝦)요, 약재(藥材)는 방풍나물뿌리[防風]·오징어뼈요, 토물(土物)은 굴(石花)·낙지이다. 어량(魚梁)이 10이요, 【주로 청어·조기·상어·큰 새우가 난다.】 염소(鹽所)가 1이요, 【염정(鹽井)이 2이요, 염분(鹽盆)이 3이다.】 철장(鐵場)이 1이요, 【군의 서쪽 도비산(都飛山) 남쪽에 있다.】 자기소(磁器所)가 1이요, 【군의 북쪽 사기동(沙器洞)에 있는데, 하품(下品)이다.】 도기소(陶器所)가 1이다. 【군의 동쪽 보현동(普賢洞)에 있는데, 하품(下品)이다.】

瑞山郡本百濟基郡新羅改為宣城郡高麗曰之仁宗二十一年癸亥置縣令忠烈王
 十年甲申以邑人大護軍鄭仁卿之功陞為知瑞山郡事忠烈王末年戊申陞為瑞
 州牧忠宣王二年庚戌汰諸牧降為瑞寧府後又降為知瑞州事本朝 太宗十三年
 癸巳例改為瑞山郡屬縣一地谷縣本百濟知六縣新羅改為地育縣為宣城郡領
 縣高麗改今名都飛山本郡西南四境東距海美十七里西距泰安七里南距要兒梁水
 營九十五里北距大山浦四十二里戶四百八十九口一千八百八十七年丁侍衛軍十
 二鎮軍五十三船軍二百九土姓五柳宗杜文全村姓一房續姓一朴地谷姓三安李
 文村姓一朴已福平鄉續姓一柳已廣地鄉續姓一應已安眠河姓一柳已禾邊所續
 姓二柳宋已仁政部曲續姓一李已助立部曲續姓一羅已聖淵部曲續姓二金河辰
 土瘠風氣寒墾田七千二百八十三結水田十分之四土宜稻黍稷粟麥蕎麥芋麻漆土貢
 正鐵芝草雜羽黃毛狐皮狸皮狗皮細毛黃角水魚民魚洪魚沙魚大蝦藥材防風
 狗魚骨土產石花落地魚梁土產青魚石首魚鹽所一鹽井二鐵場一在郡西南驛
 器所一本郡北沙向咒所一在郡東主山石城在郡北二里月田四百六十八畝
 一豊田舊田供冠汶之水王康大山浦在郡北烽火二處主山在郡北
 東唯海安國山在郡北郡南都飛山東唯洪州任內高丘在郡南長一百三十
 西唯泰安山在郡北城山北唯泰安山在郡北栗津堤在郡南長一百三十
 越境庚已任內福平廣地安眠越入泰安境洪州任內堂川大山越海美境入郡東

北村中

(삽도)
 세종실록지리지
 서산군 조

주산 석성(主山石城) 【군의 북쪽 2리에 있는데, 둘레가 4백 68보이며, 지세가 험하고, 안에 우물 3이 있는데, 겨울이나 여름에도 마르지 아니하며, 군창(軍倉)이 있다.】역(驛)이 1이니, 풍전(豊田)이다. 【예전에 왜적의 침입으로 인하여 모두 흩어져 없어졌는데, 본조 공정왕(恭靖王) 2년에 다시 두고, 여미현(餘美縣)의 득웅역(得熊驛)을 혁파하여 이곳에 붙였다.】대산포(大山浦) 【군의 북쪽 42리에 있다.】봉화가 2곳이니, 주산(主山)이 군의 북쪽에 있고, 【동쪽으로 해미(海美) 안국산(安國山)에, 서쪽으로 태안(泰安) 주산(主山)에 응한다.】군의 남쪽 도비산(都飛山)이다. 【동쪽으로 홍주(洪州) 임내 고구(高丘)의 성산(城山)에, 북쪽으로 태안 주산에 응한다.】울곶 축제(丑堤) 【군의 남쪽에 있는데, 길이 1백 30척이며, 논 1백 8결에 물을 댈다.】

〈삽도〉해동지도 중의 서산현지도



월경처(越境處)는 없어진 임내인 북평(福平)·광지(廣地)·안면(安眠)이 태안(泰安) 지경에 들어가 있고, 홍주(洪州) 임내인 운천(雲川)·대산(大山)이 해미(海美) 지경을 넘어 군(郡)의 동·북촌(東北村) 가운데 들어와 있다.

(2) 해미현

정해현(貞海縣)은 전해 오는 속설에, “고려 태조(太祖) 때 몽웅역(夢熊驛)의 아전 한(韓)가가 큰 공이 있어서, 대광(大匡)의 작호(爵號)를 내리고, 고구현(高丘縣) 땅을 떼어 정해현(貞海縣)으로 하고, 그의 관향(貫鄉)으로 삼았다.” 하는데, 현종(顯宗) 9년에 운주(運州) 임내에 붙이었다가, 뒤에 감무(監務)를 두었다. 여미현(餘美縣)은 본래 백제의 여촌현(餘村縣)인데, 신라에서 여읍현(餘邑縣)으로 고쳐 혜성군(槿城郡)의 영현(領縣)을 삼았고, 고려에서 여미현으로 고치어, 현종 9년에 운주 임내에 붙이었다가, 예종(睿宗) 원년 병술에 비로소 감무를 두었다. 본조 태종(太宗) 7년 정해에 2현(縣)을 합쳐서 해미(海美)로 하고, 13년 계사에 예(例)에 의하여 현감으로 고쳤다. 딸린 부곡(部曲)이 1이니, 염솔(鹽率)이다.

상왕산(象王山) 【현의 사람들이 진산(鎭山)으로 삼는다.】 사방 경계는 동쪽으로 덕산(德山)에 이르기 11리, 서쪽으로 서산(瑞山)에 이르기 7리, 남쪽으로 홍주(洪州)에 이르기 5리, 북쪽으로 당진(唐津)에 이르기 33리이다.

호수가 2백 58호요, 인구가 8백 55명이다.

정해현(貞海縣)의 성이 4

海美縣貞海縣諺傳高麗太祖時夢熊驛吏韓姓者有大功賜號大匡割高丘縣地
 為貞海縣為其鄉貫顯宗戊午屬運州任內後置監務餘美縣李台海餘村縣新羅
 改為餘邑縣為槿城郡領縣高麗改為餘美縣顯宗戊午為運州任內唐宗元年而
 始置監務本朝 太宗七年丁亥并二縣為海美十三年癸巳例改為縣監屬部曲
 一有率象王山 縣人以 四境東距德山十一里西距瑞山七里南距洪州五里北距唐津三
 十三里戶二百五十八口八百五十五貞海縣姓四白韓仇尹亡寺谷所姓二庶韓
 餘美縣姓四郭朴明余亡監率部曲姓三朴明余率丁侍衛軍五鎮軍三輦軍七十九
 厥土瘠風氣寒墾田二千七百六十三結 水田三七分之三 土宜五穀蕎麥苧麻漆楮土貢芒草
 柿細毛黃毛雜羽席水魚民魚魚膠狝皮狸皮山獺皮水獺皮藥材藍漆白木大戟
 土產石花魚卵 土產民魚錢魚廣魚力 鹽盆一陶器所二 一在縣東祥項山下
 伽椰山之西一里有兵馬都節制使營驛一夢熊烽火一慶安園山 在縣東北未准高丘
 山飛越境處洪州任內雲川鄉越入縣北村

〈삼도〉 세종실록지리지 해미현 조

이니, 백(白)·한(韓)·구(仇)·윤(尹)이요, 없어진 사곡소(寺谷所)의 성이 2이니, 염(廉)·한(韓)이다. 여미현(餘美縣)의 성이 4이니, 곽(郭)·박(朴)·명(明)·여(余)요, 없어진 염솔 부곡(鹽率部曲)의 성이 3이니, 박(朴)·명(明)·여(余)이다.

군정(軍丁)은 시위군(侍衛軍)이 5명이요, 진군(鎭軍)이 3명이요, 선군(船軍)이 79명이다.

땅이 메마르고 기후가 차다. 간전(墾田)이 2천 7백 63결이요, 【논이 7분의 3이다.】 토의(土宜)는 오곡과 메밀·모시·삼·칠·닥나무이다. 토공(土貢)은 지초·감·참가사리【細毛】·죽제비털·잡깃(雜羽)·자리·송어·민어·어교(魚膠)·여우가죽·삼팽이가죽·잘【山獺皮】·수달피(水獺皮)이요, 약재(藥材)는 쪽·칠(漆)·백출(白朮)·버들웃(大戟)이요, 토산(土產)은 굴(石花)이다. 어량(魚梁)이 1이요, 【주로 민어·전어·광어·갈치·조기·홍어·송어가 난다.】 염분(鹽盆)이 1이요, 도기소(陶器所)가 2이다. 【하나는 현의 동쪽 장항리(獐項里)에 있는데, 하품(下品)이요, 하나는 현의 동쪽 지품금(只品金)에 있다.】

현의 동쪽, 가야산(伽倻山) 서쪽 1리에 병마 도절제사영(兵馬都節制使營)이 있다. 역(驛)이 1이니, 몽웅(夢熊)이요, 봉화가 1곳이니, 안국산(安國山)이다. 【현의 북쪽에 있는데, 동쪽으로 고구(高丘) 성산(城山)에, 서쪽으로 서산(瑞山) 도비산(都飛山)에 응한다.】

월경처(越境處)는 홍주(洪州) 임내인 운천향(雲川鄉)이 현의 북촌(北村)에 넘어와 있다.

2) 『동국여지승람』의 기록

(1) 서산군

동쪽으로는 해미현 경계에 이르기까지 17리요, 남쪽으로는 요아량(要兒梁:현재의 태안군 고남면 고남리 영목)에 이르기까지 1백 42리이며, 서쪽으로는 태안군 경계에 이르기까지 24리이며, 북쪽으로는 대산포(大山浦)에 이르기까지 57리이고, 서울과의 거리는 4백2리이다.

【건치연혁】 본래 백제의 기군(基郡)이었는데, 신라에서 부성(富城)으로 고쳤고, 고려 인종때에는 현령을 두었으며, 명종 12년에 고을 사람이 영위(令尉)를 협박하고 가두었으므로 유사(有司)가 아뢰어 관호를 제거하였다가, 충렬왕 10년에 읍사(邑使) 정인경이 공로가 있었던 까닭으로 지금의 이름으로 고쳐 지군사(知郡事)로 승격하였고, 34년에는 다시 서주목(瑞州牧)으로 승격되었다. 충선왕 2년에 예에 의하여 서령부(瑞寧部)로 강등되고, 뒤에 지서주사(知瑞州事)로 강등한 것을 본조 태종 13년에 다시 지금의 이름으로 고쳐 군으로 한 것이다.

【관원】군수·훈도 : 각 1명

【군명】기군(基郡)·부성(富城)·서령(瑞寧)·서주(瑞州).

【성씨】본군 유(柳)·송(宋)·전(全)·두(杜)·문(文)·정(鄭)·방(房 : 촌에 있다.)·지곡(地谷)·안(安)·이(李)·문(文)·박(朴 : 촌에 있다.)·인정(仁政)·이(李)·정소(井所)·나(羅)·광지(廣地)·유(柳)·송(宋)·성연(聖淵)·김(金)·하(河)

【형승】산세가 둘러싸고 : 신숙주(申叔舟)의 시. 바다가 삼면을 둘러 있다. : 박원형(朴元亨)의 시

【산천】성왕산(聖旺山) : 군 북쪽 8리 지점에 있다. 상왕산(象王山) : 군 동쪽 30리 지점인 해미현 경계에 있다. 팔봉산(八峰山) : 군 북쪽 해안 15리 지점에 있다. 도비산(都飛山) : 본군 남쪽 18리 지점에 있다. 바다 : 본군 서·남·북 삼면이 모두 바다이다. 용유천(龍遊川) : 군 동쪽 18리 지점에 있다. 판교천(板橋川) : 군 남쪽 6리 지점에 있다. 물 근원이 성왕산에서 나와서 남쪽으로 흘러 바다로 들어간다. 흥인교천(興仁橋川) : 군 서쪽 24리 지점에 있다. 물 근원이 팔봉산에서 나와서 남쪽으로 흘러 바다로 들어간다. 안면곶(安眠串) : 옛날의 안면소이다. 군 남쪽 100리 지점에 있으며 목장이 있다. 위포곶(葦浦串) : 옛날의 위포소이다. 군 남쪽 15리 지점에 있다. 울곶(栗串) : 군 남쪽 10리 지점에 있다. 간월도(看月島) : 군 남쪽 35리 지점에 있다.

【신증】백사장(白沙場) : 군 북쪽 70리 지점에 있다. 주위가 10여리이며, 가운데에 못이 있다.

【토산】모시, 쇠(군의 남쪽 馬山里에서 난다), 석굴, 청어, 송어, 도루묵, 농어, 오징어, 전복, 조기, 물고기부레, 모래무지, 대하, 자하, 조개, 낙지, 삼치, 전어, 해삼, 조개살, 박하지, 준치, 붕어, 게, 소금.

【성곽】읍성(邑城) : 둘로 쌓은 성으로 주위가 3천 7백 10척에 높이가 12척이며, 서쪽에 있는 조그마한 시냇물이 성안으로 흘러 들어온다.

【관방】파지도영(波知島營) : 군 북쪽 35리 지점에 있다. ○수군 만호가 1명이 있다.

【신증】정덕 병자년에 비로소 둘 성을 쌓았는데 주위가 1천 3백 37척에 높이는 11척이며, 그 안에 한 우물이 있다. 고평지도수(古波知島戍) : 군 북쪽 바다 가운데에 있는데, 파지도 만호가 군사를 나누어서 이를 지키고 있다. 요아량수(要兒梁戍) : 군 남쪽 1백 42리 지점에 있다. 수군절도사(水軍節度使)가 군사를 나누어서 이를 지킨다.

【봉수】북산봉수(北山烽燧) : 동쪽으로는 해미현의 안국산과 호응하고, 서쪽으로는 태안군의 백화산과 호응한다. 도비산봉수(都飛山烽燧) : 동쪽으로는 홍주 고구현(高丘縣)의 성산(城山)과 호응하고 북쪽으로는 태안군의 백화산과 호응한다.

【신증】【궁실】 객관 : 조위(曹偉)의 시에 “훈훈한 바람 불어 깊숙한 궁실에 야당화 피었는데, 아전들 나가고 텅 빈 관아 뜰엔 돌아오른 풀빛이 이끼처럼 진하다. 위포(葦浦)의 조수 소리 바다로 다 돌아가서 고요하고, 상산의 구름기운 하늘과 맞닿아 오는구나. 사암(思菴)이 살던 옛집은 어느 곳인지 찾을 길 없고, 학사 신하 최치원도 신선되어 간 뒤에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고적 찾아드니 사람의 감개만 더하게 할 뿐, 한 술잔에 취하여 우리같이 코나 골거나 하였다.” 하였다.

【누정】 청심당(淸心堂) : 객관 동쪽에 있으며, 연못이 있다. 군수 예충년(芮忠年)이 세운 것이다.

【학교】 향교 : 군 서쪽 1리 지점에 있다.

【역원】 풍전역(豊田驛) : 군 서쪽 6리 지점에 있다. 옛날 왜구로 인하여 없어졌던 것을 공정왕 경진년에 다시 설치하고 성여미현(省餘美縣)의 득웅역(得熊驛)이 와서 붙었다. 냉정원(冷井院) : 군 남쪽 15리 지점에 있다. 저지원(猪旨院) : 군 남쪽 5리 지점에 있다. 망현원(芒峴院) : 군 서쪽 16리 지점에 있다.

【교량】 판교(板橋), 금강교(金剛橋) : 모두 용유천에 있다. 흥인교(興仁橋)

【불우】 개심사(開心寺) · 문수사(文殊寺) · 보현사(普賢寺) : 모두 상왕산에 있다. 운암사(雲巖寺) : 팔봉산에 있다. 보원사(普願寺) : 상왕산에 있다. 부석사(浮

<p>在郡北十四里 今稱律項村</p>	<p>新增 孝子本朝 金康温 母得惡疾斷指和藥以 進病即愈今 上十四</p>	<p>年桂</p>	<p>題詠 西林石堡入雲端 李補詩云云亭榭含風 夏亦寒青翠主人供笑 語白頭林客縱遊觀天高地下形骸小海關山倚 遠氣俊寬最恨吾棄無筆力護吟霞驚危欄干倚</p>	<p>欄還覺兩儀寬 鄭濟趾詩處凡不 亭葉翻風</p>	<p>翠浪齊 李承召詩山阿野 午鷓鴣水練鋪通別浦 竹林帶雨青烟暗云云 平具氣象村翁社後醉扶勞</p>	<p>瑞山郡 東至海美縣界十七里南至要兒保一 北至大山浦五十七 里西至泰安郡界二十四里</p>	<p>建置沿革 本 基郡新羅改富城高麗</p>	<p>仁宗置縣令明宗十二年縣人逼令尉 幽之有司奏除官號忠烈王十年以邑 人鄭仁卿有功改今名陞為知郡事三 十四年陞瑞州牧忠宣王二年例降為 瑞寧府後又降知瑞州事本朝</p>
-------------------------	---	-----------	--	------------------------------------	--	---	------------------------------------	---

〈삼도〉 동국여지승람 서산군조 일부

石寺) : 도비산에 있다.

【사묘】 사직단 : 군 서쪽에 있다. 문묘 : 향교에 있다. 성황사 : 북산성안에 있다. 여단 : 군 북쪽에 있다.

【고적】 지곡폐현(地谷廢縣) : 본래 백제의 지육현(知六縣)이었는데 신라때에 지육(地育)이라 고쳐 부성군(富城郡)의 속현으로 하였고, 고려 때에 지금의 이름으로 고쳐서 이내 본군에 붙였던 것을 본조에서 그대로 인습한 것이다. 군 북쪽 30리 지점에 있는데 옛날의 돌로 쌓은 성이 있으며, 그 주위는 1천 27척이다. 인정부곡(仁政部曲) : 군 남쪽 13리 지점에 있다. 정소부곡(井所部曲) : 군 북쪽 10리 지점에 있다. 성연부곡(聖淵部曲) : 군 북쪽 15리 지점에 있다. 광지향(廣地鄉) : 군 남쪽 93리 지점에 있다. 안면소(安眠所) : 모두 태안군 남쪽 마을까지 넘어 들어가 있다. 화변소(禾邊所) : 군 남쪽 30리 지점에 있다. 위포소(葦浦所) : 군 남쪽 15리 지점에 있다. 조립부곡(助立部曲) : 군 북쪽 53리 지점에 있다. 지금은 대산곶(大山串)이라 일컫는다. 북산성(北山城) : 돌로 쌓았고, 주위는 1천 6백 80척이며, 그 안에 세개의 우물이 있는데 지금은 폐해 버렸다.

【명환】 【신라】 최치원(崔致遠) : 진성왕때에 원이 되었는데 왕이 불러 <당 나라에 가는> 하정사(賀正使)로 삼았으나 도적들이 한창 출몰하고 길이 막혀 가지 않았다. 【고려】 김주정(金周鼎) : 음관으로 뽑혀 임명되었는데 당시 몽고의 군사가 많이 침범해 왔었는데 조치를 적당히 하여 위엄과 은혜가 아울러 나타나서 한 지방에서 그를 칭송하였다.

【인물】 【고려】 정인경(鄭仁卿) : 고종 말기에 몽고의 군사가 직산(稷山)·신창(新昌) 두 고을에 와서 진을 치고 있었는데, 인경이 밤에 이를 습격하여 공로가 있어 장교로 임명되었고, 충렬왕 때에는 서북면도지휘사(西北面都指揮使)에 제수되어 벼슬이 중찬(中贊)에 이르렀다. 처음에는 설인(舌人)으로 이름이 알려져서 이르는 곳마다 명성과 공적이 있었다.

유숙(柳淑) : 충혜왕때에 과거에 올랐으며, 공민왕을 따라 원나라 조정으로 들어가서 즉위하매, 공민왕이 요좌관들이 많이는 그 절개를 지키지 않았으나 유숙만은 홀로 변하지 않았다. 공민왕이 즉위하자 대언(代言)에 임명되고, 북경에서의 시종한 공로를 기록하여 1등으로 뽑혀 판도판서(版圖判書)·추밀원 직학사(直學士)등을 역임하고, 또 기철(奇轍)을 배인 공이 채록되어 안사공신(安社功臣)의 철권(鐵券)을 하사하였다. 홍건적의 난리에 유숙이 계획을 정하여 남쪽으로 가게하여 추밀원에 승진되고, 뒤에 첨의찬성사(僉議贊成事)에 임명되었다. 그러나 신돈(辛旽)의 뜻에 거슬러 파직되고 서령군(瑞寧君)에 봉하매, 유숙이 은퇴를 빌어 이를 허락하니, 장상의 대신들과 문생 및 옛날 그 밑에 있던 이서(吏胥)들이 모두 교외까지 나와서 전송하였는데, 유숙이 시를 지었다. 그 끝 연구(聯句)에 이르기를, “충성이 쇠퇴하고 성의가 얇아진 것이 아니로세. 큰 명성을 지니고 오래 있기란 어려운 것이

니.” 하였다. 유숙이 가고나서 신돈의 기세가 날로 치성(熾盛)하였는데, 신돈이 유숙을 다시 등용할까 염려하여 기어이 죽이려는 마음에서 유숙의 시를 가지고 왕에게 참조하기를 “유숙이 범려(范蠡)로 자처하고 왕을 구천(句踐)에 비유한 것입니다.” 하니 왕이 더욱 의심하여 필경 명하여 그에게 형장을 가하고 관작을 삭제하고 의산을 몰수함에, 신돈이 드디어 그의 적소인 영광에서 스스로 목매어 죽게 하였다. 그 뒤에 신돈을 배어 죽임에 이르러 왕이 비로소 그 연유를 알고는 몹시 애도하며, 그의 원왕(冤枉)을 씻어주고, 시호를 문희(文僖)라 하였는데, 뒤에 공민왕 사당에 배향하였다.

유실(柳實) : 숙의 아들. 용맹이 있고, 말 달리기와 활쏘기를 잘하였는데 누차 천전하여 예의총랑(禮儀摠郎)을 역임하고 벼슬이 밀직부사(密直副使)에 이르렀다.

【본조】유방선(柳方善) : 유숙의 증손. 시를 잘한다는 명성이 있었다. 영락 연간에 가화(家禍)를 만나 영천으로 귀양갔다가 뒤에 사명(赦命)을 만나 편의한대로 종도록 하니, 학자들이 많이 그를 따라 배웠으며 태재집(泰齋集)이 세상에 퍼져있다.

유윤겸(柳允謙) : 방선의 아들. 문과에 급제하여 벼슬이 대사간에 이르렀으며, 문장에 능하다는 명성이 있었다.

【제영】해우반변비백거(海雨半邊飛白去) : 이색의 시에 “우연히 아름다운 곳 만나 나그네 가슴 절로 열려, 시냇가에 말 세우고 푸른 이끼 위에 앉았노라. 바다 비 한쪽에 뿌리니 흰줄기 지나가고, 구름 끼인 산 첩첩한 것 푸른 빛 보내오네, 기구한 세상길 이 몸은 두루 걸었으리. 선비의 관 영낙(零落)하였어도 뜻은 돌이키지 않았노라. 우문(禹門) 세층 물결에 용으로 화한다면, 다른 해에 반드시 우뢰 소리 타고 달리리라.” 하였다.

해기조련장무부(海氣朝連瘴霧浮) : 신숙주의 시에. “적요한 관사 옮긴 곳에 앉아 보니, 바다 기운 아침에 장기와 연해 떠오른다. 눈에 가득히 들어오는 흥하고 망한 일을 어느 곳에 물으랴. 무너진 성 의구하게 산마루에 있구나.” 하였다.

농변총죽노황연(隴邊叢竹老荒烟) : 이승소(李承召)의 시에. “고을 성 옮긴 것이 어느 해에 있었던고, 적요한 객사 참으로 가련하다. 쭉대 밑 낮은 담에 깨진 벽돌 남아 있고, 언덕 위 한 포기 대는 거친 연기 속에 쇠해간다.” 하였다.

(2) 해미현

동쪽으로는 덕산현(德山縣) 경계까지 17리요, 남쪽으로는 홍주(洪州) 경계까지 6리이며, 서쪽으로는 서산군 경계까지 9리이고, 북쪽으로는 당진현 경계까지 43리이며, 서울과의 거리는 3백76리이다.

【건치연혁】정해현(貞海縣)은 전해오는 속설에 의하면 고려 태조때에 몽웅역(夢熊驛)의 아전 한(韓)가가 큰 공로가 있어 대광(大匡)의 작호를 내리고, 고구현(高

丘縣) : 지금의 홍주 속현이다. 땅을 분할하여 정해현으로 만들어서, 그의 본관으로 삼았다 하는데, 현종 9년에 운주(運州)로 붙였다가 뒤에 감무를 두었고, 여미현은 본래 백제의 여촌현(餘村縣)이었는데, 신라에서 여읍(餘邑)으로 고쳐 혜성군(槿城郡)의 속현으로 하였고, 고려 초기에 다시 여미(餘美)라 고쳤으며, 현종 9년 운주(運州)로 붙였고, 예종 원년에 감무를 두었던 것을 본조 태종 7년에 두 현을 병합하여 지금의 이름으로 고치고서, 정해를 그 다스리는 곳으로 삼았는데, 13년에 다른 예에 따라 현감으로 삼았다.

【관원】 현감·훈도 : 각 1명이다.

【군명】 정해(貞海)·여미(餘美)·여촌(餘村)·여읍(餘邑)

【성씨】 정해(貞海) : 백·한·구·윤. 여미(餘美) : 곽·박·명·여. 사곡(寺谷) : 염·한. 염술(鹽率) : 박·명·여. 소당(昭堂) : 박(염정에도 있다.)

【형승】 땅이 큰 바다가에 임해 있다. (鄭忠基의 東軒記에 있다.)

【산천】 상왕산(象王山) : 여미현 동쪽 4리 지점에 있다. 가야산(伽倻山) : 본현 동쪽 11리 지점에 있는데 상왕산과 서로 연해있다. 안국산(安國山) : 본현 북쪽 38리 지점에 있다. 견성산(犬城山) : 본현 동쪽 9리 지점에 있다. 문수산(文殊山) : 본현 북쪽 33리 지점에 있다. 양릉포(陽陵浦) : 본현 서쪽 10리 지점에 있는데,



〈삼도〉 동국여지승람 현미현조 일부

〈삽도〉해동지도 중의 해미현 지도



죽 바다의 포구이다. 대모천(大母川) : 본현 북쪽 52리 지점에 있다. 마도(馬島) : 본현 서쪽 양릉포 기슭에 있다. ○ 대명일통지(大明一統志)에 이르기를, “나라 중간에 있는 목장지로서 옛날에 객관이 있었는데, 안흥정(安興亭)이라 일컬었다.” 하였다.

【토산】 쇠(鐵) : 생천포(生天浦)에서 난다. 석굴(石花) · 넙치 · 칼치 · 조기 · 홍어 · 송어 · 도루묵 · 오징어 · 김 · 안식향

【관방】 병마절도사(兵馬節度使)의 병영(兵營) : 본현 동쪽 3리 지점에 있으며 석축으로 된 성이 있는데, 둘레가 3천 1백 72척에 높이가 15척이며, 그 안에 세 개의 우물이 있고, 또 군 창고(軍倉)가 있다.

【봉수】 안국산 봉수(安國山烽燧) : 서쪽으로는 서산군의 북산과 호응하고, 북쪽으로는 당진현의 고산(高山)과 호응한다.

【누정】 청허정(淸虛亭) : 병마절도사의 병영 안에 있는데, 조숙기(曹淑沂)가 세웠다.

【향교】 향교 : 본현 동쪽 3리 지점에 있다.

【역원】 몽웅역(夢熊驛) : 본현 북쪽 5리 지점에 있다. 신당원(神堂院) : 본현 동쪽 6리 지점에 있다.

【불우】 문수사(文殊寺) : 문수산에 있다. 안국사(安國寺) : 안국산에 있다. 안흥사(安興寺) · 일악사(日岳寺) · 수도사(修道寺) : 모두 가야산에 있다.

【사묘】 사직단 : 본현 서쪽에 있다. 문묘 : 향교에 있다. 성황사 : 본현 북쪽 1리 지점에 있다. 여단 : 본원 북쪽에 있다.

【고적】 안흥정(安興亭) : 본현 동쪽 11리 지점에 있다. 고려 문종 31년에 나주도 제고사 대부소경(羅州道祭告使大府少卿) 이당감(李唐鑑)이 아뢰기를, “중국 조정의 사신이 왕래하는 고만도(高蠻島)의 정자는, 수로가 약간 막혀있어 선척의 정박이 불편하오니, 청하건대 홍주 관하 정해현 땅에 한 정자를 창건하여 맞이하고 보내는 장소로 삼도록 하소서.” 하니 제서를 내려 그 말을 따랐다.

고여미현(古餘美縣) : 현 관아의 북쪽 30리 지점에 있다. 석축으로 된 성이 있어 둘레가 8백 81척인데 지금은 폐해 버렸다.

염솔부곡(廉率部曲) : 염(廉)자는 혹 염(鹽)자로도 쓰는데, 본현 북쪽 36리 지점에 있다.

소당부곡(炤堂部曲) : 여미현에 있다.

몽웅향(夢熊鄉) : 즉 몽웅역이 있는 땅을 말하는 것이다.

사곡소(寺谷所) : 본현 동쪽 1리 지점에 있다.

염정부곡(鹽貞部曲) : 정(貞)자는 정(亭)자로도 쓰며 본현 북쪽 32리 지점에 있다.

성산성(城山城) : 석축으로 되어 있으며 그 둘레가 1천 4백 33척인데 지금은 폐

해 버렸다.

견성산성(犬城山城) : 석축이며 그 둘레가 9천 9백 60척인데 지금은 폐해 버렸다.

【제영】경파부동해정청(鯨波不動海澄清) : 서거정의 시에, “백마(白馬)가 힘차게 세류영(細柳營)에서 우는데, 중요한 땅 웅장한 번진(藩鎭)의 저 절도사가 장성을 이루었네. 늦은 가을 하늘 높이 세워진 큰 기의 그림자가 한가롭게 보이고, 진종일 투호하는 소리마저 자세히 들려온다. 아낙네 소라같은 쪽이 떠오르는 듯 산이 둘러싸 있고, 고래 물결 동하지 아니하고 바다는 맑고 깨끗하다. 서녘 바람이 얇은 솜옷을 한없이 불어 헤치니, 먼 실손 만리 타향의 외로운 정을 건디기 어렵도다.” 하였다.

2. 서산에 설치된 국가의 시설들

1) 향·소·부곡

조선초기의 기록자료를 통하여 들어나는 서산지역의 향·소·부곡은 다음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다. 표에서 보듯이 『세종실록 지리지』나 『동국여지승람』에 보이는 서산지역의 향·소·부곡은 그 수가 매우 많은 것이 특징이다.

- 인정부곡(仁政部曲) : 군 남쪽 13리
- 정소부곡(井所部曲) : 군 북쪽 10리
- 성연부곡(聖淵部曲) : 군 북쪽 15리
- 광지향(廣地鄉) : 군 남쪽 93리
- 안면소(安眠所) : 모두 태안군 남쪽
- 화변소(禾邊所) : 군 남쪽 30리
- 위포소(葦浦所) : 군 남쪽 15리
- 조립부곡(助立部曲) : 군 북쪽 53리(大山串)

등이었고, 해미에 속한 향·소·부곡으로는

- 몽옹향(夢熊鄉) : 몽옹역에 있는 땅을 말함.
- 사곡소(寺谷所) : 현의 동쪽 1리 지점.
- 염솔부곡(廉率部曲) : 염자는 염(鹽)으로도 쓰이며, 현의 북쪽 36리
- 소당부곡(炤堂部曲) : 여미현에 있다.

〈표〉 조선초기 기록에 나타나는 향·소·부곡

		세종실록지리지	현재의 위치	비 고	성 씨	비 고
서	鄉	廣地鄉	안 면 읍	현 태안군에 소속됨	염	망성
		福平鄉	태 안 읍	1445(세종27) : 거리가 가까운 태안에 소속시킴	류	망성
	所	安眠所	안 면 읍	현재 태안군에 소속됨	류	망성
		禾邊所	부 석 면		류, 송	망성
		葦浦所	인지면	산동리, 모윌리, 애정리 지방		
산	部曲	仁政部曲	인 지 면	둔당리, 야당리, 애정리 지방	이	망성
		助立部曲	대 산 읍		나	망성
		聖淵部曲	성 연 면		김, 하	망성
		井所部曲	성 연 면	성연면 일람리, 고남리		
해	鄉	夢熊鄉	해 미 면			
	所	寺谷所	해 미 면		염, 한	망성
미	部曲	廉(鹽)率部曲	당진군 정미면	운산 매방봉성, 산성, 덕산	박, 명, 여	
		炤堂部曲	당진군 정미면		박	
		鹽貞(亭)部曲	당진군 정미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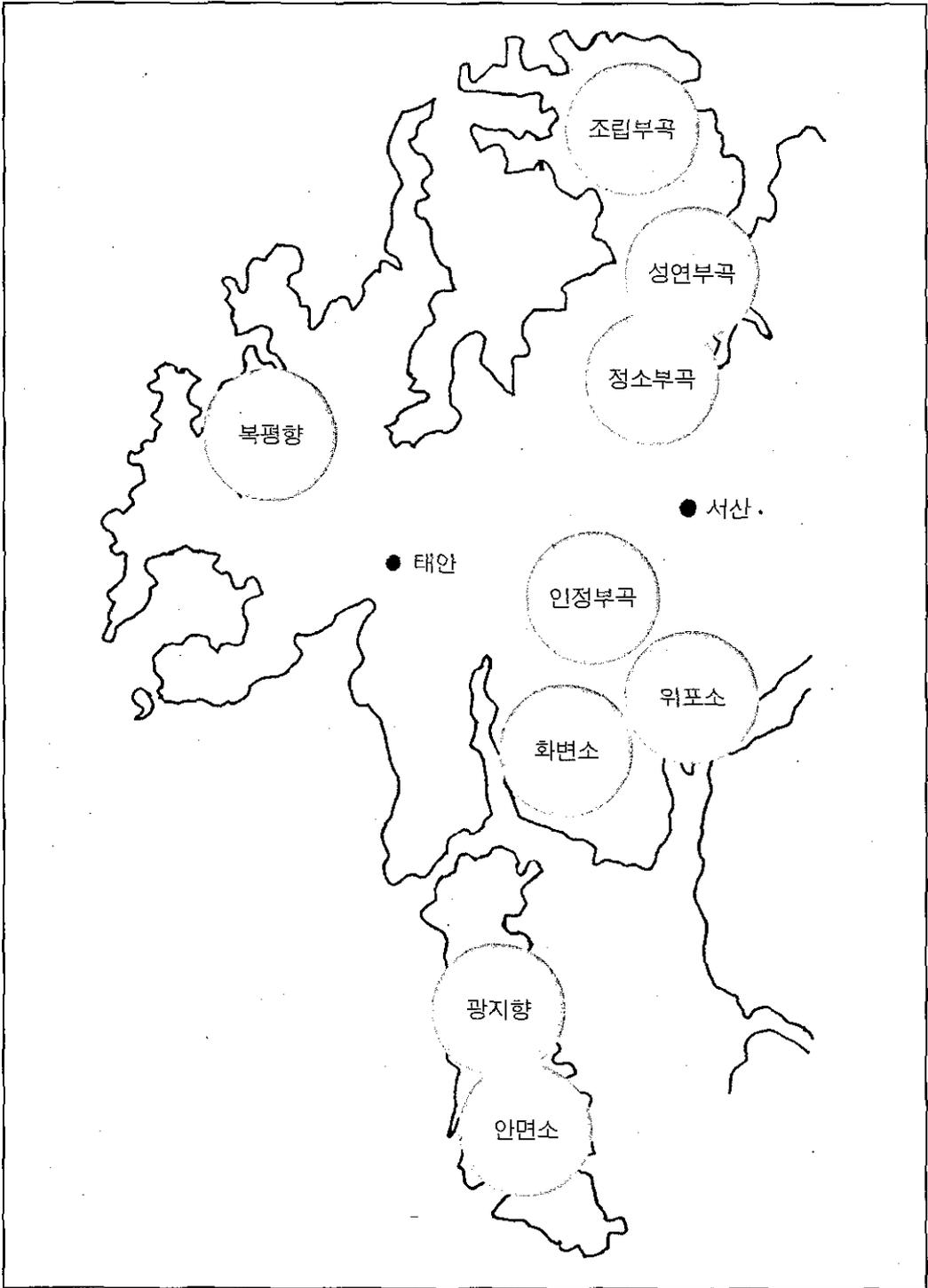
염정부곡(鹽貞部曲) : 정자는 정(亭)으로도 쓰이며, 현의 북쪽 32리

등이 동국여지승람에 보이고 기록되어 있다. 해미지역의 경우 『세종실록지리지』에서는 염솔부곡(鹽率部曲), 사곡소(寺谷所)와 염정부곡(鹽貞部曲)이 기록되어 있어 두 기록이 차이를 보인다.

이중 서산군의 광지향과 북평향, 안면소는 모두 세종때에 태안에 속하게 되는데 이에 관련된 기록은 조선왕조실록에서 확인이 된다. 즉 1445년(세종 27) 1월 7일 의정부에서 호조의 정문(摺文)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충청도 서산군(瑞山郡) 북평향(卜平鄉)이 태안군(泰安郡) 경계 안으로 건너 들어가서 서산과 30여리 거리가 되므로, 보통때의 부역과 의창(義倉) 곡식을 꾸어주고 받아들일 때에 내왕하기가 심히 곤란하오니, 태안군(泰安郡)에 붙이면 좋겠습니다.”

하니, 왕이 이를 따랐다는 기사가 바로 그것이다. 그리하여 화변소와 인정부곡, 조립부곡, 정소부곡, 성연부곡만이 서산에 속하게 된다. 이들의 추정 위치는 다음



〈삽도〉 서산지역의 향·소·부곡 추정위치도

의 위치도와 같으며, 이들 역시 고려시대까지는 서산군이나 해미현과 같은 독립된 행정구역을 가지면서, 토착세력이 존재했던 구역이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여러 유형의 문화유적 분포가능성이 높으므로 앞으로 주목이 필요한 지역이다.

2) 역원과 봉수

조선시기의 교통·통신 수단은 역(驛)·원(院)·진(津)·관(館)·봉수(烽燧) 등이었고 여기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역이었다. 이때의 교통의 의미는 행정·군사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교통수단이 확립되지 못하면 중앙집권이 어려워질 뿐만 아니라 영토를 확장하거나 확장된 영토를 유지하기 위한 군대파견 등이 어려워지기 마련이었던 것이다.

우리나라 역사상 역이 처음 설치된 것은 487년(신라 소지왕 9)으로 교통수단 정비와 함께 역의 설치가 꾸준히 늘어나다가 고려때 와서는 거의 완비되어 조선시대에 이르러서도 고려의 제도를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주요 도로에는 매 30리마다 역을 두고 역정과 마필을 두어 공문서의 전달, 관리의 출장과 숙식제공, 관물의 수송(조세) 따위의 사무를 맡게 하였다.

조선시기의 서산지역 역원과 역로를 보면 『동국여지승람』에서 풍전역(豊田驛)·성여미현(省餘美縣)의 득웅역(得熊驛)이 있었고, 행인의 편의를 보아주었던 원은 냉정원(冷井院)·저지원(猪旨院)·망현원(芒峴院) 세곳이 있었다고 나타난다. 이 중에서 풍전역의 경우는 고려때 처음 설치되었고, 조선조에 들어 금정도찰방(金井道察訪)에 딸려 설치되었는데, 왜구로 인해 없어졌던 것을 공정왕(恭靖王-正宗) 경진년(1400년)에 여미현으로 역을 옮겨 두었으며, 득웅역이 내속되었다고 한다. 풍전역은 서산에서 가장 큰 역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영·정조 연간에 편찬된 『여지도서』의 기록에서 역원으로는 오직 풍전역 한 곳만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도 그 지명이 남아 전하여 인지면의 풍전리(豊田里)는 역말 혹은 역촌이라고도 불리우고 있을 뿐만아니라 풍전리의 주변지역의 지명도 역과 관련된 것이 많이 전한다. 『여지도서』에서는 풍전역 외의 다른 역원인 냉정원(冷井院)·저지원(猪旨院)·망치원(芒峙院)은 예전의 역원이며, 이 시기 모두 없어졌다고 기록되어 있다. 망현원이 망치원으로 명칭이 바뀐 것은 기록상의 오류로 보인다. 풍전역에서는 금정(金井)의 속리(屬吏)가 50명과 노(奴) 43명, 비(婢) 12명이 배치되었고, 상등 말이 2필, 중등 말 4필, 하등 말 5필이 있었다.

서산의 역원 가운데 저지원은 현재 서산시 석남동의 남원(南院)인데, 1619년에 편찬된 『호산록』에서 남원의 유래에 관한 기록이 남아 있다. 저지원이 없어진 것은 이 때에도 알 수 없을 만큼 오래되었다고 한다, 그런데 저지원의 원직으로 있던 남윤성(南允成)이라는 사람이 망운대 아래로 이사가 살면서 스스로 원주(院主)라고



〈삼도〉 대동여지도 서산군 일대

칭하면서 역원 한칸을 지어 놓고, 행인들로부터 값을 받았기 때문에 주변에 살던 사람들이 이곳을 남원이라 일컬었다는 것이다. 『호산록』에 따르면, 망현원 역시 없어진지 오래라고 하며, 예전에 이곳의 우물이 유명하여, 왕래하는 행인들이 모두 그 샘물로 취사하고, 말도 먹이고 갔다고 기록된 것으로 보아 저지원(남원)과 몽웅역 중간 지점인 덕지천과 참진샘 지방으로 추정된다.

한편, 해미현에는 역과 원이 각각 하나씩 설치되어 있었다. 역은 백제때의 몽웅향(夢熊鄉)이 있었던 지역으로서, 역의 이름도 몽웅역(夢熊驛)이었다. 몽웅역은 고려때 처음 설치되어, 조선시기까지 이어졌으며, 이 지역을 역말, 역촌, 몽웅역이라 하였다. 현재의 이명인 동암리(冬岩里)는 1914년 개명된 것이다. 그리고 현의 동쪽 6리 지점에 있었다던 신당원(神堂院)은 현재의 위치가 산수리로 밝혀진다. 『여지도서』의 기록에 따르면, 몽웅역은 금정소속이었으며, 관리 5명과 노(奴) 39명, 비(婢) 2명이 배치되었고, 대마(大馬) 2필, 중마(中馬) 4필, 하마(下馬) 5필이 있다고 하여 서산의 풍전역과 그 규모가 비슷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여지도서』에 신당원은 기록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이 시기에는 없어진 것으로 보인다.

역원외의 통신수단인 봉수를 살펴보면, 서산 본읍의 봉화가 남쪽 도비산 봉수와 연결하고, 북쪽 현 당진군 정미면의 안국산 봉화로 하여 바다를 건너 서울로 전달하게 되는 구조였다.

먼저, 조선초기의 기록인 『동국여지승람』에서 나타나는 서산의 봉수는 두 군대가 있었다. 첫번째로 북산봉수(北山烽燧)는 동쪽으로 해미현의 안국산(현 당진군 정미면) 서쪽으로는 태안군의 백화산과 연결되었다. 북산은 현재 북주산성·봉우재·봉화재라는 명칭으로 불리우며, 현재의 부춘산(옥녀봉)으로, 서산시의 북쪽에 해당된다.

두번째 봉수인 도비산 봉수(島飛山烽燧)는 동쪽으로 홍주목 고구현(高丘縣)의 고구산(高丘山)과 연결되고 북쪽으로는 역시 태안군의 백화산과 이어지는 봉수였다. 도비산은 현재의 부석면 대두리와 인지면 산동리 경계에 있는 산이다. 그리고, 고구현은 현재의 홍성군 갈산면 대사리를 포함한 고북면과 현 해미면을 합친 곳이었다.

해미현에는 안국산 봉수(安國山烽燧)가 있었는데, 그 위치는 현 당진군 정미면 덕삼리와 수당리 경계에 위치한 것으로 이곳의 봉수는 서쪽에 있는 서산군의 북산으로 부터 전달받아 북쪽으로는 당진현의 고산(高山)과 호응했다.

3) 진영

조선 건국초기의 지방군제는 기본적으로 고려시대의 유제를 답습하였고, 각도의

군사를 담당했던 도절제사는 대개 서울에 머물러 있어 실제 지방의 군사를 장악하고 있는 것은 도절제사 예하의 솔행군관(率行軍官)이라고 불리우는 기간요원들이었고 상설적인 도절제사영의 직할병력은 없었다. 그러다가 1397년(태조 6) 5월에 각도에 2-4개의 진이 설치되어 침절제사가 부근 군현의 병마를 통할하게 되었다.

『태종실록(太宗實錄)』에 의하면 이때 전국에 모두 15개소의 진이 설치되었는데 충청도에는 순성(蓐城), 남포(藍浦), 이산(伊山)에 3개의 진이 설치되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순성(蓐城)은 현재의 서산군 팔봉면 진장리, 남포(藍浦)는 서천군 비인면, 이산(伊山)은 예산군 덕산면 읍내리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진다. 이들은 전략적 중요성으로 말미암아 조선시대의 지방군제가 확립되는 과정에서 중요한 군사기지로 다시 재편된다. 즉 순성은 순성진 만호진으로, 남포진은 충청우도만호로서 재편되고 이산에는 1405년(태종 5) 내상성(內廂城)(=병마절도사영)이 설치되었다.

그로부터 1년 5개월이 지난 1398년(태조 7) 10월에는 도절제사가 다시 복설되어 이때부터 도절제사영이 독립적인 군사단위로서 책임과 실제적인 기능을 할 수 있는 새로운 체제를 마련하게 되었다.

한편 이같은 군사적, 경제적 목적에 따라 해안선의 각 요처인 서산, 태안 지역에는 여러 수군진들이 설치되는데 예컨대, 태안 후근이포(朽斤伊浦)에 좌도만호(左道萬戶), 서산 대산포(大山浦)의 파지도만호(波知島萬戶)가 바로 그러한 것들이었다.

이와 짝하는 충청도 수군편제는 고려말 왜구를 방어하던 '수(戍)'를 기반으로 모두 7개의 만호진이 설치되었던 것이다. 『신증동국여지승람』을 토대로 하면 충청 서해안지역의 '수(戍)' 자리 가운데 서산의 경우는 고파지도수(파지도만호 分兵戍之)와 요아광수(수군절도사 分兵戍之 : 현 태안군 고남면 고남리 영목)가 있었던 것으로 조사된다. 대부분 이들은 만호진이나 첨사진에서 군대를 파견하여 지키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결국 고려후기 이래로 전략적인 필요에 의하여 설치된 이들 수(戍)들을 활용하면서 조선초기에 수군진들이 자리를 잡는 것으로 파악된다.

· 순성진 : 태조6년(1397) 도가 폐지되고 각도에 2-4개의 진이 설치되어 침절제사가 부근 군현의 병마를 통할하였는데 전국 15개소의 진 중에서 충청도 3개진 중의 하나인 순성진에 관한 기록이 신증동국여지승람에 나타나고 있다. 신숙주의 기문에 "태안군이 충청도 해변의 요충지가 되어 국가에서 순성진을 설치하고 지군사로 하여금 이를 관할하게 하고 있다."는 기사가 나온다. 군내 토지가 비옥하고 어염의 이익으로 옛부터 옥구라 일컬어졌다는데 고려말 여러 변란으로 황폐화되었던 것을 조선이 세워져서도 거주민들의 반수 이상이 조세를 내지않고 유리하고 있었던 것이다. 서산군 팔봉면 진장리에 순성진터가 남아있으며 축성되었을 당시 높이 6자, 둘레 1,353자 였다.

· 평신진 : 평신진은 옛 조립의 부곡이며 지금의 서산시 대산읍의 대산곶이다. 군의 북쪽으로 60리에 있는데 이곳에 이르는 90리는 물결이 매우 잔잔하고 한 지류가 바다로 세차게 흐른다. 둘레는 100여리이다. 파지도만호를 이곳으로 옮겨 첨사로 승격하였으며 정조 갑인년에 독진으로 삼고, 수군첨절제사겸 총리영둔아병파총 1인을 두었다. 목장이 있는데 둘레가 20리이다. 첨사를 갑인년에 없애고 이어 첨사를 감하여 첨사겸 감목관으로 하였다. 『여지도서』에 따르면 감목관은 사복시 소속이고 첨사는 수영소속이다. 그 휘하에 무장 1인, 기패관 21인, 선 5척, 군병 97명, 능로 101인, 진리 15인, 지인 2인, 사령 12인이 있었다. 충청도읍지에는 평신진이 군의 북쪽 대산면 60리, 왜현리(부석면 현 창리)는 군의 남쪽 화변면 50리에 있었으며, 주사선박소 여자 구선 1척, 방선 1척, 병선 1척, 사후선 3척이 있었다는 기록이 남아 있다.

· 고파지도수 : 고려때 파지도수군만호가 위치해 있던 고파지도수는 지금의 서산군 팔봉면 고파도리, 일명 파지섬에 있었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서는 군의 북쪽바다 가운데 있다고 한다. 처음에는 수군만호가 이곳에 있었다가 태종때 영을 호리(현 구도항북편)로 옮긴후에 파지도만호가 병사를 나누어 보내 지키게 하였고 그후로 원래의 파지섬은 옛파지섬, 또는 고파지도라고 불리우게 되었다. 고파도 해안에 성터가 남아있는데 충청도읍지에 따르면 군의 서쪽 문현면 35리에 위치하며 성의 둘레는 1,087척, 높이가 11척, 우물이 1개 있었다고 하나 지금은 남아있지 않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 의하면 파지포진의 위치는 군에서 북쪽으로 38리 떨어진 곳이다. 이것은 현재 서산군 팔봉면 호리에 호리산성터가 남아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앞서 보았듯이 이미 고려때 파지도영이 고파도리에 있어서 수군만호가 주둔하였는데, 태종대에 수군진영이 연해지역으로 이동하며 재정비되는 과정에서 이곳으로 영을 옮기게 되었고, 중종 11년(1516)에 비로소 성을 쌓았다. 이때 성의 둘레는 1,337척이고 높이 11척으로 안우물이 1개 있었다. 정조대에 파지도만호는 평신진으로 합쳐졌다.

· 요아량수 : 『신증동국여지승람』에 군의 남쪽 142리(『대동지지』에는 안면곶 남쪽 지류가 바다로 들어가는 곳이라함 : 현 태안군 고남면 고남리 영목)에 있는데 수군절도사가 병사를 나누어 보내 지켰던 곳이라 하고, 충청도 읍지는 군남 안면도 140리에 있으며, 수군첨사가 군사를 나누어 보내 지키게 하다가 후에 폐하였다고 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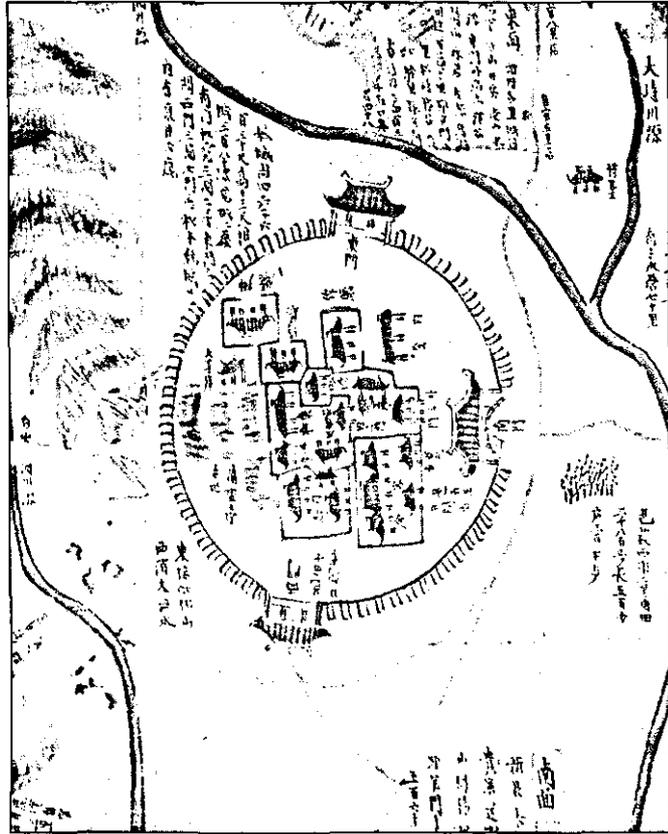
한편, 군사·행정적인 목적으로 산성 또는 읍성이 건축되었다. 우리나라는 유달

리 외침이 많았던 까닭에 전통적으로 많은 성곽을 축조하여, 조선초기의 학자인 양성지(梁誠之)가 '성곽의 나라'라고 지적할 만큼 그 수가 많다. 따라서 '성(城)'은 비단 과거 선조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였다는 기념비적인 의의만을 지니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해 축성 당시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우리 역사의 전반을 이해하는데 더 없이 귀중한 유적이라고 하겠다. 성의 기능은 크게 세가지로 분류해 볼수가 있는데, 첫째, 일반적 기능으로 방어의 기능이다. 이것은 성곽의 가장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기능이라 할 수 있다. 둘째, 행정적 기능으로서, 이는 지방관리가 파견되는 지방도시에 읍성을 축조하여 지방관이 국왕의 명령에 따라 지방민을 통치하는 장소로 이용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략적 기능을 들 수 있다. 이것은 국경지대나 해안지역에 장성이나 영진성을 축조하여 외적의 침입을 방어하거나 공격의 기지로 이용하였다.

동국여지승람에는 서산읍성과 해미현 병영 근처의 석성에 대한 기록이 나타나 있다. 각 읍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사진〉 해미읍성 전경



〈사진〉 해미현 지도 중의
읍성건물 배치도

· 서산읍성 : 서산에는 읍성과 파지도영의 성곽이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동국여지승람』의 성곽조에 읍성(邑城)이 소개되었고, 신증으로 1516년 파지도영에 축성이 이루어진 것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조선왕조실록에서 서산의 산성 축성기사가 계속 보이고 있다. 1451년(문종 1) 충청·전라·경상도 도체찰사(忠淸全羅慶尙道都體察使) 정분(鄭芬)은 법식에 맞추어 쌓지 않아 규식에 맞지 않는 성이 많다고 하며, 서산군 산성(瑞山郡山城)은 축성한 연대가 오래 되어 모두 무너지고 또 성안이 험하고 좁을 뿐 아니라 수원(水源)도 부족하여 관부(官府)를 설치하기는 어렵다고 말하고 있다. 그리고 바로 다음 해에는 1452년(문종 2) 정분(鄭芬)이 서산읍성(瑞山邑城)을 축성하도록 청하였고, 이교연(李皎然)이 축성을 감독하도록 하였다. 그런데 같은해 9월에 김종서가 극성(棘城) 역사는 힘이 많이 들고, 충청도 군민(軍民)도 산릉 역사에 피로하다고 하여 서산군(瑞山郡) 축성(築城)이 정지되었다. 그후 우의정 정분은 서산산성의 터가 성쌓기에 마땅치 않으니 이축을 허락해 달라고 청하였고, 1453년(단종 1) 7월 순시를 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1475년(성종 6) 11월부터 서산군성을 쌓기 시작한 것이다. 다음해인 1476년(성종 7) 6월에

축성을 너무 무리하게 한다는 사헌부대사헌(司憲府大司憲) 윤계겸(尹繼謙)의 차자(劄子)가 올라오기도 하였으나, 조정에서는 들어주지 않았다는 기록도 보이고 있다.

· 해미읍성 : 해미의 경우 『동국여지승람』에서는 병마절도사(兵馬節度使)의 병영(兵營)에 석성이 있는데, 그 안에 세 개의 우물이 있고, 또 군 창고(軍倉)가 있다고 하였다. 『조선왕조실록』에서도 읍성 기사가 나타나 있다. 먼저 1421년(세종 3) 1월 22일에 충청도 관찰사가 올린 보고에서 새로 도절제사의 영문(營門)을 해미내상(海美內廂)에 두게 되는데, 옛 성은 사방으로 통하는 곳에 있는데도 수호하는 자가 없으니, 덕산현(德山縣)을 성내에 옮기게 하자고 하여 그대로 따랐다고 한다. 그리고, 1451년(문종 1) 9월 5일자 기사는 앞에서 언급한 서산군성은 규식에 맞지 않는다고 보고한 것과는 달리 해미읍성은 그대로 두어도 된다고 하였다. 여기에서 해미읍성의 상황을 상세하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 내용을 그대로 옮겨보면 다음과 같다.

해미현 내상성(海美縣 內廂城)은 주위가 3천 3백 52척, 높이가 12척이고, 여장(女牆)의 높이는 3척이며, 적대(敵臺)가 18개소 내에 16개소는 아직 쌓지 않았고, 문(門)이 4개소에 웅성(擁城)이 없으며, 여장이 6백 88개이고, 해자(海子)의 주위는 3천 6백 26척이고, 성안에 샘이 3개소가 있습니다.

이렇게 조선초기 이미 읍성의 기능을 하던 해미읍성은 충청도의 군사편제와 아울러 조선후기에 커다란 변화를 맞게 된다.

3. 조선전기의 서산지역 성씨와 인물

그러면 이제부터는 조선전기 서산을 이끌어 갔던 지역세력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이 시기의 서산지역세력은 고려 이래의 토착향리 세력인 토성이족(土姓吏族)과 신흥사족(新興士族), 또는 이거사족(移居士族)의 존재로서 이해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대체로 한국사학계에서 이루어놓은 지금까지의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조선초기 재지세력들은 두 계열로 구분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다. 그것은 첫째, 고려시대 이래 군현단위로 토착적인 세력을 유지하고 있던 호장(戶長)계열의 향리세력이고, 둘째, 여말 이래로 새롭게 부상한 성리학 계열의 신흥 지식인 즉, 사족세

력인 것이다. 이 두 계열의 재지세력들은 조선 건국 이후 향촌사회에서의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한 자체성장과 활동을 전개하기 시작하였으며, 그 과정은 바로 각 지역의 이후의 사회 문화적 개성을 정립시키는 배경이 되었다.

그런데, 이들이 여말선초에 이르러 나뉘게 되었는데, 분기되는 계기는 고려말기에 이르러 이들 중 과거나 군공 등을 통하여 품관으로 신분을 상승시킨 사족세력이 등장하게 되면서 부터였다.

이들 새로운 계열의 사족세력은 한편 중앙집권적, 획일적인 지방통치에 반발하면서, 한편으로는 향리세력을 견제하므로서 점차 지방사회에서의 독보적인 지위를 확보해 나갔던 것이다. 그러나 대체로 이 시기의 지역사정은 국가의 지방지배 강화와 관련하여 국가 시설의 설치, 그리고 사족적인 분위기를 반영하는 배출인물의 활동을 통해서 단편적인 사실만을 추적할 수 있을 뿐이다.

〈표 -1〉 각종 지리지와 읍지의 성씨조

지역	구분	〈세종실록지리지〉 1454년(단종2)	〈신증동국여지승람〉 1530년(중종)	〈호산록〉 1619년(광해11)	〈여지도서〉(읍지) 영조·정조대
서	본군	토성 柳,宋,杜,文,全 房(村)	柳,宋,杜,文, 鄭,房(村)	宋,柳,全,杜,文 鄭,房	柳,성,全,杜,文 鄭,房
	속성	朴	朴	朴	
산	지곡	安,李,文,朴(村/亡)	安,李,文,朴(村)	安,李,文,朴	
	인정	亡仁政部曲續姓	李	李	
	정소	亡助立部曲續姓	羅	羅	
	광지	亡廣地鄉續姓	廉	廉	
	안면	亡安眠所姓	柳	柳	
	화변	亡禾邊所姓	柳,宋	柳,宋	
	성연	亡聖淵部曲續姓	金,河	金,河	
	북평향	亡福平鄉續姓	柳		
	해미	해현(정해)	白,韓,仇,尹	白,韓,仇,尹	/
사곡소		망성 廉,韓	廉,韓		
여미현		郭,朴,明,余	廓,朴,明,余		
염솔부곡		朴,明,余	朴,明,余		
소당부곡			朴(염정에도 있음)		

() 는 현재 태안지역에 해당됨

1) 지리지에 나타나는 성씨들

이 시기의 서산지역을 대표하던 성씨세력을 살필 수 있는 자료로는 『세종실록지리지(世宗實錄地理志)』(1454년)와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1481~1530년)이다. 물론 이들 자료들은 조선초에 편찬된 기록이지만, 이를 통해 우리는 여말선초(麗末鮮初)의 모습을 대강 살필 수가 있는 것이다. 아래의 <표-1>은 『세종실록지리지』와 『신증동국여지승람』에 보이는 지역별 성씨들을 비교하여 만든 것이다.

먼저, 이 표 가운데서 해미현에서의 토착성씨를 살펴보면 백(白), 한(韓), 구(仇), 윤(尹), 염(廉), 곽(郭), 박(朴), 명(明), 여(余)가 오래전부터 이 지역에서 자리잡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후기에 이르러서 정해현의 성씨보다는 여미현의 성씨들이 더 부각되었던 듯 영·정조대에 출간한 『여지도서』에서는 곽, 여, 백, 한, 구, 윤씨의 순서로 성씨가 기록되어 있다.

다음으로, 서산지역의 상황을 살펴보기로 한다. 표를 통해서 보면 『세종실록지리지』 기록과 『신증동국여지승람』의 토성 기록에 차이가 없다는 점이 눈에 띈다. 이는 고려말에서 조선초에 이르는 시기에 서산지역의 토착세력 판도가 크게 변하지 않았음을 말해주는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지곡현과 같이 폐현된 곳, 향·소·부곡 지역의 성씨들이 망성(亡姓)으로 기록되고 있다는 사실은 이미 고려말에 그들 지역의 세력이 크게 퇴조하였음을 말해 주고 있다.

한편 위의 표를 통하여 또하나 주목되는 사실은 세종실록지리지 5개의 토성중에 정씨가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그러다가 서산정씨는 그후 76년만에 편찬되는 신증동국여지승람에 6번째 토성으로 올라 있다. 이같은 사정은 『세종실록지리지』 천의 서산군편 건치연혁조 설명과 인물조에서 정인경의 공으로 부성이 지서산군사로 승격되는 내용을

충렬왕 10년에 읍 사람 정인경이 공로가 있었던 까닭으로 지금의 이름으로 고쳐 지군사(知郡事)로 승격하였고, 34년에는 다시 서주목(瑞州牧)으로 승격되었다.

정인경(鄭仁卿)은 고종 말기의 인물로 몽고의 군사가 직산(稷山)·신창(新昌) 두 고을에 와서 진을 치고 있었는데, 인경이 밤에 이를 습격하여 공로가 있어 장교로 보충되었고, 충렬왕 때에는 서북면도지휘사(西北面都指揮使)에 제수되어 벼슬이 중찬(中贊)에 이르렀다. 처음에는 설인(舌人)으로 이름이 알려져서 이르는 곳마다 명성과 공적이 있었다.

라 적고 있는 것을 미루어 본다면 정씨가 서서히 중심적인 지역세력으로 성장하

여 가는 과정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세종실록지리지에 5번째로 되어있던 전씨가 3번째로 바뀌는 것이 보인다. 아마도 이 시기부터 새롭게 부상하게 되는 가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러나 전씨가문에서 배출한 인물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토성으로서 서산에 오래 거주하기는 하였으나, 이후 그다지 크게 번성하지는 못하였던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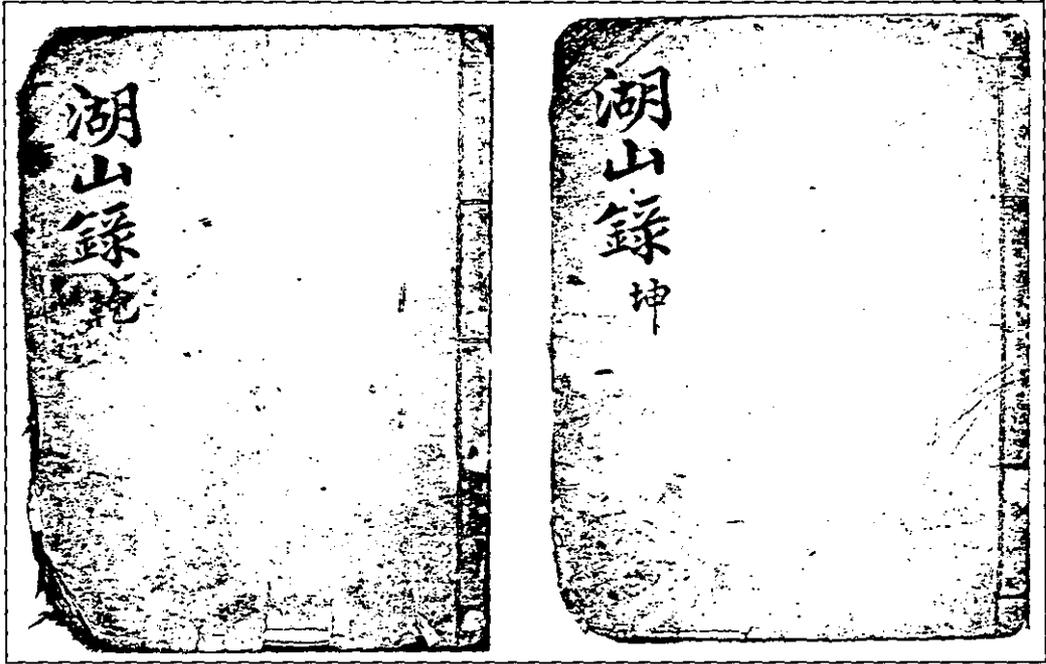
그런데 이조정랑 한여현(韓汝賢)이 지은 사찬지리지 『호산록』에서 특징적인 것은 다른 기록과 다르게 송씨가 제일 첫 번째 토성으로 올라있다는 점이다. 즉 유씨가 1위였고, 이후 간행되는 읍지류에도 유씨가 첫번째로 되어 있으나, 호산록에만 유씨와 송씨의 수록순위가 바뀌어 있다. 그것이 무슨 까닭인지 현재로서는 정확히 알기 어렵다. 그러나 송씨가 비록 호산록에 첫번째 성씨로 수록되기는 했어도, 역시 크게 번성하지는 못하였던 것 같다. 호산록에는 송효명과 아들 송유명의 집이 동분에 있었다고 하나 자손이 없었으며, 외손 이유직과 황위가 살고 있다고 적혀 있다.

지곡은 고려시기부터 부성군(서산군의 옛이름)의 속현이었고 1914년 서산군에 합군되어 지곡면으로 격하된 지역인데, 이곳의 성씨로 안, 이, 문, 박(촌)씨가 보이고 있다. 현재 지곡면에 동족마을을 구성하고 있는 성씨를 보면 화천리의 이씨, 산성리 김씨, 대요리 정씨이다. 문헌기록과 비교해 보면, 이씨만 그대로 남아 있으나, 이곳에 살고 있는 이씨가 같은 성씨인지는 확인하기 어렵다. 한경춘·한여현 부자는 호산록에서 고려조 가장 훌륭한 성씨로 안, 정, 유씨와 조선조 들어서 이씨를 주요성씨로 꼽고 있다. 그러나 안, 정, 유씨는 저술 당시 이미 한미해 졌으며, 이씨의 경우는 그 가문의 형제들 및 자손들이 모두 등과하여 번성하였다고 한다.

현재의 동족마을과 문헌에 나타나는 토성을 비교해 보면 현재 송씨, 두씨, 전씨 등은 미미하고, 역시 유씨와 정씨가 서산 각 지역에 분산되어, 뿌리를 내리고 있음이 확인된다.

한편, 신증동국여지승람에 고려때 명환으로 고려 김주정(金周鼎)이, 인물로는 정인경(鄭仁卿), 유숙(柳淑), 유실(柳實)이 서산지역의 출신인물들로 기록되고 있다. 또한 조선의 인물로 유방선(柳方善), 유운겸(柳允謙)이 기록되어 있다. 이러한 점을 미루어 짐작할 때 서산지역에서 고려이래로 토착적인 지배력을 가졌던 성씨로는 서산정씨와 서령유씨가 중심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위의 기록외에 조선왕조실록 가운데 지방의 행정체계의 재편이 이루어지던 조선 초기인 1428년(세종 10) 8월 29일 서산 사람 이상(李相)이 자신의 고향인 서산을 목(牧)으로 승격시켜 주기를 청하는 기사가 보인다. 이것은 윤봉(尹鳳)의 고향인 서흥을 승격시켰던 예에 의거하였던 것이었다. 이에 대해 조정에서는 아직 서산은 서흥만큼 인구가 많지도 않고, 땅도 넓지 않으므로 불가능하다고 하고 있다. 그리고 1429년(세종 11) 6월 21일에는 공조 참판 이천(李巖)으로 하여금 서산으로 가



〈사진〉 조선전기의 서산지정을 전하는 호산록

서 이상(李相)을 위로하게 하고, 그의 아버지 이산(李山)에게 저마포의(苧麻布衣) 한 벌과 쌀·콩 합계 20석을 내리게 하였다.

이산과 이상 부자의 행적은 알 수 없으나, 이들이 서산이 토착적인 세력이었음은 분명하다. 서산을 목으로 승격시키고자 중앙조정에 진달할 정도의 영향력과 지위를 가지고 있었다면, 서산 내에서의 위상 또한 그에 버금갈만 했을 것이다. 이러한 이씨 관련기사는 앞서 설명한 호산록의 기록과도 연결된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조선건국기의 서산의 지역상을 보여주는 몇가지 기록을 통하여 서산의 주요 토착성씨들을 포괄적으로 살펴보았다. 위에서 이용한 자료 가운데 가장 주목되는 것은 각 인물들의 행적이 보다 자세하게 나타나 있는 사찬읍지 『호산록(湖山錄)』이다.

호산록은 1500년대 중반부터 1600년대 초반까지의 서산을 다양한 주제로 설명하고 있는 사찬읍지로서 건(乾)·곤(坤) 2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책을 집필한 사람은 청주 한씨인 한경춘(韓慶春)·한여현(韓汝賢) 부자로서 1619년에 편찬한 것이다. 이 두 사람은 고경명 군수가 부임했을 때 군수의 제안으로 서산의 읍지를 쓰는 것에 관심을 갖게 되었으며, 한경춘이 읍지의 완성을 보지 못하고 죽음으로서, 나머지의 내용을 집필하고 완성한 것은 아들 한여현이었다.

‘호산(湖山)’이란 명칭은 서산의 별도의 이름이라고 한다. 그에 대한 기록이 남

아 있는 것은 아니지만, 왕족 가운데 호산감(湖山監) 직함을 하사받은 사람들이 서산에 거주하였으며, 고을조서 작호(爵號)를 호산감으로 받으면서 유래하여 호산이 되었다고 하는것을 호산록의 서두에서 밝히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조선왕조실록에서는 호산부정(湖山副正) 이현(李鉉)의 기록이 보이고 있는데 그는 양녕대군의 손자로 호산도정(湖山道正) 호산군(湖山君)으로 그 직함이 바뀌어가고 있는 것이 보인다.

호산록은 임진왜란 전후의 서산 지역의 상황을 매우 자세하게 보여 주면서 동시에 그 이전의 서산지역 실정을 다른 어느 자료보다도 잘 전해주고 있다. 특히 당시에 서산 지역에 뿌리를 내리고 살았던 여러 사람들의 삶을 생생하게 보여 주는 인물조 부분은 조선 초기 서산 사족 및 일반민들의 생활을 알 수 있는 귀중한 자료가 된다.

군수들의 행적이 기록된 '고금토주'는 1459년 부임한 예충년(芮忠年)부터 1614년 김대덕(金大德)까지 53명의 군수가 부임하고, 물러나는 모습이 상세하게 나타나 있다. 그리고, 정신보로부터 시작되는 인물조의 경우 양반 60여명과 하리 8명, 노복 4명이 올라 있다. 또한 이중에서도 특별한 행적이 보이는 경우나 향중에 영향을 끼친 중요 사족의 경우는 그 선조와 자손들의 이름이 함께 기록되어 있기도 하다.

호산록의 편찬은 고경명이 1582년(선조 15) 1년동안 서산에 군수로 부임한 기간에 그의 주도로 시도되었다. 고경명은 공부를 한 사람들이 중국의 역사는 자세하게 알고 있으면서, 자기가 사는 지역의 몇년전의 일들은 전혀 모르는 사정을 개탄하면서, 한여현을 불러 지역사정을 잘 알고 있는 한경춘과 함께 부자(父子)가 기록을 남기도록 부탁하였던 것이다. 고경명의 부임시기에 서산사족들은 그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 향풍이 순화되었는데, 이때의 중요한 기록이 남아있다. 고경명이 부임하여 있는 동안 군내 20세 이하의 자제들 30여명을 선택하여 가르치기위해 서생 5명을 부른적이 있는데, 이때 불려진 사람들이 문성해(文城海), 박유일(朴惟一), 유지립(柳之立), 유민수(柳敏遂), 한여현(韓汝賢)이었다. 이들은 분명히 당시 서산의 대표적인 유생들이었을 것이다. 5명의 성씨는 모두 문헌의 성씨조에서 토성, 속성으로 언급되어 있는 성씨이다. 따라서 조선초기의 중요한 재지사족들의 성씨는 이들을 중심으로 살펴보아도 될 것이다.

『호산록』의 고금인물조에서는 한 사람을 설명하면서 그와 관련된 친족들의 이름이 올라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정확하게 몇명을 수록했다고는 하기 어렵지만, 여기에서는 그 가운데 대표적인 인물로 올라있는 경우를 주목하였다. 그러나 그의 친족들의 이름을 통하여 각 성씨간의 혼인관계를 알 수 있으므로, 이것도 매우 중요한 자료이다.

중요한 인물들을 성씨별로 나누어 볼 수 있으나, 유의할 점은 여기에서는 본관이

정확하게 밝혀져 있지 않다는 것이다. 가장 많은 사람이 수록된 성씨를 뽑아보면, 이씨가 10명으로 가장 많다. 이씨는 전주이씨이거나 한산이씨로 추측된다. 다음은 서령유씨가 9명이고, 한씨가 8명이 수록되어 있다. 그밖에 조, 김, 안, 원씨 등이 4~3명이 올라있고, 강, 정, 최, 황씨도 2명씩 박, 문, 박, 송, 신, 임씨는 1명씩 올라 있다.

성씨의 수록순위에서 나타나는 것은 역시, 책을 저술한 한여현의 가계가 가장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다는 점이고, 고려때부터 서산지역의 대표적인 성씨였던 서령유씨 문중의 인물이 많이 올라있는 것도 주목된다. 또한 1명씩 올라있는 성씨들의 경우도 문헌에서 토착성씨로 기록된 경우가 많다.

위의 성씨는 사족들로 분류할 수 있는 성씨들이었고, 호산록의 인물조에 하리(下吏)라는 제목아래 기록된 인물을 성씨순으로 보면 유씨 4명, 강씨 1명, 안씨 1명, 한씨 2명씩 이다. 이들 역시 호산록에서 토착성씨로 기록한 성씨들이다. 사족과 하리의 성씨가 같은 것은 이 시기가 이족과 사족이 구분되어가던 과도기이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노복(奴僕)으로 기록된 사람들은 4명인데, 성씨는 알 수 없으며, 다만, 이들 모두 효자이거나 열녀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2) 서산의 토착성씨

조선건국을 전후한 시기에 있어서 서산지역의 유력한 재지세력은 『세종실록지리지』에 기록된 토성집단이었다고 생각된다. 이들 세종실록지리지의 성씨조에 기록된 성씨들은 서산정씨, 서령유씨들의 입향사적 및 인물의 행적에서 미루어 짐작되듯이 고려말의 원 지배하에서 성장한 성씨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이들 토성세력은 고려말까지 지방의 토호적 성격을 가지면서 상당한 세력을 가



〈사진〉
서령유씨들을 모신
송곡향현사 전경

지고 있던 호장층(戶長層)이었다. 호장층은 조선 건국후 성리학적 지배질서가 강화되고, 수령을 통한 지방지배를 관철하려던 조선 건국기 중앙정부의 집요한 노력에 의하여 대부분 행정실무층으로 자리를 굳히게 되지만, 세종대까지만 해도 세도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런가 하면 이들중 대부분은 성리학적 소양을 가진 이거사족들과 혼인관계를 갖거나, 혹은 중앙정계에 진출하여 사족가문으로 변신하여 이후 향촌사회에서의 주도권을 계속 영위하게 된다. 조선초기는 바로 호장세력이 정리되어 가던 시기였다. 이와 관련하여 조선왕조실록의 기사가 주목된다. 세종 6년(1424년)3월 11일조에는 서산 호장(瑞山戶長) 유눌(柳訥)과 관련된 형조의 보고가 수록되어 있는데

“유눌은 첩 세명을 두고 있으며, 토지와 민호(民戶)를 누락된 것이라 하여 많이 점유하고 있어 민간에게 폐단을 끼치고 있으니, 청하건대 《육전(六典)》에 의하여 법대로 형(刑)을 더하소서.” 하니, 회시(回示)하여 명하기를, “각기 일등(一等)을 감하라.”

하였다. 유눌은 이 무렵 서산에서 크게 세거하고 있던 서령유씨로 보인다. 서령유씨는 이미 고려말부터 서산의 토착성씨로 자리잡고 있던 성씨였다. 이 기사를 통해 보면 서령유씨의 세거 양상을 더욱 확연하게 알 수 있는데, 첩을 세명이나 두고 있다던가 토지와 민호를 점유하고 있다는 것은 고려말부터 이어온 세력을 보여주는 것이다.

서령 유씨는 유숙(柳淑)·유실(柳實) 부자, 유방선(柳方善)·유윤겸(柳允謙) 부자, 유방택(柳方澤)·유백유(柳伯濡)·유백순(柳伯淳)·유사종(柳嗣宗)으로 이어지는 여말선초의 절의계 인물들을 배출하여 명성을 날린다. 사암 유숙(思菴 柳淑)은 가정 이곡과 교분이 있어 목은 이색이 묘비문을 지었고, 유방택(柳方澤)의 아들 유백유(柳伯濡)·유백순(柳伯淳)은 목은의 제자였다. 그런가하면 목은의 손녀 증손녀가 이 집안의 며느리로 들어와 두 집안이 매우 긴밀한 관계로 연결되었고, 이런 연유로 목은의 묘비문을 유숙의 손자이자 목은의 손녀사위인 유근(柳沂)이 짓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사암 유숙의 후손들은 일찌기 출향하여 주로 경상도 지역에서 많이 거주하였고, 고향에는 일부만 남아 서산지역에서 번성한 것은 오히려 그의 사촌인 유방택·유백순·유사종의 가계였다.

유숙은 충혜왕때에 과거에 올랐으며, 공민왕을 따라 원나라 조정으로 들어가서 즉위하매 공민왕의 요좌관들이 많이는 그 절개를 지키지 않았으나 유숙만은 홀로 변하지 않았다. 숙의 아들인 유실은 용맹이 있고 말 달리기와 활쏘기를 잘하여 누차 승진하여 예의총랑을 역임하고 벼슬이 밀직부사에 이르렀다. 유숙의 증손인 유방선은 태종때에 가화(家禍)를 만나 영천으로 귀양갔다가 사명(赦命)을 만나 편이 한대로 좋도록 하니 학자들이 많이 그를 따라 배웠다고 한다. 그의 아들 유윤겸(柳



〈사진〉 정인경의 묘역

允謙)도 문과에 급제하여 벼슬이 대사간에 이르렀으며 문장에 능하였다.

한편 서산 정씨가 서산에 자리잡게되는 최초의 인물은 정신보로서 그는 원래 송나라 사람이었으나 나라가 망하자 바다를 건너 1237년 서산 간월도 해변에 은거하면서 고창현(덕산의 옛 지명)의 오영노의 딸과 혼인하였다. 그의 아들 '정인경'은 모든 문헌의 인물조에 가장 먼저 이름이 올라있고, 이렇게 입향년도가 비교적 정확하게 밝혀지는데도, 세종실록지리지에서 정씨가 빠진 것은 세종실록지리지 편찬 당시에 서산정씨들이 이미 서산을 많이 떠났거나, 가문적 지위가 미약해진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정인경은 고려말의 문신으로 세자가 원나라에 갈 때 시종하였고 세자가 돌아오다가 파사부(婆娑府)에 이르렀을 때 임연(林衍)의 변을 고하는 자가 있으므로 인주의 수령으로 있던 아버지에게 이를 알려 세자를 다시 원나라로 되돌아가게 하였다. 이 공으로 1274년(충렬왕 1)에 시종 1등공신에 올랐다.

또한 그 공으로 그의 고향인 부성현이 서산현으로 승격하였다. 1290년(충렬왕 16) 동녕부를 고려에 귀속시키는데 공을 세워 벼슬이 부지말직에 오르고, 서북면도지휘사로서 서경유수가 되었다. 1299년(충렬왕 25)에 판삼사사(判三司事)가 되어 정조사(正朝使)로 원나라에 다녀왔다. 성품이 정직하고 몽고어에 능하여 설인(舌人)으로 이름이 알려져 원으로부터 무덕장군정동소지문관(武德將軍征東省理問官)에 임명되기도 하였다.

그 이름이 지리지의 인물조 기사에 가장 먼저 기록 되기도 하는 서산의 전통있는 성씨임에도 불구하고, 호산록에는 정신보와 그의 아들 정인경의 이름만 올라 있을 뿐 그 이후에는 한 사람도 기록되지 않고 있다. 관련 유적으로는 서산 성연면 오사

리에는 정신보와 정인경의 묘소가 위치하고 있다. 정인경은 관직에서 은퇴한 후 지금의 서산읍 석남리(石南里)에서 살았으며, 그의 묘소는 원래 정인경이 정한 것이라 전해진다. 이들의 사후 후손들에 의하여 계속 수호가 이루어졌을 것이지만, 인조반정 이후 후손인 래암 정인홍이 정적들에게 제거되고 일가문이 가화를 만나게 되자 묘소가 제대로 관리되지 못한채 수백 년을 지났다고 한다. 이런 와중에 묘소는 실전되었고 그후 1920년대에 이 마을에 사는 배준희노인이 현몽으로 묘소의 위치를 알고, 이 사실을 경상도 지례에 사는 후손들에게 전해주어 현재의 묘소를 되찾게 되었다고 한다. 현재 정인경의 묘역에 부설된 석물들은 이때에 다시 찾아 세운 것이라 하는데 형태가 근자의 다른 묘역에 있는 것들과 매우 다르다.

다음으로 서산송씨의 경우는 세종실록지리지에서 읍지류 발간때까지도 서산지역 성씨중 상위에 드는 성이었으나, 현재 송씨가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지역은 확인되지 않는다. 이들은 18세기경부터 서산지역을 점차 떠난 것으로 보인다. 송씨의 초기 활동모습은 인물조 등에서 조차 나타나지 않으므로 확인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호산록에는 훈도 송계령(宋桂齡)을 찬송하는 내용이 보이고 있는데, 최여림 군수의 지원으로 향교가 이진된 후의 송계령의 행적을 기록한 내용이다. 그 내용을 보면 향교가 이진된 후 왜란을 만나 향교의 관리 책임이 있던 20여명이 모두 흩어지자 오직 송계령만이 항상 향교를 지켰다고 한다. 그는 매달 삭망에는 선인께 제향하고 명륜당 앞에 손수 괴목 8그루를 심었다. 이때 그가 심은 나무는 교생들이 타고 온 말을 매어서 시들어 죽었다고 한다.

또 송효명과 아들 송유명의 집이 동분에 있었다고 하나 자손이 없었다. 다만 이 성씨는 정종의 제10자인 덕천군의 증손되는 변성군 이계연이 서산송씨와 혼인하여 외손자인 이유직과 황위가 살고 있다고 되어있다. 따라서 이 기록에 의하여 송씨는 여말 선초부터 토착성씨이면서, 전주이씨와 황씨 등, 다른 사족가문과 혼인관계를 가지면서 생활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가문이 한미해진 이유중 하나로 자손이 번성하지 못하였던 점을 들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주목되는 성씨로는 청주한씨가 있다. 이 성씨는 호산록을 지은 한경춘의 집안으로 서산에 최초로 자리잡은 사람은 '한정덕' 이었는데 그의 아버지 한홍서는 고려조 충선왕때 벼슬이 판도판서 추밀원직학사에 이르렀고 하정사(賀正使)로 원조정에 들어갔다가 중국관저에서 죽었다. 한정덕은 전리(典理)로 세상일이 어지러운 모습을 보고 서산 사지촌(蛇池村)에와 살면서 도성과 왕래를 단절한채 살다가 죽어 묘소가 면천 신암산 기슭에 있다고 한다. 서산에서 청주한씨의 가계를 잇는 것은 정덕의 아우 정수의 자손들인데 증손자 한서정·한윤련·한영희·한경춘 4대에 이르기까지 활약상이 보인다.

한서정은 서산정씨와 혼인하였으며, 세조대 이시애의 난때 토포사로 배수되었으나 조정에 나가지 않아 유배되었다가 다시 북방우후를 제수받았고, 아들 한윤련은

향읍의 추천으로 개녕현감, 밀양부사에 이르렀다. 한윤련의 아들 한영희는 서산록과 용문도를 만든 사람이었고 호산록의 저자 한경춘의 아버지이기도 하다. 한영희의 경우 1582년(선조 15) 서산군수로 부임했던 고경명과 윤추애, 윤죽계 등과 더불어 교우를 나누었다고 하니, 청주한씨도 1600년을 전후하여 크게 번창하였을 것으로 추측되지만 그에 관련된 유적은 별반 남아 전하지 않는다.

다음으로 세종실록지리지와 동국여지승람에 따르면 지곡현(地谷縣)과 인정부곡(仁政部曲)에 이씨가 거주하고 있었던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들이 전부 전주이씨라고는 단정할 수가 없다. 다만 본고에서 주목하는 전주이씨들이 이미 1500년대 전후로 입향하였음은 확인되고 있다.

먼저 회안대군의 2자인 창령군(1389~ ?)이 모부인인 밀양황씨를 따라 부석면 강당리로 이거한 사실을 들 수 있다. 회안대군은 왕자의 난을 일으키고 전주에서 유배 생활중이었는데, 창령군의 권유로 상경도중 죽게되어 창령군이 전주로 가 3년상을 치르고, 신위를 부석으로 옮겨와 봉향하였다고 한다. 그리하여 1422년 사당이 건립되기에 이르렀다. 현재도 사당 주변을 비롯하여 서산 곳곳에 창령군의 자손들이 대대로 거주하고 있다. 창령군의 모부인이라는 밀양황씨가 호산록에서 보이는 황씨들과 인척관계에 있었던 것은 아닐까 생각된다.

그리고 또 다른 계열의 전주이씨의 입향이 있었다. 정종의 10남 덕천군의 증손 변성군(邊城君) 이계연이 서산의 송유명의 딸과 혼인하였던 것인데, 여기에서 또한 조선초기 서산의 전통있는 성씨인 송씨와의 혼인관계가 나타나고 있다. 이계연에 대해서는 호산록에서 기록이 없으나, 그의 아들 이이수(李頤壽)경상도병사(慶尙道兵使), 이기수(李期壽)(호산록 편찬당시 가산군수(嘉山郡守), 이학수(李鶴壽)비인 현감(庇仁縣監), 이난수(李鸞壽)길주목사(吉州牧使)와 손자인 이유검(李惟儉), 이유직(李惟直)충청병사(忠淸兵使), 이유성(李惟誠)에 대한 매우 상세한 기록이 남아 있다. 뿐만아니라 호산록(湖山錄)의 산천조(山川條) 가운데 소담봉(疎淡峰)의 설명에서 소담봉은 들가운데 솟은 봉우리인데, 남향사면에는 이유성(李維城)의 선영이 있다고 하면서,

‘이씨가 본읍에서 가장 번성하였는데, 병사(兵使) 이이수(李頤壽) 4형제가 한 시기에 등과하고 일가 친척 및 지손파와 종손파에서 아울러 10여명의 등과한 분이 있어서 판서(判書) 혹은 병사(兵使)·수령(守令)·생원(生員)·진사(進士)·남반(南班)이 대에 끊기지 않았다……’

라고 이씨에 관한 사실을 적고 있다. 위와 같은 기록으로 보아 변성군의 자손들이 조선초기에 서산의 명문을 이루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합덕(홍주)문씨는 각종 지리지에서 토성이면서, 지곡의 토성으로 기록

되고 있다. 이들 문씨들은 조선 초기 서산을 대표하던 한, 유, 이, 박, 김씨들과 친분관계를 갖고 활동했던 것으로 보인다. 호산록에 기록된 문성해는 바닷가에서 성장하였으나 항상 공부를 열심히하여 사마시에 합격하고 성균관에 나가 유학하기까지 하였다. 그리고 1575년 서산의 유생들과 향교를 이견하도록 연명으로 상서를 올리는데 함께 참여하여 이견을 이루었고, 임진왜란 때는 무과에 급제하여 서울에서 왜적과 전투 중에 전사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호산록에서 문성해 외에 다른 문씨가 기록되지 않았으므로, 문씨들의 다른 활동상은 알 수가 없다.

서산강씨도 문씨와 마찬가지로 추적이 잘 안되는 성씨이다. 강씨중에서 기록으로 보이는 강효윤은 그 집안이 이미 서산에 거주하고 있었던 것으로 짐작되지만, 확실한 근거가 보이지 않는다. 강효윤은 영산현감을 지내던 도중 임진왜란을 만나 의병활동을 하기까지 했는데, 이에대한 포장활동은 전혀 없었다. 호산록에서는 강협이라는 사람이 향임을 맡아 고을의 풍속을 바르게 하였다고 하니 그가 강효윤의 조상일 것으로 추측될 뿐이다.

한편 성연부곡의 성씨로 기록된 하씨와 김씨들도 관심의 대상이다. 이들 하씨, 김씨의 연고는 전혀 확인되지 않고 있으나, 서산지역에 넓은 토지를 소유하였던 중앙관리와 연관되어 그들의 세거지가 바로 성연부곡이 아니었던가 추측된다. 그같은 추측이 가능한 것은 세조의 왕위찬탈때 난신으로 몰려 죽임을 당한 김한지, 하위지가문의 토지가 나타나고 있다. 즉 조선왕조실록 세조 3년 3월 23일조 기사에는 난신들의 전지를 종친과 대신들에게 나누어 주는 기록이 보이는데 이중

윤영손(尹令孫)의 서산(瑞山) 토지를 밀성군(密城君) 이침(李琛)에게 주고 김한지(金漢持)·하위지(河緯地)·김감(金堪)의 선산(善山) 전지를 좌의정(左議政) 한확(韓確)에게 나누어 주었다.

고 되어 있다. 이로 보면 이미 이 시기에 김씨, 하씨의 토지가 이곳에 마련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고, 그 이후 기반을 상실하여 현재는 흔적조차 살필 수 없는 것이다.

호산록에는 조씨로 조희침, 조희영 형제, 희영의 아들 경록과 경희, 경록의 아들 안방의 기사가 나와 있다. 이들 조씨들은 대대로 화변에 살았다고 되어 있는데, 본관은 확인되지 않지만, 현재 화변에 살고있는 평양조씨들이 이들의 후손이 아닐까 생각된다. 평양조씨는 후기의 읍지인 『여지도서』에 조아(趙雅)가 기록된 것으로 보아 1700년대 이후에야 크게 번성했던 것으로 추측된다.

4. 『조선왕조실록』에 보이는 조선전기 사회상

이상에서 간략히 관찬기록과 지리지에 나타나는 서산의 군현편제와 국가 시설, 그리고 중심세력에 대하여 살펴 보았다. 이제 마지막으로 조선왕조 실록의 조선초기 기사에서 드러나는 서산지역의 상황을 소개하고자 한다. 여기에서는 서산지역의 사회상과 경제상, 그리고 유교적 사회질서가 뿌리를 내리는 과정이 어느 정도 엿보이고 있다.

서산은 조선건국 직전에는 서주목에서 지서주사로 강등되어 있던 상태였으나 조선이 건국된 후에는 태종 13년에 서산군으로 승격되게 된다. 앞에 든 1424년(세종 6) 3월 11일의 서산 호장(瑞山戶長) 유눌(柳訥)의 폐단 보고가 그 하나의 예이기도 하지만, 성종 6년(1475년) 4월 11일조 기사의 사헌부(司憲府)에 올라온 보고를 보면, 충청도병마절도사(忠淸道兵馬節度使) 김서형(金瑞衡)이 서산(瑞山) 지방에서 사냥하면서 금산(禁山)에 불을 놓아 국가에서 배양하는 재목감의 소나무를 모두 불타게한 사건이 있었다. 실록에서는

“그 불이 개심사(開心寺)에까지 번져서 절을 불태웠습니다. 또 군사훈련을 핑계대고 때 없이 군졸들을 징발하여 여러날 동안 사냥하였는데, 수령(守令)들의 뒷바라지가 조금이라도 마음에 차지 않으면 여러 가지로 엮어서 벌주고 욕되게 하는 등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절도사로서 부적당하니, 청컨대 행태감찰(行臺監察)을 보내어 추국(推鞠)하게 하소서. 또 개심사(開心寺)에 거주하는 중이 관찰사 성윤문(成允文)에게 보고하였으나, 성윤문이 숨기고 추국하지 않았습니니다. 청컨대 그도 아울러 국문하게 하소서.” 하였다. 임금이 감찰 정찬을 보내어 추국하도록 명령하였다.

라 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서산의 경제상을 엿볼 수 있는 자료도 보인다. 서산에서는 조선초기부터 은광의 발견과 관련된 기사가 몇개 보이고 있다. 서산 은광의 발견 보고가 있자 조정에서는 이를 발견한 해미사람 김연에게 역을 면제해주는 은전을 베풀었고, 바로 다음해인 1418년에 판관 김윤하를 보내어 은을 캐도록 하였다. 그 기록을 좀더 소개하여 보면

1417년(태종 17) 11월 7일 : 충청도(忠淸道) 해미현(海美縣) 호장(戶長) 김연(金鍊)이 서산군(瑞山郡) 임내(任內) 지곡현(地谷縣) 땅에 은돌(銀石)이 있다고 고하니, 관가에서 사람을 보내어 파내어서 납(鉛) 1근 8냥을 녹였는데, 정련(精練)한 백은(白銀)이 1전(錢) 3푼(分)이었다. 또한 여기는 땅이 평평하고 나무가 무성하여 은(銀)을 단련하기에 제일 좋은 땅이었다. 공조(工曹)에서 아뢰기를, “원컨대, 김연을 교명에 의

하여 역사를 면제하여 후인을 권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1418년(태종 18) 1월 8일 : 왕이 성엄(成掩)에게 명하여 “은장(銀匠)을 많이 뽑아서 사공제와 김귀룡 등에게 부탁하여 은(銀)을 캐는 기술을 널리 배운 뒤에 서산 지역의 은(銀)을 캐도록 하라.” 뒤에 조말생(趙末生)이 아뢰기를, “김윤하가 김귀룡을 따라가서 이미 은(銀)을 캐는 기술을 배웠으니, 청컨대, 김윤하를 보내어 서산의 은(銀)을 캐게 하소서.” 하니, 하교(下敎)하기를, “서산의 경우라면 때에 미쳐서 캐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 이어서 김윤하로 하여금 가서 캐도록 하였다.

라 하여 서산 지곡은 은광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은을 제련하기에도 알맞은 지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조정에서 은을 캐도록 결정한 것이다. 참고로 이 은광은 일제시에는 일인들에 의하여 개발되었고 광복후에는 우리의 힘에 의하여 1960년대 까지 계속 개발되었다.

또, 서산에 목장이 건설하려는 시도도 있었는데, 세종실록의 다음 기사가 그러한 사정을 전해주고 있다.

1426년(세종 8) 8월 16일 : 충청도 감사와 절제사가 경차관(敬差官)과 합동하여 계하기를, “도내에 있는 서산(瑞山)의 다리곶(多利串 : 현 태안군 소원면)·흥양(興陽)·토진(土津)·맹판(孟串) 등 네 개의 목장(牧場)을 친히 답사하며 살펴보니, 자못 불편한 점이 있으니, 청하건대 홍주 구역 안에 있는 대산관에 거주하고 백성을 다리곶·토진·맹판 등지에 자원에 따라 이주(移住)하도록 하고, 추수를 기다려 네 군데의 목장의 말을 대산곶으로 옮겨 방목하도록 하소서.” 하니, 명하여 이를 병조에 내리었다.

1445년(세종 27) 10월 9일 : 충청·전라·경상도 도순찰사(都巡察使) 김종서(金宗瑞)가 복명(復命)하여 아뢰기를, “서산군(瑞山郡)의 도비산(都飛山)에 만일 목장을 둔다면 말 3, 4백 필을 놓을 수 있으나, 백성 3백 20호를 옮긴 후에야 할 수 있고, 또 물과 풀이 부족하므로 목장을 쌓지 말게 하였습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이로서 보면 충청도 감사와 절제사는 서산지역은 목장을 축조하기가 알맞지 않으므로, 홍주구역 안에 있는 대산곶에 목장을 축조하는 것이 낫겠다고 보고하고 있다. 그리고 19년 후에도 다시 한 번 목장을 만들려고 하였으나 이곳을 둘러보고 온 관찰사 김종서가 보고하기를 도비산에 목장을 만들면, 320여호를 이주시켜야하고 물과 풀도 부족하므로 목장을 만들지 말도록 하였다. 한편 제방에 관련된 기사도 보이고 있다.

왕자제(王子堤)의 둔전에 관한 기사는 예종실록에 보이는데

1469년(예종 1) 7월 20일 : 호조(戶曹)에서 아뢰기를, “충청도(忠淸道) 서산(瑞山) 왕자제(王子堤)의 둔전(屯田)은 이미 백성들이 힘을 합쳐서 농사짓도록 허락하였는데, 이제 본도 관찰사가 이문(移文)한 것을 비추어 보니, 둔전이 기름지지 못하고 매말라서 자원(自願)하여 합쳐서 농사 지으려는 자가 없다고 합니다. 청컨대, 경내(境內)의 빈민(貧民)을 모두 일하게 하소서.” 하니, 명하여 익대 공신(翼戴功臣) 가운데 전지(田地)를 받지 못한 자에게 내려 주도록 하였다.

이를 보면 서산의 둔전이 기름지지 못하여 농사지으려는 자가 없었다. 그리하여 이윤이 남지 않으니 빈민을 일하게 하도록 하고, 그 땅을 익대 공신중 전지를 받지 못한 자에게 내려주도록 하고 있다. 이 둔전의 기록은 호산록에서도 나타나 있는데, 위치는 망운대 아래인 것으로 되어 있다. 망운대 둔전은 서산 민간에게 경작을 맡겼었고 먼 곳에 사는 사람들이 이곳까지 와서 농사를 짓느라 민폐가 되었다고 한다. 이 둔전은 후에도 몇차례의 폐단이 지적되었고, 1500년대에 들어서 시정되어 나갔다.

다음으로 성리학의 보급과 함께 유교적 교화의 사례도 몇 자료가 조선왕조실록에 보이고 있다. 건국 후 조선의 중앙정부는 성리학적 교화를 통한 사회질서의 확립 의도를 강하게 보여주고 있었다. 세종은 즉위한 직후부터 교서를 내려 효자, 절부, 의부, 순손의 실적을 찾아 보고하게 하였는데, 이때

1420년(세종 2) 1월 21일 : 임금이 처음 즉위하여 중외에 교서를 내리어, 효자·절부(節婦)·의부(義夫)·순손(順孫)이 있는 곳을 찾아 실적을 아뢰라고 하였다. 그중 서산(瑞山) 사노(私奴) 막금(莫金)의 처 소사(召史)는 나이 24세에 지아버가 죽으며, 못사람이 다투어 데려 가려고 했지만, 쫓지 않고 수절했는데, 나이 이미 54세이다. 이에 임금이 명하여 막금의 처 소사에게 그 마을에 정문(旌門)을 세워 포창하고, 그 집의 민역(民役)을 면제하게 하였다.

라고 하여 서산에서는 양반도 아닌, 사노비의 열행이 포장받게 되었다. 국가에서는 수절한 사노비 막금의 처에게 정려를 내리고, 그 집의 요역을 면제시켜 주었던 것이다. 그에 관한 일화는 실록에 자세하게 나오고 있지 않으나, 호산록에서는 그와 흡사한 이점손의 아내 덕비의 일화가 전한다. 양쪽 사료에서 나타난 열부가 동일인이라고는 볼 수 없지만, 그 열행은 같은 내용이라고 추측된다. 그러나 정려나 이들 인물들에 대한 사적은 현재 남아있지 않다.

한편 해미현과 관련되는 기록도 일부가 보이는데 제2차 왕자의 난에 연루된 회안대군(방간)의 자손들이 해미현과 인연을 맺고, 이와 관련될직한 기사가 조선왕조실록에 보인다. 즉

1416년(태종 16) 2월 16일 : 왕이 도비산(都飛山)에서 물이하고 돌아와 해미현(海美縣)에 머물렀다.

는 기사가 그것이다. 태종이 도비산에 머물렀다는 것은 제2차 왕자의 난에 화를 입고 유배가 있던 회안대군의 자손들이 서산 도비산부근에 옮겨 살고 있던 것과 관련될 수도 있다고 보여진다(회안대군 관련 내용은 그를 모시고 있는 송덕사 편에서 좀더 자세하게 설명하였다.) 이때 태종이 과연 회안대군의 자손들을 방문했었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 그러나 태종이 이곳까지 사냥을 온 것은 분명 관련 가능성을 보여주는 부분으로 주목된다.

한편 『조선왕조실록』에는 해미현에 관한 흥미로운 기사도 추적되고 있다. 첫째는 앞에 서산과 관련하여 소개했던 세종때의 효열부에 대한 포장기록 중에서 해미현의 인명이 보이는데

1420년(세종 2) 1월 21일 : 임금이 처음 즉위하여 효자·절부(節婦)·의부(義夫)·순손(順孫)이 있는 곳을 찾아 실적(實迹)으로 아뢰라고 하였다. 이때 특행으로 뽑힌 사람들 가운데, 해미 선군(海美船軍) 임상좌(林上左)는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무덤을 지키고, 집이 가난하매 신을 만들어 제사를 차렸다. 또, 박유(朴蕪)는, 어머니가 죽으매, 그 무덤을 지키고, 그 아우내는 품을 팔아 제수를 마련했고, 간혹 이것도 되지 못하면, 채소로 제사지냈다. 전 별장 임우(林雨)는 병진년·정사년 사이에 왜적이 갑자기 와서 에워쌌는데, 마침 그 아버지가 병으로 누워 있어 혼자서 적을 물리치고 아버지를 업고 산으로 달아나 난을 면하였다. 유학 정효신(鄭孝新)은 나이 13세에 아버지가 죽었는데, 3년간 무덤을 지키었다. 그리고, 정안의(鄭安義)는 조모의 무덤을 지켰다.

이에 임상좌·박유에게는 그 마을에 정문(旌門)을 세워 포창하고, 그 집의 민역(民役)을 면제하였으며, 정효신·정안의에게는 벼슬을 주도록 하였다.

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효·열의 표창기사는 조선초기 성리학적 질서를 확립시켜 나가는 국가적 노력이라고 볼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포상에는 조선시기 하류계층이었던 노비까지도 포함하고 있었다. 이 기록에 등장하는 해미 선군(海美船軍)인 임상좌(林上左)와 박유(朴蕪), 임우(林雨), 정효신(鄭孝新), 정안의(鄭安義) 등은 정문(旌門)을 세워 포창하고, 요역을 면제하거나 벼슬을 주도록 하였다고 하였으나, 애석하게도 현재 서산지역에서 이들과 관련된 유적이거나 자료는 찾을 수가 없다.

또하나의 흥미로운 기사는 세조때의 기사이다. 단종을 몰아내고 등극한 세조는 자신을 도운 공신들에게 사육신과 연루된 신하들의 토지를 나누어 주었다. 1457년(세조 3) 3월 23일의 실록기사에는 난신들의 전지를 종친과 대신들에게 나누어 주

는 것이 보인다. 이때 최사우(崔斯友)의 해미(海美) 전지를 전 판원사(判院師) 이계전(李季甸)에게 주었다는 기사가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는 해미읍성과 관련되는 주요한 기사로 해미현의 군량미 관리와 관련된 기사가 성종실록에 보인다.

1494년(성종 25) 5월 16일 : 충청도 관찰사(忠淸道觀察使) 조위(曹偉)가 보고하기를, “군자창(軍資倉)의 곡식은 완급에 대비하는 것인데, 해미현창(海美縣倉)의 곡식은 1만 석이 차지 않습니다. 그러니 도내 여섯 곳의 포구에 매년 그랬던 것처럼 소금을 굽게 하고 해미현으로 하여금 <그 소금으로> 곡식을 바꾸게 하고 2, 3만 석을 비축하게 하여 군수(軍需)를 준비하도록 청합니다.” 하였는데, 호조(戶曹)에서 이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해미현은 병영(兵營)이 있는 곳이니, 군수를 비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인근(隣近) 여러 포(浦)의 소금 굽는 것을 10년 동안으로 기한을 정하여 곡식과 바꾸도록 해서 군수에 보충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는 것이 그것으로 당시의 해미병영 군수에 관한 조처를 읽을 수가 있다. 한편 조위는 뒤이은 5월 27일

1494년(성종 25) 5월 27일 : 충청도 관찰사(忠淸道觀察使) 조위(曹偉)가 치계(馳啓)하기를, “해미(海美)·홍주(洪州) 등지의 백성들이 왜변(倭變)이라 일컬으며 서로들 놀라 동요하여 더러는 분주하게 산(山)에 오르고 더러는 <짐을> 지거나 이고 성(城)에 들어가므로 해명하여 금지시키고 즉시 안정(安定)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웃의 여러 고을에도 놀라 동요하는 것이 없지 않으니, 청주 목사(淸州牧使) 최옥순(崔玉筍)으로 하여금 말을 만들어 군중을 미혹시키는 사람을 끝까지 추문(推問)하게 하소서.”

라고 해미지역의 민정 상황을 보고하고 있다. 이에 왕은 “거짓말이 대중을 미혹시킨 것은 옛날에도 있었다. 지금 왜변(倭變)이 있다는 말은 틀림없이 무뢰(無賴)하고 간사(奸詐)한 무리들이 어리석은 백성들을 놀라고 동요하게 하여 그들로 하여금 도망해서 숨게 하고 그 틈에 재물을 절취하려는 것일 뿐이다. 지금 서울 안에서도 어린아이를 문으며 재앙을 물리치는 제사를 지낸다는 말이 있는데, 거짓말이 여러 번 들끓어 여기에 이르렀으니, 참으로 큰일이다. 끝까지 체포하여 법으로 조치하는 것이 마땅하니, 여러가지 방법으로 수사하고 체포하여 추문(推問)해서 아뢰는 것이 가하다.” 라고 지시하고 있었다.

이밖에도 해미현에 부임했거나, 해미현에 머물렀던 관리들 가운데는 공적을 쌓아, 이것이 조정에 보고되어 포상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 이보다는 그들이 저지른 폐정때문에 처벌을 받았던 기록이 많이 보인다. 이 가운데 1543년(중종 38) 6월 15일 기사에서 보는 해미 현감의 이연의 횡령사실, 1574년(선조 7) 6월 27일 기

사에 보이는 뇌물을 받고 송사를 처결한 해미 현감 고경조(高敬祖) 파직요청같은 것도 있다. 이들 기록들은 이 시기 다른 지역에서도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던 재지사족과 관권의 갈등을 보여주는 기사로서 주목된다.

이와함께 우리는 조선전기 해미현의 위상과 실상을 적나라하게 기록한 조선왕조실록 기사도 주목하게 된다. 즉

1540년(중종 35) 9월 26일 : 사헌부가 아뢰기를, 해미(海美)는 본디 잔읍(殘邑)인데 요즘들어 더욱 피폐해졌습니다. 노련한 인물이 아니면 회복시킬 수가 없는데 현감 왕순효(王順孝)는 나이 젊은 무인(武人)인데다 경력이 없으니 체직하고 적합한 사람을 골라 차임하소서.” 하니, 왕순효의 일은 아뢴 대로 하라.”

라는 기사나

1550년(명종 5) 10월 2일 : 사헌부가 아뢰기를, “해미현(海美縣) 역시 매우 피폐하여 장차 폐읍이 될 형편이기 때문에 이미 문관을 차견했으나 관리나 백성중에는 병영(兵營)에 투숙한 자가 반이 넘습니다. 따라서 충청감사로 하여금 일일이 쇠환한 뒤에 명단을 기록하여 아뢰게 하소서.” 하니 해미현에 관한 일은 아뢴 대로 하라 하였다.

1562년(명종 17) 7월 28일 : 호조가 아뢰기를, “청흥도 관찰사 민기(閔箕)가 해미현(海美縣)이 가장 잔폐하였기 때문에 세금을 감해줄 것, 유망민들의 전답에 요역을 면제할 것, 납부되지 않은 공물을 반감하거나 쌀로 대신 바치게 할 것, 미납된 소금을 풍년이 든 뒤에 수납할 것, 미납된 선상대포(選上代布)를 감할 것, 왕년의 공채(公債)를 감할 것 등 95조목으로 열거하여 계문하였습니다. 해미현의 잔폐가 더욱 심하니 진계(陳啓)하는 것이 과연 마땅합니다. 풍년을 기다려 미수염(未收鹽)을 거두고 공물(貢物)을 쌀로 대신하게 하는 것은 본조(本曹)의 공사(公事)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이지만, 묵은 토지에 대하여 요역을 면제하고, 공물을 바꾸어 정하는 것과 왕년의 공채와 선상대포와 미납공물을 감하는 것은 모두 임금의 은혜에 관계되는 것이므로 품계하는 것입니다.” 하니, 진지(陣地)의 요역을 면제하고, 공부(貢賦)를 다른 관아로 이정하며, 미납공물과 선상대포는 반감하고, 왕년의 공채는 3분의 2를 감하라고 하였다.

1563년(명종 18) 6월 16일 : 청흥도 관찰사의 장계에 의거하여 여역이 치성한 해미현에 약을 보내게 하다.

등에서 보는 것처럼 30여년이 넘도록 계속해서 해미지역의 잔폐한 실정이 소개되고 있다.

5. 서산지역의 사족 활동과 의병

1) 서산지역 사족 동향

조선중기에 서산지역은 행정적으로 커다란 변화를 겪지 않고 유지되었다. 다만 이 시기에는 사족활동이 활발해 지면서 더욱 다양한 사족가문이 번창하게 되고, 왜란과 호란을 겪으면서 충절을 실천하는 인물들이 다수 배출되었다.

16세기 초에 새로운 정치세력으로 대두한 사림계는 향촌사회의 안정 문제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보였다. 사림계의 이러한 노력은 그 단초가 세종말·문종대의 사창법 시험에로까지 소급되지만 본격적인 것은 역시 훈척계의 정치가 수탈적 양상을 보인 성종대부터였다. 향촌문제는 왕조초기부터 중앙집권적 입장에서만 일방적으로 이끌어져 온데다 훈척계의 수탈행위가 초기의 지방통제의 제도적 성과에 편승하여 자행됨으로서 더욱 고조되었다. 대부분 재지중소지주적 입장이었던 사림계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그들 정치활동의 최대의 쟁점으로 삼았기 때문에 훈척계와의 정치적 충돌의 주요 원인이 되기까지 하였다. 이들의 해결책은 기본적으로 향촌의 일반 구성원의 안정을 전제하는 것이므로 그 실현을 위한 노력은 그 자체가 바로 그들 스스로를 새로운 지배세력으로 규정짓는 것이기도 하였다.

그러한 사림들의 향촌활동을 주도하던 기구가 바로 유향소였다. 유향소는 세종말년 이후 혁파된 상태였다. 이들의 유향소 복립 건의는 물론 이 제도의 부활을 주장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것은 단순한 제도의 부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례(周禮)의 향사례(鄉射禮)·향음주례(鄉飲酒禮)의 실천기구를 얻자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었다. 이는 말하자면 향약과 비슷한 향촌교화의 한 방식인 것이었는데, 성종 14년에 김종직(金宗直)의 발의로 시작된 이 건의는 난항을 거듭하는 끝에 성종 19년에 비로소 훈구계 일부의 찬의 표명으로 가결되어진다. 그러나 훈구계들은 이미 경제소 제도와 수령의 관권을 통해 복립 유향소의 대부분을 장악해 버린 상태였으므로, 복립 결정이후 2년도 되지 못하여 복립을 주장하던 자들은 도리어 혁파를 주장하기에 이르렀다.

유향소가 복립된 이후 향사음례를 행하는 유향소란 뜻에서 '향사당(鄉射堂)'이란 명칭이 이때부터 쓰여지기 시작하였다. 서산에서는 이 향사당을 '향서당'이라고 부르고 있었다. 유향소 복립운동이 실패로 돌아간후 성리학파의 의기는 크게 꺾여 있었다. 그러나 연산군의 난정으로 사회적 모순이 더욱 심화됨에 따라 공도(公道)를 앞세우는 기본적인 입장의 공감을 확대시켜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중종반정은 연산군과 그 외척세력에 대한 훈구측의 반격의 성공이었다. 따라서 중종 초기에 정치의 주도권이 반정공신계에 있었음은 더 말할 것도 없다. 그러나 소수의 사림계의 진출이 있었으며, 특히 기호지방의 성리학자들이 대폭적으로 대두

하게 되었다.

성리학파의 성쇠와 운명을 같이 하던 향촌문제는 중종대에 들어와서도 다시 거론된다. 이들은 유향소 혁파와 향사음례의 적극적인 실시를 동시에 건의하였으며, 점차 여씨향약을 주창하게 되었다. 여씨향약은 성리학의 경서중 소학에 소재되어 있다. 따라서 그 보급 운동은 소학 실천운동의 성격을 띠는 것이다.

조광조를 위시한 시진사류들은 소학과 주자가례의 실천과 함께 예속(禮俗)에 관련된 서적의 보급에도 힘을 기울이며, 일반민의 교화에 적극적인 노력을 보였다. 그리하여 성리학적 사회윤리가 이들에게까지 확산되었던 것이다. 조광조의 개혁정치는 공신들의 공훈을 잘못된 것이라 하여 삭제할 것을 주장하면서 정계를 폭발시켰다. 이에 공신들은 동요하였고, 조광조를 탄핵하였다. 또한 너무나도 급진적인 정책에 염증을 느끼고 있던 중종은 그 탄핵을 받아들여 조광조를 비롯한 다수의 신진세력이 잡혀 문초를 받게 되고 마침내 처형을 당했다. 이른바 기묘사화(己卯士禍)가 전개된 것이다.

사람들의 노력은 좌절되어 향약이 전면 혁파되고 소학의 보급 문제 역시 일체 논의가 사라졌다. 심지어 부형들은 자제들을 가르치는데 있어서 『소학』을 사람을 죽이는 독약으로 여길 정도였다.

이러한 경향은 서산지역 역시 마찬가지였다. 호산록에서는 1519년 기묘사화 전후로 서산지역의 향풍이 변화하였음을 한탄하고 있다. 이러한 서산의 사람분위기는 호산록에

……본읍에 살던 사람으로 양렬공 정인경의 부자 같은 분과 서령부원군 유성간을 비롯한 후손들이 사암선생 유숙과 밀직부사 유실과 태재선생 유방선과 대사간 유운겸과 홍문관 대제학 유백순과 서성군 한송서와 판서 한정덕과 사인 한국류와 기타 사문대현(斯文大賢)이 서로 이어서 배출하여 시서로써 가르치며 효제로 돈독하고 엄치로써 독려하여 양반인즉 같이 계를 만들고 서재를 만들며 상사람인즉 향도(鄉徒)와 향사(鄉社)를 결성하여 교양하는 방법이 있고 성취시킴에도 본지가 있으므로 집집마다 자연 착한 풍속이 이루어지고 사람마다 각각 습관이 있어서 비록 지식이 없는 사람이라도 또한 예의에 상식이 있어서 윗 어른을 공경하고, 우애가 있다.

기묘사화(1519년) 이후부터는 부형이 된 자로서 아들과 아우를 가르쳐 인술하는데 가르치는 바가 형이상한 것으로서 익히는 것이 오직 장기와 바둑에 불과하고 기뻐하는 바가 오직 주색잡기에 있어 예전에 비하여 크게 달라졌다.

라고 하듯이 기묘사화 전까지 서산은 대대로 충효로 이름난 유학자가 배출되었고 이러한 조상들의 영향을 받아 향촌민의 교화가 이루어졌다고 한다. 양반들은 계와 서재를 만들고, 일반 민들은 향도와 향사를 결성하여 고을의 풍속이 예의에 어

곳남이 없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기묘사화 이후로 선비들은 배우려 들지 않고, 오락과 주색잡기에만 빠져 있어 예전과 크게 달라졌다고 호산록의 찬자는 한탄하고 있다. 이러한 향풍의 변화는 좀더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사건을 발생시키기도 하여 기묘사화 이후 지역 분위기의 변화를 보여준다. 조선왕조 실록 가운데 충청도 관찰사가 서산을 둘러보고 조정에 올린 보고서에서도 그러한 그러한 분위기가 드러나고 있다. 1521년(중종 16) 1월 3일 충청도 관찰사 손중돈(孫仲墩)은 충청도를 순찰하고 보고를 올리는 가운데,

“본도의 박악(薄惡)한 풍속은 다른 도에 비해 더욱 심합니다. 촌민(村民) 및 송자(訟者)들이 하나라도 마음에 맞지 않는 것이 있게 되면, 수령(守令)뿐만이 아니라 관찰사에 게까지도 밤을 이용하여 산에 올라가서 온갖 욕설을 기탄없이 하고 있습니다. 이달 24 일에는 순행하여 서산에 이르렀는데 3경 초에 동상방(東上房) 창 아래 화살 떨어지는 소리가 나기에 숙직하는 사람을 시켜 찾게 하였더니 화살에 본 고을 수령이 범한 잘못을 기록한 글이 매어져 있었으므로, 즉시 소각시켜 그 자취를 없애버렸습니다. 【이때 김형보(金荊寶)가 군수로 있었다.】 대저 서산고을의 수령들이 불법을 저지른 일에 대해서는 아직 들은 바 없습니다. 그런데 조금이라도 사적인 원한이 있으면 번번이 나쁜 짓을 기탄없이 행하여 관찰사를 경멸함이 극도에 달했으니 신은 편안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신을 면직시켜 주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무지한 백성이 이런 짓을 하는 것인데 경에게 관계될 게 뭐 있는가? 사면하지 말라.” 하였다.

라 하여 충청도가 다른 지역에 비해 그 풍속 더욱 박악하다고 말하면서 서산에서 있었던 사건을 전하였다. 1521년은 기묘사화가 일어나고 불과 3년이 지난 후였다. 김형보 군수는 1520년에 부임하였으나 부친상을 당하여 겨우 1년만에 임기를 마치고 떠난 인물이다. 호산록에서는 그가 어떤 패정을 저질렀는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으며, 실제로 실록에서도 관찰사가 군수에게 어떤 잘못이 있는지 들은 바가 없다고 되어있다. 관찰사 손중돈의 보고에는 서산외에도 임천에서 그러한 사건이 있었음을 기술하였는데, 이렇게 1500년대 초반에 충청도 각지에서는 향촌민과 수령(관)의 관계가 매우 불안하였던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사실상 이러한 경향은 비단 충청도나 서산에 국한된 것은 아니었다.

이러한 사건이 자주 일어났던 것은 당시 중앙에서 파견된 수령에게 모든 권한을 위임함에 따른 자연스런 반발이었던 것이다. 이때 이를 주도한 세력은 지역에 연고를 가졌던 토착세력들이었다. 중앙권력에 의하여 전통적으로 유지되어 왔던 지방 지배력을 통제받게 되는데 따른 반항이었던 것이다. 이를 중앙정부나 성리학자들은 교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는 경우도 없지 않았다. 지방민들의 풍속을 실록기사에서 “박악한 풍속…” 이라거나 “무지한 백성…” 이라고 표현하고, 호산록에서

‘학문을 배우려 들지 않고, 오락과 주색잡기에만 빠져 있다’고 하는 평가는 바로 그러한 의식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었다. 그런 상태에서는 수령이나, 관찰사에게는 아무런 죄를 주지 않고, 수령의 권위를 국가가 대변, 인정해 주고 있었다.

어쨌든 이러한 중앙정부의 지방 통제정책에 따라 유향소나 경재소는 혁파되게 된다. 그 이유는 유향소가 토호적인 성격의 지방세력에 의해 운영되고, 경재소 역시 본래 설치의도인 향풍의 규정과 유향소의 작폐 감독을 소홀히 하고 향촌에서의 경제적 이권을 노려 인리(人吏)를 침학하기에 급급하였기 때문이었다. 특히 왜란을 거치면서 그 불법부패로 유해무익함이 거론되다가 경재소는 1603년(선조 36)년 비변사의 계로 혁파되었고, 이와 함께 이후의 유향소의 임원은 수령이 택정하게 됨으로써 조선초기에 수령까지 규제하던 유향소가 이제 수령의 보좌역으로 격하되게 되었던 것이다.

서산의 유향소 역시 전국적인 동향과 마찬가지로 폐단을 낳고 있었고, 이는 향풍이 악화되는 것과 그 맥락을 함께하는 것이었다. 호산록의 저자인 한여현은 유향소가 퇴폐하게 된 까닭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여러대 동안 우리 서산에서는 경재소와 향재소를 설립하였는데 경재소는 지금 폐지되었고 향재소인즉 폐지되지 않았다. 비록 폐지되지는 않았다 하여도 실제로는 폐지된 셈이다.

무엇 때문인가. 향소 책임자를 맡기는데 오직 하급 관리로써 책임자를 맡기기 때문이다.

……아 지금의 향소란 곳을 과연 어느 사람이 맡고 있는가. 한치라도 염치의 마음이 있는 자라면 모두 수치로 여겨 하지 않을 것이다. 본읍에 왕래하는 다소의 고관으로 부르고 있는 자는 감병사 수사를 지낸 자인 즉 향소의 머릿채를 잡고 곤장을 때리고 직산(稷山)에 도회관들이 군사를 살펴보는 데까지도 모두 향소로써 거느리고 가게 했다. 대체로 큰 손님의 행차가 출도하는 일이며 해마다 서부 지방으로 내려오는 군사 장부의 발기하는 일이며 사나운 범이 산으로 다닐 때 나라에 진상하는 일이며 고기잡는 살에 조석으로 물을 맡아 보는 일이며 얼음 창고와 감옥서 담장 수리하는 일이며 관청에 조석 접대하는 일을 모두 향소로써 점점하여 거행하게 하는데 조금은 뜻대로 되지 않은즉 큰 곤장이 따르게 되니 향소의 책임이 과연 어떻다 하겠는가. 그러므로써 향소를 보는 자는 모두 조롱하며 비웃고 가버린다.

혹자가 말하기를 관청 일은 육방관리로써 각각 그 몫이 있어서 모두 그 책임을 관장하고 있다. 향소의 책임인즉 한결같이 국가에서 설립한 본의에 의뢰하는 것이 역시 옳치 않겠는가라고 했다. (한여현이 말하기를) 혹자의 말인즉 그렇다 하겠으나 다만 늙은 고양이 목에 누가 장차 방울을 잘 달아주기 위하여 올 사람이 있겠는가

라 한다. 유향소제도가 유명무실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유향소에 하급관리가 책임자로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 무렵 유향소의 위상은 크게 떨어져 있었다. 몇 가지 사례가 보이는데, 관리들에 의한 극심한 폐해가 가장 큰 영향을 끼쳤던 것으로 드러난다.

서산에 부임해오는 고관들중 어떤 이는 향소를 함부로 곤장때리기 일췌였고, 군사고찰, 빈객맞이, 진상품, 관청접대 등 크고 작은 일들에 향소를 끌어다 부러먹었다. 그러한 까닭에 향소 본래의 역할은 사라지고, 무거운 책임만 떠맡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향촌민들은 향소를 비웃고 조롱할 지경이었다. 그러나 서산의 사족들에게 이러한 상황을 변화시킬 만한 힘은 없었던 것 같다. 문장의 말미에 저자가 한탄하는 한마디 말은 수령권에 대항하고자 자청해서 향소의 책임을 맡을 사람이 없었던 사정을 반영해 준다.

이 시기 유향소 청사는 향사당(鄉射堂)이라고도 불리웠는데, 향사당이란 용어가 일반화된 것은 성종조에 복립된 유향소에서 사림세력들로 하여금 주례의 향사례·향음주례를 주관·실시토록 장려되었던 때문으로 여겨진다. 이것은 전통적인 향촌 지배조직이었던 유향소에 주자학적 이념이 강하게 반영되어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었다. 당시의 사림세력은 주례의 향사례·향음주례에서 재지세력 중심의 향촌지배 논리를 발견하고 이를 통해 자신들의 위치를 합리화시키고자 했던 것이다.

서산에서는 이 향사당을 향서당(鄉序堂)이라고 이름붙였었는데, 그것은 공자의 교훈을 가르치고 풍속을 바르게 한다는 뜻을 담고 있는 것이었다고 한다. 이곳에서 서산사족들은 춘·추 향사례, 향음주례를 지내면서 향촌활동은 전개하고 있었다. 그런데 전란을 거치면서 원래는 향원과 그 자제가 아니면 출입할 수 없던 향서당에 향외인(鄉外人) 또는 신향(新鄉)이 출입하게 되었던 모양이다. 호산록에는 이 사람을 불량한 자라 표현하고 있는데 이때의 상황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한 번은 불량한 자가 좌목을 설립한 후로는 향서당이 다시는 향서당의 모습이 되지 못하였다. 이유가 무엇인가. 그사람은 사람의 큰 윤리와 도리를 무시한채 오직 좌목만 가지고 투쟁하여 각각 당의 원조를 결성하고 전장태세를 설립한 후에 서로 공격하면서 나는 양반이고 저들은 상사람이라 하여 혹은 내외(內外)를 기준으로 좌목을 만들기도 하고 혹은 삼향(三鄉)을 구분하여 좌목을 만들었는데 그 양반이라 하는 자를 구하여 물어본 즉 모두 서로 비슷한 사이가 된다. 비록 형제 사이라도 전취와 후취의 어머니가 다른즉 비록 부모가 당상에 생존하여 계신다 해도 형제끼리 당 아래에서 칼부림이 일어나는 법이 있으니 형제도 그와 같은데 하물며 4.5촌이야 4.5촌도 그와 같은데 하물며 친구며 한 시골을 일러 뺏아놓는가.

아 불량한 자의 마음은 나로서는 감히 알지 못하겠다. 가령 이러한 좌목으로 인하여 만승을 지닌 경제상의 귀함을 얻는다 하여도 혹시라도 형제 친척과 한 고장에 사는 친구

의 본심을 잃게 된 즉 어찌 마음 속이 편하겠으랴. ……향소 좌목의 폐단은 온 8도가 모두 동일한데 국가에서는 심상한 일로 보기 때문에 군현에서 금지하지 않고 방백도 금지하지 않으니 지식이 있는 자로는 한심스러움이 오래이다. 대체로 시골 풍 속의 옛 준례를 알지 못하고 금지하지 않은 것인가.

공자, 맹자, 정자는 온 누리의 큰 성인과 큰 현인이다. 천지를 위하여 마음을 확립하고 생민을 위하여 지극한 제도를 확립하므로 만세에 태평세대를 열어준 것인데 일언 반구로도 죄목을 놓고 내가 양반이니 그들이 상사람이니 하는 말에는 미치지 않았은즉 좌목의 행위는 성인이 마땅히 금지할 바이고 마땅히 배어 죽일 바인데 금지하지 않고 배이지 않으니 마땅히 난민이 세상에 많다고 하겠다.

이러 하여 당시 서산의 사족들로부터 좌목의 시행에 대한 폐단이 지적되고 있었다. 이것은 왜란이후 신분질서의 혼동이 극심해지면서, 사족들의 향촌에서의 지위가 흔들리게 되자 상·하민간의 수분의식(守分意識)이 강조되면서 나타난 현상때문이었다는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경재소가 혁파되고 유향소가 변질되었으므로, 향규 또한 폐단이 발생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여기에서 좌목을 설치한 '불량한 자'는 누구를 말하는가. 그는 호산록을 저술한 한경춘, 한여현 부자 및 이들과 교유한 조선 전반기의 사족세력과는 반대되는 세력이었을 것이 분명하다. 향서당이 처음의 의도와는 다르게 그 기능을 상실하는 등 임란전후의 이러한 혼란상 속에서 향촌질서를 다시 한번 재편성하고자 하는 사족들의 의지가 나타나기도 하였다.

향서당의 좌우 벽상에는 일향입의현판(一鄉立議懸板)이 걸려있었다고 한다. 이 현판에서 왼쪽은 선행, 오른쪽에 악행을 각각 6개와 4개의 항목으로 나누고 여기에 부합되는 인물을 선별하여 각 항목의 아래에 적어 벽에 걸어두었던 것이다. 이 고을 의제가 얼마만큼의 효력을 가지고 있었는지는 불분명하나 현판을 걸어두고 향풍을 교화시키고자 한것은 사족내부의 결속을 다지고자 하는 노력의 일단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향서당의 좌우 벽상에 한 고을의 의제를 확립하여 현판했다.

착한 일이 가히 법칙이 될 만한 자는 좌벽에 걸었으니 좌벽이란 것은 한 고을에서 서로 듣고 본 것이며 혹은 정문을 내려 포상하고 혹은 현달한 사람을 추천하여 귀히 여기며 높이 여기어 한 고을 사람들에게 착한 행동을 본받게 하는 일이다. 악한 일이 가히 경계될만한 자는 우벽에 걸었으니 우벽에 건 자는 역시 듣고 본 것으로 인하여 큰 인물은 고을에서 쫓아내고 작은 인물은 도형(徒刑)을 받게하여 고을 풍속에 아름답지 못한 자를 바르게 잡는 것이다.

엄밀하게 말해서 사족들이 향촌사회에서 자신들의 이념과 영향력을 과시하게 되는 것은 성리학적 지배질서가 정착되는 15세기 후반에서 16세기 전반기에 이르러서였다. 이 시기의 향권을 둘러싼 이족과 사족간의 갈등은 여러 형태로 표집되고 있는데, 서산지역에도 역시 이 시기에 이르러 향권이 동요되는 모습이 드러나고 있었다.

향권을 둘러싼 갈등관계가 극명하게 표출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그것은 향교의 이건과 관련하여 이건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에 반대하는 일부 세력들이 일으킨 태봉난간파괴 사건이다. 이 사건은 수령과 결탁한 세력 대 그 반대세력의 양상으로 전개되었다. 그리고 이 사건의 배후에는 향교의 이건문제가 있었던 것이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575년(선조 8) 11월 1일 : 도적이 명종의 태봉(胎封)을 허물었다. 이 태봉은 서산에 있는데 간악한 백성이 군수를 해치려고 하여 태실(胎室)의 돌난간을 깨뜨렸다...

조정에서는 사건이 일어난 서산의 수령을 파직하지 않았다. 이러한 사건은 조선 후기에 이르면 충청도 각지에서 여러 번 일어나고 있는데, 가장 잦은 사건이 향교와 관련된 것으로서 향교의 위판을 일부러 없애버린다거나하여 그 책임을 수령에게 전가하고 수령이 파직되도록 꾸미는 것이 대부분이다. 그런데 당시의 사정을 살펴보면 서산의 태실난간파괴 사건 역시 향교위판훼손 음모와 마찬가지로 군수파직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어서 매우 흥미롭다.

이 사건이 일어난 시기의 서산군수는 최여림으로서 그의 재임시기는 1573년부터 1576년까지 3년간이었다. 그가 부임하자마자 태봉과 관련된 불미스러운 사건이 한차례 있었고, 1575년에는 그와같은 사건이 또 한차례 발생하였다.

최여림 군수가 부임했던 당시는 서산사람에게 있어서 중요한 시기였다. 왜냐하면 이때 최군수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기반으로 향교가 이건되었기 때문이었다. 향교의 이건과 관련된 기록이 『호산록』(1619년, 광해군 11) 향교조에서도 보인다. 이를 간략하게 간추리면,

서산 향교는 본래 군의 서쪽 3리되는 곳에 있었다. 한경춘(韓慶春)의 부친 진사공(韓永禧)이 일통지와 오래의를 상고하여 보니 모든 향교는 읍의 동쪽에 세워지는 것이 상례였다. 그것은 동방이 천지만물이 생동하는 방향이기 때문이었다. 서쪽은 당연히 반대의 좋지 않은 방향인데도 본읍의 향교만이 유독 서쪽에 있어, 항상 이를 걱정하다가 친구인 김호윤, 김호열 형제와 상의하여 태수와 방백에게 이건을 청하는 상서를 올렸다. 그러나 모두 듣지 않았다.

그러다가 최여림 군수가 부임함에 다시 유생 박영언, 이유인, 유창수, 문성해, 이첨수

등과 함께 연명으로 상서하여 이건의 필요성을 진달하니 최 태수가 곧 응하여 동쪽으로 옮기도록 조치하였다. 당시 최태수는 민력의 번잡함을 덜어 이건하되 대성전, 동·서양무, 명륜당 4칸, 동·서재 각 3칸 등을 건립하였고, 수호군 20명을 배정하여 문묘의 역내를 청소하고 수리하게 하였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자 수호군들이 관리의 침해를 받아 연호잡역으로 차출되거나 면주인으로 삼게 되자 20명이 일시에 없어져 버렸다. 그러므로 명륜당의 앞뒤와 대성전의 동서에 풀이 우거지고 비바람에 퇴락을 면하지 못하게 되었지만, 능히 수리하지 못하여 차마 볼 수가 없을 지경이 되었다.

라고 적고 있다. 이를 미루어 보면 현재 위치로의 향교이건은 한영희(韓永禧)의 주도로 서산사람들이 수차에 걸친 이건 요청을 통하여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김호윤(金好尹), 김호열(金好說), 박영언(朴英彦), 이유인(李有仁), 유창수(柳昌壽), 문성해(文成海), 이첨수(李添壽) 등이 협력하였으며, 특히 군수로 부임한 최여림의 적극적인 지원, 협조로 성사될 수 있었음을 알게 된다. 최군수가 부임하기 전에도 향교 이건의 움직임은 있었지만 모두 듣지 않았던 것을 최군수 부임후에는 오히려 관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으면서 성사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당시 향교이건이 서산지역 사람 전체가 원하고 있던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뿐만아니라 뒤이어 일어난 두 번째 이건의 시도는 지역사족들간의 갈등과 또한 여기에 관여한 관의 긴장관계를 추측 가능하게 한다.

1574년의 이건이후에 무슨 이유인지 또 한차례의 이건이 시도되었던 사실이 바로 그것이다. 당시의 이건 움직임은 1648년(인조 26) 문묘중수기 군수 유태명(郡守 柳泰明), 재임 권세중(齋任 權世中)에 의하여 밝혀진다. 즉 1646년(인조 24) 부임한 유태명 군수는 향교의 협착함과 퇴락상을 보고 이건할 것을 사람들에게 발론하였고, 이에 서산 사람들이 뜻을 모아 당시 충청감사 이언경에게 상서를 올렸다고 한다. 그러나 마침 그가 임기가 만료되어 1647년 후임 감사인 허지에게 연이어 이건을 청하는 상서를 올렸으나, 감사는 이건에는 반대하고 다만 중수만을 허락하였다고 한다. 그럼에도 서산사람들은 다시 건의를 하였고, 역시 들어주지 않아 부득이 중수하는 것으로 일단락되었던 것이다.

향교가 이건된지 겨우 72년만에 다시 건물을 이건해야 할 만큼 퇴락했다는 것은 의혹이 가는 부분이므로 다시 한번 이건의 시도가 나타나는 것은 이전의 이건주체 세력과는 다른 세력의 동향일 가능성이 농후하다. 여기에도 다시 한번 관의 개입이 있었고, 군수가 바뀌자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이 시기의 사족활동은 주로 결사체적인 사족모임이나 절의 혹은 사림파계열의 인사들을 중심으로 하는 학백의 형성이라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었다. 서산의 경우도 이와 마찬가지로 었을 것으로 보이지만 현재로서는 그러한 결사체의 실증자료들이

확인되거나 추적되지 않고 있다.

이 시기에 서산 지역의 가장 대표적인 이거 성씨로는 경주김씨를 손꼽을 수가 있다. 경주김씨는 이거한 직후 곧 중앙에 진출하여 조정에서의 영향력이 막강해졌고, 이를 기반으로 서산지역내에서 여러가지 활동을 주도하였다.

경주김씨는 원래 안동에 세거하였으나 안주목사를 지낸 김연(金堧)이 1500년대 중반경 만년 은거지로 서산을 택하였고, 그의 작은 아들 김호윤(金好尹)이 서산에 터를 잡아 세거하게 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김호윤의 아들 김적은 1609년(광해군 1)에 생원시에 합격하여 관료에 들어 섰으나 당시 광해군의 난정이 계속되자 탄식하고 가족을 이끌고 서산의 향리로 낙향하였다. 그는 월사 이정구와 동갑으로 함께 자라 매우 가까운 사이였다고 하며, 서산에 머물면서 서로 오간 편지도 전한다. 김적은 서산에 머물면서 자손에게는 학문을 노복에게는 농사의 근면하기를 일깨우고 유계리의 용유천 밑에 대를 쌓아 단구대라 부르고 호도 단구자라 하면서 단구정을 지어 지역사람들과 교류하였다. 인조반정후에 평릉참봉에 제수되었으나 관료에 나갈뜻이 없음을 이정구에게 편지로서 전하기도 하였다. 그의 묘갈명은 포저 조의 지였다.

김적의 아들 김홍욱은 1635년(인조 13) 증광문과에 을과로 급제하였고, 이듬해 병자호란이 일어나자 남한산성에 호종, 청에 대한 강경론을 주장하였다. 당진현감으로 나가서는 감사와 뜻이 맞지않아 벼슬을 그만두었고, 1646년 이조좌랑이 되었으나 권신 김자점과의 불화로 사직하였다. 효종즉위(1650년) 이후 집의, 승지를 거쳐 홍충도관찰사(洪忠道觀察使)가 되어 충청도에서 대동법을 실시하기도 하였다. 1654년 회빈 강씨(소현세자의 빈)의 억울함을 말하고 그 원을 풀어줄 것을 상소하였다가 격노한 효종에 의해 하옥되어 친국을 받던 중 장살되었다.

김홍욱의 묘지명은 박필주가 찬하였으며, 신도비는 우암 송시열이 찬하였고 김홍욱의 관작 복구는 효종 말년에 송시열과 송준길의 주청으로 이루어졌다. 김적과 김홍욱이 교류한 인물이라든가, 그들의 사후에 신도비 및 묘비를 쓴 사람들로 보아 서산지역의 경주김씨 문중은 서인 노론계임을 알 수 있다. 또한, 경주김씨들이 서산에서 크게 세거하였고, 서산 사족들 내에 정치적인 문제로 인한 향촌내부의 분란이 한번도 없었으므로, 서산은 분명 서인 노론계통이었음을 알 수 있다.

경주김씨 문중은 김홍욱의 사후에 그의 현손 한구(漢耆)의 딸이 왕비가 되면서 더욱 번창하게 된다.

2) 왜란·호란과 의병활동

1592년 임진왜란과 1597년 정유재란때 서산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의병활동에 참가하여 활약하였던 것으로 밝혀진다. 임진왜란이 일어 났을 때 서산에서 직접

전투가 벌어지지 않는 않았지만 다른 여러 고을과 마찬가지로 사족들은 의병을 일으키거나 관리로서 직접 전투에 참여하기도 하고, 또는 서산으로 피난을 와서 혼란한 향촌민을 교화시키는데 앞장서기도 하였다.

먼저, 서산의 의병활동에서 특징적인 것은 왜란이 일어나기 10년전에 서산에 부임했던 인연이 있는 고경명 군수와 그의 격문에 동화되어 합심하고 의병활동에 나선 서산 사족들의 행적이다.

고경명은 임진왜란때 의병 6,7천여명을 거느리고 선조의 행궁이 있는 평안도로 가고자 북상하다가 금산에서 왜군을 만나 싸우던 중 전사한 인물로 서산에는 1582년 단 1년동안 부임해 있었으나 서산 향촌사회에 끼친 영향력은 매우 컸었다. 이것은 호산록을 저술한 한여현이 고경명 군수의 제안으로 호산록을 집필하기로 마음 먹었던 사실에서부터 확인이 된다.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고경명 전 군수의 격문이 서산지역에도 전해졌다.

…… 아! 우리 열군에 성주들과, 여러 지방에 사민(士民)들아. 충성이 어찌 임군을 잊을까. 의리에 마땅히 국가를 위해 죽을 때이다. 혹자는 병기를 들고 나오며, 혹자는 식량으로 구제하고 혹자는 말을 타고 먼저 군대의 행렬에 달리기도 하고, 혹자는 중으로 달려오고 농촌마다 분발하여 일어났으며 미칠 것을 헤아리지 않고 오직 의리에 돌아가려네. 능히 우리 대왕을 난리에서 방어하려하매 간절히 자네들과 함께 싸울 것을 원하노라…

서산지역의 사족들은 이 징병의 격서에 동참하여 의병을 일으키고 전장에 나가게 되었다. 충청도 여러 지역에서 중봉 조현의 문인으로서 그를 따라 의병에 참여했던 인물이 다수 분포하고 있는 것과 달리 서산의 사족들은 특히 고경명 전 군수의 영향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서산 사족들의 총질 행적은 다음의 몇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다.

① 의병참전

김호열(金好說)은 김연의 아들로 경주김씨가 서산에 정착하던 무렵의 인물이다. 그는 갑자년 유성룡 방목아래 생원시 합격. 신묘년 효릉참봉을 배수되었는데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제기와 재복을 능소곶에 묻고 분향한 다음 떠났다. 난리를 피하고 고향에 돌아와 즉시 한경춘, 한여현 부자와 원수선(元守善), 김인선(金麟善), 박유일(朴惟一), 김덕후(金德厚), 조경옥(趙景玉)등과 더불어 결단식을 갖고 본읍 인사를 원통사(元通寺)로 소집하여 의병도청을 창설하고 약간의 군량과 군기, 군인을 인솔하고 심정승을 보좌하여 진지를 지키면서 모든 물자를 운반하는데 계속하여 끝

이지 않았다고 한다. 여기에서 김호열과 함께 의병활동에 참여했던 7인의 행적 역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들은 모두 서산의 토착성씨이며, 같은 시기에 교류를 가지고 활동했던 사족들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강몽서는 영산현감을 지내던 중 왜란을 만나 영산을 함락당하게 되었는데 그의 아버지인 강효윤이 이 소식을 듣고, 고을 사람과 결탁하고 패잔병을 모아 적들을 몰아냈다고 한다. 당시 서산에 거주하고 있던 강씨들의 입향과 정착과정은 밝혀지지 않는다. 각종 지리지와 읍지류 등의 성씨조에 등재되어 있지 않지만, 호산록에는 강효윤 부자의 일화가 전하고, 또한 강효윤의 딸은 서산에 이거했던 한효순의 후취부인이었다고 하므로, 강씨는 이 무렵에 입향하여 자리잡아가는 과정이었다고 볼 수 있다.

② 군량미 조달

관리나 의병으로서 전투에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군량미를 모아 전장에 보내었던 사람들의 기록이 전한다. 여기에서도 지금까지 지목되어 온 성씨들의 활약이 나타나고 있다.

한경원은 임진왜란이 일어나던 해 대가가 의주에 머무는데 반찬과 의복이 없다 함을 듣고 충청도의 여러 선비들과 함께 눈물을 흘리며 모임을 갖고 한 폭의 상소문을 봉하여 임금에 있는 곳에 송달했다. 그리고, 사인으로 있을 때 서산으로 이사와 거주했다던 한효순(韓孝純)은 강효윤의 딸을 후취부인으로 삼고 농사를 지으며 살다가 임진왜란을 당하였을 때는 해미현 남면 덕천마을에 살았다. 한효순은 전란으로 군량이 모자르다는 소식을 듣자 곡식을 모으기 위해 호남 영남을 직접 찾아다니고 모아, 중국군사의 식량을 계속 대었다. 이에 조정에서 병조판서, 형조판서를 제수하였으나 나아가지 않다가 드디어 입궐하니 살던 집은 폐지되었다. 정유재란이 일어나던 해 겨울에는 부찰사가 되어 중국 장수 이유격의 접대사가 되었다. 중국 장수를 따라 넓은 해양 가운데에 들어갔다가 큰 풍랑을 만났는데 중국 장수의 배는 즉시 복선되었고 부찰사도 바다에 표류하였다. 한여현 부자와 곽설이 함께 바다를 헤매어 시체를 찾다가 실패하고 제문을 지어 초혼제를 지내려 할때에 살아서 남포 지방 해안으로 표류하다가 나왔다는 소식을 듣고 제사를 정지하였다는 일화가 전한다.

③ 관리로서 참전

조안방(趙安邦)은 조경록의 아들이다. 조경록은 정유재란때 대장을 거역하였다 하여 죄없이 죽었다는 인물이다. 조안방은 임진왜란때 왕의 행차가 영유에 이르러 과거를 보자 무과에 우수한 등급으로 급제하여 선전관겸 비변사 낭청에 배수되었

고, 안동판관에 제수되었다. 그러나 부친의 사건으로 체직하고 3년을 서울감옥에 수감되었다.

강몽서(姜夢瑞)는 강효윤의 아들이고, 호산록의 저자 한여현의 친구이다. 천성이 화평하였다고 하며, 덕천마을에 살았다고 한다. 영산현감을 지내던 중 임진왜란 일어나 영산도 함락당하자, 아버지 강효윤이 이 소식을 듣고, 고을사람 약간과 더불어 서로 결탁하고 패잔병 약간을 모집하여 도적을 사로잡았다.

곽설(郭說)은 선대부터 서산에 농장을 가지고 있었는데, 정유재란이 일어나자 처자를 인솔하고 와서 살았다. 앞서 설명한 인물인 부찰사 한효순의 종사관이 되어 활약하였으며, 한여현과 친분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경주김씨 김홍익(金弘翼)은 김적의 아들이며 학주 김홍욱의 장형으로서, 연산현감으로 재직중 병자호란이 일어나자 근왕병을 모집하여 충청감사 정인규를 따라 수원으로 진군하였다. 여기서 다시 양지읍과 현능을 경유하여 광주 험천에 이르렀을 때 적의 습격을 받아 많은 군사가 희생되었다. 김홍익은 군량을 쌓아 놓은 쌀섬위에서 군대를 지휘하다 마침내 집중공격하여 오는 적군을 맞아 격전끝에 10여명의 적을 살해하였으나 불행히도 칼이 부러지고 말았다. 하지만 용기를 잃지 않고 적진에 들어가 분전하다가 결국 전신에 칼과 화살을 맞고 전사하였다. 조정에서는 이 사실을 알고 충신정려를 세워주었으며, 이조판서를 추증하고 충민(忠愍)이라는 시호를 내렸다.

이렇게 몇 인물들의 행적을 살펴보면, 관리가 되어 출전하였다고는 하나 중앙의



〈사진〉 팔봉면 호리에 있는 이유직의 묘소와 묘갈

〈자료〉 지지류, 읍지류에 기록된 충절인물

읍지류 사건	신증동국여지승람 1530년(중종 25)	호산록 1619년(광해군 11)	여지도서, 읍지 1757~1800
고려	(명환) 김주정 (인물) 정인경, 유숙	정신보, 정인경, 유숙, 유실, 유후, 유혜강, 유혜남, 유혜화, 한홍서	유숙, 유실, 정인경
조선건국, 초기	유실, 유방선, 유윤겸	유백순	유백순
임진왜란		김호열, 조안방, 이유검, 강몽서, 강호윤, 류지립, 문성해, 조존세, 한효순	정충신, 한영희, 한경춘
정유재란		유흡, 팽설, 원득희, 조경록	
광해군의 난정			김적
조선중기(?)			조아
이괄의 난			
병자호란			김홍욱, 김홍익, 조준윤
기타 인물			유윤겸, 이완길, 한우승, 박홍업, 유희원 홍성원, 홍지원

※ 기타 인물지와 정려초장을 받은 충신(忠臣)

	고려	임진왜란	정유재란	이괄의 난	병자호란	영·정조
인 물	유성간	강호윤	조경록	최몽량	김홍욱	김취명
	유숙	김호열			김홍익	문덕원
	유실	남유(혜미)			조준윤	박한세
	정인경	정충신			유혁연	김관주
		조존성				김유경
		이유검				
		류지립				
	한효순					

요직관리는 아니었으며, 그 사례 또한 적은 편이다.

한편 왕을 호종한 경우도 관리로서 전투에 참여한 유형의 일부로 볼 수 있다. 조존세(趙存世)의 경우가 그러한 예인데, 호산록에 의하면 그는 효성이 깊어 조정에서 조지서별좌를 제수할 정도였고, 그후 문과에 올라 한림이 되었다. 임진왜란에 평양까지 왕을 호종하였는데, 전란중에 어머니를 잃고, 행방불명된 어머니를 겨우

찾아 서산 문지촌(지곡면 면화리)에 와서 6년간 거주하였다고 한다. 그도 역시 한 여현과 교분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의병활동 등의 충절을 보인 인물들은 그 행적을 인정받아 포상을 받거나 후인들의 귀감으로 칭송되기도 하지만, 반면 임진왜란을 만나 억울한 처지를 겪은 사례도 호산록에는 기록되어 있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이유검(李惟儉)의 사례이다. 이유검은 덕천군의 증손인 이계연이 서산송씨와 혼인하므로서 서산과 인연을 맺는 전주이씨로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처음에 순찰사 김수가 불러 김해 수문장이 되었는데 왜적이 승승장구하여 사방에서 쳐들어오자 군대가 패전하였으므로 포위를 헤치고 빠져나왔다고 한다. 이 사실이 알려져 순찰사는 이유검이 먼저 성을 포기했다 하여 죄를 주었고, 서산의 사족들은 그의 사정에 대해 매우 원통해 하였다고 한다. 그의 가계를 살펴보면 아버지는 비인현감을 역임하였던 이학수이고 이유검의 동생인 이유직은 무과에 급제하여 벼슬이 충청병사에 이르렀다고 호산록에 자세하게 언급되고 있다. 이처럼 그의 가계가 자세하게 나와있는 것으로 보면 왕조 종친인 이들은 이 무렵 서산에 명문을 이루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유직의 묘소가 팔봉면 호리에 있으며, 그 묘갈명을 그의 재당질이 되는 인조때 영상을 지낸 백헌 이경석이 찬하고 썼다.

한편, 유지립(柳之立)은 서령유씨로 천성이 호탕하여 사소한 예절에 구애받지 않은 사람이었다고 하는데, 1579년 생원시에 합격한뒤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광해군이 공주에 있을때 눈물을 흘리며 상소하여 당시 서산지역의 폐단이 지극히 참혹한 바를 조목조목 써낸적이 있었다. 이에 군수 박승종(朴承宗)이 성주의 일에 간섭한다 하여 도둑과 같은 취급을 받으며 잡혀 감옥에서 죽게 되었다고 한다.

6. 조선후기의 사회변화

1) 왜란직후 혼란의 수습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이 일어났지만, 서산은 전장(戰場)이 아니었으므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지 않았다. 그러나 해로로 연결되는 해안지역은 전란의 와중에서 매우 불안하였으며, 특히 해미지역에 왜적의 출몰이 있었던 것 같다. 물론 약간 후대의 기록이기는 하지만, 임란 당시 해미현감을 역임했던 정명세의 행적을 전하는 실록 기사 중에

1608년(광해 원년) 11월 21일 : 장흥(長興)에 사는 유학(幼學) 정침이 상소하기를,

“신의 아버지 정명세(鄭名世)가 해미 현감(海美縣監)으로 있을 때 임진 왜란을 만나 출몰하여 적군을 토벌했는데, 크고 작은 십여 차례의 전투에서 수급을 많이 벤 공로가 있었고 나라를 위해 몸을 던져 죽고 말았습니다. 그리하여 신의 아버지의 이름이 절개를 세운 인사들의 뒤에 끼어 있는데도 아직 포상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자식된 자의 원통만이 아니고 사실 공론이 한스럽게 여기는 바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정명세의 충의를 정문을 세워 표창하는 일은 의당 쾌히 시행해야 할 것이다. 예조에 말하여 속히 논의한 다음 아뢰도록 하라.” 하였다.

는 기사가 바로 그것이다. 이로 미루어 보면 해미지역에는 적지 않은 왜적이 출몰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비록 전란의 직접적인 피해가 다른 지역에 비하여 크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전국이 황폐해지고 백성이 유망하는 등 전쟁의 피해가 극심해지자 그 여파는 서산지역에도 마찬가지로 전파되게 마련이었을 것이다. 특히 이미 왜란이 일어나던 초기에 서산에서는 향소와 하급관리의 횡포로, 무거운 세금과 부역으로 인한 민폐가 있었다. 향소와 하리들은 묵은 토지를 농사를 짓는 것으로 신고하여 그 세금과 부역을 물렸으므로 향촌민들은 고향을 떠나 유랑하거나 살 곳을 잃게 되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무거운 과세로 인한 민간의 고통이 말이 아니었는데, 『호산록』에서는 당시의 상황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갑오년(1594년) 창고가 모두 비고 개인의 저축까지 다 떨어져서 성문안에서 사람들이 서로를 잡아먹을 정도였으며 시체가 산더미같이 쌓였을 정도로 참혹하였다.

이밖에도 서산의 참혹한 상황을 보여주는 기록들이 호산록의 곳곳에는 서술되어 있다. 특히 왜란 직후인 1596년 서산에 부임한 이유록(李綬祿) 군수때의 여러가지 일화가 소개되고 있는데, 호산록에 의하면 그는 선정을 베푼 목민관으로 그려져 있다. 그의 부임이후에 민간의 고통이 덜어졌을 뿐만 아니라, 향풍이 다시금 자리잡기 시작하였다는 것이다.

이유록 군수는 부임하면서 지금까지 알려진 서산의 폐쇄한 사정에 대해 소문으로 듣고 놀라하면서, 서산에서 가장 큰 폐단이었던 세금문제에 대해 조치를 취하였다. 이미 조정에서는 묵은 토지에 세금을 받지 말라하였는데 유독 서산만이 감세의 혜택을 못받은 까닭이 하급 관리들의 소행이었다는 사실을 알아내고 세금을 걷지 못하도록 하였던 것이다. 이때의 상황이 다음과 같이 표현되어 있다.

통쾌스러이 향소에게 곤장 때려서 죄목을 판결하고 즉시 농촌 백성을 개유하여 묵은 토지에 세금을 면제해 주니 백성들이 모두 기뻐하여 다시 살길을 찾았다며 도로에서 북치며 춤추었던 것이다.

또한, 그가 부임하였을 때 관청의 창고에는 단지 백미 5두와 콩 10두와 된장 3두 만이 저축되어 있을 뿐이었다고 한다. 뿐만아니라 소나 말 조차 한마리도 남지 않았는데, 이 군수는 이를 민간에 부과하지 않고, 민간에서 채출하지도 않았다.

이때, 다른 관청에서는 군마와 초군들의 물품을 공급하는 사람들을 뽑을때, 노(老)·소(少)를 따지지 않으며, 또 병들고 형편이 어려운 사람도 계산하지 않고 무조건 동네에 찾아내었으므로 이들이 도로를 메울지경이었다고 한다. 이렇게 억지로 데려온 민간인들은 이따금씩 중국군대와 도의 차사원에게 책망과 곤욕을 당하기도 하여 비참한 형편이었는데, 이유록 군수는 중국군대를 응접할때 약간의 관청 사람만 인솔하고 접대하며 조석으로 제공하는데 문제가 없으니 중국 장수한테도 특별한 포상과 장려를 받았을 정도였다.

호산록을 통해 알수 있듯이 전쟁으로 인하여 일반 백성들이 겪은 곤욕은 전쟁의 피해 그 자체뿐만은 아니었다. 가까운 지역에 주둔하고 있는 중국군대에게 군량을 제공하는 것도 민간의 부담이었고, 무엇보다도 관리들의 혹정이 가장 큰 민고의 원인이었다. 전쟁이 치열해지자 장기간 진중에 있어서 군사모집과 식량 운반하는 일, 그리고 역말 지급과 형옥을 처리하는 중대한 일 등을 모두 진에 있는 하리에게 위임하였는데 권력을 갖게 된 하리가 농간을 부린 것이 큰 폐단을 만든 것이었다. 이에 호산록에서는 ‘백성들이 원통한 사정을 부르짖는 소리가 안밖으로 시끄러웠다.’라고 말하고 있다.

한편 왜란이후 식량이 크게 부족하게 되어 각처의 관청에서는 군졸, 서리(胥吏), 평민, 관노비들에게 미간지를 개척하여 경작케 하고 여기에서 나오는 수확물을 지방관청의 경비 및 군량으로 쓰도록 하였는데, 이를 경작해야 할 민간인들은 그 고통을 이겨나갈 수가 없었다. 서산에서는 이유록 군수가 부임한 후 민간인들의 부담을 없애고자, 몸소 관리를 인솔하여 갈고 심으며, 김 매고 수확하여 민간에게는 절대 부역시키지 않고 오직 중이나 속세를 떠난 거사(居士)나 유랑하며 갈 곳 없는 자들과, 관리로서 군대에 나가지 않은 자를 소집하여 농군으로 삼았다고 한다. 이로써 민간의 고통이 줄게 되었는데, 한 관리인이 이유록 군수에게 민간을 부역시켜야 한다고 탄원한 일이 있었다. 이에 군수는 크게 노하여 말하기를

“이 시기가 어느 시기인데 저 놈이 그런 말을 할 수 있는가? … 동서의 문 밖에는 시체가 산 같이 쌓여있는 것을 너는 보지 못하였던가. 지나다니는 길거리에 백골이 산더미 같고, 길에 다니는 사람이나 집에 있는 사람들의 우는 소리가 들뜬에 가득히 들려오는 것을 너는 보지 못하였던가. 썩대머리와 귀신 같은 얼굴로 관청 뜰에 들어와 원통히 울부짖는 자를 너는 보지 못하였던가. 비록 한두사람의 생존한 자가 있다 해도 내일이면 어느 곳 어느 지점에서 죽을 것을 알지 못하는데 네가 어찌하여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단 말인가. 너는 본래 관리의 몸으로 농사도 짓지 않고 장사도 하지 않고 오직 백성만 뜯어

먹으며 살고 있으니 참으로 관리는 아무 일도 하는 것 없이 사는 자이므로 그와 같은 난리가 참혹한 때에도 아직까지 민간을 침해하고 민간을 뜯어먹으려는 심사가 있으니 너와 같은 놈은 극도로 악랄하다 하겠다. … ”

이 일화에서는 왜란 직후 서산의 참혹한 지역상이 드러난다. 민간인들은 기근과 무거운 부역을 이기지 못하고 유랑하게 되었고, 그나마 지역에 남아있는 사람들마저도 어렵게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다. 그럼에도 하급관리들은 민간인을 돌볼 생각은 하지않고, 오히려 백성을 탈취하려고만 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은 선정을 베푸는 군수가 부임한 후에야 비로소 시정되어가기 시작했다.

2) 임란이후의 이거성씨들

두차례에 걸친 왜란이 끝나고, 서산지역에도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토착인들이 난을 피해 서산을 떠나기도 하는 한편, 새로운 사람들이 서산에 자리잡았다. 이렇게 이거하는 사람들은 이미 서산과 관련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 이들은 해미 태안 덕산등 인근 지역에 거주하던 사람들이었거나, 서산사족과 혼맥을 이루고 있던 관계였다거나, 이미 선대부터 서산에 농장을 가지고 전부터 서산의 사족과 친분관계를 유지하고 있던 경우였다. 따라서 이때 이주한 사람들은 짧은 시기에 서산의 새로운 세거성씨로 자리잡을 수 있었던 것이다.

호산록에는 왜란이후 서산에 입향한 사람들의 행적이 짧게 기록되어 있어 그 자세한 사정을 알 수 있다. 호산록의 저자 한경춘, 한여현 부자와 친분이 있었던 한효순(韓孝純)의 이거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한효순은 서산사람 강효윤의 딸을 후취부인으로 맞이하였다. 강효윤은 이미 서산에 자리잡고 있던 사족이었으며, 아들 강몽서가 영산현감을 지낼때 왜병에 의해 영산이 함락당하자 고을사람과 패잔병을 이끌고 나아가 적들을 사로잡았던 사람이다. 한효순은 사인으로 있을때 강효윤의 딸과 혼인하면서 서산으로 이주하여 농사를 지으며 읍내에 살다가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덕천마을에 살았다.

전란때 군량을 모으기 위해 호남과 영남을 직접 찾아다니며, 중국군사에게 식량을 대었고, 조정에서 벼슬을 여러번 제수하고자 하니 드디어 입궐함에 살던 집은 폐지되었다. 정유재란때는 부찰사가 되어 중국 장수 이유격의 접대사가 되었는데, 해양 가운데서 큰 풍랑을 만나, 바다에 표류하였다. 이때 서산사람 한여현과 곽설이 함께 바다를 헤메어 시체를 찾기 겸하여 제문을 지어 초혼제를 지내려 할때에 살아서 남포 지방 해안으로 표류하다가 나왔다는 소식을 듣고 제사를 정지하였다고 한다.

· 곽설(郭說)은 정유재란 당시 한효순의 종사관이 되어 출전하였던 사람인데 선대

부터 농장이 서산읍에 있었지만, 다른 지역에 살다가 정유재란이 일어나자 처자를 인솔하고 와서 살았다. 평생에 집이 가난하였다고 하며, 한여현이 시를 지어 주기도 했을만큼 친분이 있었다.

중앙관료로서 임진왜란때 평양까지 왕을 호종하였던 조존세는 효성으로 이름 높은 인물이었는데, 왕을 호종하던 중 어머니가 행방불명되었다. 이에 어머니를 찾고자 호종의 무리에서 빠져나와 홀로 고생끝에 겨우 어머니를 찾고, 서산 문지촌(文智村, 현 지곡면 연화리)에 와 6년간 거주하였다고 한다.

이렇게 국가전란중에 관리가 되어 활약하다가 서산에 머물렀던 경우가 있는가하면, 처자를 인솔하고 서산으로 피난와서 서산 향촌민의 교화에 앞장섰던 인물도 있었다.

이광국(李匡國)은 임진왜란에 처자를 인솔하고 서산에 와서 살았다. 그는 새롭게 정착하는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몸가짐을 바르게 하고, 일을 처리하는데 유학의 도리가 있으므로 한 때에 이름이 알려졌다. 그러자 조정에 있는 그의 친구들이 청백리의 자손은 현달한 자리에 옮겨 주어야 한다하고 조정에 청하여 연산현감을 제수시켰다. 역시 한여현과 교류가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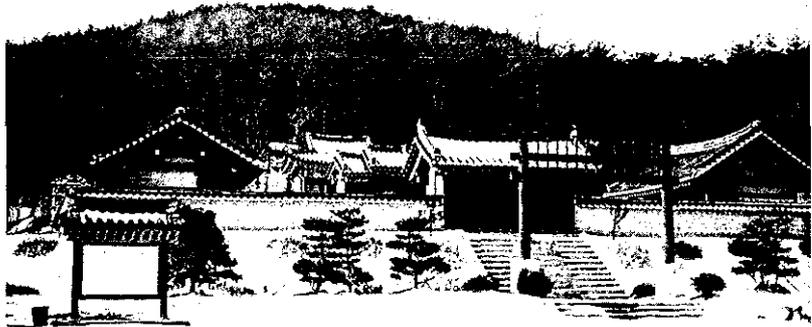
그리고, 임정로(任廷老)는 1541년에 생원, 진사에 모두 합격하여 정사를 훌륭하게 하여 이르는 곳마다 칭송을 들었는데, 전쟁을 치르고 늙어가면서 피난할 계획으로 서산 밤나무골(동문동 밤갯:栗枝)에 와서 셋방살이 하고 살았다. 그런데 그 마을에서 읍내까지의 거리는 지척이기 때문에 그 동네에 사는 민간인들은 하급 관리가 반이고 군대가 반이 되어 마을 풍속이 강폭했다고 한다. 그러나 임정로의 바르고 곧은 행동에 원근 완곡한 자들이 융화되었을 정도였다고 한다. 그의 손자 임승문 역시 효행이 현달하였으며 대체로 기상 또한 할아버지의 풍도가 있었다.

피난하기 위해 서산의 입석촌(은석동)에 와서 거주했던 신괄(申括)은 서산사족들과 더불어 자녀의 혼인을 시키며 고생스럽게 살았다. 마음씨가 너그럽고 평탄하여 사람을 접대할 때에 간격을 베풀지 않았고 관직에 나아가서도 강직한 행실을 보여 사람들이 존경하였다.

이밖에도 임란이후 이거한 성씨 가운데 기존 토착사족들과 연계하여 점차 자신들의 터전을 넓혀간 성씨들로써는 다음과 사례들이 있다.

① 금성정씨 : 지곡면 대요리에 가장 오래 거주한 금성정씨는 정충신 장군의 사패지(賜稗地)로 공(公)이 이곳에 유택을 정한후 350여년간 대요리 한우물(古水洞) 마을에 세거하였다. 대요리에는 정충신의 묘소, 신도비 및 사당이 건립되었다. 정충신은 임진왜란과 이괄의 난, 정묘호란 때에 큰공을 세웠다.

② 평양조씨 : 여지도서에 조아(趙雅)은 평양조씨이다. 사인(舍人)의 관직에 올



〈사진〉지곡면 대요리에 있는 정충신의 사당

랐다고 하며 서산에 적거하여 그 자손이 서산에 세거하게 되었다. 조준윤(趙浚尹)은 조아의 후손으로 선전관에 등과하였고 병자호란때 충청감사의 진(陣)에서 왕을 남한산성까지 호종하였다. 이후 평양조씨 문중의 활동은 자세하지 않다.

③ 담양국씨 : 국씨는 읍지의 성씨조나, 인물조에 전혀 나타나지 않는 성씨다. 따라서 1600년대 중·후반기에 서산에 입향한 성씨라고 볼 수 있다. 담양국씨는 아마도 임진왜란 이후에 서산에 자리잡은 성씨일 것이다. 1695년 정려를 받은 효자 국현남의 명정사적이 전한다. 국현남(鞠賢男)(1589~?)은 일찍이 효성이 지극하여 오로지 부모님 봉양에만 전념을 다 하였다고 한다. 그가 어느날은 포구에 갔다 생선을 보고 맛이 좋을 것 같아 그것을 구입해 가지고 집에 돌아오려고 하였으나 마침 바닷물이 만조로 건널 수가 없어서 매우 초조하게 방황하고 있을 때, 홀연히 바다가 갈라지면서 길이 훤히 트이었다. 그리하여 그 길로 재빨리 돌아와 생선을 부모님께 대접하였다. 이렇게 효성이 지극하였으나 아버지가 연로하여 점점 귀가 어두어져 매우 불편을 느끼자 현남은 그날 그날 생활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을 종이·나무껍질 그리고 목편 등에 글로 쓰고 그려서 아버지께 보여 드리고 또 그것을 상자속에 모아놓고는 하였다.

그러다가 1646년(인조 24)에 조시응(趙時應)의 무고로 억울하게 투옥되었다. 투옥된 그는 감옥에서, 늙은 아버지를 생각하고 3일간이나 통곡하니 감옥의 한 구 통이가 무너졌다 한다. 이런 사실을 들은 임금은 그가 술수를 부리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여 현남의 집에 있는 모든 문서를 가져오라 하였다. 가져온 문서 중 상자속



〈사진〉 부석면 지산리
(서당골)에 있는
국현남 정려

에 있는 것을 보니 귀가 어두운 노부가 보던 문서와 목편이 있는데 그 중에는 집에서 기르던 개가 병사 하였는데, 이를 덮어 매장할 천이 없어서 단별인 자기 흰옷으로 싸서 후원에 묻었다는 사연이 있었다. 이 사연을 현남에게 물으니 노부가 아끼어 기르던 개를 삶아 먹을 수가 없어 후원에 묻었다고 대답하였다. 임금은 이 말을 듣고 그 상자에 “구충신어 효자지문 유여차지행 안유여피지사(求忠臣於 孝子之門 有如此之行 安有如彼之事)”라 친서하고 효자의 명정을 내리고 통정대부를 특사하여 돌려 보냈다고 전해진다. 이처럼 당시 투옥의 사정은 후손들에게는 이단의 학문을 한다는 무고였다고 전해지나, 이에 관한 조선왕조실록의 기사가 자세히 보이고 있다. 『인조실록』 24년 5월 23일조에는 조시응이 서산 유학 국성유(鞠聖兪)와 그의 아들 국진호(鞠震虎)가 홍주와 덕산 등지의 한량 및 서얼 10여 명과 역모를 꾀한다고 고변한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서산(瑞山)사람 조시응(趙時應)이 정원에 나아가 변고를 아뢰기를, “서산에 사는 유학(幼學) 국성유(鞠聖兪)와 그의 아들 국진호(鞠震虎)가 홍주(洪州)와 덕산(德山) 등지의 한량 및 서얼 10여 명과 역모를 함께 모의하여 3월 27일을 거사일로 잡았는데, 그때 경성의 숙위(宿衛)가 매우 삼엄하다는 소식을 들은 까닭에 날짜를 물려서 가을을 기다렸다 다시 거사하려 하고 있습니다.” 하니, 정원이 입계하였다. 상이 대신과 금부 당상 및 양사의 장관들을 명초(命招)하여 대궐 뜰에서 추국하게 하고, 금부 도사를 보내 국성유 등을 체포케 하는 한편, 별도로 중사(中使) 1인을 보내 그 집안의 문서를 수색해 가져오도록 하였다.

이 고변에 따라 조정에서는 금부도사를 파견하여 국성유를 체포하게 하는 한편 별도로 중사(中使)를 보내어 집안의 문서를 수색하게 하고 있다. 이로 미루어 보면 국성유의 역모와 관련되어 국현남(鞠賢男)도 체포되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들이 '역모'라는 엄청난 사건에 억울하게 연루되었던 까닭은 무엇이이었을까? 게다가 이들을 고변한 자가 바로 같은 지역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사건의 경황을 미루어 볼 때, 담양국씨는 한미한 가문이었을 것으로 보이며, 아마도 조씨와는 서로 대립하는 성향을 가졌던것 같다.

그 뒤 국현남은 아버지가 별세하자 좋은 장지를 물색하여 사방을 찾아 다니다가 하루는 피로하여 나무에 의지하고 잠시 잠이 들었는데, 꿈속에서 한 노인이 나타나 좋은 장지를 지시하여 주었다 한다. 그곳이 바로 지금의 서산군 부석면 마룡리 선영이다. 그는 그후 부석에서 많은 제자들을 길러냈고 또 그 때문에 지명도 서당골이라 하였다고 전해진다. 인조 당시에 명정을 받았다고 하나 현재 정려에 걸려진 현판으로 보면 정려의 건립년대는 1695년(숙종 21)이다. 이때 명정을 신청한 고을 유생들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당시 서산에는 1694년 송곡향현사가 건립되는 등 활발한 사족활동이 전개되고 있던 시기였으므로, 그와 관련시켜 정려건립 주체세력을 파악할 수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담양국씨 문중은 1646년의 불미한 사건이 있었음에도 이를 극복하고, 정려건립을 이루어내는 등 이거사족의 위치를 굳혀나갔던 것이다. 현재도 정려가 있는 부석면 지산리 서당골 및 태안군 소원면 모항리에 집성촌을 이루고 거주하고 있다.

④ 남양홍씨 : 남양홍씨는 위의 여러 성씨들보다 약간 늦은 1700년경에 입향하는 성씨이다. 이들 남양홍씨는 여지도서에 처음으로 등장한다. 홍성원(洪性源), 홍지원(洪智源)이 바로 그들이다. 이들에 관한 또 다른 기록은 없지만, 여지도서 인물조의 21명중 가장 마지막에 등장하고 있어, 남양 홍씨가 18세기 초반부터 서산에 자리 잡았을 것이라고 짐작할 수가 있는 것이다.

참고로, 여지도서에서 홍씨를 제외한 19명은 서산정씨 2명, 유씨 6명, 이씨 1명, 조씨 2명, 김씨 3명 한씨 3명, 박씨 1명, 금남정씨 1명으로 금성 정씨를 제외한 나머지 성씨가 모두 1700년 이전에 이미 입향한 성씨임을 알 수 있다.

홍씨와 관련된 기록으로 주목되는 것은 조선왕조실록 1758년(영조 34) 12월 5일조 기사에서 해미현감 이택이 부자에게 뇌물을 받고 죄를 덮어주는 실정에 대해 보고하는 가운데

서산땅에 홍씨 성을 가진 한 사람의 부자가 아뢰기를, "지난날 대신(大臣)이 '외방(外方)에서 사람을 함부로 죽이는 폐단이 많이 있다.' 라고 보고한 바가 있었습디만,

그러나 외방에서 또한 뇌물을 받고 이를 조종하는 폐단도 있습니다. 해미 현감(海美縣監) 이택(李澤)은 술을 금지하는 것을 빙자하여 때를 틈타서 사리(私利)를 추구하는데, 빈민(貧民)이 금법을 범하면, 음형(陰刑)하고 함부로 마구 곤장을 때려서 혹은 목숨이 끊어지는 지경에 이르게 하며, 부민(富民)이 금법을 범하면, 몰래 돈이나 뇌물을 받고 무죄로 석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산(瑞山) 땅에 홍씨(洪氏) 성을 가진 한 사람의 부자가 금법을 범하니, 그가 영장(營將)을 겸임하고 있는 연고를 가지고 고을 경계를 넘어 가서 붙잡아 와서, 몰래 1백여냥의 금화를 받고 대략 형벌하는 척 곤장을 때리고나서 이를 석방하였습니다. 이러한 따위의 사건이 매우 많기 때문에, 관리(官吏)와 장교(將校)의 무리들도 또한 이를 모방하고 본받아 여리(閭里)를 횡행(橫行)하면서 공갈하여 뇌물을 받을 길을 찾으니, 마땅히 명하셔서 이들을 잡아다가 신문하여 엄하게 처분하도록 하소서.” 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르고, 해부(該府)로 하여금 구초(口招)를 받은 뒤에 등대(登對)하여 아뢰게 하였다.

라는 내용이 보인다. 벌써 부자라고 지적되는 것으로 보아 이미 1758년 이전부터 서산에서 크게 세거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 기록을 통하여 당시 서산의 사회상을 알 수 있다. 즉 부유한 사람이 돈만 내면 죄를 짓고도 풀려나고, 또 관리는 돈을 받기 위하여 무고한 사람을 잡아들이기도 하는 폐단의 실상도 엿볼 수가 있다. 홍씨들은 현재 서산과 가까운 당진 석문에 많이 살고 있으며, 여지도서에서 마지막으로 기록된 홍성원은 남양홍씨로, 군수였던 홍운해(洪雲海)의 아들이고 율곡문하에서 수업받아 사마가 되었다. 홍지원은 성원의 동생이고 형과 더불어 같은 선생 밑에서 공부하여 사마가 되었다. 남양홍씨와 관련되는 유적으로는 홍종학의 처 창원황씨의 정려가 음암면 신장리에 세워져 있다.

3) 서산사족의 성장과 활동

왜란을 전후한 조선전기 향촌교화를 담당한 세력들은 토착적 성격의 사족집단이었다. 이들은 앞 절에서 밝힌 바와 같이 국간전란시 혼란에 빠진 지역민들을 교화함으로써 난후의 민심을 수습하고 성리학적 질서체제를 수습하고자 하였다.

1614년 부임한 김대덕 군수는 서산의 사족들과 교류를 가지면서 서산이 자랑하는 정신보, 정인경, 유숙, 최치원, 고경명 등 유학자 5인의 제영을 현판으로 만들어 군청의 누각에 걸어두었다고 한다. 이때까지 서산 사족들은 ‘이 다섯분이 모두 문장, 도덕, 절의, 충효가 훌륭하여 100세에 스승이 될만 하다’고 생각해 왔으나, 향촌의 풍속이 너무 무지하여 지금껏 한 곳의 사당을 건립하지 못했다고 한다. 그런 중에 김군수가 존송하는 뜻으로 제영을 지어 군청 누각에 걸었으므로, 사족들은 매

우 기뻐하며 김대덕 군수에게 감사했던 것이다. 이러한 행적은 전란후 사족활동의 일환으로 볼 수가 있다. 양란이후의 사족활동은 크게 다음 두가지 유형으로 구분해 볼 수가 있다.

(1) 유생들의 교육 담당

한윤련(韓允璉)은 한서정의 아들로, 이미 20세에 향음의 추천을 받고 30세에는 개녕현감이 되고 40세에는 밀양부사가 되었는데 청렴결백하고 예의를 좋아하여 유생을 교육시키고 군정에는 농상을 우선적으로 권장하였으므로, 그가 부임했던 고을 민들이 선정비를 세웠다고 한다. 청주한씨로서, 그의 아들과 손자 이름까지 호산록에 올라있다. 고경명 군수와 한번의 만남 이후로 도의의 교류를 나누었던 유민수(柳敏遂)는 서산의 자제 30여명을 뽑아 다른 이들과 서로 번갈아 가르쳤다고 한다. 과거에도 떨어지고 가난하게 살았던 한경시(韓慶時)역시 시골 자제들을 교육시키는데 애썼다고 전하며, 한여현은 그를 칭송하는 시를 지어주기도 하였다. 이광국(李匡國)은 임진왜란때 처자를 인솔하고 서산에 입향한 사람이다. 그는 행실이 유럽의 도리가 있었으므로 한 때에 이름이 알려졌으며, 역시 한여현이 시를 지어주었다.

호산록에는 고을의 향임 자격으로 사족들의 존경을 받으며, 풍속교화에 힘쓴 적극적인 인물들의 행적도 자세하게 나타나 있다. 이것은 조선 초기 서산 지역의 사회상의 일면을 보여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2) 향촌민 교화활동

향임은 조선시기 악폐를 막고 수령을 보좌하면서 유향소를 담당한 사람이었다. 원래 향임은 한 지방의 고문으로서 그의 지식과 영향력을 지방행정에 이용하기 위해 설치한 것이었는데, 점차 발전하여 수령과 대립되어 중앙정권에 역행하는 경향을 띠게 된 존재였다. 서산에서는 향임을 맞아 향촌교화에 힘쓴 사람들의 일화가 전해져 온다. 이들은 대체로 서산의 토착성씨로 알려진 성씨이거나, 혹은 벼슬자리에 올라 관직을 두루 거치고 노년을 고향에 돌아와 보낸 사람들이다.

호산록에서 이들의 기록을 살펴보면 유형손(柳亨孫)은 기질과 용모가 수려하여, 향당사이에 어려운 일이 있으면 고을사람들이 찾아와 유공의 질정을 얻은 후에 불려갔다. 향당에 회합하는 날에는 혹여 거만하고 순종하지 않는 자가 있으면 불려다 크게 꾸중을 하고 사죄하지 않는자는 종아리를 때려 고을에서 쫓아내고, 그 부친과 형까지 마을에서 내쫓아 경계하였다고 한다. 체벌을 하고 마을에서 추방까지 시킬 수 있었다는 것은 향촌사회에 미친 그의 영향력은 매우 컸던 사실을 반영하는 것이다.

강흠(姜洽)은 향장(鄕長)으로서 풍속교화와 교육을 급선무로 삼고 고을 풍속을 바로고 기강있게 확립하였다. 황유성(黃有誠)도 신장과 기상이 웅장하였다. 오랫동안 향임을 맡으면서 무슨 일이든지 민간에게 필요한 것이 있으면, 성주에게 간청했는데, 이러한 요청을 성주가 좋아하지 않고 들어주지도 않았지만, 자신의 해로움을 생각하지 않고 힘써 투쟁하여 단행하는 사람이었다. 그의 행적중에 한가지 일화가 전해지는데, 서원 송인보(書員 宋仁甫)라는 자가 농간을 부린것을 알고 즉시 죄목을 성주에게 말하여 그를 복변지방으로 옮기게 하였다고 한다. 이 사건도 역시 향임의 위상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유흠(柳洽)은 유백순의 7대손이며, 강진현감 유억수의 아들로, 1594년 전주에서 과거에 급제하여 안홍영의 만호가 되었다. 그는 효성으로도 이름이 알려졌는데, 아버지가 중풍으로 반신불구가 되자 손가락을 잘라 피를 떨구어 부친의 병환이 즉시 쾌차되는 등 돌아가실 때까지 정성으로 부친을 섬기고 돌아가신 후에도 예를 다했다. 늙은 어머니를 봉양함에도 성심성의를 다하였다. 부친이 전에 강진현감이 되어 죄를 얻어 감옥에 갇혀있을때 스스로 죄인이라 자처하며 생활하였다. 후에 재상 한효순이 유흠을 신임하여 불러다 써주었는데 정유재란때 본군으로 쫓겨와 생활하고 있다가 전란중에 안홍량으로 달려가 군사를 규합할 계획이 있었으나 따르는 사람이 없었다. 후에 변방을 지키는 장수로 뽑혀나갈뻔 하였지만, 늙은 어머니를 모시고 있어 떠나지 못하고, 대신 고을 사람 유중립이 선출되었을때 유흠은 유중립도 노모가 있으니 자기가 가겠다고 하면서 떠났다. 후에 향임이 되었을때는 관청물자에 관계되는 것은 하나도 취하지 않았다.

한편, 임정로(任廷老)는 향임으로 선출되지는 않았으나, 전란중에 서산의 밤나무골(현재 동문동 밤깎)에 피난 와 살았다고 한다. 원래부터 천성과 행동이 바르고, 곧았으므로 관직에 있을때도 백성들로부터 칭송을 받았고, 서산에 살면서도 그러했다. 그가 살던 동네는 풍속이 강폭했으나, 임정로의 행동에 원근 완곡한 자들이 융화되었다고 한다.

이렇게 서산 사족들은 왜란이후 흐트러진 민심을 수습하고, 일련의 향촌활동을 통하여 사족지배체제를 확립시켜 나갔다.

16세기 이래 사족들은 향촌지배에 어느 정도 자율권을 행사하게 되었는데, 양란을 전후하여 사회경제적 변화와 함께 조선전기의 토착적인 성격이 강했던 사족들 중 많은 부류가 양란의 과정에서 기반을 상실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복구의 과정에서 기득권을 지키려는 이들 성씨들간의 이해 대립으로 인한 갈등이 표출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이같은 사족중심의 향촌지배체제가 이완되고 상대적인 향촌세력의 대두로 사족들의 지위가 도전을 받게되자 사족들은 이전과 다른 형태로 자신들의 지위와 기득권을 유지하려 하였다. 이제 사족들은 혈연적인 조직체를 만들어 문중의 결속력을 확보하기도 하고, 혹은 지연과 혈연(동족)적인 촌락을 중심으로 자기

방어를 모색하게 된다.

한편 서산 사족들은 지리적으로 가까운 덕산현과 친분을 갖고 있었다. 고려시기 활동한 정신보가 고창현(덕산)의 오영노의 딸과 혼인하였다는 사실로 미루어 려말 선초때 서산의 중요한 인물중 한사람이 이미 덕산의 유력성씨와 혼인관계를 가질 정도로 가까웠음을 알 수 있고, 조선초기에는 1549년~1608년대에 활동한 덕산의 이흠이 서산의 진사 이사의(李士毅)의 딸과의 혼인하였던 사실이 주목된다. 이흠은 덕산의 유일한 서원인 회암서원에 배향된 인물이다. 회암서원은 1709년(숙종 35) 김진규의 발의로 주자를 배향하는 서원으로 건립되었다가 이후 이담, 조극선, 이흠, 안민학을 배향한 미사액 서원이다. 여기에서 이흠이 추향되었던 때는 1800년(정조 27)으로 이 시기 서산의 사족활동을 보면, 1796년(정조 20)에 송곡사에 김적이 추배되고 있었다. 여기에서 주목되는 점은 김적의 추배과정에서 덕산 유생들이 같은해 12월 김적을 송곡사에 제향하도록 서산유생들에게 통문을 보냈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김적이 추배된지 4년만에 이흠이 회암서원에 추향된 것이다. 회암서원에 이흠이 추향되도록 노력한 세력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위의 사실은 덕산과 서산 사족간의 관계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3) 서원 사우 건립과 활동

향촌사회에서 문중조직이 활성화되자 족계의 조직이나 족보의 편찬, 동족마을의 형성·발달, 문중서원·사우의 건립과 같은 다양한 문중활동들이 전개되는 배경이 되었다. 이러한 문중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기초적인 기반을 이룬것은 지연과 혈연으로 얽혀진 동족마을이었다. 조선후기의 문중활동은 결국 족적인 기반인 동족마을과 향촌사회조직인 서원·사우를 구심점으로 하면서 여러 형태의 문중활동들을 병렬적, 혹은 순차적으로 이루어냈다. 예컨대 족계의 창립, 종가와 사당건립, 서당과 학계의 마련, 누정(樓亭)과 재실(齋室)의 건립, 서원·사우건립과 운영, 족보와 선조문집의 발간, 정려포장과 추증 등이 바로 그러한 것이다.

서산지역에는 조선시기에 총 5개소의 서원·사우가 건립되었다.

- 성암서원 1719년 건립, 1721년 사액 유숙, 김홍욱 제향
- 송 곡 사 1694년 건립, 유방택·정신보, 정인경, 유백유, 김적(1796년 추향)
- 진 충 사 1897년 건립, 정충신 제향
- 부 성 사 1907년 건립, 최치원 제향
- 송 덕 사 1422년 사당, 건립 회안대군 이방간 제향

이 가운데 국가로부터 사액을 받은 것은 고려후기 공민왕대의 문신 사암 유숙(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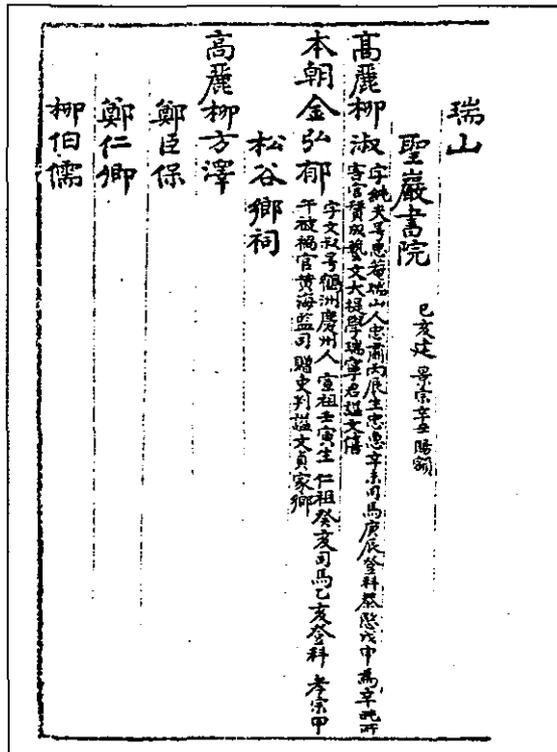
菴(柳淑)과 조선 중기 인조~효종대의 문신인 학주 김홍욱(鶴洲 金弘郁)을 배향한 성암서원 1개소 뿐이고, 나머지는 17세기 말에 건립된 송곡사를 제외하고 전부 후손이나 문인들에 의하여 건립된 문중사우이다.

서산지역의 유일한 사액서원 이었던 성암서원과, 서산에서는 가장 먼저 건립된 송곡사는 러말 선초부터 서산의 대표적인 성씨로 손꼽히는 서령유씨, 서산정씨 및 경주김씨와 관련된 서원·사우로서 주목되고 있다. 송곡사와 성암서원은 서산지역의 대표적인 서원으로 사족활동의 중심처로 기능하였다.

서산시 인지면 애정리에 위치한 송곡사는 건립연대와 관련하여, 『서원가고(書院可攷)』 『문헌비고(文獻備考)』 『열읍원우사적(列邑院宇事蹟)』 등 각종 문헌의 기록에서 차이가 발견되고 있으나, 비교검토 결과 1694년(숙종 20)으로 추정할 수 있다. 송곡사에 배향된 인물인 유방택과 정신보는 모두 서산을 본관으로 하고 있는 성씨로서 고려말부터 이어온 토착세력이었다. 창건 초기에는 두 인물을 제향하다가, 정확한 시기는 알 수 없으나, 어느때인가 정인경, 유백유가 추향되었으며, 그후 김적이 추배되는 과정은 성암서원의 창건 및 당시의 사족 분위기와 연관시켜 살펴볼 부분이다.

즉 송곡사가 건립된 후 25년만인 1719년(숙종 45)에 성암서원이 건립되는데 이 서원이 서산관아가 있던 중심지에 건립되고, 창건후 3년만에 국가로부터 사액을 받는 등 서산의 대표적인 서원으로 자리잡게 되는 과정에는 향촌운영의 주도력을 과연 누가 장악하고 있느냐와 관련되었던 것이다.

성암서원에 제향된 인물은 유숙과 김홍욱이었다. 이미 서령유씨를 배향한 사우가 존재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새로운 서원의 건립이 이루어진 것에는 여러가지 배경이 있었을 것이다. 이 의문점은 성암서원에 배향된 또다른 인물인 김홍욱의 배향문제와, 서원건립에 서산정씨가 전혀 참여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사진〉 『조두록(俎豆錄)에 기록된 성암서원과 송곡향현사



〈사진〉 부성사 전경



〈사진〉 오현각

통해서 추측해 볼 수가 있다. 또한 유숙의 자손들은 일부만 서산에 거주하고 대부분은 일찌기 출향하여 주로 경상도 지역에서 많이 거주하였으며, 서산지역에서 번

성한 것은 오히려 그의 사촌인 유방택(柳方澤)-유백유(柳伯濡), 유백순(柳伯淳)-유사종(柳嗣宗)의 가계였다는 사실도 송곡사와 다른 성격을 갖는 서령유씨의 존재에 대한 추측을 가능하게 한다. 송곡사가 서산지역에서 처음으로 건립되었으나, 뒤이어 성암서원이 건립되고 사액까지 받는 등 성암서원의 영향력이 막강해지면서 상대적으로 그 기능과 영향력이 잠시 위축되었던 것은 아니었나 생각된다. 바로 그러한 상황에서 송곡사 운영주체들은 본래 서산토성(유, 정씨)만의 제향을 고집하지 않고 경주김씨 단구자 김적(丹丘子 金積)의 추배를 수용하게 되는 것이 아니었나 보여진다.

한편 충·효·열 삼강을 기리는 정려의 건립활동도 단순히 도덕과 윤리적인 차원에서 이해되어서는 곤란한 유적이다. 그에 걸맞게 여러 형태의 사회사적 의미를 이들 유적은 함께 지니고 있는 것이다. 하나의 정려가 건립되기 위하여는 이를 뒷받침할만한 사족세력의 지원이 있어야 하였다.

앞에서 조선전기에 국가로 부터 포장을 받은 사례들을 소개(조선왕조실록 기사)하였지만, 오히려 시대가 올라가고 국가적 포장의 기록이 현저한 그 경우도 현재는 아무런 유적이 보이지 않는 것은 바로 후대까지 그 성씨와 관련된 세력들의 지위가 온존하지 못하였던 까닭이다. 조선후기 실록기사 중에서도

1710년(숙종 36) 10월 20일 : 해미현(海美縣)의 사노비(私奴婢) 신향(信香)의 집에서 밤에 불이 나서 집이 죄다 탔는데, 그 아들 오남(五男)이 놀라 일어나서 밖으로 뛰어 나왔다가, 그 어머니가 미처 나오지 못한 것을 알고는 불길을 무릅쓰고 돌입(突入)하여, 그 어머니와 불속에서 함께 죽었다. 임금(上)이 이를 듣고는 정려(旌闈)하도록 명하였다.

1807년(순조 7) 11월 11일 : 예조에서 열녀인 해미(海美)의 고 사인 김승주(金昇柱)의 처 정씨(鄭氏)를 포장하였다

는 기사가 보이고 있지만, 이들의 경우도 관련 유적은 남아 있지 않다. 이런 점을 염두에 둔다면 도덕적인 충·효·열 삼강의 행적 만이 위주는 아니었음을 알 수가 있다. 이는 바로 후손세력의 지역기반 유무와 관련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1910년 이전에 명정(건립)되어진 서산의 정려(각)로 현전하는 것은 총 14개소이고, 이 가운데는 명정을 받아 정려각까지도 건립되었다가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건축물은 없어지고, 명정현판만 남은 경우도 2개소(임영주 정려, 창원황씨 정려)가 있다. 현판조차 남아 있지 않고 문서만 보존하는 경우도 1개소(채홍우 정려)이다. 그리고, 타지역에서 명정받은 후 그 후손이 서산지역으로 이주해 오면서, 정려를 옮겨온 경우도 3개소(김가근 정려, 창원황씨 정려, 유시채 정려)가 있었다.

정려와 관련되는 인물은 총 14개의 유적에 총 18명으로서 이중 충신 3명, 효자 12명, 열녀 3명으로, 효자 정려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들 유적들이 국가로부터 명정(건립)되어지는 연대를 시기별로 분석하여 보면 다음의 표와 같다.

〈표〉 서산지역의 정려와 건립 연대

1600~1700	1701~1750	1751~1800	1801~1850
*1585 기응세정려 *1695 국현남 명정	*1713 박명로의 처 동래정씨 *1737 최효민 정려 *1741 김홍익 정려	*1751 김유경 정려 *1757 최몽량 정려 *1774 김가근 정려	*1808 김각현 *1824 안만홍 *1819 기응세정려중건 *1831 최효민의 아들 최만징 정려 *1892 임영주 *1893 최제후 *철종대 채홍수

여기에서 연대미상인 1건을 제외하면 총 14개소중 16세기 1개소, 17세기 1개소, 18세기 6개소, 19세기 7개소로 나타나 서산지방의 정려(각)는 대부분이 18~19세기에 건립되어 졌음을 알 수 있었다. 성씨별로는 경주김씨의 정려가 3개로 가장 많이 건립되었으나, 그 외에는 성씨를 따로 구분 할만큼의 유적이 없다. 그러나, 1800년 이전까지의 정려는 서산의 대표적인 토착성씨들로 집약되어 있고 1800년 이후 최씨, 임씨, 채씨등 새로운 성씨들이 보이고 있어, 후기에 새롭게 성장하는 세력들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되고 있다.

4) 조선 후기의 서산지역 사회상

(1) 사족들의 향촌 운영권

그러나 이같은 사족들에 의한 향권의 확보라는 측면에서 17세기 중반까지는 사족의 향촌지배는 일단 자율성과 영향력을 크게 지녔다고 할 수 있다. 그런 중에 적지 않게 지방세력과 수령과의 마찰도 일어나고 있었다. 예를들면 『조선왕조실록』 중에

1638년(인조 16) 9월 15일 : 사헌부가 아뢰기를, “충청 병사 유정익(柳廷益)이 화약을 굶는다고 핑계하고 증들을 소집하여 해미 향교(海美 鄕校) 뒷산의 나무를 베어, 도

끼와 징 소리가 향교를 소란스럽게 하자 선비들이 모여서 통곡한다고 합니다. 그 실정을 보고 듣는 사람들 모두가 몹시 놀라지 않는 자가 없습니다. 사판에서 삭제하고 영원히 사용하지 마소서.” 하니 답하기를, “이 말은 실정 밖의 말인 듯하니 다시 상세히 살펴 논하라.” 하였다. 여러 차례 아뢰었으나 따르지 않았다.

라는 기사라든가

1682년(숙종 8) 6월 10일 : 이보다 앞서 사헌부에서 해미 현감(海美 縣監) 황진문(黃震文)이 향교 가까운 땅에서 큰 나무를 베었다 하여 그 관직을 파면하도록 하였었다. 이때에 이르러 전(前) 공홍 감사(公洪 監司) 윤경교(尹敬教)가 상소하여 억울함을 풀어 주도록 논하기를, “황진문이 유생들과 상의하지 않고 마음대로 묘정의 가까운 땅에서 나무를 베어 버렸으니, 진실로 경술하였던 과실은 있으나, 유생의 무리가 예방의 관리를 불러 책망한 것은 수령에 대한 백성의 분수를 돌아보지 않았던 것이니, 이는 실로 전에 없던 해괴한 행동입니다. 신이 먼저 앞장선 두서너 사람을 조사해 내어서 대충 태장을 때렸더니, 유생의 무리가 반드시 힘써 이기려고 몰래 인근 고을에 사주하여서 성균관에 통문을 보내어 대간의 귀에까지 흘러들어가게 하였으므로, 마침내 파직을 논하는 지경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본 고을의 풍습이 진실로 매우 한심스럽습니다.” 하니, 임금의 상소를 보고 즉시 황진문의 죄에 대한 형벌을 도로 거두도록 명하였다.

라는 것을 미루어 보면 서산지역의 사족들은 매우 당당한 입장에서 향촌 운영을 주도하고 있었던 것 같다. 조정 논의에서는 ‘고을의 풍습이 매우 한심스럽다’고 하였으나, 사족들이 수령의 휘하에 있는 예방의 아전을 잡아다 나무란다거나, 유생들이 그일로 벌을 받게 되자 성균관에 통문을 보낼 정도였다면 사족들의 향촌 운영권은 이 시기까지 유지되고 있었다고 보여진다.

그러나 18세기의 조선사회에서 그같은 구조는 변질되고 있었다. 즉 사족들의 물적 토대가 취약해지고 새로운 계층이 경제력을 바탕으로 성장하여 사족들과 경쟁적 위치에 서게 되자 중앙정부 및 그 대행자로서의 수령은 이른바 신향(新鄕)세력을 끌어들이며 궁극적으로는 사족지배권을 약화시키면서 관주도적 통제를 강화하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기존의 사족들에 의한 향회의 권위는 사라지고 심한 경우는 수령의 부세자문기구로 전락하는 현상까지 생겨났다.

주지하듯이 임진왜란으로 인한 사회경제적인 피해는 전국적인 농촌, 농민층의 피해를 가져왔고, 그와 동시에 자신들의 물적인 기반이 변모되면서 기존의 특권과 경제력을 심각하게 상실한 중앙의 지배세력들은 이를 만회하고 기존의 특권을 확보하고자 치열한 내부분열을 전개하였다. 산업 제분야에서도 급속한 변모가 이루어져, 이양법의 보급과 작부(作付)체계의 발전에 따른 생산력의 발전은 상업적 농업

의 발달도 촉진시켰다. 농업생산물이 증대에 따른 잉여산물들은 상품으로 점차 전화되었고 이 과정에서 농민층내부에서도 서서히 계층분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변화의 조짐은 상공업이나 수공업, 광업의 분야에서도 과거 국가가 독점적으로 그 이득을 확보하던 체계는 점차 이완되어 가고 있었다. 그리고 이같은 상품경제의 발달과 유통구조의 확대과정은 시장의 발달과 함께 새로운 형태의 자본을 형성시켰으며, 이들 자본의 축적은 전통적인 사회경제구조의 동요를 초래하였다. 한편 이 과정에서 수령권과의 타협·비호속에 사회적 지위를 부각시킨 여러 새로운 계층들은 향촌사회의 지배질서를 와해시켜가면서 재지사족들의 향권에 도전해오고 있었고, 기층민은 기층민대로 “두레”와 같은 노동조직이나 조선전기 이래의 향도조직의 전통을 이은 촌계류(村契類) 조직을 중심으로 자체 결속력을 확보하여가는 추세였다.

그런가하면 이른바 당쟁, 혹은 벌열정치로 불리우는 정치집단간의 갈등이 확대되면서 그 영향이 지방사회로 확산된 시기도 바로 이 17세기 중반이후였다. 그리하여 특정가문이나 학맥·당파를 기반으로 하는 벌열들의 파행적 정권다툼은 18세기의 정치적 난맥상을 특징지우고 있었다.

그런데 이같은 중앙정계의 재편과 새로운 지배질서의 마련과정은 이들의 지방기반과 일정하게 연결되어야 했고, 이 과정에서 향촌지배질서나 향촌조직의 재편도 부수되었다. 이 시기에 향촌사회 지배구조에서 가장 먼저 주목되는 변수로는 역시 기득권을 가졌던 재지사족들을 상징할 수 있다.

그런데 이들 토착적인 성격이 강했던 사족들중 많은 세력들이 양란의 과정에서 기반을 상실하였을 뿐만아니라, 그 복구의 과정에서 기득권을 지키려는 이들 성씨들간의 이해 대립으로 인한 갈등이 표출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여기에 더하여 양란이후의 사회변화과정에서 새롭게 성장하여온 신흥 향촌세력의 대두로 사족들의 지위가 도전을 받게 되자 사족들은 이전과는 다른 형태로 자신들의 지위와 기득권을 유지하려 하였다. 이제 사족들은 과거의 향안(鄉案)·향규(鄉規)·향약(鄉約) 등과 같은 일향(一鄉)의 지배보다는 혈연적인 족계(族契)를 만들어 문중의 결속력을 확보하기도 하고, 혹은 지연과 혈연(동족)적인 촌락을 중심으로 자기방어를 모색하게 된다. 이 시기에 하층민과의 유대가 강조되는 상하합계(上下合契) 형태의 동계(洞契-洞約)가 일반화하면서 발전되는 것이나, 각 문중별로 족적인 기반과 유대, 조직의 강화, 이를 토대로하는 동족촌락의 형성 발달, 또 그것을 기반으로 문중권위의 상징물로 건립된 서원·사우는 이같은 사회변화에 대한 일련의 대응양식이기도 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서산지역의 향촌사회구조도 여러 측면에서 변화의 양상을 보여주고 있었다. 그 중에서 특히 촌락과 친족조직은 이 시기에 괄목할 만한 변화를 보여주고 있었다. 학계에서는 대체로 17세기 중엽을 분기점으로 하여 부계친족 중심

의 문중결속력이 강화되고 이를 통해 새로운 가족 및 친족과 결합된 모습이 정착되어 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그 변화의 요인에 대해서는 해명이 불분명한 상태이다.

(2) 서산의 동족마을

조선후기, 특히 17세기 중엽 이후를 분기점으로 조선전기와는 다른 친족의식이 일반화됨에 따라 그러한 기초 단위조직들이 모여 이루어지는 향촌사회의 조직과 구조도 변화되기에 이른다. 즉 향촌사회에서 문중조직이 활성화되자 족계의 조직이나 족보의 편찬, 동족마을의 형성발달, 문중서원·사우의 건립과 같은 다양한 문중활동들이 전개되는 배경이 되었다. 이러한 문중활동의 기본적 모체는 역시 인적인 조직으로서 족계(族契:花樹契·門中契)의 마련과 동족 마을의 형성일 것이다. 족계는 선영의 수호와 봉제사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직되어 문중결속력의 강화나 문중재산의 형성 등 경제적인 기반을 마련하는 구심체였고,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기초적 기반의 바로 지연과 혈연으로 얽혀진 동족마을이었다. 조선후기의 문중활동은 결국 족계의 기반인 족계 및 동족마을과 향촌사회조직인 서원·사우를 구심점으로 하면서 여러 형태의 문중활동들을 병렬적, 혹은 순차적으로 이루어 냈다.

조선후기의 일반적인 문중활동 양상을 몇개의 커다란 유형으로 나누어 보면 대체로 족계창립, 종가와 사당건립, 서당(정사)과 학계마련, 누정과 재실건립, 서원·사우건립과 운영, 족보와 선조문집의 발간, 정려포장과 추증 등이 있다.

동족마을의 형성은 문중활동이 보편화되는 시기와 연관시켜 이해할 수 있으며,



〈사진〉 김홍욱의 신도비



〈사진〉 송덕사 전경

위에서 언급한 다양한 문중활동의 기초단위이자 중심처로 기능하였다. 따라서, 동족마을과 마을내에서의 정려 또는 서원·사우 및 신도비류의 유적과 관련시켜 각 면별 대표적인 동족마을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참고로 서산지역 곳곳에 서령유씨, 전주이씨, 경주김씨, 청주한씨 등의 동족마을이 특히 많이 조사되었다. 그리고 문헌에 나타나는 토성과 비교해 보면 현재 송씨, 두씨, 전씨 등의 마을이 구성되어 있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 고려때 명관으로는 고려 김주정(金周鼎)이, 인물로는 정인경(鄭仁卿), 유숙(柳淑), 유실(柳實)이 서산지역의 출신인물들로 기록되고 있다. 또한 조선의 인물로 유방선(柳方善), 유윤겸(柳允謙)이 기록되어 있다. 이러한 점을 미루어 짐작할 때 서산지역에서 고려이래로 토착적인 지배력을 가졌던 성씨로는 서산정씨와 서령유씨가 중심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서산지역의 대표적 동족마을들은 알려진대로 간략히 정리하여 보면 대개 다음과 같다.

① 대산읍

- 광암김씨(경주 김씨)-대산읍 대로리
- 곰섬김씨(웅도)-대산읍 기은리
- 갈마리김씨(갈마)-대산읍 운산리
- 개화동김씨-대산읍 화곡리
- 탑골김씨(탑동)-대산읍 영탑리
- 금마재장씨(금현)-대산읍 기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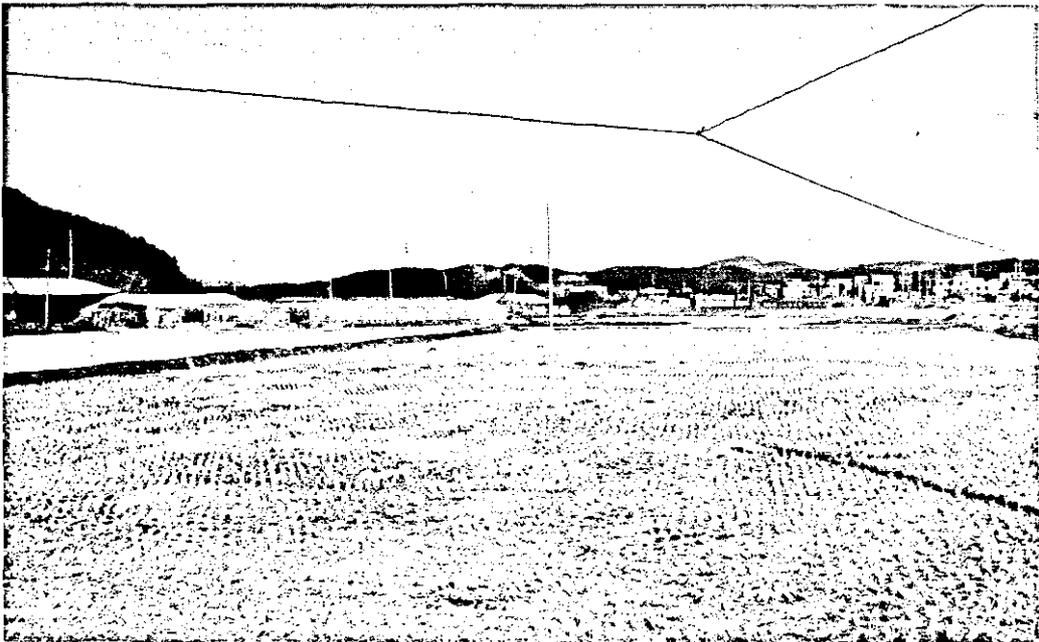
운산리한씨-대산읍 운산리

◆ 서산 지역의 가장 북쪽 지역인 대산읍은 학주 김홍욱의 입향 이래 경주 김씨가 수백년간 자리잡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김홍욱의 신도비 외에도 김학방의 효자문이 1828년 건립되는 등, 입향이후 계속 세거하고 있다.

② 부석면

강당이씨(전주 이씨)-부석면 강당리 회안대군과
갈밭류씨(서령 유씨)-부석면 가사리 유방택(柳方澤)의 후손
지산조씨-부석면 지산리 조익등(趙益登)의 후손

◆ 전주 이씨와 서령유씨가 오랫동안 세거한 마을이 있다. 전주이씨는 회안대군 이방간이 입향한 이래 500여년간 계속 부석면에 거주하면서, 송덕사를 건립하는 등, 조선후기까지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었다. 그리고 서령유씨는 유방택 이후 500여년간 세거하고 있었다고 하는데, 서령유씨의 경우는 부석면을 따로 보기 보다는 서산 전체를 조망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조씨가 1600년대에 이거하였다. 동쪽마을이 구성되어 있으나 유적이 전하지는 않는다. 1695년에 명정받은 국현남의 정려가 있다.



〈사진〉 평리의 한씨마을 전경

③ 성연면

고남김씨(광산 김씨)-성연면 고남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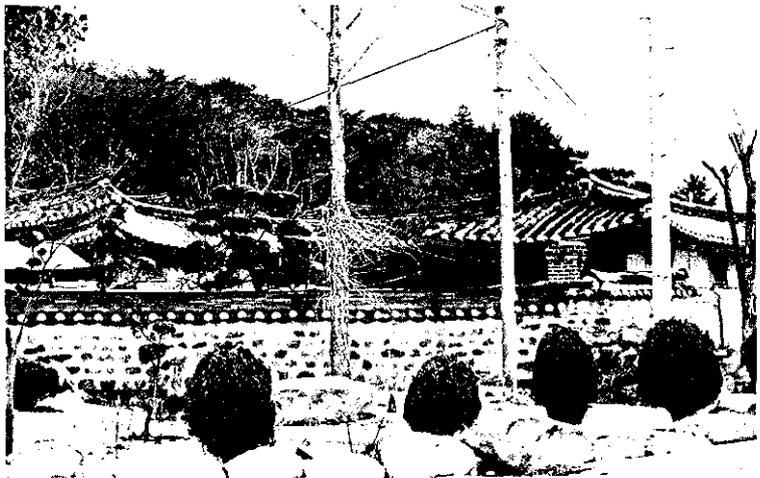
오사리이씨-성연면 오사리 노저 이양원(鷺渚 李陽元)후손

새방한씨(청주 한씨)-성연면 평리 월탄 한효순(月灘 韓孝純)의 후손

예덕리민씨-성연면 예덕리 지애 민형남(芝厓 閔馨男)후손

일람리박씨-성연면 일람리 순계 박울(遁溪 朴栗) 후손

◆ 성연면에는 광산김씨, 이씨, 청주한씨, 민씨, 박씨의 동족마을이 있다. 이 중에서 가장 오래된 마을은 일람리의 박씨 마을이다. 박씨들은 1500년대 순계 박울(遁溪 朴栗)이 입향한 이래 지금까지 세거하고 있으나 특별한 유적은 없다. 노저 이양원(鷺渚 李陽元), 월탄 한효순(月灘 韓孝純), 지애 민형남(芝厓 閔馨男) 등 사족적 성향의 인물 입향으로 이루어진 동족마을들이다. 평리의 새방 한씨 마을은 한효순이 자리잡은 후 330여년간 이어온 동족마을로서, 한효순은 호산록에 그 행적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인물이다. 그는 사인으로 있을때 서산에 오래전부터 자리잡고 있던 강씨 집안의 강효윤의 딸을 부인으로 얻으면서 이사와 거주하기 시작하였고, 임진왜란을 당하자 해미현 남면 덕천마을에 살았다고 한다. 월탄공(月灘公)유사(遺事)에 의하면 평소 청빈하여 집이 없어 이곳 저곳에 우거하던 성품으로 48세 되는 해인 1590년 6월 파면되었다. 구전에 의하면 같은해 8월 해미면 양림리에 선대에 하사받은 농사(農舍)를 14칸 짓고 몸을 감추어 오래 살 계획을 세웠으나 12월에 영해부사(寧海府使)로 제수되어 상경하여 국사에 종사하다가 1597년 임진왜란 중 명나라 장수를 만나러 안흥진에 갈 때 해미면 양림리에 들렀고, 퇴직한 후에 양림리에서 산수를 즐겼으나, 1612년의 역모로 다시 상경하여 타계하였다. 한효순



〈사진〉 김기현 가옥 전경

이 양림리에 내려와 있을때 그의 아들 중 여섯째 아들인 한국겸(韓克謙)이 양림리에 정착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씨는 오사리에서 노저 이양원(鷲渚 李陽元)이래 360년간 거주했다고 하며, 예덕리 민씨는 지애 민형남(芝厓 閔馨男) 이래 330년간 동족마을을 구성하고 살아왔다.

④ 음암면

구들박씨(구도동)-음암면 도당리

부다리유씨(해미현 지역)- 음암면 부장리

구리바위이씨(전주 이씨)- 음암면 신장리 변성군 이계연의 후손

마항정씨-음암면 상흥리

부산리윤씨-음암면 부산리 윤원구(尹瑗求)의 후손

한다리김씨(경주 김씨) - 음암면 유계리 정순왕후 탄생지, 학주 김홍욱의 후손

◆ 음암면은 유계리는 과거 경주 김씨 문중의 세거모습을 알려주는 유적이 남아 있는데, 김홍익(金弘翼) 충신문, 김유경(金有慶) 효자문, 김기현(金基鉉) 가옥, 김한구의 딸딸 정순왕후(貞純王后)생가 등이 바로 그것이다. 경주김씨가 언제 이곳에 정착 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족보와 김홍욱의 문집을 근거로 살펴보면 고려 때 김인관을 시조로 14세인 김양수때부터 서산과 관련을 가진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전주이씨의 경우는 1300년대에 입향한 것으로 전해지나 정확하지는 않고 신장리 구리바위에 동족마을이 구성되어 있으며, 이곳에 변성군 이계연과 완춘군 이수량(李遂良)(1673~1735)의 묘소가 있다. 변성군 이계연의 후손중에 현달한 후손이 계속 이어졌으므로 이들을 일러 구리바위 이씨라고 하였다. 도당리 구들 마을의 박씨는 1500년대 말엽 입향한 것으로 보이며, 각종 문헌의 성씨조에 올라있는 박씨가 바로 이들이 아닌가 생각된다. 상흥리 마항의 정씨도 500여년간 거주하고 있는 성씨이고, 음암면 부산리의 윤씨는 윤원구(尹瑗求) 이래 100년간 동족마을을 구성하고 있다.

⑤ 인지면

남산김씨-인지면 남정리 김희회(金喜會) 후손

인정류씨(서령 유씨)-인지면 야당리 애정리 둔당리 산주. 유방택 후손

동막한씨(청주 한씨)-인지면 산동리 한효순의 일곱번째 아들 한호겸(韓好謙) 후손

◆ 송곡서원이 위치한 인지면은 서령유씨의 세거지로서 주목되는 지역이다. 이곳의 서령유씨는 야당리, 애정리, 둔당리에 걸쳐 동족마을을 구성하고 있다. 유방택 이래 570년간 이 지역에 세거하고 있었다. 남정리의 김씨는 김희회(金喜會)가 1600년대 입향한 이래 그 후손들이 계속 거주하고 있고, 산동리의 청주한씨들은 한호겸(韓好謙) 승지 이래 380년된 동족마을이 전하고 있다. 청주한씨는 서산지역에 1500년대 말경 입향하여 세거하고 있는 성씨로서 한호겸은 월탄공 한효순의 일곱째 자제로 의금부도사(義禁府都事)를 지냈고 조참(曹參)에 증직받은 인물이다. 입향연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새방이 한씨의 한복일의 입향시기를 미루어 추정하면 1620년 전후로 보인다. 한효순의 입향으로 함께 내려와 인지면 산동리(동막)에 분가하여 정착한 것으로 전해오고 있다. 한효순의 묘는 인지면 산동리 종산에 있으며 그의 생가로 전해지는 해미면 기지리에 개축되어 한옥으로 전해오고 있다.

⑥ 지곡면

밤밭이씨(울전)-지곡면 화천리 이경소(李景召) 후손

이사리김씨(부성동)-지곡면 산성리 지은 김백경(芝隱 金伯慶) 후손

한우물정씨(금성 정씨)-지곡면 대요리 금남군 정충신(錦南君 鄭忠信) 후손

◆ 지곡면은 지리적으로 당진군 대호지면과 가까운 곳으로, 당진과 관련시켜 볼 수 있는 지역이다. 각종 문헌에서 지곡의 성씨로는 안, 이, 문, 박씨를 들고 있는데, 이들 성씨들의 동족마을은 없다. 가장 오래 거주한 성씨는 금성정씨로서, 정충



〈사진〉 정충신의 묘역

신 장군의 입향이후 350여년간 대요리 한우물 마을에 세거하였다. 대요리에는 정충신의 묘소, 신도비 및 사당이 건립되었고, 대요리에 그의 사위인 진충사가 건립되었다. 정충신은 임진왜란과 이괄의 난때 공을 세운 인물이다.

⑦ 팔봉면

창개문씨(창포)-팔봉면 어송리 문뢰(文賴) 후손
 한내안씨(대천)-팔봉면 덕송리
 당꾸지이씨(堂花)-팔봉면 덕송리
 땡길리안씨(방길리)-팔봉면 양길리 안국인(安國仁) 후손
 범머리이씨(호두)-팔봉면 호리 이석신(李碩新) 후손
 쇠굴최씨-팔봉면 금학리 최치원 후손

◆ 가장 오래된 동족마을은 금학리의 경주최씨들로서 최치원의 후손인 최몽량의 후손들이 거주하고 있다. 문씨와 안씨는 모두 문헌의 성씨조에 기록된 토성, 지곡성으로 매우 오래된 문중이다.

그러나 팔봉면이 그 원거주지는 아니고, 주변에서 점차 퍼져 거주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그 역사가 약 300년 정도일 뿐이다. 문씨는 어송리 창포에 문뢰(文賴) 이래 400여년간 거주하고 있고, 안씨는 덕송리와 양길리에 마을이 있는데, 병조판서 안국인(安國仁)이래 300년된 동족마을이 있다.

⑧ 고북면

양천조씨-양천리에 조춘란(趙春蘭) 후손
 가구김씨-가구리
 통개최씨-기포리
 봉생엄씨 봉생리
 생천김씨-봉생리
 산밑김씨-장요리
 황골문씨-신정리
 날새오씨-신상리
 금도박씨-남정리 앞 작은섬. 박기동(朴基叟) 후손

⑨ 해미면

二戶七一口戶十戶三三女北二二一古 十一路十官戶南七四編女官男山五口里女自戶
 口八口百 七五一口里三路十十戶男 里百五一門男堂里十戶十門三里十 編十官男
 十 十全十口百 編十三八里男洞 編十十口東二里編二八二東十自七求戶三門五
 吾六其八生六 六令戶七十口編九里 戶五里女路十自戶口十口路二官戶道五口東十
 地戶德戶洞戶馬戶田六口里女戶口自 十口編三二七官十 九 二口門男洞十 路九
 里男年男自男南男里十 編二十女官 二 戶十十口門二知戶發十女東五里七 三二口
 自一里一官一里一角七塔戶八十門 戶閏七三五十東戶士男時里二路十自戶時十女
 官百自百門百自百官戶洞三中戶六東 男心十口里二路男谷一里編十二六官男即里五
 門三官七北七官七門男里十口男口 十洞八 編二十里百自戶八十口門八里編十
 北十門十路十門十北一自口北 伐二 一里戶舊戶九十五自口官十口里女東十自戶七
 路五北一四三北七路百官戶大 里十 口自男洞二口五口官十門二 編四里五官八口
 中口路六十口路口三二門男山 自七 女官一里十 里女門口東戶古戶十口門戶
 十女四一五女四女十口北口面 官里 十門百自二東編十東口路男編二六五女東男求
 里一十百里一十一一五女路十自門門編 六東五官戶巨戶五 路七三十洞十口里六路十水
 編百里六編百里百里九三三官東東戶口 路口門男里二口 二一十九里八 編十十一洞
 十十編十戶五編五編十十口門里路十 三十東三百十 十百里口自戶夫戶三五口里

十小道 千篇六十十編口編口編九津一里口戶平二紫五
 里路路 六一口里四戶 戶 戶十七百編女男新戶里十
 年中茶本 百千 編口八古六衣七四十六子九一鎮男自二
 新十安耶五一舍戶 十場十店十口里十一十百自一官戶
 鎮里界東十百編四湖四里七更一 編七百六十官百門男
 大北大難六二戶十前戶自戶自戶新戶口三口三門八北大
 路路路路口十六口里男官男官男編五 戶南 北十路十
 北津二天以二十戶自一門一門一里十中男安 隘口六七
 路倉十早巳口六男官百南百南百自五場一眠 七女十口
 七小南大部女百六門十路十路十官戶里百面 十一里女
 十路路路路一二十南四越三越九門男自九南承里百編五
 五二本三籍善十二里口津口津口越一官十路老編六戶十
 那十馬三戶口越七一女一十津百門六越里戶十一口
 朱里半 內十津一百九百一七南口津自七五百口
 道 男五一百十七十百百口距女八官十口二
 面路 一十百四里六里三里女越一十門九 十村

〈삼도〉 조선후기 마을이름이 기록된 『여지도서』 서산군조④

대곡이씨-대곡리 이기원(李基元) 후손
 대곡김씨-대곡리 김봉현(金奉鉉) 후손
 황락리진씨-황락리에 진협(陳協) 후손
 관기리전씨-관유리에 전세창(全世昌) 후손
 도구머리김씨-언암리 김정서(金廷瑞) 후손
 매벌정씨-옹평리에 정종호(鄭宗浩) 후손
 양림한씨-양림리에 월탄 한효순 후손
 휴암리안씨-휴암리에 안권(安權) 후손

⑩ 운산면

동쪽마을이 조사된 바가 없으나 운산면 여미리는 정종의 넷째아들인 선성군 이무생의 후손들이 살고 있는 전주이씨 동쪽마을로 유명한 곳이다. 이곳과 이웃한 갈산리에 건립되어 있는 안동김씨 김가근의 정려 역시 전주이씨와 관련이 있다. 그의 처가 여미리의 전주이씨인 이진백(李震白)의 동생 이동백(李東白)의 딸이라는 사실을 볼때, 정려 건립에 전주이씨들의 관여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표〉 『여지도서』 (1759년)의 면리편제와 인구수

○ 서산군 : 총 6,620호 남 11,122명 여 13,636명

犬寺洞面

邑內里	118호	남 185	여 149	塔洞里	5호	남 12	여 13
潛洞里	31호	남 52	여 53	石旨里	26호	남 39	여 51
栗枝里	41호	남 57	여 53	南院里	41호	남 77	여 73
校洞里	12호	남 17	여 13	南門外里	34호	남 36	여 31

豆峙面

富興洞里	31호	남 33	여 38	木果洞里	34호	남 74	여 51
山底里	34호	남 31	여 36	蘆峙里	25호	남 35	여 31
排峙洞里	10호	남 11	여 12	紅川里	37호	남 46	여 30

銅巖面

大橋里	24호	남 155	여 96	蘆乃洞里	11호	남 18	여 14
注洞里	31호	남 45	여 39	五里洞里	4호	남 4	여 2
炭洞里	47호	남 77	여 74	蘇耽里	11호	남 19	여 11

加士谷里	34호	남 49	여 38	內洞里	19호	남 54	여 49
富多里	45호	남 57	여 35				
吾山面							
德之川里	54호	남 85	여 61	內五山里	49호	남 33	여 44
獐洞里	22호	남 69	여 67	南光之里	5호	남 16	여 11
栗串面							
余田里	19호	남 15	여 53	中村里	77호	남 174	여 144
九萬里	39호	남 60	여 53				
郡內面							
路上里	75호	남 91	여 90	夜味洞里	46호	남 67	여 68
路下里	69호	남 121	여 125	驛里	132호	남 125	여 128
仁政面							
公須洞里	85호	남 110	여 108	山底里	35호	남 58	여 45
都洞里	38호	남 54	여 46	毛其大里	72호	남 87	여 77
艾堂里	36호	남 45	여 35	東幕里	25호	남 30	여 30
梁越里	33호	남 49	여 49				
禾邊面							
山底里	25호	남 27	여 26	馬龍橋里	47호	남 75	여 65
大岑里	37호	남 57	여 47	沙店里	20호	남 32	여 33
牛川里	131호	남 124	여 108	金堀里	28호	남 37	여 35
看月島	48호	남 85	여 73	藜田里	89호	남 120	여 114
倭懸里	56호	남 80	여 78	大頭里	71호	남 105	여 102
馬山面							
土洞里	25호	남 65	여 53	柯田里	35호	남 48	여 31
葛馬串里	106호	남 167	여 151	沙場里	42호	남 54	여 41
不毛洞里	103호	남 133	여 104	芒峙里	46호	남 55	여 47
江境里	40호	남 63	여 51				
蘆旨面							
芒峙里	60호	남 85	여 67	牛山里	80호	남 93	여 82
星山里	16호	남 22	여 17	山北里	62호	남 60	여 53

馬山里	9호	남	14	여	10	葛峙里	69호	남	86	여	66
內洞里	33호	남	39	여	33	金谷里	43호	남	64	여	43
東山里	35호	남	32	여	28	麻田里	82호	남	111	여	112
竹寺里	24호	남	27	여	27						
永豐倉面											
墻北里	92호	남	118	여	118	亭子里	32호	남	48	여	40
古城里	11호	남	16	여	16	於隱洞里	54호	남	74	여	69
文峴面											
松峙里	55호	남	87	여	81	大洞里	54호	남	84	여	68
虎頭里	55호	남	85	여	63	菴卜里	28호	남	36	여	27
古波島里	10호	남	10	여	11	黑石里	60호	남	82	여	78
德洞里	38호	남	56	여	46	地把洞里	16호	남	20	여	16
方吉里	75호	남	105	여	85	蓮花里	53호	남	81	여	48
缸店里	16호	남	13	여	11						
地谷面											
於賢里	45호	남	63	여	48	猪走里	32호	남	43	여	36
黑店里	73호	남	102	여	99	古水鐵里	16호	남	21	여	17
栗谷里	46호	남	61	여	48	大鳥串里	68호	남	105	여	73
長而峙里	15호	남	23	여	23	豆毛谷里	32호	남	48	여	25
而沙里	58호	남	71	여	46	頓地里	22호	남	40	여	39
中村里	40호	남	50	여	31	部將洞里	7호	남	10	여	7
王山里	34호	남	45	여	40	熊島里	25호	남	32	여	16
聖淵面											
沙揚里	57호	남	86	여	55	坪村里	58호	남	212	여	15
牙南里	23호	남	35	여	30	鳴川里	52호	남	73	여	60
三古介里	43호	남	53	여	43	馬鳴里	18호	남	18	여	11
日豪里	58호	남	167	여	125	外城村里	22호	남	28	여	22
藍洞里	24호	남	26	여	14	內城村里	24호	남	32	여	24
細僑里	48호	남	85	여	63	上率禮洞里	22호	남	32	여	32
葛古介里	23호	남	35	여	24	下率禮洞里	48호	남	58	여	44
葛峴里	35호	남	53	여	31						

冬音巖面

文起里	17호	남 32	여 25	鞍峙里	89호	남 144	여 142
芻山里	10호	남 12	여 15	加士谷里	12호	남 15	여 15
小冬音岩里	22호	남 28	여 25	南堂里	20호	남 27	여 29
獐洞里	32호	남 59	여 57	東巨里	22호	남 31	여 33
求水洞里	8호	남 10	여 13	葛洞里	78호	남 105	여 115
王時郎里	57호	남 85	여 63	開心洞里	12호	남 11	여 16
求道洞里	57호	남 56	여 46	古昌洞里	11호	남 9	여 16
夫山里	28호	남 32	여 28	伐里	18호	남 28	여 24
古陽洞里	12호	남 19	여 12				

大山面

門串里	34호	남 43	여 37	其隱串里	86호	남 135	여 112
塔洞里	67호	남 102	여 93	吾地里	52호	남 67	여 54
令田里	106호	남 177	여 155	竹葉里	112호	남 180	여 163
馬南里	76호	남 173	여 105	平薪鎭里	79호	남 113	여 96
金生洞里	118호	남 170	여 167				

安眠面

承彦里	103호	남 196	여 167	衣店里	67호	남 113	여 96
中場里	55호	남 107	여 94	古場里	84호	남 114	여 144
新與里	71호	남 119	여 130	潮前里	44호	남 62	여 56

○ 해미현 : 총 2,591호 남 4,185명 여 4,776명

東面

城內里	94호	남 141	여 126	鶴岩里	15호	남 24	여 28
東門外里	36호	남 64	여 41	古縣里	14호	남 19	여 20
路上里	51호	남 89	여 75	鳥洞里	16호	남 28	여 24
路下里	38호	남 81	여 56	三峯里	28호	남 41	여 55
造山里	13호	남 25	여 33	松峙里	20호	남 33	여 40
日岳洞里	20호	남 25	여 39	柳谷里	7호	남 17	여 11
堂山里	11호	남 15	여 17	分紅里	18호	남 47	여 54
水源洞里	17호	남 18	여 24	驛里	103호	남 155	여 141
深谷里	94호	남 135	여 148	川邊里	31호	남 35	여 34

甌山里 25호 남 30 여 45

南面

前川里 45호 남 68 여 92

雄梳城里 7호 남 11 여 13

貴密里 47호 남 79 여 111

良陵里 33호 남 59 여 68

新良陵里 68호 남 35 여 29

薦城里 60호 남 34 여 35

道村里 25호 남 52 여 48

堰內里 40호 남 22 여 25

船所里 3호 남 4 여 3

石浦里 11호 남 21 여 15

加佐洞里 31호 남 58 여 75

堂山里 13호 남 26 여 38

斜陽洞里 15호 남 31 여 42

機池里 9호 남 18 여 22

猪城里 22호 남 25 여 24

二道面

安好里 54호 남 68 여 141

長生洞里 16호 남 19 여 32

古音谷里 31호 남 49 여 68

八骨里 25호 남 35 여 39

中山里 22호 남 33 여 48

水鐵店里 51호 남 68 여 87

高色里 3호 남 5 여 6

江堂里 10호 남 12 여 12

盆店里 25호 남 37 여 40

軍莊洞里 7호 남 12 여 15

獐項里 14호 남 25 여 41

墨峴里 23호 남 37 여 48

場坪里 33호 남 47 여 55

宿龍坪里 19호 남 23 여 41

曾仙洞里 27호 남 34 여 35

佐世里 27호 남 39 여 34

一道面

余美里 45호 남 69 여 98

元堂洞里 13호 남 19 여 39

上炭洞里 23호 남 33 여 28

下炭洞里 38호 남 44 여 64

士乃洞里 51호 남 60 여 78

掘山里 38호 남 68 여 79

德谷里 10호 남 15 여 15

馬項里 31호 남 65 여 70

於是山里 12호 남 38 여 37

盆店里 7호 남 8 여 11

豆堂洞里 18호 남 28 여 31

鳳生里 34호 남 60 여 57

鹽率面

山底里 17호 남 28 여 20

德石洞里 17호 남 18 여 20

城山里 40호 남 67 여 79

烽底里 52호 남 95 여 140

方正洞里 7호 남 10 여 15

葛洞里 36호 남 48 여 47

上道叱洞里 12호 남 15 여 18

下道叱洞里 15호 남 37 여 44

鋒里防里	52호	남	79	여	75	三古谷里	15호	남	48	여	19
道伊洞里	36호	남	68	여	73	升山里	27호	남	36	여	57
夢梅洞里	11호	남	15	여	28	大鳥洞里	20호	남	46	여	68
西面											
景峙里	17호	남	28	여	30	赤鮑里	15호	남	17	여	16
長旨里	18호	남	27	여	25	沙器所里	32호	남	43	여	59
井谷里	24호	남	39	여	26	造令津里	63호	남	85	여	109
古峙里	20호	남	25	여	23	出浦里	41호	남	58	여	44
盆店里	9호	남	11	여	10	出浦鮑里	28호	남	29	여	31
杜陵洞里	80호	남	123	여	180	倉里	22호	남	27	여	32
桃李島里	80호	남	149	여	197	古自川里	34호	남	78	여	101
城浦里	21호	남	38	여	44	馬沙里	31호	남	49	여	73
赤鼠里	44호	남	57	여	61						

〈표〉 『호구총수』(1789년)의 면리편제와 인구수

○ 서산군 : 총 6,823호 인구 총 28,137명 남 13,176명 여 14,961명

大寺洞面 : 東門里, 塔洞里, 校洞里, 立石里, 潛洞里, 栗枝里, 石旨里, 南院里, 南門里 (원호 433, 구 1495, 남 628, 여 867)

豆峙面 : 富興洞里, 山底里, 木果洞里, 排峙洞里, 蘆峙里, 紅川里 (원호 176, 구 645, 남 335, 여 310)

銅巖面 : 大橋里, 遊山里, 加士谷里, 蘆乃洞里, 富多里, 吾里洞里, 內洞里, 壯林洞里, 蘇耽里, 注乙洞里, 九橋里, 炭洞里 (원호 290, 구 1824, 남 835, 여 989)

吾山面 : 德之川里, 獐洞里, 內吾山里, 南光之里 (원호 148, 구 747, 남 320, 여 427)

栗串面 : 九萬里, 中村, 余田里 (원호 149, 구 643, 남 302, 여 341)

郡內面 : 路上里, 路下里, 夜味洞里, 驛里, 余田里, 山北里 (원호 381, 구 1705, 남 820, 여 885)

仁政面 : 公須里, 都洞里, 艾堂里, 元堂里, 梁越里, 毛其大里, 山底里, 東幕里 (원호 333, 구 1318, 남 741, 여 577)

禾邊面 : 山底里, 達川里, 牛川里, 看月島里, 馬龍橋里, 沙店里, 倭縣里, 金掘里, 漆田里, 大頭里 (원호 606, 구 2184, 남 1070, 여 1114)

馬山面 : 土洞里, 芻馬里, 不毛洞里, 江境里, 沙場里, 柯田里, 芒峙里 (원호 396, 구 1713, 남 816, 여 897)

安眠面：承彥里，中場里，新礪里，衣店里，潮田里，古場里，大也島里

(원호 414, 구 1766, 남 837, 여 929)

蘆旨面：芒峙里，星山里，內洞，馬山兩里，東山里，竹寺里，牛山里，葛峙里，金谷里，麻田里，山北里(원호 482, 구 1733, 남 820, 여 913)

永豐倉面：塙北里，古城里，亭子里，漁隱洞里(원호 193, 구 694, 남 279, 여 415)

文峴面：大洞里，蓮花里，把洞里，苜卜里，黑石里，方吉里，德洞里，虎里，古把島里，松峙里(원호 463, 구 2217, 남 901, 여 1126)

地谷面：於賢里，而沙里，長而峙里，栗谷里，黑店里，中里，旺山里，猪走里，古水鐵里，

大鳥串里，豆毛谷里，頓地里，部將洞里，熊島里

(원호 520, 구 2112, 남 933, 여 1179)

聖淵面：三古介里，牙南里，日豪里，沙場里，藍洞里，細橋里，葛古介里，上坪村里，下坪村里，鳴川里，馬鳴里，上率洞里，下率洞里，內城村里，外城村里，葛峴里(원호 601, 구 2248, 남 1104, 여 1144)

冬音巖面：文起里，葛山里，小冬音里，章佐洞里，王時郎里，求道里，求水洞里，鞍峙里，夫

山里，加佐洞里，南堂里，古陽洞里，東巨里，葛洞里，伐里，高昌洞里(원호 524,

구 1953, 남 959, 여 994)

大山面：門串里，令田里，塔洞里，馬余味里，金生洞里，其隱串里，鳥池里，獨串里，舟業里，平薪里(원호 714, 구 3330, 남 1476, 여 1854)

○ 해미현：원호 2,763명 남 4,494명 여 5,204명

東面：城內里，東門外里，路上里，造山里，日岳洞里，堂山里，水源洞，深谷里，新興里，甌山里，鶴巖里，造山里，上古縣里，下古縣里，中古縣里，鳥洞里，三峯里，松峙里，分紅里，驛里，晚陽里，川邊里

(원호 674, 구 2206, 남 1158, 여 1418)

南面：上前川里，下前川里，億垞里，雄梳城里，貴密里，舊良里，長城里，新良里，道村里，堰內里，船所里，石浦里，加佐洞里，新興里，垞山里，堂山里，機池里，上陽洞里，猪城里(원호 339, 구 1387, 남 651, 여 736)

二道面：安好里，長生洞里，古音谷里，八骨里，中山里，水鐵里，高邑里，江堂里，盆店里，軍莊里，獐項里，墨峴里，宿龍坪里，曾仙洞里，場坪里，佐世里(원호 414, 구 1488, 남 618, 여 870)

一道面：余美里，元堂洞里，上炭里，下炭里，士乃洞里，掘山里，德谷里，馬項里，於是山里，盆店里，豆堂里，鳳生里(원호 346, 구 1206, 남 535, 여 671)

七十	元戶三百三十三口一千三百十八 男七百四十一 女五百五十七	仁政面 公須里海洞里父空里元堂里 越里毛其大里山底里東菴里	元戶三百八十一口一千七百五十八 男八百二十二 女八百八十五	都内面 石上里餘下里夜林洞 黑脚里余四里北里	元戶一百四十九口六百四十三 男三百三十二 女三百一十一	栗市面 村舍田里	元戶一百四十八口七百四十七 男三百二十七 女四百二十	香山面 他之川里探洞里 香山里南元之里	元戶二百九十九口一千八百二十四 男八百三十八 女九百八	洞里九編 黑炭洞里	銅炭面 大橋里通山里和士谷里 里香里洞里内洞里北林洞 里蘆乃洞里富多里蘆就里	元戶一百七十六口六百四十五 男三百三十 女六百一十	豆峙面 曹興洞里麓洞里新川里	元戶四百三十三口一千四百九十五 男八百二十八 女六百六十七	大寺洞面 東門里塔洞里波洞里 里東坡里石音里南院里南門里	元戶六千八百二十三口二萬八千一百三十七 男一萬三千九百七十六 女一萬四千一百六十一	瑞山面 百五十三
九十	聖洲面 三橋里古介里古介里上坪村里下坪村里 如古介里古介里上坪村里下坪村里	元戶五百二十口二千一百十二 男九百五十三 女一千一百七	地谷面 竹賢里石沙里長而寺里 竹賢里石沙里長而寺里	元戶四百六十三口二千二十七 男九百一 女一百二十一	文峴面 大洞里蓮花里把洞里 方吉里德洞里香里古把島里松峙里	元戶一百九十三口六百九十四 男二百七十九 女四百一十五	永堂倉面 嶺北里古藏里寺 子里溫隱洞里	元戶四百八十二口一千七百三十三 男八百二十 女九百一	蘆音面 芒峙里星山里西洞馬山 寺里牛山里葛峙里金谷里麻日里山北	元戶四百四十四口一千七百六十六 男八百五十七 女九百一	安眠面 水房里中場里新嶺里永店 里湖口里古場里大也島里	元戶六百六十四口二千一百八十四 男一千一百七十四 女一千一百一十	馬山面 境里沙塔里村西里芒峙里	元戶三百九十六口一千七百十三 男八百九十六 女八百一十七	未邊面 山底里達川里牛川里 里沙店里德羅里全岳里本四里大願里		

(삼도) 『호구총수』의 서산군·해미현의 面·里名①

<p>元戶六百一十二千二百四十八 男一千一百四 女一千一百四</p>	<p>冬音巖面 元戶六百一十二千二百四十八 男一千一百四 女一千一百四</p>	<p>元戶五百二十四口一千九百五十三 男九百五 女九百五</p>	<p>大山面 元戶七百十四口三千三百三十 男一千四百八 女一千一百八</p>	<p>海美面 元戶二千七百六十三口九千六百九十八 男四千 女四千</p>	<p>東面 元戶六百七十口二千二百六十八 男一千一百 女一千一百</p>
<p>南面 元戶三百三十九口一千三百八十七 男六百五 女六百五</p>	<p>二道西面 元戶四百十四口一千四百八十八 男六百十八 女六百十八</p>	<p>一道西面 元戶三百四十六口一千二百六十六 男五百五十五 女五百五十五</p>	<p>藍卒面 元戶三百八十口一千三百三十九 男六百六 女六百六</p>	<p>西面 元戶六百十口二千七十二 男一千一百 女一千一百</p>	<p>元戶六百七十口二千二百六十八 男一千一百 女一千一百</p>

〈삽도〉 『호구총수』의 서산군·해미현의 面·里名②

鹽率面：山底里, 德石洞里, 城山里, 烽底里, 鋒里, 方夢梅洞, 道伊洞, 方文洞, 葛洞里, 上
 謔洞, 下謔洞, 三谷里, 朴山里, 大鳥里(원호 380, 구 1339, 남 565, 여 774)
 西面：景峙里, 長旨里, 井谷里, 盆店里, 上杜陵洞里, 下杜陵洞里, 古峙里, 桃李島里, 赤
 鼠里, 赤鮑里, 城浦里, 沙器所里, 造令津里, 出浦里, 出鮑里, 倉里, 高自川里, 馬
 沙里(원호 610, 구 2072, 남 967, 여 1105)

7. 18세기 말~19세기 전반

1) 세도정권과 농민항쟁

조선후기의 사회경제적인 변화는 사회상의 문란으로 이어졌다. 서산지역의 이 시기 이러한 사정을 반영하는 자료는 많은 편은 아니다. 그러나 그중에서 조선왕조 실록에 나타나는 서산군수의 횡포나 서산에서 있었던 역모사건은 그러한 불안한 사회의 모습이라 생각된다. 우선 다음의 실록기사는 그러한 사례인데 1763년(영조 39) 12월 14일 기사에서 사간 남학종(南鶴宗)은 서산 군수(瑞山郡守) 민성수(閔聖洙)가 구환곡(舊還穀)을 심하게 받아들이다가 가난한 백성이 스스로 목매어 죽는 일이 있게 하였다 하고 민성수를 파직시킬 것을 상소하여 임금에 이를 허락하는 기사가 보이고, 서산에서 있었던 역모사건은 1817년의 일이었다.

1817년(순조 17) 10월 2일 서산군의 전패에 변고(지방 객사에 전(殿)자를 새겨 세운 나무 패를 보관하였는데, 이는 임금을 상징하는 것으로 지방에 출장한 관원이나 수령은 여기에 대하여 배례하였다. 만일 훼손하거나 모독하는 경우에는 임금에 대한 불경으로 취급되어 본인과 수령 및 그 고을이 처벌을 받았다. 조선초기까지만 해도 무거운 형벌을 받았으나, 후기에는 처벌규정을 완화, 수령의 처벌이나 읍호의 강등은 폐지하고 본인에 대해서만 처벌하였다.)를 일으킨 죄인 한경유에 대한 승지 김이교(金履喬) 등의 다음과 같은 상소가 보인다.

“서산군의 전패(殿牌)에 변고를 일으킨 죄인 한경유(韓慶裕)의 일을 품처하는 일에 대해서는, 의금부의 초기를 근거로 하여 본도에서 거행하라는 명이 있어 살피서 아뢰었는데, 승정원에서는 이미 형률을 시행한 것으로 잘못 알고 저보(邸報)에 반포하였고……”

라 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변화와 계속된 봉당정치의 파탄은 결국 세도정국을 이끌었다. 세도정국은 사회구조의 모순을 정국의 안정에 의해 일시적으로나마 은폐시켰던 탕평정국이 무너지면서 비롯되었는데, 그 조짐은 일찍이 영조 말년 척신들의 대두에서 이미 보였다. 그러나 정조 즉위직후 왕권강화책으로 표면화되지 못하더니, 나이 어린 순조가 즉위하면서, 안동김씨인 김조순(金祖淳)이 왕비의 아버지로서 정권을 전담하게 되자 외척세력은 왕권을 압도하여 세도정치 시대를 열었다.

이때 처음으로 외척정치의 기미를 보인 경주김씨 일족의 등장은 바로 정순왕후의 수렴청정에서부터였다. 정순왕후는 서산 음암면의 전통적인 한다리 김씨 즉, 경주김씨 문중 출신이었다. 현재 음암면 유계리가 정순왕후의 탄생지로서, 이곳에는 정순왕후 생가가 남아있다.

정순왕후는 영조의 정비 정성황후 서씨가 죽자 1759년(영조 35) 왕비에 책봉되었다. 소생은 없었고, 사도세자와의 사이에 틈이 생겨 참소가 심하더니, 아버지 김한구와 함께, 나경언(羅景彦)으로 하여금 사도세자의 부도덕과 비행을 상소하게 하여 서인(庶人)으로 폐위시켜 뒤주 속에 가두어 굶어죽게 하였다. 그 뒤 당쟁에서 세자를 동정하는 시파를 물리치고, 그것에 반대하는 벽파를 항상 옹호하였으며, 정조가 죽은 뒤 순조가 어린 나이로 즉위하자 수렴청정을 하면서 벽파인 공서파(攻西派)등과 결탁, 정치적으로 그에 반대하는 시파 등의 신서파(新西派)를 포함하여 천주교에 대한 일대 금압령을 내리기도 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이가환(李家煥)등 천주교 신앙의 선구자들이 옥사당하고 정약종(丁若鍾) 등 간부들이 처형되었으며 정약전, 약용 형제는 전라도지방으로 귀양갔다. 그리고 종친 은언군과 그 부인 및 며느리 등도 같은 이유로 사사되었다.

이렇게 정순왕후를 중심으로 경주김씨가 세력을 잡고 있는 동안에 혈족관계에 있던 덕산출신의 추사 김정희가 문과에 급제하자 조정에서 축하를 할 정도로 경주김씨 문중의 권세가 있었다고 한다.

이러한 정치양상은 순조 이후의 역대 군왕이 모두 나이가 어렸기 때문에 왕실과 척족관계에 있는 양반관료가 실제 정치권력을 장악하게 되어 이른바 외척세도정치가 행해지게 되었다.

특히, 순조의 장인이면서, 정조의 신임을 받기도 했던 안동김씨 김조순(金祖淳)이 정순왕후의 명에 의해 순조를 보좌하게 되면서, 그 뒤 60여년간 이어질 안동김씨의 세도정치가 시작되었다.

이렇게 특정가문이 권력을 독점하는 가문 일변도의 정치가 전개되면서 세도정치는 정권의 사회적 기반을 약화시켰다. 세도정권에 순조는 한때 견제의 움직임은 보이기도 하였으나, 흥경래의 난을 계기로 안동김씨에게 더욱 권력이 집중되는 한편, 반대세력의 방어논리가 전혀 인정되지 않게 되었다. 따라서 당시의 사회모순을 해결할 적극적 정책수행은 거의 불가능하였다.

중앙에 있어서의 정치기강의 문란은 곧바로 지방행정에 영향을 주었다. 관직을 산 수령들은 백성을 착취하여 그것을 벌충했으며, 이와같은 양반들의 부정에 편승하여 아전들이 농간 또한 미치지 않은 데가 없었다.

한편, 19세기 이후 노론 일당전제가 장기화되면서 서울을 근거로 한 명문벌족이 형성되어 타당파의 중앙진출을 봉쇄함에 따라 지방에 근거를 둔 정치집단은 더이상 형성될 수 없었다. 따라서 지방의 사족들은 그 권위를 상실하고 향반(鄕班)·토반(土班)등 지방내의 유력자로 전락해 갔다.

또한 경제적으로 완전히 몰락한 잔반(殘班)들도 생겨났다. 토호라 일컫는 사대부들은 수령의 비호아래 불법적인 지배를 행했다. 수령과 아전들의 폭정에 잔반들의 횡포가 더해지고, 18·19세기 국가재정의 주종을 이루었던 전정(田政), 군정(軍政), 환정(還政) 즉, 삼정이 백성 수탈의 수단이 되자, 드디어 농민봉기로까지 이어지게 되었다.

관리들이 삼정을 구실로 백성을 피폐하게 만들었던 예가 『조선왕조실록』 1763년(영조 39) 12월 14일의 기록에 나타난다. 당시 서산 군수였던 민성수(閔聖洙)는 구환곡(舊還穀)을 독징(督徵)하여 고통을 받던 가난한 백성이 스스로 목매어 죽는 일까지 일어났다. 이러한 사실을 상소한 사간 남학종(南鶴宗)은 구포(舊逋)의 독징을 정지시키고 민성수를 파직시켜야 한다고 청하여 임금의 허락하였다. 이 상소를 접한 조정에서는 다른 여러 도에도 같은 일이 있을 것을 염려하여 구포(舊逋)를 모두 감면시켰다고 한다.

농민항쟁은 19세기 이전부터 봉건적 사회모순이 첨예화되는 과정에서 매우 다양하게 전개되었다. 여기에서는 소극적 경제투쟁에서부터 폭력적 봉기의 수단까지 농민들은 끊임없이 봉건지배체제에 반대하여 투쟁하였다. 이러한 소극적 투쟁에는 소작농민들이 소작료를 빼돌리거나 소작료의 납부를 거부하는 항조(抗租)투쟁이 있는가 하면 봉건관료들의 불법적 수탈을 폭로, 규탄하는 다양한 운동이 전개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소극적인 항쟁이 축적되면서 본격적인 농민항쟁은 19세기에 이르러 비로소 불붙기 시작했다.

농민들의 반봉건항쟁은 1862년에 이르러 거의 전국적으로 발발하게 되었는데, 이때의 농민항쟁을 임술반란이라고도 한다. 처음 시작된 것은 충청도의 신창과 온양에서 이만길(李萬吉)의 주도하에 수십여명의 명화적이 부민가를 습격하면서 부터였으며, 곧이어 아산지방에서도 출현하였다.

1862년 충청도에서 발생한 농민항쟁 현황을 발생 일시 순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은진(5/10) · 공주(5/10) · 회덕(5/10) · 청주(5/13) · 회인(5/14~5/15) · 문의(5/14) · 임천(5/17) · 진잠 · 연산 · 진천 · 청안(10/2)

항쟁이 발발한 지역은 내륙지역으로서, 서해안 주변 지역에서는 별다른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조선왕조실록』에서도 이 시기에 관련 사건은 나타나지 않고있지만, 주변 지역의 영향을 전혀 피할 수는 없었을 것이라고 추측된다. 다만, 1776년(정조 원년)역적이 태어난 고을인 서산의 읍호를 강등시킨다는 짧은 기록에서 모종의 역적 사건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서산에서 농민봉기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으로 유독 이 지역에 농민의 불만이 없었던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보수 사족세력의 향촌사회 내에서의 세력이 아직 강하게 남아있다고 이해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한편, 농민봉기가 확산되어 곧이어 서울까지 밀고 올라갈 기세가 보이자, 충청도 회덕에서는 봉기주모자를 체포하기 위해 수령의 책임하에 오가통제의 인보(隣保) 기능을 적극 활용하고자 하였다. 즉 수령은 경내의 밀탐(密探)과 봉기주모자의 체포를 위해 오가통제를 재정비하고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향촌질서의 확립을 모색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봉건정부의 대응에도 불구하고 농민봉기는 계속되었다.

19세기 중반의 농민봉기의 가장 큰 원인은 삼정의 문란에 있었다. 그러나 난의 진행과정에서 지주·전호관계의 모순이 더욱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었다.

이때의 농민봉기는 전국적인 농민전쟁을 예고하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2) 대원군 정권과 이양선의 출몰

유럽열강의 중국침략으로 청·조선·베트남·라오스·타이·버마를 연결하는 중화체제는 해체과정을 밟게 되었다. 조선은 이러한 사태에 충격을 받았고, 이양선의 출몰로 인하여 조선정부는 위기의식을 갖게 되었다.

이양선의 출몰은 이 시기가 처음은 아니었다. 이미 인조대에 벨테브레나 하멜일행이 해안가에 표류한 적이 있었지만, 이는 단지 일본과의 무역거래 중에 일어난 돌발적인 사고였던 것이고, 18세기말, 19세기 전반에 걸친 이양선의 출몰은 유럽열강의 계획적이고 의도적인 침략행위였다. 1787년(정조 11) 프랑스 함대 페루즈 일행이 제주도와 울릉도를 측량하였고, 1816년(순조 16)에는 영국군함 2척이 서해안에 접근하여 근해를 정탐·해도를 작성한 일이 있다. 영국은 훗날 조선 침략을 위한 만반의 준비를 하였던 것이다. 이들 군함은 이틀뒤에 충청도 외연열도(外煙列島)부근에 이르러 정탐한 후에 섬에 올라왔다. 다음날에 이들 군함은 충청도 비인현(庇仁縣) 마양진(馬梁鎭)에 들어왔다. 조정에서는 관리를 파견하여 여러가지 사정을 묻고, 그들이 주는 책, 지구와, 거울 따위를 거절하고 빨리 떠날것을 요구하였다.

정식으로 문호개방을 요구한 첫번째 배였던 영국 무장상선인 조드 암 허스트호

는 1832년(순조 32) 6월말 황해도 몽금포 앞바다에서 그곳 아전들과 필담을 진행한 후 26일 충청도 고대도(古代島)에 접근해 안항(安港)에 정착하였다. 충청도 관찰사는 홍주목사를 보내어 이양선의 접근 목적이 문호개방 요구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조정에서는 이들의 요구를 거절하였으나, 영국인들은 물러나지 않았다. 7월 12일 서산 간월도(看月島) 앞바다에 나타난 영국인 일부는 태안 단사창(丹師倉) 이민(里民)들에게 책자를 나누어 주고 대화를 시도하였으나 서산, 태안 지역관리들의 완강한 거부로 소기의 목적을 거둘 수 없음을 알고 서남방향으로 물러났다.

이후 1840년(헌종 6) 제주도 대정현 가파도 출몰, 1845년(헌종 11) 제주, 홍양, 강진, 장흥의 섬지역에 머물다 가는 사건이 있었다.

1846년 6월에는 프랑스 군함 3척이 충청도 홍주에 나타나 1839년(헌종 5)의 프랑스 신부 3인의 처형이유를 해명하라는 문서를 전달하고 떠났는데, 조선정부는 프랑스의 요구에 강경하게 대처하기로 하고, 김대건 신부의 처형을 서둘렀다.

1850년대에 들어와 이양선은 통상만을 요구하는게 아니라 미국, 러시아 군함까지도 나타나 물에 상륙해 노략질과 살상을 일삼았다. 1860년 12월 9일의 북경합약 소식이후 조선정부는 드디어 서양세력의 침입에 대해 강한 위기의식을 느꼈다. 조정에서는 새로운 대책을 모색하는 가운데 이양선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믿어지는 천주교도에 대한 탄압을 계속하였다.

이렇게 이양선의 출몰이 계속되면서, 조선정부를 위협했으나 끝까지 쇄국의지를 굽히지 않은데에는 당시의 집권자였던 고종의 아버지 대원군의 등장과 그의 집정과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흥선대원군 이하응(李昰應)은 안동 김씨의 세도 아래 몰락왕족으로서 갖은 수모를 당하면서 야심을 키워 갔다. 그것은 철종이 아들이 없는 데다가 병약하므로 왕통을 자기 아들로 잇자는 계획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안동 김씨의 세도정치를 반대하는 조대비와 연결하여 이 계획을 면밀히 하였다. 드디어 26대 왕으로 나이 어린 고종이 즉위하자 조대비는 국정전반의 실권을 대원군에게 위임하였다.

한편 대원군의 집정과 관련하여 부친 남연군의 묘소를 가야사 자리에 잡았던 일화는 잘 알려져 있다. 덕산의 가야산 가야사의 금탑 자리가 2대에 걸쳐 군왕이 나올 지세라는 것을 들은 이하응은 가야사를 불지르고, 연천(漣川)에 있던 부친의 묘를 그자리에 이장했다. 풍수지리가 맞았던지, 고종이 즉위하게 되고, 대원군의 섭정이 시작되었는데, 이 시기는 이미 이양선의 출몰이 잦아졌고 천주교 신자가 크게 늘어나 있었다. 1866년(고종 3) 계속적인 통상을 요구하던 독일인 오페르트는 영국인 제임스 위텔을 만나서 조선탐험에 대하여 상의한 뒤 로나호(선장 모리슨)로 상해를 출발하여 서울로 향하였다고 한다. 그들은 이해 2월 8일 상해를 출발하여 소흑산도를 거쳐 매화도, 쌍군자도를 거쳐 가로림만에 있는 대산면 오지리, 고창개

에 닳을 내리고 지역주민과 조우하여 빈병 몇 개를 주고 청어 20마리를 교환하였다고 한다.

2월 9일에는 배를 돌려 평리만 당시 해미현 서면(현재의 대호지면) 조금진에 이르러 해미현감을 만나기를 청하였으나 성사를 보지 못하였다. 다음날 해미현감 김응집(金 集)이 가마를 타고 나타나자 통상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로나호에서 이들을 만났을 때 해미현감은 조정에 보고하겠다고 하고 돌아왔는데 이때 오페르트는 육지에 올라와서 정탐을 하였다고 한다. 이들은 2월 15일에 모여든 군중들에게 담배 등을 주었다고 한다. 관변 기록인 일성록에는 당시의 사정을 2월 11일 평신진 이도면 영전리 조도에 다다르고 해미현감 김응집과 평신첨사 김영준과 담판을 한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

다음 정탐은 1866년 6월의 일이었는데, 이때 오페르트는 기선 엠페로르호를 타고 상해를 출발하여 6월 26일 가로림만 고창개에 당도하였고, 6월 27일 대호지 조금리에 도착하여 해미현감에게 편지를 보내 다시 통상을 요구하였으나 성과를 보지 못하고 7월 2일 이곳을 떠났다.

제3차의 정탐은 1868년 4월 10일 그레타호로 상해를 출발 4월 18일에 구만포에 이른다. 바로 이때에 일어난 사건이 오페르트의 남연군묘 도굴 사건이었다. 즉 계속적인 통상을 요구하던 오페르트는 프랑스인 선교사 삐롱, 그리고 미국인 켄킨스를 자본주로서 100여명의 중국 청년을 소총으로 무장시킨채 차이나호와 그레타호를 끌고, 4월 18일 삼교천 하류지방인 충청도 홍주군 행담도(行擔島)에 와서 정박하였다. 이들은 삼교천을 거슬러 올라와 덕산 구만포에 상륙하였다. 그리고 덕산관아를 습격하고 군기를 약탈하여 가지고 남연군 묘에 도착해서 도굴을 시작했다. 그러나 관곽이 견고하고, 바다물이 빠지는 퇴조시간이 박두하자 그대로 도망가고 말았던 것이다.

이 소식을 듣고 당시 충청도 관찰사 민치상이 군졸을 몰고 달려 왔을 때는 이미 오페르트 일행은 멀리 해상으로 도망하였으므로 더 쫓지 못하고 말았다.

이 사건은 국제적으로 치소거리였고 조선인에게 서양인에 대한 악감정만 남기게 했을 뿐만아니라 대원군의 쇄국과 척양에 박차를 가한 결과를 낳았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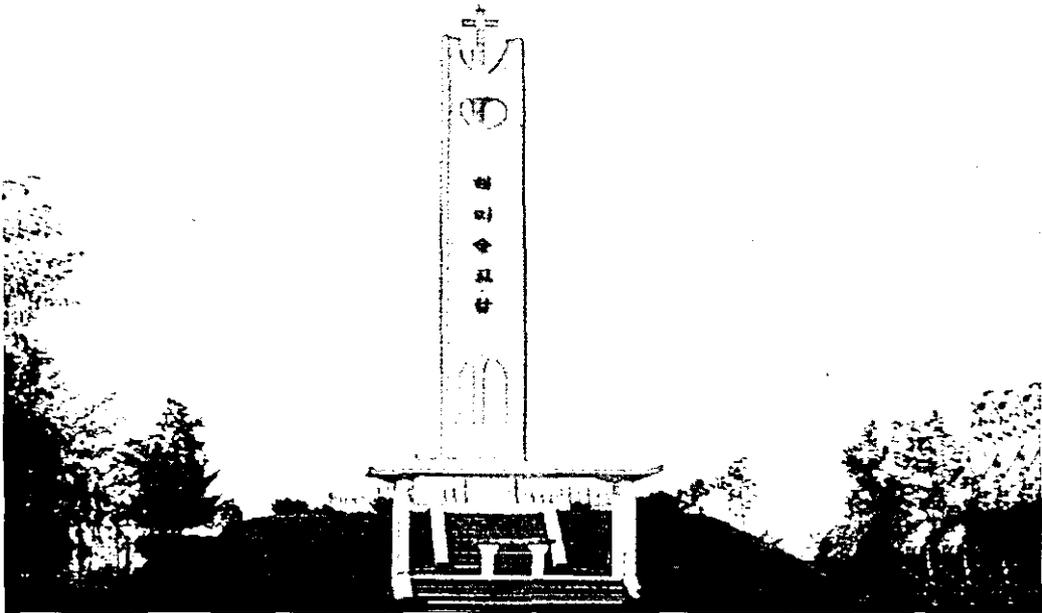
제5절 근현대사와 서산지역

1. 구한말의 서산

- 1) 행정구역
- 2) 인문지리환경
- 3) 서산의 동학농민전쟁과 의병전쟁

2. 일제하의 서산

- 1) 일제시기 서산의 인문지리 환경
- 2) 서산의 농업과 상공업
- 3) 서산의 대지주와 '관료-유지 지배체제'
- 4) 일제 시기 서산의 민족운동



(집필자 : 지수걸)

제5절 근현대사와 서산지역

1. 구한말의 서산

1) 행정구역

구한말의 서산군은 오늘날의 해미면 부근을 제외한 서산 시가지와 그 주변의 면들을 포괄하는 지역이었다. 하지만, 1914년 일제가 조선사회의 효율적인 지배를 위해 전국의 군면(郡面)을 일률적으로 통폐합하는 과정에서, 서산군의 행정 관할 구역은 현재의 서산군(해미 포함)과 태안군을 포괄하는 지역으로 재조정되었다. 요컨대, 일제 시기 서산군의 행정 관할 구역은 구한말의 서산군과 해미현(군), 태안군을 합한 지역이었다. 따라서 구한말의 서산군 역사를 이야기 할 때는 당연히 해미현과 태안군을 제외해야 마땅하다. 하지만, '서·태안 군민'들은 1914년부터 1980년대까지 약 70여년 동안 하나의 군민으로 생활하여 왔으므로 여기서는 세 개 군현의 역사를 한 묶음으로 다루고자 한다. 아래에서 '구한말'이라는 시기 표시 없이 '서산지역'이라 쓴 것은 모두 위의 세 군을 합한 지역을 지칭하는 것이다.

1914년 '군면폐합(郡面廢合)' 이전 시기, 서산군은 16개면, 해미현은 9개면, 태안군은 13개면을 거느린 독립적인 행정구역이었으며, 소속 면과 동리 명칭도 지금과는 달랐다. 예를들어 구한말(『호서읍지』, 1871년) 세 군현의 읍치지역만을 살펴보면, ① 서산군 대사동면(大寺洞面)은 동문리, 탑동리, 교동리, 울지리, 잠동리, 입석리, 석지리, 남원리, 남문리 등 9개 리, ② 해미현 동면(東面)은 성내리, 동문리, 노상리, 노하리, 조산리, 일악동리, 당산리, 수원동리, 심곡리, 증산리, 학암리, 교현리, 도동리, 천변리 등 14개 동리, ③ 태안군 군내면(郡內面)은 동문외리, 옥하리, 남문외리, 서문외리, 정과실리, 거림포리, 천월리, 상곡리, 사점리, 신대리, 적곶리, 흑점리, 용천리 등 13개 리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동리의 규모도 편차가 심하였다. 더욱이 조선왕조사회의 면(面)은 오늘날과는 달리, 독립적인 법인체로서 예산집행권을 가진 엄밀한 의미의 행정구역이나 자치단체가 아니라 일종의 방위면(方位面)이었다.

〈표-1〉 군면폐합 이전 서산, 태안, 해미군의 면 명칭 (1908년 현재)

	面 名 稱
瑞山 (16개)	大寺洞面, 豆峙面, 銅岩面, 吾山面, 栗串面, 禾邊面, 蘆旨面, 地谷面, 聖淵面, 冬音岩面, 大山面, 仁政面, 馬山面, 文峴面, 永倉面, 郡內面
태안 (14개)	郡內面, 南面, 近西面, 遠一面, 遠二面, 北一面, 北二面, 東一面, 東二面, 安興面, 所斤面, 梨園面, 眠上面
해미 (9개)	東面, 上道面, 南面, 夫山面, 雲川面, 一道面, 二道面, 鹽率面, 西面

##. 忠淸南道 內務部 編, 『忠淸南道道勢一斑』, 『行政區劃』, 2~5쪽 참조.

그러나, 1914년 행정비용 감축과 행정 효율 증진 등을 이유로 군면폐합을 단행하면서, 일제는 구한말 ① 서산군에 속했던 16개면 전체, ② 태안군에 속했던 14개면 ③ 해미군에 속했던 9개면 ④ 홍성군의 일부 면(고북면 일부)을 합하여 관할 구역내에 20개의 면을 거느린 충남 최대의 행정 군을 형성하였는데 그것이 바로 몇 년전까지의 서산군이었다.

1870년대부터 통감부가 설치되는 1910년까지 서산지역(구한말의 서산군, 해미현, 태안군)에서 군수를 지낸 인물은 26명이었다. 이 가운데 특별히 주목되는 인물은, ① 1870년 경북궁 중건시 '토목공 두령'을 지내다가 그 공로를 인정받아 군수가 된 오병선(吳秉善, 서산읍 관아 건물도 개축함), ② 1876년에 군수로 부임하여 자신의 녹봉을 털어 기근민들을 구제했다는 박규동(朴奎東), ③ 1884년에 군수로 부임한 이범서(李範敍, 그의 손자는 1925년 현재까지 서산 읍내에 거주함), ④ 1885년에 서산 군수를 역임했다가 이후 구한말 탁지부 대신을 역임하고 1925년 현재 이왕직(李王職) 장관을 역임했던 민영기(閔泳綺), ⑤ 1894년 동학농민전쟁 시기 군수로 부임했다가 동학군에 피살당한 박정기(朴錠基), ⑥ 1894년 박정기의 후임 겸 토포사(討捕使)로서 농민전쟁의 진압에 큰 공을 세운 성하영(成夏泳), ⑦ 1900년 중추원 의관으로 서임된 후 같은해 서산 군수로 부임한 환동 이희열가(李希烈家)의 장남 이기석(李基奭, 같은해 음성군수 이임, 1925년 현재 태안면 거주)과 ⑧ 셋째 아들 이기상(李基祥, 1909년 서산군수로 부임, 1911 해미군수 이임) 등이었다. 이희열의 아들인 이기석, 이기상, 이기승(李基升)은 구한말 군수직을 역임하였을 뿐만 아니라 많은 사회활동을 전개하였다. 1914년 군면폐합 이후 서산군수를 지낸 인물은 ① 권익채[權益采, 1913년 경부(警部)에서 서산 군수로 부임, 1917년 서천군수로 이임, 이후 공주 거주, 충남 도평의회원, 공주시민회 부회장], ② 지희열(池喜烈, 1917년 공주 군수에서 서산 군수로 부임, 1922년 부여군수로 이임, 이후 부여 거주, 도평의회원, 수리조합 조합장), ③ 김창수(金昌洙, 1922년

부여군수에서 서산군수로 부임, 1923년 퇴직), ④ 원은상(元殷常, 1913년 당진군수에서 서산군수로 부임, 1924년 황해도 장연 군수로 이임), ⑤ 이민영(李敏寧, 1925년 홍성군수에서 서산군수로 부임, 『서산군지』편찬) 등이었다.

2) 인문지리환경

(1) 인구 및 직업 구성

구한말 서산, 태안, 해미는 주변의 여러 군현과 더불어 내포(內浦)라 불리웠는데, 내포란 충남 서북부 10개 고을, 즉 가야산 둘레의 서산, 덕산, 해미, 결성, 태안, 홍주, 대흥, 예산, 신창, 보령 등의 합칭이었다. 『택리지(擇里志)』에 의하면 내포는 지세가 외져서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때에도 전화를 입지 않았을 뿐 아니라 땅이 기름지고 해산물이 풍부하여 옛부터 부자가 많았다고 한다. 특히 궁궐의 관곽재(棺槨材)를 공급했던 안면도는 수목이 울창하고 노루와 사슴 등 산짐승이 많아, “섬 이름과 같이 누워 자면서 먹고 산다는 섬”, 혹은 ‘서해의 극락도’라 불리웠을 정도였다. 해안을 넓게 끼고 있는 서산군은 주변에 많은 섬이 있었는데 일제의 조사에 의하면 1920년대 중반 유인도는 27개, 무인도가 130여개 였다고 한다.

그러나 서산지역의 경우 뱃길로 한양과의 교통이 편리하였기 때문에 일찍부터 경화사족들의 수탈이 극심하였다. 경화사족들은 매년 추수철만되면 관리인(書士)이나 마을을 통해서 소작미와 특산물을 수탈해 갔는데 그 운송은 대부분 뱃길을 통해 이루어졌다. 일제시기까지 서산지역에는 도선장(渡船場)이 13개나 되었는데 안면도에만 6곳이 있었다. 또한 경화사족 이외에 토호사족들의 수탈도 만만치 않았다. 이런 사정은 19세기 중반에 충청지역을 순행하고 돌아온 암행어사의 별단에서도 확인된다. 암행어사였던 정기화는, 충청도의 사대부들이, “자신의 집 마당에 사사로이 형장을 설치하여 농민들의 돈과 곡식을 토색하는가 하면, 그들의 묘촌(墓村)이나 낭호(廊戶)에 투탁한 자들에게는 번역(番役)을 징수할 수 없게 했”을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산록을 널리 점거하여 나무꾼들을 접근하지 못하게 했다”고 하면서, “일반 백성들이 피폐하고 곤란에 처하는 것은 모두 이러한 사대부들의 무단지배 때문”이라고 단정짓고 있다. 이런 연고로 서산지역을 포함한 내포지역 주민들은 경화사족(서울 양반)이나 토호양반들을 ‘구두쇠(緇齋)’라 불렀다고 한다. 『호서읍지(湖西邑誌)』(1871)에 의하면, 서산과 태안 군민은 “검소함에 힘쓰고 무(武)를 숭상하는 기풍이 강하다” 하였으며, 해미 현민은 “농사일에 힘쓰고 인심이 순박하다” 하였다.

그러면 구한말 서산지역의 인구 구성은 어떠했을까? 물론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구한말에 간행된 각종 읍지를 참조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지만 구한말 읍지의 호구조사 방식은 오늘날의 그것과 상당히 다르다. 가령 1871년에 간행된 『호서읍

지』에 의하면, 해미현의 총 원호(元戶) 수는 2,659호, 인구수는 9,140명, 그 가운데 남자는 4,260명(壯 3,331명, 老 518명, 弱 411명), 여자는 4,880명(壯 3632명, 老 702명, 弱 546명)이었다고 하나, 1908년 오늘날과 유사한 방법으로 조사된 해미현의 총호구 수는 5,267호, 20,385명이었다. 이런 수치상의 차이는 조사 방법이 달랐기 때문이지 실질적인 호구 증가 때문만은 아니었다.

구한말의 호구수를 비교적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조사결과, 즉 충청남도 내무부가 1908년에 편찬한 『충청남도 도세일반(忠淸南道道勢一斑)』의 「민적(民籍)」을 기초로 호구수와 직업분포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1908년 현재 충남에는 37개 군(390개 면, 5,340개 동, 2,051개 리)이 있었으며, 전체호수는 17만 5,146호, 인구는 68만이었다.

〈표-2〉 서산, 태안, 해미군의 면·동·리 및 호수 현황 (1908년 현재)

	면 수	동·리 수	호 수	인 구 수		
				남	여	합 계
서 산	16	266	6,742	12,069	10,253	22,322
태 안	14	206	4,347	7,463	5,726	13,389
해 미	9	225	5,267	11,066	9,317	20,385
충 남	390	7,391	175,146	386,078	294,808	680,888

##. 충청남도내무부 편, 『충청남도도세一斑』(1908), 「행정구획」(2~5쪽), 「민적」(40~71쪽) 참조 작성.

〈표-3〉 서산, 태안, 해미군의 면·동·리 및 호수 현황 (1908년 현재)

	농 업		상 업		어 업		기 타		합 계	
	호수	인구수	호수	인구수	호수	인구수	호수	인구수	호수	인구수
서산	6,552	21,661	119	423	71	238	-	-	6,742	22,322
태안	3,990	12,145	240	869	117	375	-	-	4,347	13,389
해미	5,011	19,465	166	604	59	158	31	158	5,267	20,385
충남	133,054	512,491	39,236	156,113	916	3,491	1,940	8,791	175,146	680,886

##. 충청남도내무부 편, 『충청남도도세一斑』(1908), 「민적」(40~71쪽) 참조 작성.

1908년 현재 서산군, 태안군, 해미현의 동리수와 호구수는 〈표-2〉와 같았는 바 이를 비교하면 서산과 해미가 2만명을 약간 상회하는 정도였음에 반해 태안은 주변의 다른 군들에 비해 호구수가 상대적으로 적었음을 알수 있다. 1908년 현재 충남

관찰부 소재지인 공주군의 총호구수는 19,523호·77,922명, 홍주군은 8,373호·29,140명, 면천군은 7,759호·32,018명, 덕산군은 4,496호·18,719명, 결성군은 4,491호·17,461명, 예산군은 4,269호·17,835명, 당진군은 3,316호·11,805명, 천안군은 3,267호, 12,746명 등이었다.

〈표-2〉, 〈표-3〉을 근거로 1908년 현재 서산지역에 거주하던 사람들의 인구 구성이나 직업 분포를 군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 특징이 주목된다.

먼저 구한말 서산군의 경우를 보면 첫째, 인구가 가장 많은 면은 대산면(2,469명)과 지곡면(2,237명)이었으며, 인구가 가장 적은 면은 오산면(604명)과 울곶면(732명)이었다는 점, 둘째, 상업 인구가 가장 많은 면은 군내면(118명)과 대사동면(114명)이었으며, 문현면(61명)과 성연면(46명) 이외의 6개 면에는 상업인구가 하나도 없었다는 점, 셋째, 다른 면에는 어업자가 하나도 없었음에 반해 오로지 문현면(228명)에만 어업자가 밀집해 있었다는 점 등이 주목된다. 구한말 서산군의 중심지는 읍치지역에 속하는 대사동면(323호, 1,237명)이었으나 거주인구는 다른 군현의 그것에 비해 대단히 적은 편이었다. 서산읍은 다른 군현의 읍치지역에 비해 지역 중심성이 부족하였다.

태안군의 경우를 보면 첫째, 인구가 많은 면은 면상면(2,036명), 군내면(1,553명)이었으며, 인구가 적은 면은 소근면(281명), 원이면(433명)이었다는 점, 둘째, 상업인구가 가장 많은 면은 군내면(491명)이었으며, 그외에 남면(66명), 근서면(57명), 안상면(53명) 등에 약간의 상업인구가 있었으나 북이면에는 상업인구가 하나도 없었다는 점, 셋째, 군내면, 근서면, 동일·동이면에는 어업인구가 별로 없었으나 나머지 면에는 비교적 고르게 어업인구가 분포하였다는 점 등이 주목된다. 태안은 서산과 해미에 비해 어업과 포구상업이 비교적 발달한 지역이었으므로 구한말 부자(대지주)가 많이 배출되었다. 태안군의 읍치지역인 군내면은 서산의 경우와는 달리 지역중심성이 비교적 강한 편이었다.

해미현의 경우 주목되는 특징은 첫째, 인구가 많은 면은 동면(3,421명)과 서면(2,477명)이었으며, 적은 면은 운천면(1,063명)과 상도면(1,388명)이었다는 점, 둘째, 상업인구가 상대적으로 많은 면은 인구가 많았던 동면(146명), 하도면(91명), 서면(81명) 등이었다는 점, 셋째, 어업인구는 하도면(69명), 남면(39명), 서면(50명)에만 분포하였다는 점, 넷째, 서산·태안의 경우 기타 호가 하나도 없었으나 해미군의 경우는 특이하게 동면(76명), 염솔면(29명), 남면(18명) 등지에 158명(31호)의 기타 인구가 거주하였다는 점 등이다. 해미현은 서산과 마찬가지로 농업지대였으며, 기타 호는 추축권대 마포생산이나 축산업에 종사하던 사람들이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2) 동족마을과 유생 분포

촌락은 국가와 군현의 지배하에 있었던 농촌공동체의 기초 단위이자 농민생활의 주요 공간이었다. 즉 국가권력과 재지사족(在地士族)은 면·리조직과 향(동)약·동계조직을 매개로 촌락민을 지배하였으며, 주로 농민이었던 촌락민들은 두레, 품앗이와 같은 노동조직, 혹은 향도(香徒)와 촌계(村契)와 같은 공동체 조직을 기반으로 생활을 영위해 나갔다. 특히 17세기 중엽 이후 친족의식의 전면적인 변화(종법질서의 정착)와 함께 부계친을 중심으로 문중 단위의 결속력이 강화되고, 또 촌락을 단위로한 재지사족의 토호화가 급진전되면서, 전국 각지에는 동족마을이 우후죽순처럼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특히 국가권력과 일정한 타협위에서 군현 및 촌락 단위에서 자신들의 지배를 관철시켜온 유력 사족들은 동족마을을 중심으로 자신들의 세력기반을 확대해 나갔다. 이같은 현상은 서산지역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었다. 조선후기와 개항기의 사회변동 과정에서 상당한 해체위기를 겪고 있기는 했으나 구한말까지, 국가권력을 대표하는 수령(朝權의 대행자)·이향과 재지사족(鄉權 담당자)을 매개로 이른바 '수령·사족 재배체제'가 비교적 강고히 유지되고 있었으며, 개간·간척의 확대와 더불어 동족마을의 발달도 꾸준히 지속되었다.

먼저 서산지역의 동족마을 분포를 살펴보자. 일제시기에 이루어진 한 조사에 따르면 1930년 현재 전국의 동족마을 수는 14,672개, 충남은 642개, 서산은 67개였다고 한다. 수치상으로만 보면 서산지역은 동족마을이 비교적 많은 편에 속하나 군내의 전체 동리 수를 기준하여 분포비율을 살펴보면 충남에서 중간 정도 수준에 속하는 지역이었다. 그러나 저명한 인물을 많이 배출한 유력한 동족부락은 다른 군에 비해 적은 편이었다. 가령, 1930년 현재 충청남도에는 50호 이상의 동족이 모여 사는 저명한 동족마을이 36개였는데 그 가운데 서산지역에 위치한 마을은 하나도 없었다. 위의 조사에서 손꼽아진 충남의 저명한 동족부락은 ① 동면 송룡리 결성장씨(張氏) 마을 등 연기군의 8개 마을, ② 은진면 방축리 한곡 금녕 김씨 마을 등 논산군의 4개 마을, ③ 장기면 나성리 부안임씨 마을 등 공주군의 3개 마을, ④ 부여면 저석리·유촌리 전주 이씨 마을 등 부여군의 6개 마을, ⑤ 서천면 조석리 용궁전씨 마을 등 서천군의 8개 마을, ⑥ 남포면 월전리·용두리 경주 이씨 마을 등 보령군의 3개 마을, ⑦ 대전군 기성면 평촌리 무송 유씨마을, ⑧ 청양군 비봉면 양사리 전주 이씨 마을, ⑨ 당진군 송악면 가교리 능성구씨 마을, ⑩ 천안군 갈전면 가전리 안동 김씨 마을 등이었다. 서산군의 경우, 저명한 동족마을(班村)로는 음암면 유계리(大橋)의 경주 김씨 동족마을[영조비 정순왕후의 부친인 김한구(金漢耆), 추사 김정희]등이 손꼽아질 뿐이었다. 하지만 개항 이후 구한말의 급격한 정치변동 과정에서 대교리 김씨 마을과 같이 유력한 사족마을은 대부분 정치·사회적 위세를 급격히 상실하는 것이 보통이었다. 1925년 현재 서산군의 면수는 20개, 행정동리

수는 232개였으며, 동족마을(자연촌락 포함)의 숫자는 99개였다.

〈표〉 면별 동족마을과 성씨

면 명칭	동 족 마 을 성 씨
인지면(11: 3)	- 仁政 柳氏, 東幕 韓氏, 南山 金氏
부석면(13: 3)	- 江堂里 李氏, 柯沙里 柳氏, 芝山 趙氏
팔봉면(9: 7)	- 倉浦 文氏, 榛山 金氏, 大川 安氏, 堂花 李氏, 方吉里 安氏, 虎頭 李氏, 金谷 崔氏
지곡면(9: 3)	- 栗里 李氏, 富城洞 金氏, 寒泉 鄭氏
대산면(10:12)	- 廣岩 金氏, 渴馬洞 金氏, 令田 田氏, 開花洞 金氏, 錦峴 張氏, 梅南里 金氏, 雲山里 韓氏, 塔洞 金氏, 熊島 金氏, 獨串里 金氏, 宿虎池 崔氏, 大山 柳氏
성연면(9: 5)	- 古南里 金氏, 梧沙里 李氏, 聖淵 韓氏, 禮德里 閔氏, 日藍里 朴氏
음암면(11: 5)	- 求道洞 朴氏, 富多里 柳氏, 銅岩 李氏, 馬項 鄭氏, 大橋 金氏
대호지면(9:9)	- 調琴里 上村 李氏, 調琴里 龍壽洞 車氏, 桃李里 南氏, 杜山里 金氏, 出浦里 內村 林氏, 沙城리 內里 崔氏, 馬中里 馬沙 南氏, 赤鼠里 大村 車氏, 松田里 貞川 李氏
정미면(18: 4)	- 余美 李氏, 壽堂 鄭氏, 鳳生里 具氏, 愚山 權氏
운산면(18:2)	- 臥牛里 崔氏, 高山 蔡氏
해미면(22:7)	- 大谷里 李氏, 大谷里 金氏, 皇洛里 陳氏, 館柳里 全氏, 堰岩里 金氏, 鷹坪 鄭氏, 良林 韓氏
고북면(14:8)	- 楊川里 楊川 趙氏, 加口里 加口 金氏, 機浦里 谷村 崔氏, 鳳生里 鳳山 嚴氏, 長要里 長善 金氏, 新井里 黃谷 文氏, 新上里 新興 吳氏, 南井里 金島 朴氏
안면면(11:4)	- 倉基里 片氏, 承彥里 朴氏, 新野里 朴氏, 古南里 崔氏
남 면(9:3)	- 兩潛里 積芑 賈氏, 夢山里 夢堡 文氏, 元青里 金氏
태안면(13:7)	- 平川里 平薪 明氏, 松岩里 韓氏, 朔善里 李氏, 山後里 金氏, 倉坪里 賈氏, 旺山里 文氏, 環洞 李氏
근흥면(9:5)	- 雲洞 咸氏, 蘆音 薛氏, 瓦洛 崔氏, 新堡 金氏, 接芝 朱氏
소원면(9:3)	- 中方 金氏, 茅項 鞠氏, 道川 尹氏
원북면(9:7)	- 將臺門 李氏, 上里 趙氏, 大基洞 趙氏, 酸梨 金氏, 三峯 文氏, 黃谷 金氏, 開市川 朴氏
이북면(7: 1)	- 蒲地里 蒲洞 趙氏

서산군의 20개 면 가운데 동족마을이 하나도 존재하지 않은 면은 구한말 서산군의 읍치지역인 서산면(12개 행정동리) 뿐이었는데, 이는 구한말 태안읍이나 해미읍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구한말 서산지역에서 동족마을 분포가 많은 면은 대신면, 팔봉면, 대호지면, 원북면, 고북면 등이었는데 이들 면은 공통적으로 가로리만과 천수만을 인접한 곳이라는 특징이 있다. 또한 동족마을이 적었던 곳은 서산면을 비롯하여 정미면, 음암, 운산면, 해미면, 부석면 등 대체로 내륙쪽에 입지한 면들이었다.

한편, 동족마을의 연원을 보면 해안가에 밀집된 다수의 동족마을들은 대부분 18-19세기에 형성된 것들임에 반해, 내륙쪽에 들판산재한 동족마을들은 대부분 연원이 오래된 것들이었음을 엿볼수 있다. 이는 서산지역의 동족마을 발달이 언제, 어떤 형태로 이루어졌는가를 보여준다. 18-19세기 서산의 해안지역에 동족마을이 집중적으로 발달한 것은, 이 시기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간척이나 염업 발달 등으로 인하여 해안지역에 마을 형성의 사회·경제적 기반이 조성되었기 때문이었다.

〈표 4〉 충남지역의 동족마을 및 유생분포 현황(1903)년 현재)

	동족 부락수	백분율 (%)	유생수	백분율 (%)		동족 부락수	백분율 (%)	유생수	백분율 (%)
공주군	61	28.63	294	0.25	홍성군	26	18.70	194	0.22
연기군	27	29.03	300	0.47	예산군	36	20.57	272	0.26
대전군	52	28.88	292	0.25	서산군	67	28.87	673	0.46
논산군	54	28.27	635	0.47	당진군	36	29.26	922	1.11
부여군	50	26.17	400	0.35	아산군	38	23.31	615	0.75
서천군	64	38.09	301	0.32	천안군	45	26.47	732	0.77
보령군	54	49.09	517	0.63	합 계	642	28.36	6,210	0.45
청양군	32	27.82	108	0.16					

##. 同族마을과 儒生의 數는 朝鮮總督府 編, 『朝鮮의 聚落, 後篇』(1935), 513쪽: 660~663 쪽; 당시의 郡道別 町洞里 數는 朝鮮總督府內務局, 『地方行政區域名稱一覽』1932년 판, 그리고 郡道別 인구 수는 朝鮮總督府, 『朝鮮國勢調査報告』(1930년판)를 참조하였다.

##. 동족마을의 수는 1930년 현재의 집계이며, 유생 수는 1928년 현재의 집계이다.

일제시기의 집계이기는 하나 충남 각군과 서산지역의 동족부락 및 유생의 분포 현황을 백분율로 비교하면 서산지역의 분포비율은 각각 28.87%와 0.46% 정도로서 평균을 약간 상회하는 정도였다. 요컨대, 산술적인 숫자만을 보면 서산지역은

동족마을이나 유생이 많은 지역에 속하나 면리 수나 인구 규모를 감안하면 그 비율은 중간정도였다고 할수 있다. 하지만 똑같은 방법으로 산출한 다른 도(道)의 백분율과 서산의 그것을 비교하면 서산은 하위권에 속했다. 같은 방식으로 백분율을 환산하면 전남은 64.17%·1.45%, 전북은 51.90%·0.39% 경남은 67.83%·0.55%, 경북은 58.89%·1.45%였으며, 인접한 충북과 경기도는 각각 33.71%·0.36%, 34.02%·0.74%였다. 구한말 서산지역은 재지 토호사족들의 지배보다는 오히려 조선후기 이래의 사회변동 과정에서 새롭게 성장한 부민층(요호부민, 서민지주)이나 한양에 거주하던 경화사족(京華士族)들의 지배가 훨씬 강력한 지역이었다.

(3) 농업과 기타 산업

구한말 서산지역의 주산업은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농업이었다. 특히 서산지역에는 간사지(干瀉地)가 많아 잘 개간만 하면 "전조선에서 유일무이한 다곡향(多穀鄉)"이 될 가능성이 풍부한 곳이었다. 하지만 기경지(既耕地)는 다른 군에 비해 넓은 편은 아니었다. 1908년 현재 서산, 태안, 해미의 경지면적을 보면, 밭에 비해 논외의 분포가 상대적으로 많았다는 점, 그리고 초생지와 사적지가 많았다는 점이 주목된다. 서산·해미지역의 미간 토지들은 개항 이후 염전 경영과 상업, 고리대 등을 통해 부를 축적한 요호부민들에 의해 적극적으로 개간되었다. 일제시기 100정보 이상의 토지를 경영하던 서산지역의 대지주들은 대부분 이런 경로를 통해 대토지를 축적하였다.

〈표-5〉 서산(瑞山), 태안(泰安), 해미군(海美郡)의 경지(耕地) 분포(分布)

	沓	田	未 墾 地	
			草 生 地	沙 象 地
서 산	73,8725升	10,524口耕	168,150평	0
태 안	29,4090升	2,693日耕	0	0
해 미	40,4430升	34,6810升	1,0310升	1500升
충 남	1,533,9550升	802,0560升	497,0795升	338,4650升

##. 草生地란 주로 바닷가의 갈대밭을, 沙象地란 강이나 냇가에 토사와 자갈이 섞인 땅을 말한다.

##. 忠清南道 內務部 編, 『忠清南道道勢一斑』(1908), 75~77쪽 참조 작성.

구한말 서산, 해미, 태안의 지주분포를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곤란하나 지세 납부 실적을 역산하면 대강의 현황을 짐작할수 있다. 구한말 서산지역 세 개 군현의

지세 납부액은 홍성과 공주에 비하면 낮은 액수이기는 했으나 서산의 경우는 충남 전체 37개 군 가운데 공주, 홍성, 면천에 이어 4위 정도였으며, 해미는 12위, 태안은 21위였다.

〈표-6〉 구한말 서산 태안 해미 지역의 세금 납부 상황 (1908년 현재)

	서 산	태 안	해 미	홍 성	공 주
地稅額	28,790,184	15,088,488	21,858,064	40,802,752	55,464,740
戶稅額	1,200,150	1,086,000	697,750	2,079,000	3,828,600
稅金總額	30,224,894	17,236,838	22,555,814	42,959,552	59,739,140

##. 충청남도청 편, 『충청남도도세일반』(1908) 참조 작성.

쌀 생산의 경우 서산, 태안, 해미는 구한말 충남지역에서 최하위권에 속하였다. 1908년 현재 서산과 해미의 쌀 생산액은 각각 33,948원, 57,125원이었으나 공주는 506,551원, 회덕은 301,904원, 홍주는 273,663원, 서천은 288,000원이었다. 또한 서산, 태안, 해미지역에서는 충남 전체지역(공주, 홍성, 예산, 연기, 청양 등)의 특산물인 면화가 거의 생산되지 않았다. 이런 사실은 농업지대이기는 하나 토지가 다른 지역에 비해 상당히 척박했음을 보여준다. 충남의 다른 지역에 비해 많이 생산된 서산의 특산물은 마(麻)였다.

구한말 서산의 지역경제를 이끌었던 것은 제염업이었다. 구한말까지 서산에서 생산된 소금은 충청도 전체 소비량의 7할을 점하였을뿐 아니라 뱃길로 한양으로까지 유통되었다. 회고에 의하면 서산지역의 대지주들은 대부분 소금을 굽거나 판매하여 부를 축적하는바 일제하에서 김갑순에 이어 두 번째로 대지주였던 태안 환동이씨가(이회열가)도 소금밭을 일구어 가산을 일으켰다고 한다. 하지만 제염업은 일제시대에 들어 관제 염업이 성행하고, 중국산 소금이 대량으로 유입되면서, 점차 쇠퇴하는 경향을 보였다. 게다가 남벌로 인한 연료 부족도 제염업 쇠퇴의 주요한 원인이었다.

충남지역은 공주, 전의, 직산지역에 약간의 광산이 존재하였을뿐 지하자원이 대단히 빈약하였다. 특히 서산, 해미, 태안지역의 경우 이렇다할만한 광산이 하나도 없었다. 다만 바다를 끼고 있었으므로 수산업이 다른 지역에 비해 다소 발달한 편이나 생산량은 면천이나 당진에 비해 훨씬 적었다. 공업의 경우 해미에 마포 가공 공업이 약간 발달하였을 뿐 그 흔한 도기(陶器) 공업 조차도 변변한 것이 없었다.

조선후기 이래의 상업발달은 주로 포구와 지방장시를 거점으로 이루어졌다. 당시 포구에 집산되는 중심적인 상품은 쌀과 같은 곡물이나 소금과 같은 수산물 등이었으며, 지방장시에서는 고가의 소형상품이나 지역내에서 생산·소비되는 상품들이 유통되었다. 요컨대, 당시의 지방장시가 주변 농민들이 생산한 생산물과 생필품

이 매매되는 국지적 유통망이었다고 한다면, 포구는 객주의 중개에 의해 선상(船商)과 육상(陸商), 지주와 부농들이 대량의 물품을 도매하는 원격지 유통의 중심지였다. 개화기 경기·충청지역의 유통권은 크게 한강상류권, 금강연안권, 충청서북해안권, 안성수원권으로 구분되며, 그 중심시장은 공주, 강경, 논산, 예산, 둔포(아산)장이었다. 구한말 서산지역의 경우는, 포구상업은 어느 정도 발달하였으나 지방장시는 대단히 미약한 편이었다.

서산·태안 지역에 유명했던 포구는, 성연면 면소재지인 평리 인근의 명천(창말)포, 그리고 지곡면 화천리의 원천포, 산성리, 정포(碇浦)와 대산면 삼길리의 삼길포 등이었다. 회고에 의하면 서산과 당진에서 생산되는 곡물들은 명천포를 통해 인천이나 서울로 운반되었으며, 덕적도나 자월도에서 생산되는 새우젓 등도 이곳에서 거래되었다고 한다. 하지만 중심포구는 역시 아산의 둔포였다. 1908년 현재 서산과 해미의 여각(旅閣) 수는 각각 9개, 5개였으나 태안의 경우는 하나도 없었다. 서산 여각의 위치는 오산면 덕지천과 내오산, 울곶면 양대, 인정면 모포, 화변면 대두, 마산면 강당리, 영풍창면 송치, 문현면 방길리, 성연면 평촌 등이었으며, 해미 여각의 위치는 남면 귀밀리, 남면 석포리, 고북 하도면 남정리, 고북하도 하정리, 염술면 천의리 등이었다. 다른 지역의 경우는 여각은 상업 중심지에 집중되어 있었음에 반해[보령(保寧)의 청소면(靑所面) 공미암포(公尾岩浦)에는 12개의 여각(旅閣)이 있었다] 서산의 경우는 각지에 하나씩 흩어져 있었다. 이는 이들 지역이 중심지 시장이 아니었음을 보여준다. 일제시기 서산에는 도선장이 13개가 있었는데, 도선장이 많았던 곳은 안면도(6곳)와 대산면이었다. 또한 기항포(奇航浦)는 서산 지역에 19개소가 있었는데 1920년대 중반 가장 번성했던 포구는 팔봉면 호리의 구도포, 성연면 명천리의 명천포, 근흥면 정죽리의 안흥항, 팔봉면 어송리의 창포, 정미면 천의리의 천의포, 소원면 신덕리의 후포 등이었다.

구한말 서산, 태안, 해미지역의 지방장시는 대체로 예산(특히 신례원장)이나 둔포장의 영향권 아래에 있었다. 특히 당시 예산장은, “팔도 굴지의 회시장(會市場)으로서 안성장을 능가한다”고 말해질 정도로 번성하였다. 당시 예산장을 보러오는 사람들은, “누구도 백리 내지 2,3백리의 거리로부터 오고 만선 화물이 폭주하지 않음이 없고”, “시장이 성대한 것이 충청남도 제일”이었다는 것이다. 즉 인천의 개항 전부터 예산은 서울의 화물이 남쪽으로 내려가는 요충에 해당했고, 개항후에도 예산의 상인이 인천, 공주, 강경 등지의 무역을 증계하였다. 구한말 일본의 영사관 조사자료에 따르면 서산읍내의 상업호는 100여호, 태안읍내는 4백여호, 해미읍내는 40여호 정도에 불과했다고 한다.

1908년 현재 서산지역에는 서산 읍내장(2, 7장), 태안 읍내장과 해미 읍내장(5, 10장), 해미 일도면 여미장(1, 6일), 해미 염술면 천의장(4, 9일) 등이 유명하였다. 하지만 이들 장은 대부분 소규모의 정기시장에 불과하였다. 통감부 조사자료

에 따르면 1908년 현재 서산 부근에서 가장 큰 장은 예산의 신례원장(3,8일)과 홍주의 광천장(4, 9일)이었다. 1909년의 한 조사에 따르면 서산장에는 서산, 태안, 면천, 당진 등지에서 생산된 잡곡, 면포, 어물, 도자기, 소, 누룩 등이 집산되었으며, 태안장에는 서산, 면천, 당진 등지에서 소금, 잡곡, 면포, 어류, 소, 도자기, 누룩 등이 거래되었다고 한다. 1908년 현재 서산장과 태안장의 거래액은 188,000원, 140,000원이었다.

한편, 1908년 10월 현재 서산 읍내에는 지방금융기관으로서 서산 금융조합(자본금 10만원)이 설립되어 있었다. 당시 조선인 부호들은 화적과 의병의 습격에 대비하여 여유자금을 상대적으로 안전한 금융조합에 맡기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는 서산지역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1908년 현재 충청남도에는 공주, 천안, 홍산, 서산, 홍주 지역에 금융조합이 결성되어 있었으며, 이 가운데 가장 영업실적이 우수한 조합은 공주와 홍주의 조합이었다. 1908년 현재 서산금융조합의 조합장은 이승화(李承和), 이사는 암야퇴조(岩野退助)였으며, 조합원은 250명이었다. 서산 금융조합의 주요 업무는 자금 대부, 위탁 판매, 물품 공동 구입 등이었으며, 영업구역은 서산, 태안, 면천, 해미, 당진 지역이었다.

(4) 근대교육 시설

구한말 애국계몽 운동 시기에 전국 각지에는 지역유지들의 주도로 사립학교가 우후죽순처럼 설립되어, 이른바 '교육구국운동'을 주도하였다. 교육구국운동의 주도자들은 민족의 생존을 위해서는 인재양성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 하나로 사재를 털어 근대적인 교육기관을 설립하였다. 가령 우리나라 최초로 1883년에 설립된 원산학교는 지역 인사들의 후원금을 바탕으로 문예반과 무예반을 두어 구국의 인재를 양성하였다. 이런 분위기는 1905년 을사보호조약의 체결과 더불어 충남 지역에서도 나타났다. 1908년 현재 충남지역의 공사립학교 수는 88개였으며, 전체 교사 수는 255명, 학생수는 3,820명이었다.

1908년 현재 서산, 태안, 해미 지역에는 6개의 교육기관이 존재하였으며, 학생 수는 대략 165명 정도였다. 하지만 당시 사립학교나 관립학교의 학생들은 양반사족들의 자식들이 아니라 대부분 향리나 서민 출신의 자제들이었다.

서산지역에 설립된 최초의 근대학교는 1906년 안면도에 설립된 광영학교(廣英學校)였다. 광영학교는 안면도 지역에서 명망성이 높았던 김병년(金炳年, 前承旨)이 설립한 것이었는데 그의 아들 김우규(金雨圭)는 교사로서 10여년간 많은 청년을 가르쳤다. 광명학교 졸업생들은 3·1운동 때 만세시위를 주도하는 등 지역사회 발전에 많은 활약을 하였다. 그러다가 광영학교는 1920년 2월 공립학교로 바뀌었다.

한편, 서산 읍내의 근대교육을 언급할 때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학교가 바로 풍전신숙(豊田新塾)과 서령학교(瑞寧學校)이다. 풍전신숙은 1907년 한동벽 등이 서산읍내에 설립한 학교인데 1908년 서령학교가 설립되면서 이에 흡수 통합되었다. 서령학교는 당시 서산군수였던 박승준(朴承俊)과 군내 유지 서병언[徐丙彦, 농민전쟁 시기 예리(禮吏)로서 공을 세움]에 의해 설립되었으며, 창립시의 위치는 일제시기 여자잠업견습소가 있었던 관청건물이었다. 서령학교는 설립과 동시에 고등,

〈표-7〉 瑞山, 泰安, 海美郡의 教育機關 設立 狀況 (1908년 현재)

학 교 명	학 교 위 치	개교일	창립자명	교사수	학생수
私立瑞寧學校	서산 군내면 성내동	1908.3	郡守와 邑內有志	2	35
私立德興學校	서산 오산면 덕지천	1908.2	?	6	20
私立豊田學校	서산 노지면 역리	1907.9	?	2	15
私立華陽學校	태안 국내면 옥동리	1909.10	李基祥	2	55
私立廣英新塾	태안 안면면 승언리	1906.11	金炳季	2	35
私立傳岩學校	해미 동면 휴암리	1908.2	李文浩	1	5

##. 앞의 『忠淸南道道勢一斑』, 173~179쪽.

심상(尋常) 2개 학과를 설치하고 35명의 학생들을 교육하였다. 설립 당시 학교운영의 중심인물은 이기상(李基祥, 후원자), 이철승(李喆承, 명예교수), 이병재(李秉在), 이용의(李容儀) 등이었다. 참고삼아 언급해둔다면 3·1 운동 직후 시기 서산 읍내에 설립된 청년회의 명칭이 서령청년회였던 것은 청년회의 구성원들이 대부분 서령학교의 동창생들이었기 때문이었다. 서령학교는 일제의 조선 강점 이후 교육정책의 변화과정에서 1911년 7월 공립학교로 전환되었다.

태안의 화양학교는 1909년 당시 태안군수였던 이기상(李基祥)이 그의 큰형인 이기석(李基奭)의 후원, 이기홍(李基洪), 김동희(金東熙), 백낙호(白樂昊), 손창현(孫昌顯), 이종규(李鍾圭) 등 지역 유지들의 의연금 580원, 그리고 동문리 및 남문리에서 기증한 정조(正租) 133석을 재원으로 하여 태안군 남문리에 설립한 학교였다. 설립 당시 위 학교는 영어와 기타 학과를 교수하였으며, 그 후 최태현(崔泰鉉), 김영제(金寧濟) 등이 교사로서 인재를 많이 양성하였다가 서령학교와 마찬가지로 1911년 9월 공립학교로 바뀌었다.

해미현 동면 휴암리에는 이문호(李文浩)가 설립한 전암학교(傳岩學校)가 있었는데 설립시 학생수는 33명이었으며, 교사는 최중대(崔鍾大)였다. 하지만 전암학교도 다른 사립학교와 마찬가지로 1912년 공립학교로 개체되었다. 또한 원일면 산지

동에 거주하던 김사현(金士鉉; 1913년 현재 56세, 광산 김씨)도 일제 초기 면장과 군참사직[郡參事職, 일종의 군정 자문위원(郡政 諮問委員)]을 역임하면서 학교설립에 많은 기여를 하였다고 하나 자세한 내용은 알수 없다.

3) 서산의 동학농민전쟁과 의병전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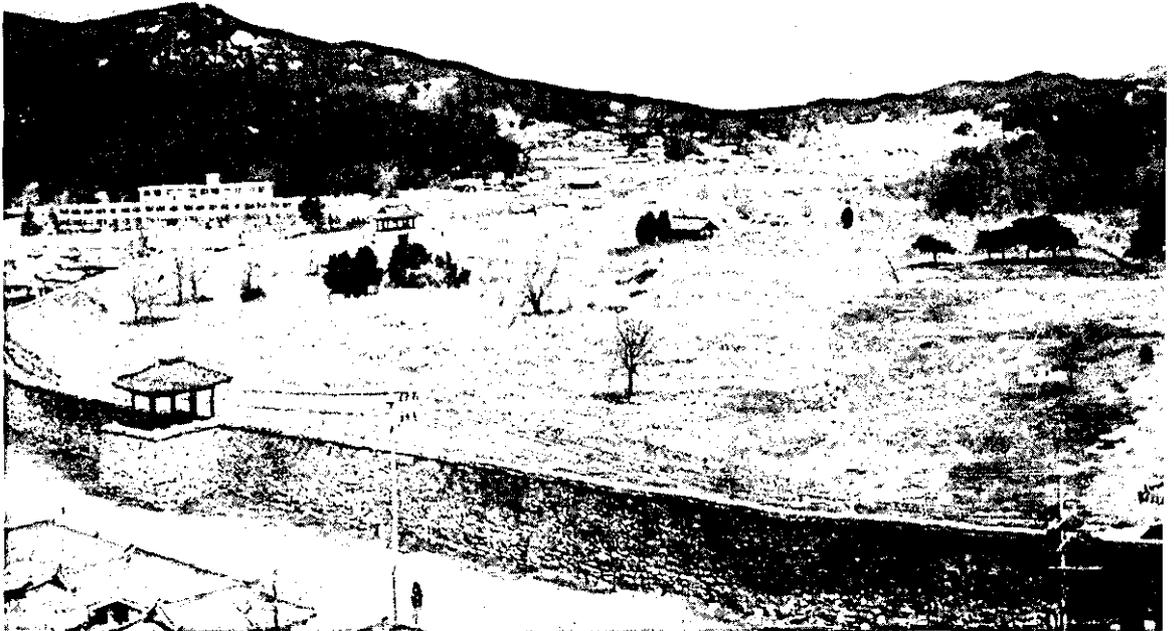
(1) 동학의 전파와 천주교 박해사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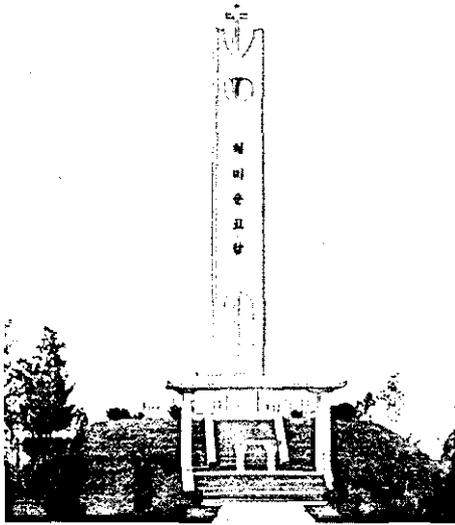
서산은 삼국시대에 백제와 신라가 대중국 전진기지로 활용한 교통상의 요충지였다. 따라서 중국과의 문물교류는 대부분 서산지역을 교두보로하여 이루어졌으며, 이런 관계로 서산지역에는 백제와 신라의 유물 유적이 많이 남아 있다. 예를들면 운산면 용현리의 마에삼존불과 태안 백화산의 마에삼존불 등은 당시 서산지역의 번성함을 보여주는 유력한 증거라 할수 있다. 또한 일제시대의 한 신문자료에 의하면, 서산 읍내는 대사동면(大寺洞面)이라는 지명을 통해서도 알수 있듯이 전체가 고대의 사찰터였다고 한다. 그러나 구한말 서산지역의 유명 사찰들은 거의 폐찰이 된 상태였다. 구한말까지 그나마 사세를 유지하고 있었던 절은 부석사(浮石寺) 하나 뿐이었다.

1908년 현재 서산, 태안, 해미 지역에는 여러 개의 종교시설이 있었으나 왕성한 포교활동을 전개하던 종교기관은 별로 없었다. 다만 농민전쟁 직전 시기 동학교도가 많았다는 사실, 그리고 해미에 천주교도가 많았다는 사실이 주목될 뿐이다. 충남 관찰부 내무부 조사에 따르면 1908년 현재 산신당은, ① 해미군 동면 백학동, ② 해미군 동면 읍내, ③ 해미군 부산면 고창동 등지에 남아 있었으며, 사찰은 ① 해미군 부산면 고창동 개심사(開心寺), ② 해미군 동면 일락동 일락사(日落寺), ③ 해미군 상도면 천장사(天藏寺), ④ 해미군 부산면 문수사(文殊寺), ⑤ 태안군 군내면 동문리 태을암(太乙庵), ⑥ 태안군 동이면 동문리 흥주사(興住寺), ⑦ 태안군 안흥면 성동리 태국사(泰國寺), ⑧ 서산군 마산면 취평리 부석사(浮石寺), ⑨ 서산군 노지면 행채동 죽사(竹寺), ⑩ 서산군 대산면 산전(山前) 망일사(望日寺) 등이 남아 있었으며, 해미 이도면, 동면, 읍내 등지에 4개(전체 신도수는 238명)의 천주교 성당이 있었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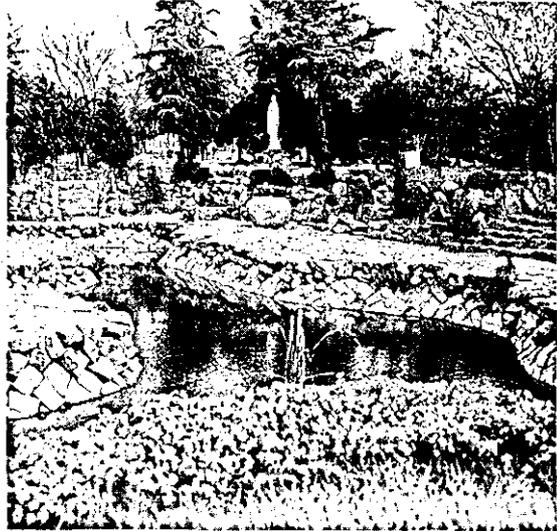
서산지역에 동학이 전파되기 시작한 것은 동학이 급속하게 전파될수 있었던 것은 1907년에 天道教의 제4대 교주로서 활약한 춘암 박인호[春菴 朴寅浩; 용호·도일(龍浩·道一)] 영향이었다. 박인호는 1855년 2월 1일에 충남 덕산군 장촌면 막동에서 태어나 29세되던 해인 1883년 3월 예산 오리장터에서 주점을 하는 김월화(金月花)의 남편 박씨를 통해 동학에 입도한뒤, 1884년 10월 공주 마곡사(公州 麻谷寺) 가섭암에서 해월 최시형을 모시고 손병희(孫秉熙; 1861~1922)와 함께 49일 동안 특별 기도를 올리는 등 교단의 중심인물로 활동하였다. 1890년에 들어

박인호는 복첩 교단의 중심인물로서 서산지역을 포함한 충남 서북부 지역에서 포교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한 결과, ① 서산에서는 장세헌(張世憲), 장세원(張世源), 장세화(張世華), 최금순(崔兢淳), 최동빈(崔東彬), 안재형(安裁衡), 안재덕(安裁德), 박인화(朴麟和), 홍칠봉(洪七鳳), 최영식(崔英植), 홍종식(洪鐘植), 김성덕(金聖德), 박동현(朴東鉉), 장희(張熙) 등을, ② 태안에서는 김병두(金秉斗), ③ 홍주에서 김주열(金周烈), 한규하(韓圭夏), 황운서(黃雲瑞), 김양화(金陽和), 최준모(崔俊模) 등을, ④ 해미에서는 박성장(朴聖章), 김의형(金義亨), 이용의(李龍儀), 이종보(李鐘甫) 등을 포섭할수 있었다. 하지만 다른 설에 따르면 서산지역에 동학을 최초로 전교한 사람들은 지곡면 산성리와 장현리에 동족마을을 이루고 살았던 최치원의 후손들이었다고 한다. 이를 좀더 자세히 소개한다면 1890년 최씨 동족마을인 장현리 거주의 최형순(崔亨淳)은 시제를 지내기 위해 경주를 내왕하였는데 그때 경주에서 최시형(崔時亨)을 만나 동학에 입교하게 되었으며, 이후 고향에 돌아와 포교활동을 전개하여 덕산, 당진, 해미, 홍주 방면은 물론이고 태안지방에까지 동학의 교세가 번져나갔다는 것이다. 하지만 본격적으로 서태안 지역에 동학이 전파된 것은 1883년 입교한 덕산 출신의 박인호(朴寅浩)가 내포지역에서 포교활동을 본격화하면서부터였다고 판단된다.





〈사진〉 해미에서의 천주교도
순교를 기리는 순교탑



〈사진〉 수많은 천주교도들이
처형된 곳으로 알려지는 진동방

〈사진〉 천주교 박해의 산 유적지 해미읍성 전경



포교과정이 어찌되었든지 당시 농민전쟁에 참여한 홍종식(洪鐘植)(『동학란실화』 『나라사상』 15집)에 따르면 서태안 지역의 농민들은 1894년 농민전쟁 당시 동학이 들어오자마자 “불과 며칠 사이에, 하루에 몇 십 명씩 입도를 하곤 하여, 마치 봄 잔디에 불이 붙듯한” 형국이었으며, 이로써 서산 일대는 “불과 1,2삭 안에 군 전체가 거의 동학화가 되어 버렸다”고 한다. 서태안 지역에서 동학이 득세한 이유는 홍종식의 표현대로, “말할 것도 없이 시운(時運)이 번복하는 까닭이요, 만민 평등을 표방한 까닭”이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가난뱅이, 상놈, 백정, 종놈 등 온갖 하층 계급은 너나 할 것없이 동학교도가 되었다. 그 결과 1894년 5월경에는 마을마다 포조직이 만들어지고 매일밤 동학 주문을 외우는 소리가 산골짜기를 울려 퍼졌다는 것이다. 하지만, 전쟁에 패배한 서태안 지역의 동학교도들은 곧바로 사로잡혀 처형당하거나 아니면 고향을 뒤로 하고 뱃길을 따라 타지역(주로 경인, 및 황해지역)으로 이주할 수 밖에 없었다.

서산지역(특히 해미)은 구한말 천주교 신도들의 순교지로 유명한데 이 지역에 천주교가 처음 전파된 것은 18세기 후반 흔히 ‘내포의 사도’로 알려진 이존창(李存昌)에 의해서였다. 이존창은 1786년에 조직된 ‘가성직자단(假聖職者團)’의 일원으로 내포지역의 선교를 담당했는데 주요 활동지역은 서산을 포함하여 아산, 합덕, 대흥, 청양, 홍성 등지였다. 하지만 천주교의 포교 과정은 순탄한 것만은 아니었다. 노론 세도정권은 천주교의 사상을 이단시하여 이들에 대한 박해(사육, 교난)를 가속화하였다. 해미의 첫 순교자는 1799년 2월에 순교한 박취득(朴取得)이었으며, 이후 서산지역에서는 여러 명의 순교자가 나왔다.

해미에서 순교자가 많이 나온 것은 구한말 해미지역에 천주교 교세가 강력했기 때문이었다. 해미에는 1860년대에 이미 천주교인들이 거주하고 있었으며, 이후에도 내포지역 천주교의 주요 거점이 되었다. 구한말 서산군 지역의 첫 순교자는 김강이(金綱伊; 시몬)였는데 그는 1795년 영세입교한 이후 박해를 피해 이리저리 숨어다니다가 1815년 체포되어 사형당하였다. 또한 1860년대 이후에는 운산면 용현리(강대이골)에 살던 천주교인들이 여럿 순교한 사실이 확인된다. 해미가 순교지로 유명해진 이유는 해미에 내포 8현을 관할하던 진영과 감옥이 설치되어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다가 1886년 조불수호조약이 체결된 직후 신앙의 자유가 공인되면서 내포지역에는 천주교의 교세가 급속히 확대되는 경향을 보였다. 1880년부터 충청도 지방의 전교는 두세(Doucet), 퀴를리에(Curlier) 신부가 맡았는데, 이들은 서산 소길리, 합덕 등에 공소(公所)를 설치하고 내포지역의 포교 활동에 박차를 가하였다. 1908년 서산 해미 공소는 결성의 수곡[水谷; 교항리(橋項里)] 본당으로 소속이 바뀌어 폴리(Polly)신부가 관장하였으나 1914년 성직자 부족으로 수곡 본당이 폐쇄되면서 서산지역은 다시 합덕 본당의 관할하에 들어가 라리보(Larribeau)신부의

지도를 받게 되었다. 서산에 설립된 최초의 천주교회는 1917년에 설립된 팔봉면 금학리(이후 상흥리로 이전) 본당이였다. 이때의 초대 신부는 안학만(安學滿)이었으며, 이후 폴리, 멜리장(Melijzan), 바로(Barraux) 신부가 주임신부를 역임하였다. 바로 신부는 서산지역의 천주교 발전을 위해 1937년 읍내의 동문밖에 동문천주교회를 설립하였으며, 1935년에는 해미의 순교자 집단 매장터를 발굴하기도 했다. 1927년 현재 서산내에는 2,077명의 천주교 신도가 있었는데, 포교당은 음암면 상흥리(上紅里) 외에 4개소가 더 있었다.

구한말 서산의 기독교 교세는 대단히 미약한 형편이었다. 서산지역의 경우는 3.1운동 직후 시기 심○신(沈○臣), 박재용(朴才龍)씨 등의 노력으로 서산면 읍내리에 예배당이 만들어지면서 비로소 포교가 시작되었으며, 이후 안면면, 해미면 등지에 예배당이 세워졌다. 1927년 현재 서산군내의 기독교도는 4백여명 안팎이었다. 또한 구세군도 3·1운동 직후 설립되었으나 활동이 부진하여 신도수는 1927년 현재 80명 내외였다고 한다.

(2) 서산·태안의 동학농민전쟁

조선왕조사회를 지탱해주던 양대 기둥은 봉건적인 신분제도와 토지(부세)제도였다. 그러나 19세기에 접어들면서 사회변화가 진전되면서 조선왕조사회의 양대 기둥은 뿌리째 흔들리기 시작하였다. 가령, 서민 지주나 부유한 사상인층이 나타났거나 아니면 몰락한 양반층이 나타났다는 것은 낡은 사회가 붕괴되고 새로운 사회가 태동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전조였다. 하지만 낡은 사회의 지지자인 봉건지배계급은 자신들의 패배를 쉽게 인정하지 않으려 했다. 즉 봉건지배 세력은 체제유지를 위해 세도가문 중심의 반동정치를 강화하였으며, 또 지방수령이나 토호사족들은 국가질서를 바로잡으려 하기보다는 한몫 챙기기에 여념이 없었다.

봉건지배세력의 무능과 부패라고 하는 인제는 19세기에 자연재해를 극성하게 만들었다. 인구가 1천만 남짓한 나라에서 3,4년에 한 번 꼴로 수십만의 아사자와 병사자가 발생하였다. 가령, 1821년부터 22년 사이에는 윤질(진성콜레라)이 번져, 한참 이후에도 “그때 이야기만 들어도 사람들이 벌벌 떨 정도”였다. 텅빈 마을, 골짜기마다 시체씩는 냄새가 진동하여, 암행시찰을 나선 어사들도 통곡하지 않을수 없었다. 근자까지 애용되었던 ‘염병(장티프스)할 놈’이라는 말은 당시의 농민들에게는 예사스런 욕이 아니었다.

이같은 조선왕조사회의 해체위기는 농민들로 하여금, “이놈의 세상 언제나 망하나, 난리나 났으면 좋겠네” 하는 식의 현실 부정의식, 즉 말세의식을 강요하였다. 어떤 농부는 배냇물도 채 안가신 아이 몫으로 군포(軍布)가 강요되자 자신의 생식기를 잘라 횡포한 권력에 저항하기도 했다. 자식을 낳아 키우는 것은 물론 노부모 조차 편히 모실수 없는 세상은 이미 살맛나는 세상은 아니었다. 19세기에 들어 미

특신양, 정감신양, 동학사상 등 체제부정적인 민중사상이 널리 유포되기 시작한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었다.

여기에 더하여 1876년 강제적인 개항으로 말미암아 농민들의 생활은 점점 더 악화되었다. 물론 일부의 약삭빠른 지주나 상인들은 개항을 즈음하여 형성된 경제 호황에 힘입어 거만의 부를 축적할 수 있었다. 예를들면 일제시기 충남의 천석꾼, 만석꾼들은 대부분 이때 벼슬밭이나 소금밭을 일구어 부를 축적한 사람들이었다. 한 연구에 의하면 1930년 현재 충남지역의 100정보 이상 경지를 소유한 대지주는 89명이었는데 이 가운데 토지집적 연대가 확인되는 68명의 대지주는 대부분이 개화기 한말에 부를 축적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농민들은 지방수령과 향리들의 가렴주구, 토호사족들의 수탈, 그리고 값싼 면제품의 대량 수입, 주곡인 쌀의 대량 유출 등으로 최소한의 생활조차 유지하기가 어려웠다.

사정이 이러하자 농민들은 봉건지배세력과 외세에 대항하여 다양한 투쟁을 전개하기 시작했다. 1812년의 관서농민항쟁(홍경래란), 1862년의 임술농민항쟁(진주민란) 등은 이런 과정에서 발생한 반봉건 투쟁이었으며, 1894년의 동학농민전쟁은 그 절정이었다. 다 알 듯이 1894년 동학농민군은 “폭정을 바로잡아 백성을 구하고(除暴救民), 나라를 보호하고 백성을 편안케 한다(保國安民)”는 구호를 내걸고 약



〈사진〉 동학농민군의 전투지역으로 알려지는 수석동 매현

1년여에 걸쳐 치열한 반외세, 반봉건투쟁을 전개하였다. 1894년 1월 고부 농민봉기를 필두로 동학농민군은 황토현, 황룡촌 등지에서 감영군과 경군을 차례로 격파하였으며, 그해 4월 말 전주성을 함락한 이후에는 한양까지 넘보는 위세를 자랑하였다. 그러나 동학농민군은 내부 진영의 문제와 전술상의 필요 때문에 전주에서 정부군과 화약(和約, 전주화약)을 맺고 같은해 5월경부터는 폐정개혁안을 내걸고 전라도지역의 53개 주(州)에서 이른바 ‘집강소(執綱所) 정치’를 실시하였다.

이처럼, 동학농민전쟁의 진원지는 전라도지방이었으나 동학 교단의 중심지(대도소가 충청북도 보은에 위치해 있었다)였던 충청도지역도 어느 지역 못지 않게 농민전쟁이 활발하였다. 특히 일본군의 경북군 점령을 계기로 촉발된 2차 농민전쟁 시기에는 동학교단, 즉 북접 농민군도 전라도 농민군(남접 농민군)과 함께 조직적으로 반외세 반봉건투쟁을 전개하였다. 예를들면 1894년 10월 경 남접 농민군 주력이 공주로 진격하고 있을 때, 최한규(崔漢圭)는 3천여명의 농민군을 거느리고 공주, 유구방면을 지켰으며, 정헌준(鄭元俊)은 5천여명의 농민군을 거느리고 옥천, 영동, 황간에서, 김복용(金福用), 이희인(李熙人) 등은 4천여명의 농민군을 거느리고 목천 세성산(細城山) 방면에서, 박덕칠(朴德七), 박인호(朴寅浩) 등은 7천여명의 농민군을 거느리고 홍주, 예산 방면에서 치열한 전투를 전개하였다.

더욱이 1894년 10월경에 있었던 내포지역 농민군의 홍주성전투는 동학농민전쟁이 전라도 지역만의 전쟁이 아니었음을 확연히 보여준다. 그런데 1894년 10월 홍주성 전투를 이끌었던 내포지역 동학농민군의 최초 집결지는 바로 서태안 지역이었으며, 홍주성 전투 패배 이후 농민군이 찾아든 최후의 도피처도 결국은 서태안 지역이었다. 이런 사실은 충남 서북부지역 농민군의 주력은 서태안 지역의 농민들이었음을 확연히 보여준다. 서산과 태안지역은 『호서읍지』의 표현대로 풍속이 “무(武)를 숭상하는 기질이 강”하였을 뿐만 아니라 호서 사대부나 경화사족들의 수탈과 억압이 극심한 지역이었으므로 봉기의 양상도 대단히 폭발적이었다.

① 봉기와 승전곡 전투

서산·태안지역을 포함하여 충남 서북부 지역에 일찍부터 동학이 전파되기 시작한 것은 春菴 朴寅浩 때문이었다. 박인호는 북접 교단의 중심인물로서 충남 서북부 지역에서 포교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선 결과, 신창에서 김경삼(金敬三)·곽완(郭玩)·정태영(丁泰榮)·이신교(李信教)·덕산에서 김선배(金萱培)·이종구(李鐘口)·최병헌(崔秉憲)·최동신(崔東信)·이진해(李鎭海)·고운학(高雲鶴)·고수인(高壽仁)·당진에서 박용태(朴瑑台)·김현구(金顯玖)·서산(瑞山)에서 장세헌(張世憲)·장세원(張世源)·장세화(張世華)·최금순(崔兢淳)·최동빈(崔東彬)·안재형(安載衡)·박인화(朴麟和)·홍칠봉(洪七鳳)·최영식(崔英植)·홍종식(洪鐘

植)·김성덕(金聖德)·박동현(朴東鉉)·장희(張熙), 태안에서 김병두(金秉斗), 홍주에서 김주열(金周烈)·한규하(韓圭夏)·황운서(黃雲瑞)·김양화(金陽和)·최준모(崔俊模), 예산에서 박희인(朴熙寅), 면천에서 이창구(李昌九)·한명순(韓明淳), 안면도에서 주병도(朱柄道)·김성근(金聖根)·김상집(金相集)·가영로(賈榮魯), 해미에서 박성장(朴聖章)·김의형(金義亨)·이용의(李龍儀)·이종보(李鐘甫), 남포에서 추용성(秋鏞聲)·김기창(金起昌) 등을 신도로 포섭할수 있었다고 한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서태안지역에서는 동학이 들어오자마자 요원의 불길처럼 교세가 확장되어 1894년 5월경에는 마을마다 포조직이 만들어지고 매일밤 동학 주문을 외우는 소리가 산골짜기를 울려 퍼졌다고 한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지방수령이나 사족들의 농민 수탈, 특히 동학교도들에 대한 수탈과 억압은 더욱 거세져만 갔다. 그러자 서태안지역의 동학교도들은 1894년 7월경부터 조직적인 반봉건투쟁을 전개하기 시작하였다. 김윤식의 『면양행견일기(沔陽行遣日記)』에 보이는 보현동 이진사 습격사건은 서산지역의 포교상황을 잘 보여주는 사례이다. 당시 농민군들은 서울 양반의 후예인 이진사라는 자가 동학군을 음해하고 재물을 탈취하자 그를 징벌하기 위해서 통문을 작성하고 마을마다 돌려 홍주 운천면 원벌(현재 서산시 운산면 원벌리)에서 대회를 열고 이진사의 집을 습격하였다고 한다.

서태안 지역에서 조직적인 농민봉기가 시작된 것은 1894년 10월 1일(양력, 10월 29일)이었는데 봉기의 직접적인 원인은 9월 14일 태안 군수 신백희(申百熙)와 충친부에서 파견된 별유사 김경제(別諭使 金慶濟)가 서태안지역의 동학교도를 귀화시킬 목적으로 동학 두령 30여인을 체포·투옥하였기 때문이었다. 이런 상황이 예포대도소(禮包大都所)에 보고 되고, 또 9월 30일 경 최시형의 '기포 훈시문'이 도달하자 충남 서북부 지역의 동학농민군은 거의 전지역에서 기포하기 시작했다. 동학의 2대 교주인 최시형은 남접 농민군이 봉기를 시작하였을 때 "때가 아니다"는 이유로 봉기에 반대하였으나 2차 농민전쟁이 시작되는 9월 무렵에는 "의(義)에 의지하여 화(禍)를 제거해야 한다"는 두령들의 주장 앞에 뜻을 굽히지 않을수 없었다.

이런 가운데 이북면 포지리의 접주 장성국(張聖國)은 10월 1일 밤에 햇불을 들고 10리 갯벌을 달려서 원북면 방갈리 접주 문장로(文章魯)의 집으로 가서, 거기에 모여든 김군집(金君執), 최맹춘(崔孟春), 집사(接司) 조응칠(曹應七), 문재석(文在錫), 문귀석(文龜錫), 도집(都集) 문장준(文章峻), 이광우(李廣宇), 문장권(文章權), 문준보(文俊甫), 문성열(文聖烈), 강인성(姜仁成), 안인묵(安仁默), 안현묵(安玄默), 김성칠(金成七), 김공필(金公弼), 강운재(姜雲在), 김가열(金可烈), 문장의(文章儀) 등과 함께 본격적인 동학 두령 구출계획을 수립하였다. 이때 결정된 계획은, 이치봉(李致奉)을 북부대장, 안현묵(安玄默)을 기수대장에 정하고, 기치를 들고 태안읍에 쳐들어가 동학두령들을 구출한다는 것이었다. 이런 계획에 따라 이들은

태안 관아에서 처형 순간에 있던 동학 두령 30여명을 구출한 뒤, 태안 군수 신백희와 종친부에서 파견한 김경제를 체포하여 장터에서 작두로 공개 참수하였다. 또한 같은 날(10월 1일) 서산에서도 관아 습격투쟁이 전개되었다. 당시 서산 농민군들은 서산군수 박정기(朴鉦基)를 울지촌으로 끌고나와 참수하고 인부(印符)를 압수했으며, 이방이었던 송봉훈도 타살하였다. 그런 뒤 서태안 지역의 농민군은 계속해서 관아와 관속들의 집을 방화하고, 이튿날 해미읍성을 점거하였다. 1894년 동학농민전쟁 시기 군수로 부임했다가 동학군에 피살당한 서산군수 박정기(朴鉦基)는 이후 증직으로 군무참의직(軍務參議職)을, 그리고 함께 피살된 이방 송봉훈(吏房 宋鳳勳)과 박후동(朴侯同)은 증직으로 군부주사직(軍部主事職)을 제수받았으며, 순절비(殉節碑)도 세워졌다. 또한 당시 예리(禮吏)였던 서세인[徐世麟-이후 서병언(徐丙彦)으로 개명함]은 궐패(闕牌)를 지고 경성으로 가서 서산지역의 전쟁실태를 정부 알리는 공을 세웠으며, 박정기의 후임으로는 토포사(討捕使)를 겸하여 성하영(成夏泳)이 부임하였다. 성하영은 이후 공주의 우금티 전투 등에서 농민전쟁을 진압한 공로를 인정받아 충청감사로 승진했다. 서태안지역의 농민군이 봉기 벽두부터 관아를 습격하여 군수와 아전을 가차없이 박살냈다는 사실은 이 지역의 농민봉기가 19세기에 흔히 있었던 민란과는 그 성격이 판이했음을 잘 보여준다. 사실, 19세기에 발생한 대부분의 농민봉기, 예를들면 1862년 70여개 이상의 군현에서 전개된 임술년의 농민봉기 과정에서도 농민들이 군수를 살해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왜냐하면 군수를 살해하는 행위는 국가권력, 즉 왕권에 대한 정면 도전이었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농민들은 아무리 악독한 수령이라 하더라도 모욕을 주거나 추방하는 선에서 마무리되는 것이 보통이었다. 하지만 서태안지역의 농민군들은 다른 지역과는 달리 군수를 죽이는 것으로부터 봉기를 시작하였다. 당시의 회고에 따르면 서태안지역의 농민군 지도자들은 내포지역 농민들을 중심으로 대오를 정비한 이후 곧바로 한양으로 쳐올라갈 계획이었다고 한다.

어찌되었든지, 서태안 농민군의 봉기가 본격화하자 예포대도소(禮包大都所)에서는 충남 서북부 지역의 10여개 군현에 농민군을 직접 파견하여 무기와 관곡을 탈취하였으며, 인근의 부자들로부터 의연금(백미, 흰소금, 돈 등)을 징수하여 본격적인 출전 준비를 갖추었다. 그러자 10월 11일 이승우(李勝宇)가 이끌던 관군은 예포대도소가 있던 목소(木巢)를 공격하여 농민군의 예봉을 꺾고 기선을 제압하려 했다. 당시 농민전쟁을 직접 겪은 조석현에 의하면 홍주목사겸 초토사였던 이승우는 日兵 300명과 官兵, 그리고 이설(李榭)·김복한(金福漢) 등이 이끄는 유회군(儒會軍) 수천명을 인솔하고 예포 대도소를 공격하여 3시간만에 동학군의 전열을 허물었다고 한다. 농민군이 패주하여 사방으로 흩어지자 관군은 대도소 사무실까지 쳐들어 가 불을 지르는 등 대단히 과민한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하지만 전투과정에서 동학농민군측은 한 사람의 사상자도 없었으나 관군측은 2명의 사망자와 3명의 중상

자가 발생하였다는 것이다.

목소전투 후 10여일 동안 관군(官軍)과 유회군(儒會軍)이 크게 일어나 일부 지역에서는 농민군이 흩어지는 등 전세가 부분적으로 악화되기도 했으나 서태안지역의 농민군은 여세를 몰아 10월 15일경 다시 전열을 가다듬고 재기포하였다. 10월 22일 예포대접주 박희인(朴熙寅)은 농민군을 이끌고 태안군 동면 역촌리에 주둔했다가, 23일 해미 구밀리로 진출하였으며, 24일에는 해미 여미평(서산군 운산면 여미리-필자)에 집결했다. 박인호의 회고에 의하면, 여미평에 농민군이 집결했을 때 적극적으로 인근의 농민들을 대오에 끌어들이었는데, 그 방법은 한 집에 장정 한명씩, 그리고 독자(獨子)는 가급적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태안지역에서는 노인들은 물론이고 어린애들까지 몰려 나오는 등 주변 농민들이 반응이 매우 적극적이었다고 한다. 게다가 총을 가진 포수들도 농민군 대오에 자진 참여하여 그 수가 무려 6천에 가까웠다는 것이다.

10월 11일 목소전투 이후 동학군과 관군이 다시 접전한 것은 10월 23일 여미평 부근의 고지와 해미성에서였다. 당시 해미에 주둔해 있던 관군은 동학군의 공격을 받아 열세에 처하자 일본군에 도움을 요청하였으며, 일본군은 이 연락을 받고 적송국봉(赤松國封) 소위로 하여금 1소대 2분대를 이끌고 해미지역으로 출동토록 했다. 그러자 일본군이 몰려온다는 소식을 접한 농민군은 중심 대오를 여미평에서 당시 당진군 면천면 사기소리에 위치한 승전목(勝戰項)으로 이동했다. 그 결과 동학군과 관군 및 일본군은 승전목에서 조우하여 다시 치열한 접전을 벌이게 된다. 승전목전투는 내포지역 농민이 일본군과 관군을 대상으로 전투를 벌여 최초로 승리를 거둔 곳이었다. 승전목은 당진군 면천읍 사기소리에서 서쪽으로 구룡리까지 약 3km의 좁은 계곡을 말하는데 농민군은 일본군과 관군을 물리치기 위해 지형이 유리한 승전목을 전투장소로 선택했던 것이었다. 전하는 이야기에 의하면, 옛날부터 이곳을 승전목이라 했는데 계곡의 북쪽에는 이배산(離背山, 220m), 남쪽에는 웅산(雄山, 253m)이 솟아 있어 현장을 답사할 경우 능선을 지키면 어떤 병력도 통과하기 어려운 요충지였음을 알수 있다. 『주한일본 공사관기록』의 전투상보를 보면 승전곡 전투에서 2,3만명의 농민군은 산길을 타고 오는 관군들을 바람과 산불을 활용하여 물리쳤다고 한다.

승전목 전투 이후 전세가 불리해지자 일본군과 관군은 덕산을 거쳐 홍주로 퇴각하였으며, 승리를 거둔 농민군은 면천에서 하루를 유진하고, 다음날 덕산 구만포(九萬浦)를 지나다가 10월 20일 경 관군과 접전을 하여 관군을 물리친 뒤 예산산성에 진을 쳤다. 예산군 고덕면의 구만포는 옛부터 양곡을 실어 나르던 중요한 포구의 하나였는데, 박인호(朴寅浩)의 출생지인 삼교 하포리와는 지척간이었다. 또한 농민군은 10월 26일을 전후하여 예산의 신례원 부근과 예산산성에서 이승우가 이끄는 관군, 그리고 김덕경이 이끄는 유회군과 치열한 접전을 벌였다. 예산산성 전

투의 경우 박인호(朴寅浩)의 기록을 보면, 관군은 당시 예산산성(禮山山城)에 진을 치고 대포를 묻고 동학군을 격파시킬 준비에 급급하였으나 동학군은 관군이 산성에 매복한 것을 알고 그대로 산성을 열 겹 스무 겹 에워싸고 습격전을 전개하였다는 것이다. 일설에 의하면, 산성전투에서 선봉 역할을 담당한 것은 화포군(火砲軍-총을 가진 동학군)이 아니고, 어린아이 달리 표현하면 도동[道童; 홍의동자(紅衣童子)]이었다고 한다. 예를들면 차상찬이 집필한 「갑오동학과 충청남도」(『개벽』46호)라는 글에 의하면 예산산성 전투시 서산에서 온 성명 미상의 12세 소년이 포연을 무릅쓰고 먼저 산성에 진입하여 칼로 수십명의 관군을 베었다는 구전 등이 그것이다. 이런 구전들은 사실이라기 보다는 당시 농민군의 승리를 민중들이 극적으로 구술하는 과정에서 형성된 것들이라 보인다. 당시 전투에서 관군은 은폐한 대포를 쏠 겨를도 없이 습격을 당하였으며, 전투과정에서 관군의 중군장이었던 김병돈(金秉暉)이 전사하였다고 한다.

예산산성 전투에서 승리를 거둔 동학군은 여세를 몰아 그 길로 예산읍으로 들이닥쳤으나 예산군수는 도망을 하여 아무 풍파도 없이 주민들의 환영까지 받으며 입성할 수 있었다. 예산을 완전히 장악한 농민군의 지도자들은 당시 예산에서 바로 한양으로 향할 것인가, 아니면 홍주의 관군 세력을 전멸시킨 뒤 한양으로 향할 것인가를 심각히 논의하였다. 그러나 결국은, 한양으로 진격하는 도중에 발생할지도 모를 후방 공격의 후환을 먼저 없애야 한다는 의견에 따라 농민군 주력은 한양 진군을 포기하고 먼저 홍주성을 점령할 것을 결정하였다. 이는 남접 농민군과 마찬가지로 북접, 즉 내포 농민군도 한양성 입성을 전투의 최종 목표로 삼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10월 27일 농민군은 홍주성을 공격하기 위해 예산읍내에서 덕산 역말 쪽으로 대오를 이동하였다. 그때 관군측은 이미 길목에 대포를 은폐하였을 뿐만 아니라 우물에 독약을 풀고 풀숲에는 마름쇠를 감추어 놓는 등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었다. 하지만 농민군은 평상시대로 저녁 후에 모여 주문을 외는 등 관군측의 동향에 아랑곳하지 않았다. 회고에 의하면 10월 28일은 마침 최제우(崔濟愚) 탄신 60주년 기념일이었으므로 대단히 성대한 종교의식을 개최하였다고 한다. 역말전투에 관한 한 가지 흥미로운 구전은, 주막 노파가 그 곳에서 싸움이 벌어지면 무죄한 사람이 무수히 피를 흘릴 것이라고 생각하여 관군의 대포 구멍에 물을 집어 넣었는데 이승우 관군은 이를 모르고 동학의 조화로 대포 구멍에서 물이 나온다고 생각하여 혼비백산 후퇴하였다는 구전이다. 그때문인지는 알수 없으나 어찌되었든지 그 다음날인 10월 28일 박인호(朴寅浩)의 지휘하에 농민군은 아무런 저항없이 오전 11시경 최제우 탄신 기도식을 마친 후 점심을 먹고 홍주성을 향해 진군했다. 그러자 홍주 관군과 일본군은 응봉(鷹峰: 매봉재, 현재 홍성고등학교 동쪽 편 봉우리 -필자)에서 농민군의 동향을 관측한 뒤 아무런 공격도 없이 홍주성 안으로 후퇴하였다. 당시 농민군은 홍주성 공격에 앞서 지금의 홍성읍 소향리와 대교리에 위치한 홍주 향교

와 매봉재 주변에 둔踞하고 있었는데 그 숫자는 3만명 정도였다고 한다.

② 홍주성전투

10월 28일과 29일 양일간에 전개된 홍주성 전투에는 3만여명에 이르는 충남 서북부 지역의 농민군들이 가담하였으나 앞서 있었던 농민군의 행군로나 홍주성 전투 패배 이후 농민군의 퇴각로를 보면 주력군은 역시 서태안지역의 농민들이었다고 판단된다. 당시 농민군의 숫자는 대략 3만명에 달했음에 반해 홍주성을 수비하던 일본군과 관군은 대략 1천여명에 불과했다. 그러나 무기나 규율면에서 일본군과 관군은 농민군보다 월등한 입장에 있었다. 홍주성전투의 서막은 빙고재전투였다. 농민군은 홍주성을 함락하기 위하여 홍성 서북편의 빙고재를 향하였으며, 일본군과 관군은 빙고재에서 농민군을 저지하고자 했다. 그러나 관군과 일본군은 농민군의 위세에 놀려 성안으로 작전상 후퇴를 하여 산발적으로 포사격을 하면서 농민군의 접근을 저지하였다. 그러자 농민군은 야음을 틈타 홍주성의 정문인 동문(조양문)쪽을 습격하였으나 일본군과 관군의 집중포화에 밀려 용봉 고개를 넘어 다시 해미방면으로 퇴각하였다.

농민군측의 기록에 따르면 예산에서 홍주로 진격한 서태안 지역의 동학농민군은 홍주성을 함락하기 위해 동문을 파쇄하기로 결정하였다고 한다. 이를 위해 농민군은 주변 인가에서 수집한 수만 단의 벼짚(藁)을 성밖에 쌓고 이를 덮고 성을 넘어서려 했다. 하지만 이런 공격전술은 관군의 화공을 감안하지 못한 잘못된 전술이었다. 공격이 시작되자 동학농민군측은 일시에 사상자가 수 천명에 달하는 피해를 입었으며, 이로 말미암아 대오가 급격하게 붕괴되었다. 그러자 이틈을 노려 관군측은 성밖을 나와 맹렬한 추격전을 펼쳤다. 그 결과 당시 홍주성 인근의 들판에는 시체가 산을 이루고 피가 내를 이루어 차마 보지 못할 형편이었다고 한다.

홍주성 전투의 일본군 지휘관인 적송소위(赤松少尉)의 보고에 따르면 홍주성전투에서 사망한 농민군의 숫자는 200명이었다고 하나, 이후 포로로 잡힌 농민군도 대부분 참형이나 총살형에 처해졌으므로 이를 합친다면 대략 6백 내지 7백명 정도가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홍주성 전투에서 농민군측은 야전사령관 격인 이창구(李昌九)와 이군자(李君子), 그리고 쟁쟁한 접주들과 젊고 날랜 전사들을 무수히 잃어버리는 참패를 당하였다. 10월 29일 날이 밝아 오자 동학농민군은 다시 대오를 정비한 뒤 갈산과 덕산 방면으로 퇴각하여 해미성에 웅거하였다.

③ 해미성전투와 서산매현전투

홍주성 전투 이후 그때까지 대오를 떠나지 않은 농민군들은 해미에 운집하여 다시 전열을 가다듬었다. 그러나 그때는 이미 장위영 영관 겸 죽산부사였던 이두황(李

斗璜)군의 가세로 전세가 완전히 기울어진 상황이었다. 당시 이두황은 막강한 위세를 자랑하던 경군(京軍)을 이끌고 청주 인근의 세성산(細城山)에서 그곳의 농민군을 진압한 뒤 일시 공주로 진출했다가 충남 서북부 지역의 상황이 예사롭지 않자 다시 유구 예산길을 거쳐 해미성에 당도하였다. 해미성에 당도한 후 이두황군은 11월 7일 농민군이 아침 식사할 때를 노려 해미성을 공격하여 농민군과 2시간 남짓 혈전을 벌였다. 이 때 농민군 40여명이 전사하고 100여명이 부상하였다. 전세가 불리하자 농민군은 서산 쪽으로 후퇴하여, 구산성(귀밀성)과 저성(도루성)에 진을 쳤으나 그날 오후 이두황군의 공격을 받고 치명적인 타격을 받았다. 당시 농민군은 해미 전투에서 불량기(佛郎器) 11좌, 대포(大砲) 4좌, 자포총(子砲銃) 22자루, 천포총 10자루, 조총 43자루, 화약(火藥) 500근 등을 관군에 빼앗겼고, 29명의 농민군이 포로가 되었다. 해미성 전투 이후 서산의 동학군을 추격하기 위해 이두황군은 11월 8일 1개 중대[참령관 원세록(元世祿)]를 서산지역으로 급파하였다.

구산성과 저성에서 패한 농민군은 곧 당진·면천·서산·태안 지역으로 흩어졌으며, 그 중 서산 매현(梅峴)에 진을 친 수는 천여명이 넘었다. 하지만 이들은 서산읍에 웅거하면서 농민군의 동향을 예의 감시하고 있었던 관군의 습격을 받고 결국은 대오가 완전히 깨지고 말았다. 이두황군의 보고에 따르면 관군은 농민군의 식사 시간을 기다려 일시에 습격하는 전술을 구사하여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는 것이다. 이 전투에서 관군은 대포 1문을 포함하여 여러명의 포로를 붙잡았다고 한다. 동학농민군의 마지막 전투지인 서산 매현(梅峴)은 부춘산 마사라는 설과 수석동 소탐산 북편이라는 설이 있으나 서산 관아에서 동학군이 밥짓는 연기를 보았다는 기록을 미루어 보아 기록상에 보이는 매현은 수석동 매현으로 추정된다.

충남 서북부 지역의 동학농민전쟁에는 충남 서북부 지역 전체 농민들이 참여하였다. 그러나 최초로 중심대오가 결성된 곳이 태안·서산지역이었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 전투가 벌어진 것도 해미와 서산이었다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역시 주력은 서산·태안 지역의 농민들이었다고 판단된다. 서·태안지역의 농민전쟁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매현전투에서 끝이 났으나 관군과 유희군의 탄압은 이후에도 오랫동안 계속되었다. 그러자 농민전쟁에 참여했던 서·태안 지역의 농민들은 고향을 버리고 뱃길로 인천이나 황해도 지역으로 이주하였으며, 고향에 그대로 남았던 사람들은 일제시기 천도교도로서 동학정신을 계승하여 지역사회운동의 발전에 여러 모로 기여하였다.

(3) 서산·태안지역의 의병항쟁

1894년 동학농민전쟁을 진압하고, 또 청국과의 전쟁을 승리로 이끈 일제는 열강의 방해받지 않는 가운데 조선에 대한 침략을 가일층 서둘렀다. 예를들면 일제는 1894년과 1895년 사이에 친일내각(김홍집, 박영효)을 앞세워 이른바 갑오·을

미개혁을 실시하였는데 이때의 개혁은 조선을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조선을 '보호국화' 하기 위한 일종의 사전포석에 다름 아니었다. 하지만 일제의 보호국화정책은 러시아를 중심으로한 열강간섭(이른바 러시아, 독일, 프랑스의 '삼국간섭')으로 말미암아 일시적으로 좌절되고 말았다. 그러자 1895년 일본은 친러적인 경향을 가지고 있었던 민비를 시해하는 만행(을미왜변)을 저질렀다.

구한말의 의병운동은 1895년 민비 살해사건을 계기로 촉발되어 1910년 '합방'이 되는 그날까지 계속되었으며, '합방' 이후에도 유인석 등 일부의 의병세력은 만주로 진출하여 독립군운동을 주도하였다. 구한말 의병운동은 대체로 세 단계를 거치면서 발전하였는데 그 첫째는 1895년 민비시해와 단발령에 반발하여 일어난 을미의병(乙未義兵)이며, 둘째는 1905년 을사보호조약 체결 이후에 일어난 을사의병(乙巳義兵)이며, 셋째는 1907년 군대해산 이후에 전개된 정미의병이었다. 하지만 의병운동이 가장 활발하였던 시기는 역시 1907년 군대 해산 이후였다.

내포의 중심도시인 홍주에서는 1895년 을미년에 복암 이설(復菴 李楔; 1850~1906)과 지산 김복한(志山 金福漢; 1860~1924)등이 의병운동을 주도한 바가 있으며, 또 1906년에는 을사보호조약의 체결에 반대하여 전참판 민종식(閔宗植)이 의병을 일으키기도 했다. 가령, 민종식 의병은 홍주성에 거점을 두고 총병력 500명, 대포도 75문이나 갖춘 대부대였으나 일본군의 습격으로 홍주성이 함락되자 곧바로 해산되었다. 홍주성 전투에서 전사한 의병의 숫자는 대략 80명 정도였으며, 포로는 150명이었다고 한다. 민종식은 일본군의 포로가 되어 결국 유배형에 처해졌다.

하지만 서·태안 지역의 경우는 을미년은 물론이고 보호조약 체결 이후에도 의병운동이 거의 일어나지 않았다. 그렇다면 이는 어떤 이유 때문일까? 먼저 주목해야 할 점은 서·태안 지역은 유생들이 밀집해 있었던 지역이 아니라는 점이다. 당시 충남지역의 의병운동은 양반유생들의 밀집지역인 회덕이나 홍성 근방에서 활발하였다. 또한 홍주에서 의병을 일으킨 의병지도자들은 대부분 농민전쟁 시기 농민군을 탄압했던 유희군(儒會軍) 지도자였다.

동학농민전쟁 시기 서·태안지역에는 농민군의 대응 세력으로서 유희군(儒會軍)과 의병(義兵)의 활약이 두드러졌다. 특히 유희군의 활약이 두드러졌던 지역은 홍주, 서산, 대흥, 보령지역이었는데 홍주 을미의병의 중심인물이었던 김복한(金福漢)도 농민군의 토벌에 상당한 공을 세웠다고 한다. 예를들면 김복한의 문집에 보이는, "그해 겨울 동비(東匪)가 창궐(猖獗)하여 홍주목사 이승우(李勝宇)가 이를 토벌할때 선생은 마침 읍내에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왕래하여 서로 대책을 논의하였을 뿐만 아니라 몸소 군졸을 순무(巡撫)하여 감탄을 자아내기도 했다"는 기록은 이를 반증하는 하나의 보기이다. 특히 김복한은 농민전쟁이 발발하자 농민군 진압을 위한 대비책으로, "첫째가 선병(選兵)이며, 둘째가 수보(修堡)"라고 하면서

홍주성의 방비와 아울러 임존성과 월산·용봉산 등지의 산성을 재정비할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또한 김복한과 함께 홍주지역의 을미의병운동을 주도한 이세영(李世永: 1869~1938)과 이봉학(李鳳學)도 동학농민전쟁 때 홍주성의 유회군(儒會軍)을 주도하였던 인물이었다.

한편, 홍주지역 을미의병의 중심인물인 이설도 농민군의 토벌에 상당한 공을 세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설은 갑오년에 정부에서 사간(司諫)으로 있을 때, '유남요진소회소(諭南搖陣所懷疏)'를 고종에게 올려 토벌대책을 개진한 바 있으며, 1894년 4월에는 홍주 구항으로 낙향하여 농민전쟁이 끝날 때까지 호연초토사 이승우와 서신 연락을 하면서 여러 가지 조언을 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이설이 이끌던 유회군은 신례원과 홍주성 전투에서 많은 공을 세웠다고 한다. 하지만 자세한 사정은 알수 없다.

추측컨대, 이같은 사정으로 말미암아 서태안 지역의 농민들은 의병운동에 대단히 소극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예를들면, 1907년부터 1908년 폭도 피해자 통계를 보면 다른 지역과는 달리 서산, 태안, 해미지역에서는 거의 전투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토벌전으로 인한 피해도 거의 없었다. 이는 서태안 지역에서 의병활동이 거의 없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반증한다. 충남 내무부의 집계에 따르면 당시 서태안 지역과는 달리 홍성, 회덕 등 충남 전역에서는 의병운동이 활발하여 전투과정에서 73명이 사망하고 302채의 가옥이 불탔다. 하지만 서산지역의 경우는 의병운동으로 인한 간접 피해자, 즉 이재자(罹災者)가 해미(5명)와 서산(4명)에 약간 명이 발생했을 뿐이었다.

2. 일제하의 서산

1) 일제시기 서산의 인문지리 환경

(1) 서산의 인구 및 직업 구성

우리나라의 경우 근대적인 의미의 인구조사(인구센서스)가 처음 시작된 것은 1930년이였다. 물론 1925년에도 간이국세조사가 실시되기는 했으나 이때의 통계(특히 직업별 호구 통계)는 조사방법상의 문제 때문에 신뢰도가 떨어진다. 가령, 1930년 국세조사와 1925년 간이국세조사를 비교하면, 1925년 통계에는 '무업자 및 직업 불신고자'가 1,270명에 불과했던데 반해 1930년 조사에서는 무직자가 무려 93,779명이나 집계되는 등 많은 차이가 엿보인다. 이런 수치상의 차이는 상황이 변화했기 때문이 아니라 조사방법이 달랐기 때문에 나타난 것이었다. 따라서 아

〈표-8〉 일제시대 서산의 호구와 인구 현황

구 분		1923	1927	1932	1934	1935	1937
조선인	호구	23,669	24,087	25,676	26,348	27,190	27,558
	인구	126,091	135,798	143,001	146,993	151,832	155,289
일본인	호구	148	181	198	210	214	225
	인구	533	653	690	811	828	826
외국인	호구	50	53	33	39	40	27
	인구	196	206	77	123	131	73
합계	호구	23,867	24,321	25,907	26,597	27,444	27,810
	인구	126,802	136,657	143,768	147,927	152,738	156,188
충청남도	호구	212,689	223,396	242,159	248,166	248,166	261,630
	인구	1,158,71	1,258,63	1,374,81	1,419,55	1,469,64	1,504,70

##. 忠淸南道內務局 編, 『道勢一斑』 1923년판, 1928년판, 1933년판, 1935년판, 1936년판, 1938년판 참조 작성.

##. 위표에 보이는 외국인은 몇몇 선교사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중국인(상인)이었다.

래에서는 1930년의 국세조사보고를 기초로 일제시기 서산군의 인구와 직업구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국세조사에 따르면 1930년 당시 서산의 총인구는 145,841명이었으며, 인구가 가장 많은 면은 서산면 9,795명, 운산면 9,670명, 해미면 9,867명, 안면면 9,625명, 태안면 10,347명 등이었다. 이런 수치를 1908년 현재의 서산, 해미, 태안의 전체 인구수와 비교하면 대략 20년 사이에 상당한 인구증가가 있었음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1908년 현재 서산, 태안, 해미군의 전체인구는 5만 6천여명에 불과하였다. 1930년 현재 충남 도내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군은 서산군이었으며, 가장 적은 군은 청양군(67,514명)이었다.

한편, 남녀의 구성비를 보면 서산군은 여자 100에 대하여 남자는 104.77명으로 충남 전체 비율(100:105.55)과 비교하면 남자의 비율이 약간 낮은 편이었다. 당시 서산군에서 남자의 비율이 가장 높았던 면은 서산면과 운산면이었으며, 팔봉면의 경우는 100대 100.22로 군내에서 여자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당시 성비율을 보면 대개 도시화가 진전된 지역에는 남성들이, 그리고 농촌이나 어촌지역은 상대적으로 여성의 비율이 약간씩 높았음을 알 수 있다. 예를들면 충남도내에서 가장 남자비율이 높았던 지역은 대전군 외남면(100: 122.85)과 강경(100: 118)이었으며, 여자의 비율이 가장 높았던 지역은 부여군 내산면(100: 97.09)과 서천군 서면(100: 97.21)이었다.

〈표-9〉 일제하 서산읍내 인구의 연도별 현황

구 분		1915	1923	1927	1932	1934	1935	1936
조선인	호수	345	440	-	-	-	-	-
	인구	1,403	2,218	2,720	9,433	9,958	10,126	10,307
일본인	호수	83	65	-	-	-	-	-
	인구	216	274	395	352	442	446	454
외국인	호수	7	23	-	-	-	-	-
	인구	50	87	74	33	64	65	69
합 계	호수	435	528	-	-	-	-	-
	인구	1,669	2,579	3,189	9,818	10,464	10,637	10,830

##. 忠淸南道 內務局 編, 『道勢一斑』 1915년판, 1923년판,
1928년판, 1933년판, 1935년판, 1936년판, 1937년판 참조.

〈표-10〉 일제하 서산군의 직업별 인구 구성

구 분		서산	홍성	예산	당진	공주	충남
전체	남	44,762	26,590	31,423	25,878	38,721	429,235
	여	7,300	6,982	6,769	7,898	12,331	131,909
농업	남	39,766	23,127	26,645	23,017	32,044	361,042
	여	3,862	4,665	4,349	6,371	7,488	64,718
수산업	남	599	72	6	75	9	2,070
	여	1,330	55	3	205	-	2,434
광업	남	10	56	4	12	65	562
	여	-	-	-	-	-	10
공업	남	910	611	874	342	1,466	13,967
	여	155	646	635	173	2,315	42,096
상업	남	1,240	1,227	1,272	646	1,603	17,074
	여	1,034	1,034	1,004	571	1,349	13,707
교통업	남	360	136	200	261	249	3,914
	여	1	6	5	-	18	130
공무 자유업	남	619	418	501	318	1,048	7,806
	여	32	30	52	15	180	2,675
가사 사용인	남	148	137	228	461	189	6,097
	여	597	452	522	473	681	20,125
기타	남	1,110	806	1,693	746	2,048	1,942
	여	289	94	199	90	300	280,878
무직	남	29,858	17,914	21,060	17,739	24,369	540,866
	여	63,921	35,855	42,218	33,395	47,017	

##. 朝鮮總督府 編, 『昭和五年 朝鮮國勢調査報告』 道篇 第卷三(忠淸南道) 52~58쪽 참조.

〈표-11〉 충남의 특정 직업자 군별 분포 (1930년 현재)

구 분	서 산	홍 성	예 산	충 남
마 립	31	12	23	299
농업노동자	5,910	3,073	3,861	44,390
양축업주	3	15	3	145
양잠업주	294	522	432	4,963
어업주	248	23	2	707
어업노동자	1,303	80	3	2,736
직물업주	3	70	33	10,240
피복재봉업주	11	8	9	174
정미업주	2	5	4	73
양조업주	28	14	17	234
물품판매업주	309	760	743	8,995
고리대업주	20	11	8	168
여관업주	63	46	41	655
요리점업주	407	59	61	1,730
기 생	24	24	4	328
인력거꾼	7	10	24	126
학교직원	74	64	64	984
목 사	3	17	7	83
의 사	14	14	15	238
관청회사급사	6	11	12	162
소작료생활자	32	41	93	910
가사사용인	739	586	746	8,568
학 생	4,382	1,860	3,265	45,670

##. 인구비율을 감안한 구체적인 비교는 지면관계상 생략하였다. 1930년 현재 서산의 인구는 145,841명, 홍성의 인구는 87,341명, 예산의 인구는 101,476명, 충남의 전체 인구는 1,382,888명이었다. 즉 서산의 인구는 홍성보다는 1.7배, 예산보다는 1.4배 정도 더 많았으며, 충남 전체 인구 가운데 서산 인구의 비중은 10.6%, 즉 1할을 약간 상회하는 비율이었다.

한편 〈표-9〉에 근거하여 서산 읍내 인구의 변동사항을 살펴보면 1932년에 갑작스럽게 인구가 팽창했음을 볼수 있다. 이는 서산의 시가지 인구가 이때 급팽창했기 때문이 아니라 1931년 행정구역 개편시 서산면의 주변지역이 읍으로 편입되었기 때

문이었다. 서산읍은 다른 군의 읍에 비해 지역 중심성이 상당히 뒤떨어진 편이었다.

또한, 面別로 인구 구성을 살펴보면 1925년 말 현재 인구가 가장 많은 면은 태안면(9,026명), 안면면(8,689명), 운산면(8,656명), 서산면(8,276명, 그 가운데 일본인 364명, 외국인 75명)이었으며, 인구가 적은 면은 대호지, 성연, 이북면 등이었다. 인구가 적은 면의 인구 수는 대체로 인구가 많은 면의 절반 정도 수준이었다. 또한 서산면을 제외하고 일본인이 가장 많이 거주하였던 면은 근흥(51명), 해미(41명), 운산(30명), 태안(25명)이었으며, 외국인(대부분 중국인)이 가장 많이 거주하던 면은 정미(36명)면이었다.

1930년 현재 서산지역 인구의 직업별 분포(〈표-10〉 참조)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주민은 농업에 종사하고 있었음을 볼수 있으며, 약간 특징적인 점은 어업인구가 비교적 많았다는 점, 그러나 인구비례를 감안하면 상업과 공업 인구는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적었다는 점 등이다. 한편, 공업인구 가운데 남자의 비율이 다른 지역에 비해 높았던 것은 서산군에 염업 노동자가 밀집해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교통업 인구가 다른 지역에 비해 약간 많은 것은 특별히 교통이 발달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해운업(여객선) 종사자들이 많았기 때문이었다. 서산군은 전체 직업자 가운데 여성의 비율이 다른 지역에 비해 비교적 낮았는데, 이는 여성노동자들의 활동이 매우 부진했음을 말해준다. 그리고 공무자유업 인구가 비교적 많은 것은 다른 지역에 비해 면수가 많았기 때문이었다(20개면).

또한 〈표-11〉에 근거하여 특정 직종만을 비교해 보면 첫째, 마름의 숫자가 다른 지역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았음이 확인되는데 이는 다른 지역에 비해 서산군에 부채 지주, 특히 경성 소재 지주들이 많았기 때문이었다. 서산군에는 군내에 거주하는 소작료 생활자가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었다. 둘째 어업주, 특히 어업 노동자가 많다는 점이다. 이는 앞서도 언급하였듯이, 서산에는 소규모의 포구를 중심으로 연안어업이 발달하였기 때문이었다. 일제시기 충청도 어민의 반수는 서산 사람이었다.

셋째, 양잠·양축업, 정미업 등이 다른 지역에 비해 부진하였다는 점이다. 이는 다른 지역에 비해 농업, 특히 쌀을 매집하고 가공하는 시설이 부족하였음을 말해준다. 넷째, 직물업 종사자가 다른 지역에 비해 턱없이 적었다는 점이다. 이때의 직물업은 비록 소규모의 가내수공업을 일컫는 것이기는 하나 이런 사실은 서산지역의 저급한 공업발달 수준을 보여준다. 다섯째 물품 판매업주의 수가 다른 지역에 비해 적었다는 점이다. 앞서도 언급하였듯이 서산 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 상업이 미발달한 지역이었다. 여섯째, 여관이 많은 점이 눈에 띄인다. 당시 서산군의 여관 숫자는 군의 면적과 인구규모를 감안한다 하더라도 매우 많은 숫자이다. 추측컨대 당시 서산지역에 여관업이 발달한 이유는 교통상의 문제, 그리고 해안 포구 때문이 아닐까 추측된다. 일곱째, 양조장의 숫자가 많은 것이 눈에 띄인다. 서산지역의 양조장

숫자는 면의 숫자가 많았다는 점, 또는 지역이 넓고 인구가 많았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많은 수치인데 이런 현상은 어업이나 포구 발달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여덟째, 다른 지역에 비해 금융기관은 발달하지 않은 반면 고리대업이 성행하였다는 것이 눈에 뜨인다. 추측컨대 이 또한 어업, 혹은 어업노동자의 독특한 생활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던 현상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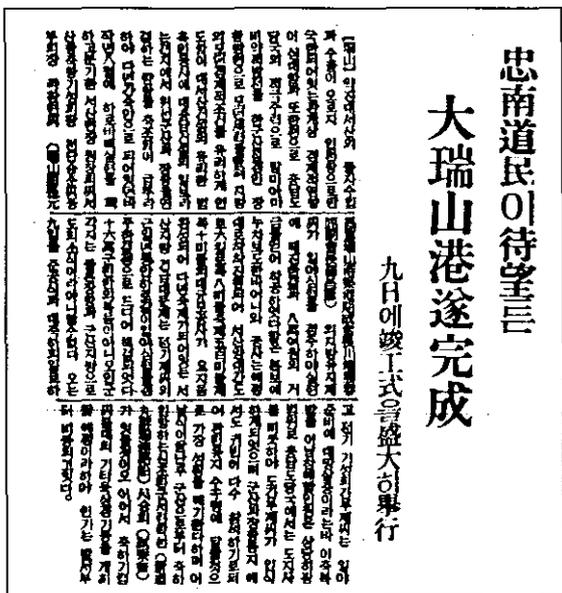
(2) 서산의 철도 및 도로 사정

서산지역은 철도나 1등 국도가 지나지 않았으므로 육지교통은 불편하였으나 포구가 발달하여 전근대 시기부터 인천 등지와와의 교통이 비교적 자유로웠다. 1920년대 중반 서산지역에서 가장 번성했던 포구는 팔봉면 호리의 구도포, 성연면 명천리의 명천포, 서산면의 덕지천포, 근흥면 정죽리의 안홍항, 팔봉면 어송리의 창포, 정미면 천의리의 천의포, 해미면 개삼포, 소원면 신덕리의 후포 등이었다. 1928년경부터 명천포에는 예산환(禮山丸)과 녹도환(鹿島丸)이 인천을 정기 운항하고 있었는데, 1932년 9월 17일에는 록도환이 침몰하여 50여명의 서산사람들이 희생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오늘날에도 인천지역에는 서태안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다.

하지만 일제시기 서산의 교통은 장항선[당시 명칭은 경남선(京南線)]의 개통과 더불어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장항선은 천안에 본사를 둔 자본금 1천만원의 경남철도주식회사(京南鐵道株式會社; 1920년 2월 설립)에 의해 착공되었는데,



〈사진〉 일제시기 서산을 준원여관 (현 서산시청앞 유료주차장자리)



〈사진〉 서산항 완성 기사(『동아일보』 1940년 6월 5일)

1922년 천안 - 온양간 구간이 私鐵로 부설되고, 또 1931년 8월에 온양에서 장항에 이르는 구간이 부설됨으로서 완전 개통을 보게 되었다. 이처럼 철도교통이 발달하자 주로 인천을 통해 반출되었던 충남 서북부지역의 물산은 철도를 통해 장항이나 경성 지역으로 이출되기 시작하였다. 사정이 이러하자 인천의 상공회의소는 총독부에 불항타개를 위한 구제책을 호소하기도 했다. 경남철도 주식회사는 이후 철도 구간을 확장하여 장호원 → 안성 → 천안 → 홍성 → 장항에 이르는 이른바 '경남철도 충남선'을 완공하였다. 하지만 인천이나 호남지방으로의 여행은 천안이나 대전을 우회하는 철도길보다는 여전히 뱃길이 훨씬 편리하고 경제적이었다고 한다.

또한, 장항선이 개통되고 장항부두가 완성되면서 장항과 군산의 중요성이 커지자 서산 유지들은 뱃길로 장항과 군산을 잇는 정기여객선의 취항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그 일환으로 1939년 8월, "서산면장 원창희(元昌喜)와 서산항축항기성회장 천단승춘(川端勝春), 부회장 나창헌(羅昌憲)씨 외 지방유지 제씨(諸氏)"는 8만여원의 거금을 얻어 서산-양대간 도로 6km를 건설하고 1940년 6월 9일 준공식과 더불어 대축하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이런 노력의 결과 1940년 서산을 양대리 들장에 서산항이 완공되었으며, 곧이어 서산과 군산을 연결하는 정기 연락선(삼화해운사)이 개통되었다. 이로써 인천으로만 이어지던 서산의 뱃길은 군산으로까지 확대되었다.

하지만 해방과 동시에 목포와 군산과 장항이 몰락하듯이 충남 서북부지역의 경제도 급속한 침체를 겪게 된다. 즉 일제시기 목포와 군산과 장항은 일본과 남만주를 연결하는 일종의 중간 기착지였으나 해방과 더불어 이런 역할이 두절됨으로써

도시가 거의 폐허화되다시피 했다. 특히 장항에는 보령지역의 저질 석탄과 남만주 지역의 구리광석 등을 들여다 제련하여 일본으로 수출하던 장항제련소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충남 서북부지역에서 생산된 쌀과 면화를 가공하던 정미소(충남정미소 등)와 제면소(충남제면소 등)가 즐비했었다.

서산군을 통과한 중심 도로는 2등 도로(도청 관리, 폭 3칸)인 서산(瑞山)~군산선(群山線)이었다. 이 도로는 서산 읍내에서 음암(수석리), 해미, 고북, 갈산을 거쳐 홍성에 이르는 도로였는데 1913년에 개·수축되었다. 또한 1926년 현재 서산군이 직접 관리한 3등 도로(폭 2칸)로는, 서산읍내에서 인지와 팔봉을 거쳐 태안 동문리에 이르는 서산~태안선, 서산읍내에서 음암(상흥리)과 운산 수당리에 이르는 서산~당진선, 등외(等外) 도로로는 서산읍내, 덕지천리, 해미 귀밀리, 억대리에 이르는 서산~해미선, 팔봉 어송리에서 호리(구도), 이북면 청산리, 마산리로 이어진 서산~구도선, 기타 서산~부석선, 서산~성연선, 서산~천의선, 서산~대산선, 서산~대호지선, 성연~천의선, 대호지~천의선, 지곡~구도선, 정미~당진선, 정미~운산선, 해미~운산선, 해미~덕산선, 태안~해미선, 태안~안흥선, 태안~안면선, 태안~소원선, 태안~이북선, 태안~구도선, 소원~원북선, 부석~태안선, 운산~삼교선 등이 개설되어 있었다. 이외에 서산지역에는 1926년 현재 면과면, 혹은 읍·면과 포구를 잇는 면관리의 등의 도로가 곳곳에 개설되어 있었다.

(3) 서산의 교육시설과 야학

일제는 조선을 강점한 이후 조선교육령(朝鮮教育令, 1911년 8월)에 의거하여 ① 일본어를 보급시키기 위한 보통학교 교육, ② 농·상·공업 분야의 하급 직업인을 만들기 위한 실업학교 교육, ③ 법률·상업·의학·공업·농업 등과 관련한 전문 기술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전문학교 교육 등을 실시하였다. 그러다가 3.1운동 이후 일제는 '일본 준거주의(準據主義)'를 표방하면서 보통학교 시설을 확충하고 [일면일교정책(一面一校政策)], 학제를 개편하는 등 보통학교 교육정책 전반에 커다란 수정을 가하였다. 하지만, "근로주의, 실제주의, 점진주의"를 기본이념으로 한 식민지 노예교육의 기본구상은 1920년대 이후 또 다른 형태로 더욱 강화되는 경향을 보였다. 일제의 교육정책은 크게 네 개의 시기로 구분되는바 첫 번째는 실업교육을 강조하던 실용주의 표방기(1910~1919), 두 번째는 교육제도의 내선차별 철폐를 강조하던 일본 준거주의 표방기(1919~1931), 세 번째는 근로주의 고취를 목표로 한 '교육이 곧 생활'주의 표방기(1931~1936), 그리고 네 번째는 전시총동원정책하의 교육파멸기(1936~1945) 등이다. 서산군의 근대 교육도 이같은 시기별 추이에 따라 변화 발전하였다.

구한말 서산지역에는 애국계몽운동의 일환으로 광영학교(廣英學校: 1906년 안

〈표-12〉 일제하 서산군의 공립보통학교 설립 현황(1931년말 현재)

학교명	창립일	수업연한	학급수	직원수	학생수
서 산	1911.9	6	8	9	492
태 안	1911.9	6	6	8	320
해 미	1912.5	6	6	7	300
안면도	1920.2	6	6	7	280
여미(운산)	1921.3	6	5	5	231
근 흥	1922.6	6	3	3	122
부 석	1922.7	6	4	4	199
대 산	1922.3	6	3	3	149
조금(대호지)	1922.7	6	3	3	130
이 북	1922.3	6	3	3	141
소 원	1923.3	6	3	3	131
정 미	1924.5	6	3	3	144
팔 봉	1927.4	6	4	4	225
음암	1929.6	4	2	2	154
남 면	1929.6	4	2	2	125
부성(지곡)	1930.5	4	2	2	120
고 북	1930.5	4	2	2	103
합 계			65	70	3,366

앞의 『忠淸南道發展史』, 92~93쪽. 인지면과 성연면에는 1931년말 현재 보통학교 설립이 예정되어 있었다.

면도), 서령학교(瑞寧學校-1908년, 서산 읍내) 등 근대적인 교육기관이 우후죽순처럼 설립되었다. 하지만 이런 학교들은 1911년에 공포한 이른바 '사립학교규칙(私立學校規則)'으로 말미암아 강제 폐교되었으며, 그 시설이나 재산은 반강제적으로 해당 지역의 공립보통학교에 편입되었다. 서산지역에 설립된 최초의 공립보통학교는 1911년 9월 서령학교의 재산과 시설을 이어받아 설립된 서산보통학교였다. 1931년 말 현재 서산군에는 17개의 공립보통학교(학생수 3,366명)와 2개의 심상소학교(尋常小學校; 해미, 서산)가 설립되어 있었으나 중등학교는 하나도 없었다. 또한 일제는 1930년대 중반부터 부족한 교육시설을 대신하기 위하여 간이학교를 많이 설립하였는데 서산에는 고성간이학교(1934. 4), 운신간이학교(1935. 10), 황도간이학교(1936. 4), 강당간이학교(부석면 강당리, 1937. 3), 안중간이학교(1937. 12), 오산간이학교(1939. 4), 모항간이학교(소원면 모항리, 1939.

〈표-13〉 1925년 현재 서산군내의 일본 유학생 현황

성명	주소	연령	부형	재산	출신학교	학교명	유학시기
池昌夏	해미 읍내	22	池榮夏	2,000	경성사립고등학교	早稻田大學	1925
李昊鎭	해미 반양	24	李基祥	300,000	태안공립보통학교	慶應義塾	1926
李相麒	태안 석문	23	李時雨		태안공립보통학교	明治大學	1925
金榮祚	태안 석문	22	金碩求	100,000	태안공립보통학교	東洋音樂學校	1925
李基昌	소원 법산	21	李亨烈		경성고등학교	慶應義塾	1925
崔東高	안면 고남	24	崔文湜	5,000	경성중앙학교	日本大學	1921
姜泰煥	안면 장곡	22	姜文善	3,000	경성고등학교	名教中學	1925

『서산군지』(1927년판) 권사, 33쪽 참조 작성.

8), 방갈간이학교(원북면 방갈리, 1939. 10), 고남간이학교(성연면 고남리, 1939. 9), 안흥간이학교(근흥면 안흥, 1939. 9) 등이 설립되었다.

일제하의 보통학교 교육은 한마디로 ‘황국신민의 자질과 품성’을 함양하는데 일차적인 목표가 두어졌다. 이런 교육목표는 학제는 물론이고 교육·교과과정에도 철저히 반영되었다. 예를들면 일본어 교육시간은 64시간임에 반해 조선어(한문 포함) 교육시간은 20시간에 불과하였으며, 기타 조선역사와 지리는 아예 교육도 하지 않았다. 당시 보통학교 국사(=일본사, 상하권)의 총항수는 336개 항목이었는데 그 가운데 조선사 관련 사항은 21개 항목에 불과하였으며, 그것도 대단히 왜곡된 기술이 대부분이었다.

일제시기 각면 소재지에 설립된 보통학교들은 면내의 학생들만을 교육한 것이 아니라 야학이나 강습회를 통해서 주민과의 교류를 확대해 나갔다. 특히 매년 정례적으로 개최되는 학예회·소인극회·운동회·원족회 등은 학교 자체행사가 아니라 공직자와 유지를 비롯하여 전체 면민이 참여하는 일종의 지역축제였다. 게다가 농촌진흥운동(1932-1940)이 실시되는 시기에는 보통학교(교장과 교사)가 졸업생들의 ‘자력갱생운동’까지 지도하는 등 지역사회와 학교와의 관계는 더욱 밀접해져만 갔다.

보통학교를 졸업한 이후 상급학교로의 진학을 위해 서산지역의 학생들은 인근의 예산(예산농업학교)·공주(공주고등보통학교, 공주사범학교)·강경(강경상업학교) 지역의 학교나, 아니면 인천·경성지역의 학교로 유학을 떠났다. 예를들면 1926년 현재 공주고보와 사범학교에 재학중인 서산 출신의 학생은 무려 30여명이나 되었다. 1926년 여름방학에 이들 학생들은 보통학교 동창회 및 기타 지역사회 운동 단체의 후원하에서 성대한 학예회를 개최하였을 뿐만 아니라 축구 및 정구대회, 도서전람회 등도 주관하였다. 당시 신문보도에 의하면 이들은, “저녁에는 서령

〈표-14〉 1926년 현재 서산군의 일본 유학생 현황

성명	주소	출신학교	전공	졸업여부	입학 및 귀향시기
趙炳九	고북 양천	명치대학	법과	졸업	1922 ~ 1925
卞明煥	태안 남면	명치대학	법과	졸업	1922 ~ 1924
李鍾大	정미 봉성	명치대학	법과	중퇴	1919 ~ 1919
李鍾喆	고북 신정	법정대학	정경과	중퇴	1919 ~ 1920
李起夏	운산 용현	명치대학	정경과	중퇴	1920 ~ 1922
姜厚宗	원북 방갈	동경물리학교	물리학	중퇴	1920 ~ 1922
郭 玟	인지 풍전	일본대학	사회과	중퇴	? ~ 1922
閔泰琬	음암 신장	조도전대학	정경과	중퇴	? ~ 1923
賈明魯	태안 상옥	正則영어학교		중퇴	1921 ~ 1922
李培植	해미 읍내	명치대학	법과	중퇴	1922 ~ 1923
李暲鎭	태안 남문	경용대학중학부		중퇴	1923 ~ 1923
李秉鎭	태안 남문	경용대학	법과	졸업	1920 ~ 1923
趙南顯	부석 지산	동아대학	보통과	중퇴	1923 ~ 1923
姜泰顯	안면 장곡	일본대학	법과	중퇴	1922 ~ 1924
朴洗來	인지 야당	일본대학	법과	중퇴	1923 ~ 1924
朴 來	인지 남정	일본대학	법과	중퇴	1923 ~ 1924
李圭玆	소원 신덕	정칙영어학교		중퇴	1922 ~ 1924
李冲鎭	해미 반양	정칙영어학교		중퇴	1924 ~ 1925
金榮祚	태안 남문	동양음악학교		중퇴	1925 ~ 1926
崔秉元	남면 달산	경도고등잡업학교	예과	졸업	1923 ~ 1924
崔容安	팔봉	중국세계전문학교		중퇴	1923 ~ 1924

##. 『서산군지』(1927년 판) 권사, 34쪽 참조 작성.

청년회급 소년회 후원하에 강담회(講談會)를 개최하고 열변을 토하여 만장의 갈채를 받고 간간(間間) 음악으로서 청중을 위로한후 일반 유지(有志) 및 각단체 간부와 합석하여 다과로서 간담을 교환하였다”는 것이다.

또한 대지주 아들들이나 시세에 밝은 사람들은 일찍부터 경성에서 고등보통학교를 졸업한 이후 동경으로 유학을 떠나는 것이 보통이었는데 이런 현상은 서산군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었다. 1926년 현재 일본에 유학중인 서산출신자는 7명, 이미 일본 유학을 마친 사람들은 21명이었으며, 이들은 대부분 대지주의 아들이거나 아니면 구한말 군주사나 면장을 거친 인물의 아들이었다. 이런 사실은 일제시기에

〈표-15〉 1927년 현재 서산군내의 사설 교육기관

教育機關名稱	中心人物
八峯面 榛牆里 學術講習所	金容燮, 金明中
雲山面 龍賢里 雲龍講習所	金樂賢
遠北面 黃村里 貫松學院	金相培
瑞山面 東門里 活城夜學會	金樂賢, 朴仁性, 田泳奭, 崔容安
瑞山面 邑內里 振興夜學	邑內里 農村振興會
泰安面 南門里 振興夜學	南門里 農村振興會
泰安面 華林農園 農業講習所	李基升
瑞山邑 女子蠶業講習所	道地方費 補助 設立

瑞山 一記者, 『(巡迴探訪) 畿湖極西端의 一大半島(3) —中國과 隔海對峙』,

(동아, 1927. 6. 13)

〈표-16〉 1929년 현재 서산군의 사설 교육기관

기관명칭	설립일자	창립시 학생수	현재 학생수	설립자	교장
所遠公普教	1923. 4	130	150		小山忠太郎
泰安勞動夜學院	1920. ?	50	70	金圭恒	金圭恒
遠北面黃村里貫松學院	1923. 9	35	40	金相培	金相培
文化講習所	1927. 1	17	22	文龜源	文龜源
瑞山夜學院	1927.12	60	60	赤井	赤井
浮石松湖夜學	1927. 1	25	26	* 奉烈	姜桂煥
泰安**夜學	1927. 4	40	40		
雲山面龍賢里講習所	1926. ?	20	30	金樂賢	權丙夏

『동아일보』 1929. 1. 12자 기사 참조 작성.

란 부담이 아닐수 없었다. 여기에 더하여 당시 보통학교의 교육내용은 소작농민들의 실생활과 거의 무관한 것들이 대부분이었다.

사정이 이러하자 조선의 농촌에서는 야학운동(夜學運動)이 요원의 들불처럼 번져 나갔다. 가령, 이광수의 『흙』, 심훈의 『상록수』, 이기영의 『고향』 등 일제하에서 출간된 대표적인 농촌소설들을 읽어보면 대부분에서 야학운동이 매우 중요한 소재로 다루어지고 있음을 볼수 있는데, 이런 사실은 야학운동이 얼마나 활발하게 전개되었는가를 보여준다. 주로 여름과 겨울 농한기에 개최된 야학에서는 무산아동은

〈표-17〉 일제하 서산군의 서당 실태

소재면	서당수	학생수	소재면	서당수	학생수
서산면	6	54	인지면	8	66
부석면	10	69	팔봉면	14	76
지곡면	14	115	대산면	13	120
성연면	4	21	음암면	5	25
대호지면	4	58	정미면	12	72
운산면	6	31	해미면	8	43
고북면	8	70	안면면	1	40
남면	9	92	태안면	7	58
근흥면	10	65	소원면	5	29
원북면	6	48	이북면	5	37
합계	155	1,184			

##. 『서산군지』(1927년 판) 권사, 34-35쪽.

물론이고 부녀자도 한글, 산수 등의 교육을 받았다. 현재까지 확인되는 일제하의 야학수는 대략 4만여개 정도이며, 여기에서 교육받은 학생수는 대략 3백만명 정도였다.

신문보도를 통해서 보면 서산지역에서 최초로 야학운동이 전개된 지역은 태안읍이었다. 1922년 12월 25일자 『조선일보』 보도에 의하면 태안읍 야학은 1920년 창립되었으며, 학생수는 70명이었다고 한다. 또한 비슷한 시기 안면도 창기리에도 노동야학회가 설립되어 60명의 학생이 교육을 받았는데, 창리리 야학은 1925년 4월 4학년 진급식을 가지는 등 상당히 지속적인 활동을 전개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창기리 노동야학회의 무보수 강사는 이최근(李最根), 편몽우(片夢宇), 회장은 이강선(李康先)였으며, 교육장소는 창기리의 북감리교 예배당이었다. 일제시기에 설립·운영된 사설 강습소나 야학은, 대부분 면이나 동리 단위의 유지들이 설립·운영하였다. 가령, 1922년 4월에 설립된 안면면 고남리 사립학교는 대지주인 최문식(崔文湜), 1925년 12월에 설립된 용현리 운용강습소는 경성 대지주인 이달용(李達鎔)(170정보 소유자), 1929년 3월에 설립된 고북면 신정리의 문화강습소는 지역유지인 문병목(文秉穆)이 후원하였다.

한편, 야학운동은 지역사회운동 단체들에 의해서도 주도되었다. 가령, 서령청년회[회장 이천구(李天求)]는 1925년 12월 읍내 유지 박원(朴元) 등의 도움하에서 26명의 아동을 교육하였는데, 운영비용과 학생들의 학용품은 군내 청년회장과 지역유지들이 제공하였다고 한다. 기타 신문을 통해 확인되는 야학은 1928년 4월과

5월에 설립된 음암면 울목리와 도당리 야학이다. 위의 두 야학은 김영찬(金榮燦), 윤주영(尹周榮), 윤종영(尹鍾榮), 이동만(李同萬), 김동희(金東喜), 이근억(李根億) 등 면내 유지들에 의해 발기·운영되었다.

서산군의 사설교육기관 가운데 가장 주목되는 것은 이기승이 화림농원을 경영하면서 설립·운영한 농업강습소이다. 1926년 10월경 이기승은 사비 만여원을 들여 농업강습소를 설립한뒤, 보통학교 졸업 정도의 학력을 가진 생도 15명-20명을 매년 수용하여 2개년 수업제로 강습소를 운영하였는데, 강습소의 경영은 경응대학을 졸업한 그의 장남 이병진(李秉鎭)이 담당하였다. 그러다가 이기승은 1930년에 위의 농업강습소를 화림농사 실습학교로 개편하였다. 당시 기록에 의하면 이 학교의 교원은 4명, 학생은 30여명이었다고 한다.

한편, 1930년대에 이르러서는 여성들의 문맹퇴치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부녀야학이 많이 개설되었다. 가령, 1933년 12월에는 강창학(姜昌學), 박영남(朴永男) 등에 의해 안면면 신야리 부녀야학이, 그리고 1936년 7월에는 태안읍에 태안읍 부녀야학이 설립되었다. 태안읍 부녀야학에는 장산리와 남산리 등지의 부녀자 4, 50명 참여하였는데, 강사는 당지 보통학교 훈도인 배임순(裴壬順)이었다.

일제하에서 근대적인 교육기관 못지 않게 성행하였던 것이 바로 개량서당이었다. 개량서당에서는 과거의 서당교육과 더불어 당시 사회적 수요가 높았던 한글과 산수, 혹은 일본어를 가르쳤다. 1928년 현재 전국의 보통학교 수는 1,500(학생수 466,217명)에 불과하였으나 개량서당은 14,957개(학생수 191,672명)에 달했다. 이런 현상은 서산군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었다. 1927년 6월 현재 서산 지역에는 20개(생도 2,486명)의 보통학교(심상학교 포함)가 있었음에 반해 서당은 무려 155개(생도 1,184명)나 되었다. 서산지역에서 서당교육이 특별히 선호되었던 지역은 대산면과 지곡면 등이었다.

2) 서산의 농업과 상공업

(1) 서산의 농업

일제하의 조선사회는 오늘날처럼 상공업이 발달한 산업사회가 아니라 농업이 주 산업이었던 사회였다. 따라서 일제하의 서산군 사정을 살펴보면 농지면적을 포함하여 지주제의 발달 정도, 주작물의 분포, 수리조합 등 농업시설의 존재양태, 농업생산량 등 농업사정을 잘 아는 것이 중요하다.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서산군은 토지 비옥도나 수리시설 등 농업환경은 그리 좋지 않았으나 800KM가 넘는 해안선에 발달한 간척지를 중심으로 활발한 농업활동이 전개되었다.

일제시기 서산지역의 총경지면적은 27,779정보였는데 이를 경작지별로 보면,

〈표-18〉 경지면적(1925년말 현재)

종 류	1모작	2모작	합 계	자 작	소 작
답	15,076.7	1,164.2	16,240.9	5,944.5	10,296.4
전	-	-	11,538.2	8,665.4	2,872.8
총 계	-	-	27,779.2	14,609.9	13,169.2

##. 『서산군지』(1927년 판) 권삼, p.23~24.

논이 16,241정보, 밭이 11,538정보였다. 또한 경작형태별로 보면 논은 자작지가 5,944정보, 소작지는 10,296정보였으며, 田은 자작지가 8,665정보, 소작지가 2,871정보였다. 1927년 현재 서산군의 전체 경지면적은 충남의 전체 경지면적 178,348정보의 15.5%에 해당하였다.

〈표-19〉의 1925년 말 집계와 앞서 소개한 1930년말의 집계를 비교하면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것은 100정보 이상의 대토지를 소유한 지주가 불과 5년 사이에 22명이나 늘어났다는 사실이다. 1925년 현재 서산군 내에 70정보 이상의 토지를 소유한 지주는 조선인 2명, 일본인 1명에 불과하였으며, 50정보 이상을 소유한 지주 수도 9명뿐이었다. 이는 산미증식계획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대토지 집중현상이 대단히 빠른 속도로 진전되었음을 보여준다. 한편, 1925년말 현재 서산군의 전체 토지소유자 28,477명 가운데 그 절반 이상이 0.5정보 미만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대부분의 농민들이 자기토지를 경작하는 것 만으로는 생계를 꾸려나가기에 상당히 어려웠음을 보여준다. 당시 토지가 없거나 적었던 농민들은 다른 지역의 농민들과 마찬가지로 소작이나 부업을 통해서 생계를 유지하거나 아니면 탈농을 하는 수밖에 없었다. 서산지역에 거주하던 일본인 가운데도 토지 소유규모가 영세한 사람들이 몇몇 있었는데 이들은 농업자라기 보다는 읍내에 거주하던 상공업자들이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충남의 다른 군과 비교하면 부재지주가 특별히 많았다고는 할 수 없으나 전국 평균치와 비교해 보면 서산군에는 상대적으로 부재지주가 많았다. 하지만 다른 지역에 비해 일본인 지주는 그리 많지 않지 않은 편이었다. 당시 신문보도에 의하면 1927년 현재 서산군의 전체 농가 호수는 2만 2백 52호이었는데, 그 가운데 자작농은 2,781호, 소작겸 자작농은 9,082호, 순소작농은 8,389호였다고 한다. 위의 보도에 따르면 자작농 호는 매년 270여호씩 감소하고 소작농 및 무직자의 수는 반비례로 증가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었다는 것이다. 일제의 공식통계에 의하면 1930년말 현재 서산군의 군내지주 소작지 비율은 7.3%로서 충남은 물론이고 전국의 평균보다 상당히 높은 편이었으나 일본인 지주에 예속된 소작농가는 그리 많지 않은 편이었다. 하지만 1930년말에 이르러면 서산군의 소작농 호수는 18,127호로 늘어났

〈표-19〉 서산군내 토지소유자의 면적별 분포 현황 (1925년 현재)

소유면적	조선인	일본인	합 계	소유면적	조선인	일본인	합 계
70정보	2	1	3	3.5	357	4	361
50정보	4	2	6	3정보	610	8	681
40정보	14		14	2.5정보	777	6	783
35정보	20	1	21	2정보	1,086	14	1,100
30정보	20	1	21	1.5정보	1,752	17	1,769
25정보	21	2	23	1정보	2,610	15	2,625
20정보	36	2	38	0.7정보	2,987	16	3,003
15정보	57	2	59	0.5정보	3,322	11	3,338
10정보	116	9	125	0.2정보	4,327	16	4,346
7정보	182	11	193	0.1정보	5,452	27	5,481
6정보	116	5	121	0.1이하	3,815	35	3,857
5정보	216	5	221	인원합계	28,249	215	28,477
4정보	350	5	355	지번수합계	167,372	3,922	171,331

외국인(주로 중국인) 토지소유자는 13명에 불과하였으며, 0.7정보 이상의 토지를 소유한 이는 하나도 없었다.

다. 이는 1930년 초반 농업공황을 전후하여 자작농과 자작겸 소작농이 농지를 상실하고 순수 소작농으로 전락했기 때문이었다.

일제하의 농민들은 흔히 보리고개[春窮]에 시달렸는데 서산 농민들도 여기서 예외는 아니었다. 농업공황의 피해가 심각했던 1930년의 조사에 따르면, 서산군 총 농가호수의 66.5%가 춘궁상태에 놓여 있었다. 따라서 서산의 소작농민들은 생계를 이어나가기 위해서 가마니를 짜거나, 낱품을 팔거나, 양돈·양계·양잠 등을 했으며, 바닷가 주민의 경우는 해산물 채취, 제염업 등에 종사했다. 이같은 불철주야의 노동에도 불구하고 농민들은 생계비를 마련하기 위해 고리대를 이용하지 않을

〈표-20〉 관내·외 지주의 소작지 면적비율 (%)

	군내 지주 소작지	道內 地主 小作地	道外 地主 小作地
서산	7.3	0.9	1.8
충남	6.0	1.0	3.0
전국	6.9	1.8	1.3

朝鮮總督府, 『朝鮮ノ小作慣行』下卷, 續篇 (1932), p.2~3.

〈표-21〉 일본지주에 소속된 조선인 소작농가 비율(%)

구 분	전체 소작농가(A)	일본인지주 소작농가(B)	B/A(%)
서 산	18,127	1,212	6.7
충 남	146,856	28,824	19.6
전 국	2,093,106	320,294	15.8

자료/朝鮮總督府, 『朝鮮ノ小作慣行』下卷, 續篇 (1932), p.78~80.

수 없었다. 일제의 집계에 따르면 1930년대 초반 서산 지역의 농민들은 평균 84원을 빚을 지고 있었는데 이는 충남 평균 66원보다 훨씬 많은 액수였다. 1932년 현재 소고기 한근 값이 28전, 그리고 현미 상품 석당(玄米 上品 石當) 가격이 19.25원이었으므로 이는 상당한 금액이었다고 할 수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서산지역의 경우 일본인 소유 토지는 충남이나 전국에 비하여 낮은 편이었다. 이는 다른 지역과는 달리 수리조합 사업이 활발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1932년 현재 충남에는 14개의 수리조합이 있었는데 이 가운데 서산지역에 설치된 것은 하나도 없었다. 1928년 음암면 상흥리에 있는 '왕자제(旺字堤)'를 수축하여 수리조합을 설치하려는 시도가 있었으나 지주들의 반대로 좌절된 것으로 보인다. 당시 음암면 상흥리의 지주들이 수리조합설치를 반대한 것은, "과연 반당 1석 1두가 증수될지라도 만일 그 가격을 금년 시가(매석 10원) 11원으로 환산하여 소작인과 반분하면 그 여분으로 전기 조합비를 충당 못하고 도리혀 반당 92전의 손해"만 보게 될 것이며, 또 "필경 구원(久遠)한 장래에는 수익이 많다 할지라도 현하 파멸된 조선인의 경제로 보아 장래를 비관케 되어 불체(不替)하는 지주가 다(多)"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었다. 또한 1931년 해미면에 수리조합을 설치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었으나 지주회측의 반대로 여의치 않았던 것 같다. 당시 해미 경찰은 사건에 개입하여 지주대회를 금지하는 조처를 취하기도 했다.

한편, 서산군에서는 3.1운동 직후 시기부터 잠업교육기관이 설립됨에 따라 잠업 열이 고조되었다. 이런 가운데 운산면 용현리의 권병하(權丙夏), 이기효(李起孝)는 대규모로 양잠업을 시작하여 모범을 보였으며, 같은 마을의 이응우(李應雨)도 큰 병밭(大桑園) 및 잠실(蠶室)을 운영하였다. 그리고 임업 분야에서 사계에 성공한 모범가인 태안면 이기승(李基升)이 "수년전 일본에 시찰 당시 조림에 대하여 많은 흥미를 느끼고 각오한 바가 있어 귀국한 후 즉시 화림(華林)농원을 설치하고 부단의 노력을 주(注)한 결과 금일에 올창한 송림 3백여 정보를 소유하였다 한다." 현재 태안 백화산에는 백화산 조림 성적을 기념하여 1928년 이기승, 이동영, 이종규, 김병선, 신석윤, 백락호 등의 유지들이 만든 새김글[紀念臺]이 전하고 있는데 이런 행사는 당시 서산지역의 조림운동 상황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 당시 서산군의 산

림들은 영업의 발달과정에서 거의 황폐화된 상태였다.

(2) 서산의 상공업

일제하의 상업은 철도를 따라 형성된 몇 개의 중심지 시장을 축으로 주변에 정기 시장이 발달하면서 그 규모가 확대되었다. 일제시기 서산의 상권은 크게 보면 예산장에 포섭되어 있었다. 따라서 서산군내에는 예산장을 중심시장으로 하여 7개의 면에 각각 정기시장이 형성되어 있었다. 서산군의 대표적인 정기시장은 서산 읍내장(음력 2, 7일), 태안 남문장(음력 3, 8일), 해미 읍내장(음력 5, 10일), 운산 용장장(1, 6일), 정미 천의장(4, 9일), 성연 평리장(5, 10), 대산 대산장(5, 10일) 등이었는데, 이는 모두 면이 관리하는 시장이었다. 이 가운데 서산장과 태안장은 상설점포가 늘어나는 등 서서히 상설시장으로서의 면모를 갖추어 나갔다. 1927년 현재 서산군내의 상설점포 수는 모두 77개였는데, 이 가운데 40여개의 점포가 서산 읍내에 몰려 있었다.

하지만 서산지역은 1930년대 후반까지 기본적으로 재래의 경제구조로부터 벗어나지 못했고, 상업기관의 중심은 종래대로 여전히 정기시였다. 서산군이 인근 군에 비해 상업이 부진하였다는 사실은 5원 이상의 세금을 납부하던 곡물·잡화상의 숫자만을 비교해 보아도 알수 있다. 곡물·잡화상의 경우 5원 이상의 영업세를 납부하던 상점은 홍성지역의 경우 21개, 보령은 10개나 되었으나 서산의 경우는 단 2곳 뿐이었다. 또한 서산에는 약방과 전당포가 한 곳도 없었으나 당진에는 약방 6곳, 전당포는 5개나 되었다. 당시 신문보도에 따르면, “서산 읍내장의 경우 40여개의 대소상점이 시가에 있어 겉으로는 매우 화려융성하게 보였으나 그 이면을 보면 거상(巨商)은 일본인과 중국인이고 우리 상계(商界)는 소비조합을 위시하여 이완복(李完福), 박원서(朴元瑞), 김응화(金應化), 최명중(崔命重)의 몇 개 상점외에는 불만한 상점은 별로 없었다”고 한다. 당시 신문보도는, 이렇게 서산지역의 상업이 부진하게 된 원인으로서 첫째 “자본 문제도 있거니와 대부분은 상업 경영 방침의 불충실, 불친절한 까닭”, 둘째 “일반 고객의 심리가 외인(外人)의 상회에서 매매(賣買)를 선호하는 까닭” 등을 손꼽았으나 농수산물 등 생산물의 상품화 정도가 대단히 낮았다는 점도 상업 미발달의 주요한 요인이었다. 1926년 현재 서산지역의 1년의 총생산물은 8,789,029원이었는데 이 가운데 상품화된 생산물은 대략 5.3%정도에 불과하였다.

한편 상설점포를 가진 상인들의 민족별 구성을 보면 중국인들의 숫자가 상당히 많았음을 볼수 있다. 1927년 현재 서산군내에 상설점포를 가진 상인의 수는 92명이었는데 이 가운데 일본인은 17명, 중국인은 27명 나머지는 조선인이었다. 일본인 상인들은 주로 잡화나 식료품, 과자 등을 팔았으며, 중국인들은 대부분 면포류를 판매하던 상인들이었다. 한편, 상설점포를 가진 조선인들은 각면 소재지에서 주

〈표-22〉 일제하 서산군의 제염업 현황 (1925년 현재)

面名	製鹽者數	鹽釜數	鹽田面積(평)
부석	91	17	11,200
팔봉	7	1	3,500
지곡	33	4	1,750
대산	94	20	32,000
해미	6	1	3,000
고북	65	11	65,700
안면	117	18	114,000
남면	48	8	85,000
태안	30	6	2,400
근홍	96	12	36,000
소원	22	22	66,000
원북	59	12	20,000
이북	300	25	82,000
합계	968	157	446,750

##. 『瑞山郡誌』 卷三, 46-47쪽

로 잡화를 다루는 상인들이 대부분이었다. 1929년 현재 5원 이상의 세금을 납부하던 서산지역의 상인은, ① 곡물·잡화상 - 이완복(李完福, 서산), 소비조합(서산); ② 식료·잡화 - 옥목묘일(玉木卯一, 서산), 고교좌우위문(高橋佐右衛門, 태안), 산내종길(山內宗吉, 태안); ③ 오복(吳服)·포복·주단(綢緞) - 김동완(金東完-서산), 박원서(朴元瑞, 서산), 도촌인조(島村仁助, 서산), 이백선(李伯先, 태안), 박광순(朴光淳, 태안), 최원석(崔元錫, 태안); ④ 서양잡화(西洋雜貨) - 천단승춘(川端勝春, 서산); ⑤ 토목건축청부업 - 송포량일(松浦量一, 서산), 국안정일(國安精一, 서산) 등이었다.

서산과 태안지역의 유지들은 서산지역의 상업발달과 동시에 소비자들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소비조합을 결성하고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기도 했다. 서산소비조합은 1926년 12월에 이필은(李弼殷)의 사회하에 발기총회를 열었는데 당시 조합장은 이필은, 사무이사는 김낙현(金樂賢) 외 3인, 감사는 박우성(朴友性) 외 3인이었다. 당시 소비조합의 중심인물은 김낙현(金樂賢), 류희근(柳熙根), 백낙선(白樂善), 가후영(賈厚永) 등 서산읍내 지역의 유지들이었다. 서산 소비조합은 출자자가 91명이었으며, 해미에 분소를 두는 등 1938년까지 운영되었다. 또한 이같은 소비

조합운동은 태안 유지(泰安有志)들에 의해서도 전개되었다. 정확한 시기를 확인할 수는 없으나 1920년대 말 한동벽(韓東璧), 윤원숙(尹源淑), 이응우(李應雨), 백남복(白南復) 등 태안유지들은 낙안상회(樂安商會)를 설립하고 활동하였다.

일제시기 서산지역의 산업발전을 이끌었던 중요한 산업은 바로 제염업이었다. 서산지역의 대지주들은 대부분 소금을 굽거나 판매하여 부를 축적하였는데, 일제시기에 편찬된 『서산군지』에 의하면, 구한말까지 서산에서 생산된 소금은 충청도 전체 소비량의 7할을 점하였으며, 서산에서 생산된 소금은 경기도 외에 전국적으로 유통되었다고 한다. 한 회고에 의하면 서·태안지방에서 한말 일제초기 기만석, 기천석의 부자들이 타지방에 비해 많았는데, 이는 “하나같이 소금을 구웠거나 소금장사로 재산을 이루었다”는 것이다. 가령, 서산 최대 지주인 이기석, 이기승 집안도 염업을 통해 부를 축적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염업은 일제시대에 들어 관제 염업 성행, 중국산 소금 유입, 연료 및 자금 부족 등의 이유로 점차 쇠퇴하는 경향을 보였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산군의 염업은 일제시기까지 여전히 계속되었다. 1925년 현재 서산군의 염업자는 천여명에 이르렀으며, 소금가마수도 157개에 달했다.

일제 시기 서산군의 공업시설은 대단히 영성한 편이었다. 안면에 토기점이 2곳 있고, 음암의 탑곡리와 부장리에 도기점이 1곳, 음암의 탑곡리에 철공점이 1곳, 지곡 화천리와 운산의 용장리에 옹기점이 2곳, 운산 거성리에 사기점이 1곳, 운산 고산리에 대장간이 1곳, 정미 여미리에 옹기점이 1곳, 고북 신송리에 와공점이 1곳 있었을 뿐이었다. 서산 지역의 공업 시설은 아직 근대적 공장 공업이 발전하지 않은 곳으로 전통적 방법에 의하여 생활 필수품을 제조하는 공업이 대부분이었다.

3) 서산의 대지주와 ‘관료-유지 지배체제’

(1) 서산의 대지주

일제는 조선을 강점한 이후 조선의 농촌을 식량원료의 공급 기지로 만드는데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 이에 따라 토지조사사업을 통하여 식민지 지주제의 법률적 기초를 마련한뒤 산미증식계획 기간동안에 농업개발, 농민수탈, 농민통제를 위한 이른바 ‘식민지 지주제’를 형성하였다. 1926년 도·군 단위 계통농회를 출범시킨 것도 식민지 지주제의 완성을 위한 노력의 일환이었다. 이같은 식민지 지주제는 서산 지역에도 예외없이 형성·발전되었다.

1930년말 현재 충남지방에서 100정보 이상의 토지를 소유한 조선인 대지주(이른바 천석꾼, 만석꾼)는 도내(道內) 거주자 155명, 도외(道外) 거주자 57명(경성=서울 거주자 47인), 도합 212명이었으며, 일본인 대지주(30정보 이상 소유자)는 모두 84명이었다. 이 가운데 서산군의 대지주는 25명이었는데 일본인 지주는 3

〈표-23〉 일제하 서산군의 대지주 분포 현황 (1930년 말 현재)

지주명	소유지면적				창립일	사무소 소재지 혹은 거주지
	논	밭	기타	합계		
赤井賢兒	84	83	88	255	미상	서산면 동문리
和田太郎	83	54	71	208	미상	서산면 석문리
山内松平	37	323	4	364	미상	인천부 내리
韓昌東	96	89	19	177	1881	부석면 취평리
李龍求	17	98	30	145	1878	부석면 강당리
金永福	44	66	2	112	1877	부석면 지산리
李公雨	79	74	126	281	1924	지곡면 환성리
韓昶東	68	17	87	172	1912	정미면 덕마리
柳相烈	85	11	51	147	1914	운산면 가좌리
金東益	108	74	91	273	1918	고북면 가구리
尹秀炳	80	6	144	230	1916	태안면 동문리
李基爽	480	160	205	845	1890	태안면 남문리
白南復	318	32	117	467	1907	태안면 남문리
李時雨	93	64	73	230	1905	태안면 남문리
金圭恒	93	10	102	205	1907	태안면 남문리
李誠鎭	73	37	10	120	미상	태안면 남문리
賈國魯	107	42	5	154	미상	태안면 인평리
曹秉純	30	62	83	175	1890	근흥면 용신리
趙載吉	58	12	45	115	1906	원북면 시목리
李基升	137	98	1,061	1,296	1902	태안면 남문리
印謹植	174	26	51	251	1897	당진군
李鍾翊	243	59	47	349	1912	경성부
申錫雨	97	7	15	114	미상	경성부
李達鎔	34	21	115	170	1915	경성부
吳正根	184	10	33	227	미상	경성부

앞의 『忠清南道發展史』, 293~300쪽 참조 작성. 창립일이란 위의 지주들이 토지를 상속받은 시기, 혹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대토지를 획득한 시기를 말한다. 소유면적의 단위는 町步(1정보 3천평)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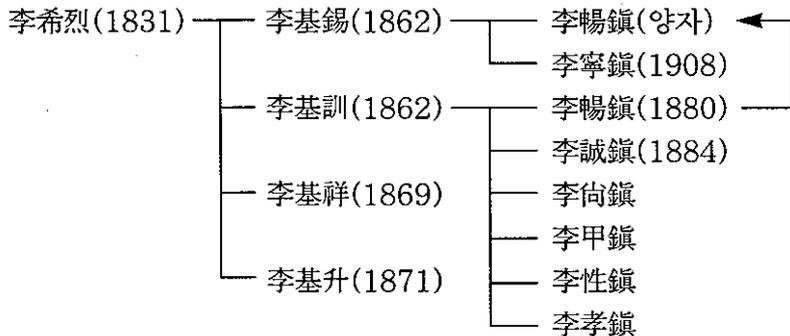
명(이중 1명은 부재지주), 경성거주 부재지주는 4명에 불과하였다. 이런 사실은 25명중 7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서산에 거주하였음을 보여준다. 서산 지방에서

가장 많은 토지를 소유한 대지주는 이기승이었으나 논면적만을 비교하면 제1위는 이기승의 형인 이기석, 제2위는 백남복이었다.

여기서 주목되는 점은 서산지역 대지주들의 대부분은 19세기, 그것도 대부분은 구한말과 일제 초기에 대규모로 토지를 집적하였다는 사실이다. 좀더 자세한 조사가 필요하나 몇몇 회고에 의하면 서산군의 대지주들은 구한말에는 주로 벼슬밭과 소금밭을 일구어 부를 축적하였으며, 일제 초기에는 국유 미간지를 불하받아 간척 개간사업을 벌임으로서 막대한 토지를 축적한 사람들이 많았다고 한다.

서산지역에서 대지주가 가장 많았던 곳은 역시 태안면 남문리였다. 태안면 남문리에는 환동 이씨 대지주 3명(이기석, 이기승, 이성진)과, 백남복(白南復), 이시우(李時雨), 김규항(金圭恒) 등이 거주하였으며, 또 태안면 동문리에는 윤수병(尹秀炳), 인평리에 가국노(賈國魯) 등 100정보 이상 대지주가 7명이나 거주하였다. 또한 부석면에도 대지주가 비교적 많이 거주하던 편이었다. 부석면의 경우에는 취평리(韓昌東), 강당리(李容求), 지산리(金永福)는 각각 1명씩의 대지주가 거주하였다. 그리고 나머지 4명의 대지주들은 지곡(환성리: 李公雨), 정미(덕마리: 韓昶東), 원북(시목리: 趙載吉), 근홍(용신리: 曹秉純)에 각각 1명씩 거주하였으며, 이외의 면에는 100정보 이상의 대지주가 전혀 존재하지 않았다. 특이한 점은 서산읍이나 서산면에는 일본인 대지주 2명 이외에는 조선인 대지주가 한명도 거주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이는 다른 지역과는 상당히 대조적인 현상인바 이같은 현상이 나타난 것은 서산읍의 도시발전이 상당히 부진하였기 때문이라 보인다. 서산읍의 경우는 대부분 일본인 관료와 부호들이 정치·경제적 실권을 장악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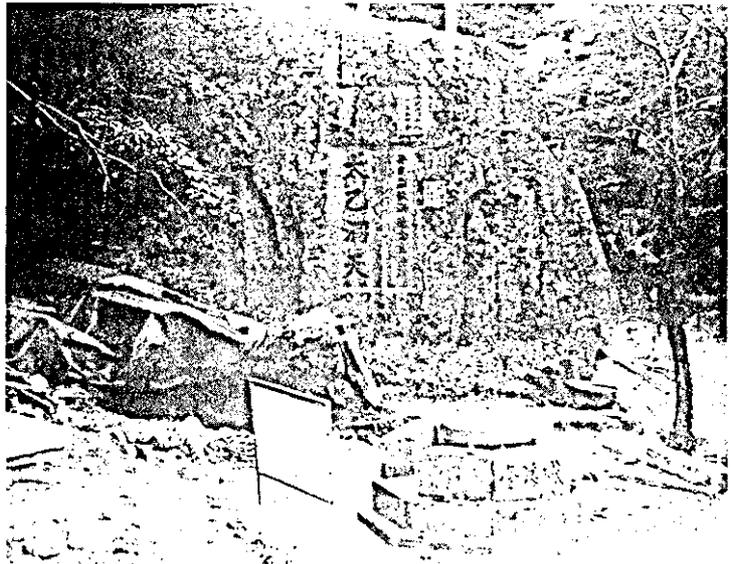
서산지역의 대표적인 지주가는 태안면 남문리 환동 이씨가(李氏家)의 이기석, 이기승, 이성진이다. 일제시기에 만들어진 『서산군지』에 의하면 이씨의 재산은



30세에 답 3두락만을 가지고 분가한 이희열대에 농업과 염전 경영을 통하여 축적되었다고 한다. 또한 이희열은 자신의 부를 재생산하는 방법으로서 벼슬 획득의 중요성을 일찍부터 자각했던 것 같다. 그 결과 장남인 이기석은 구한말에 증추원의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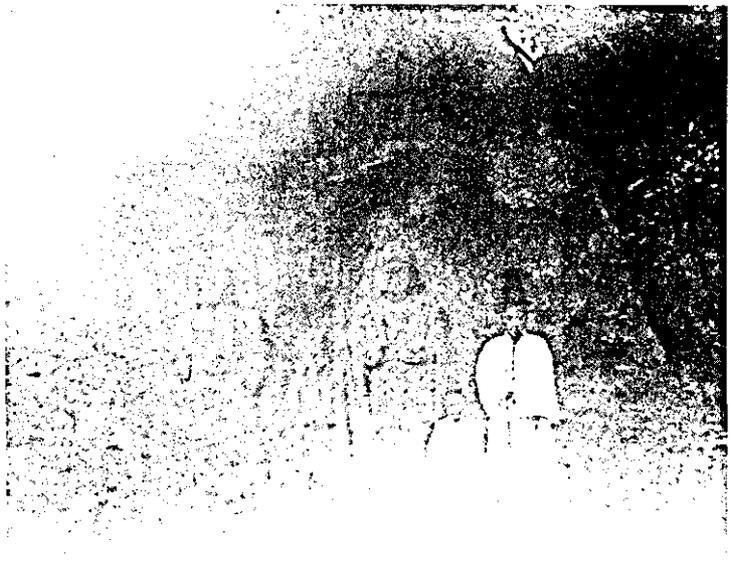
(정3품)과 서산, 음성, 태인, 고창 군수를 역임하였으며, 셋째인 이기상도 서산군수와 해미군수를 역임하는 활발한 사회활동을 전개하였다.

소유토지 면적만을 보면 서산의 최대 지주는 막내인 이기승이나 논밭의 면적이 제일 큰 대지주는 역시 장남인 이기석이었다. 일제하에서 이기석은 연령 관계상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지 않았으나 이기승은 태안 지방 금융조합장, 서산군 지주회 부



〈사진〉

태을동천과 감모대 전경



〈사진〉

1923년 태안 마애 삼존불

회장, 태안 위생 조합장, 조선 산업 조사 위원회위원, 농회 특별위원, 삼림조합의 부조합장 등을 역임하는 등 활발한 '유지정치(有志政治)'를 전개하였다. 이기승은 1906년 일본 시찰을 마친 뒤 농사개량과 조립사업에 눈을 뜨고 1908년 태안면 상옥리에 화림농장을 설립하였을 뿐만 아니라 화양의숙을 설립한 뒤 교육보급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게다가 이기승은 대형 이기석과 함께 보통학교 후원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 한편, 이기석의 아들인 이영진은 일본 유학을 마친 뒤 일제하에서 각종 회사의 사장을 역임하다가 정부 수립후 초대 충남도지사를 역임하였다. 주변 사람들의 회고에 의하면 이영진이 초대 도지사가 된 것은 윤치영, 이범석과의 사적인 인연 때문이었다고 한다.

1927년 이희열의 송덕비각(頌德碑閣) 낙성식과 관련한 신문보도는 환동 이씨가 자신의 사회적 위세를 유지·과시하기 위하여 어떤 활동을 전개하였는가를 잘 보여 준다. 1918년 88세의 나이로 사망한 이희열은 1908년 조(租) 4백석을 태안군 각면 각리에 산업기금으로 기부하였으며, 그가 사망하자 이기석은 1917년 선친의 뜻을 이어 조 88석을 산업기금으로 기증하였을 뿐만 아니라 1918년 한해에는 구제금으로 1천원을, 그리고 1926년 봄의 재해 때는 조 52석을 분급하여 인망을 얻었다. 1927년에 건립된 이희열 송덕비는 태안 유지 김병선(金炳善), 류기현(柳基炫) 등 몇몇 인사가 발기의연금을 모금하여 태안면 평천리에 비석과 비각을 설립하였는데, 모금된 금액은 태안면 339원, 근흥면 87원, 소원면 70원, 원북면 41원, 고북면 32원, 남면 10원, 합계 580원이었다고 한다. 『서산군지』(1927)에 의하면 이희열의 자수성가 과정은 수신교과서에 실려 경향 각 학교 생도들에게 교수되었다고 한다.

태안면 대지주 김규항(金圭恒)은 회고에 의하면 조부[돈령도정 김진근(敦寧都正 金鎭根)]대에 가산의 기초를 마련한후 부친대[중추원의관, 김동희(金東熙), 화양학교 설립시 기부금 제공]에 이르러 대지주로 성장하였다고 한다. 지주 창립 연월일이 1902년으로 되어 있는 것은 그가 토지를 상속받은 시기로 보인다. 김규항은 구한말 통신사(通信司) 전화과 주사, 동양척식주식회사의 사무원을 역임하였으며, 한 때는 경성상업회가 주관한 일본 시찰단의 일원으로 동경의 산업시설을 시찰하기도 했다. 그는 1926년 현재 서산군의 삼림조합 평의원, 태안금융조합의 조합장 등을 역임하였다.

한가지 흥미로운 것은, 태안읍 백화산에 소재한 마애삼존불(보물)을 마주보고 있는 큰 바위에 김해 김씨 족보함이 파져있는 사실이다. 회고에 따르면 바위에 새겨져 있는 태을동천(太乙洞天)이라는 글씨와 그 앞의 돌탁자에 새겨져 있는 감모대(感慕臺)라는 글씨는 1923년에 김규항이 직접 새겨넣은 것으로 보인다. 『서산군지』에 따르면 김규항은 조각인이 죽거나 이거하지 않는한 결코 조각권을 이동하는 법이 없었으며, 조각료도 1두락에 5두 이상을 받지 않았다고 한다. 김규항도 앞서

〈표-24〉 서산지역 대지주의 농외투자 현황

地主名(소유경지면적)	이용자료 출간연도	關聯會社名(회사형태)	職 位
白南復 (467정보)	1933	충남제사(주식)	이사
	1931	동일은행(주식)	감사
	1937	태안흥업(주식)	사장
李基奭 (子, 寧鎮) (845정보)	1937	삼 환(합명)	子, 사장
	1935	경성건물(주식)	子, 사장
	1937	대양상회(합자)	子, 사장
	1940	삼환상점(주식)	子, 사장
李基升(1,296정보)	1928	호서은행(주식)	창립발기인
李時雨(230정보)	1925	충남잡업(주식)	감사
李暢鎮(?)	1927	해동은행(주식)	대주주

장시원, 앞의 책, 附表2, 「朝鮮人大地主의 農外投資一覽(忠南)」, 259~266쪽 참조.

언급한 환동 이씨의 대지주들과 마찬가지로 일제하에서 여러 가지 자선활동을 전개하였다고 한다.

또한 태안면 대지주 윤수병(尹秀炳)은 이기석이 고창군수를 역임하던 시절 태안으로 이사와서 이기석의 토지관리인을 하면서 부를 축적하여 1930년 현재 230정보의 대토지를 소유한 지주로 성장하였으며, 백남복(白南復)은 군산을 대상으로 한 마포, 지류 등의 상업활동으로 가산을 이루고 이를 기초로 구한말 참봉직에 오른 인물로서 1927년 당시에는 농회의 특별의원, 태안보통학교 학무위원 등을 역임하였다. 기타 성연 한씨가(韓氏家)의 한창동(韓昌東)은 1924년 현재 도평의회원으로 군농회 특별의원, 삼림조합 평의원, 서산금융조합의 조합장을 역임한 바가 있었다.

고북면 대지주 김동익(金東益, 대사리 거주)은 1885년생으로 일찍이 중앙학교를 졸업하고 토지조사국 서기를 거쳤다. 그는 토지조사국 서기를 역임하면서 그의 동생인 김동진(金東璣)의 도움 아래서 가산을 크게 불릴 수 있었다고 하는데 그 자세한 내용은 알수 없다. 김동익은 1919년과 1922년 가뭄때 사재를 털어 궁민을 구제하였을 뿐만 아니라 교량 수축, 주재소 신축, 면사무소 개축, 공동우물 설치 시 많은 기부금을 출연하였다.

한편, 지역사회내의 '유지정치'는 대지주들만이 아니라 중소 지주들도 적극적으로 었다. 예를 들면 한계동(韓濟東)은 24.9정보의 지주로 축산동업조합·삼림조합·농회 등에서 활동하였으며, 이응우(李應雨, 태안읍 거주, 1923년 태안면의 여의천

및 흥인천 교량 건설시 공사비 기부, 송덕비 건립)는 면협의회·학무위원을 겸했으며, 지동욱(池東旭)은 삼림조합·축산조합·군농회에서 활동하였다. 그 밖에 최용순·한학동·가병준·이교성·이형렬·조동원·강문선·조재하·최문사·박형래 등의 중소지주들도 지역사회에서 여러가지 유지정치를 활발하게 전개하였다.

뿐만 아니라 서산군의 대지주들은 지주 경영 이외에 농외 투자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 특히 농외투자 지주들은 모두 태안군 남문리에 거주하던 지주였는데 백남복, 이기승은 예산 성씨가(成氏家)가 설립한 호서은행과 충남제사에 상당량의 자본을 투자하였다. 앞서도 언급했듯이 1930년대 후반에 4개 회사의 사장직을 역임한 이영진(이기석의 장남)은 정부수립후 초대 충남도지사를 역임하였다. 서산지역 대지주들의 농외투자는 '자본의 분산'을 통한 '자본운영의 효율성 제고'라는 측면에서 볼 때 대단히 유력한 재(財)테크의 기법이었다 할수 있다. 그러나 농외투자가 항상 성공적인 것만은 아니었다. 서산지역 대지주 가운데 일부는 은행돈을 끌어쓰는 등 방만하게 자본 운영을 시도한 결과 일제말기 파산을 하는 경우도 없지 않았던것 같다.

일제하에서 서산지역의 대지주들은 조선총독부의 지도 감독 아래 농업을 개발하고, 농민을 수탈하고, 농촌을 통제하는 삼중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런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것은 1926년에 체계화된 이른바 계통농회였다.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서산군 농회도 1926년 전국 각지에 계통 농회 체제가 완비되는 시기에 총독부의 주도로 조직되었다. 창립시기 서산군 농회의 회원 자격자는 모두 24,208명이었으나 설립에 동의한 동의자의 수는 18,164명이었다고 한다.

1926년 현재 서산군 농회의 회장은 군수인 이민영(李敏寧), 부회장은 권업과장인 칠도전겸이(七島田廉二)이었으며, 그 아래에는 월급을 지불하는 21명의 직원 [대부분 기수(技手)], 4명의 촉탁(囑託)이 있었다. 또한 대부분이 대지주인 조선인 유지 53명은 특별 혹은 통상(通常) 의원의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각 면장들은 당연직으로 통상의원과 더불어 의원 분구장(議員分區長)을 역임하였다. 서산군 농회는 관주도로 운영되었으나 지주 등 이른바 유지들의 참여가 없는 것은 아니었다. 서산군 농회의 중심인물 가운데 권병하(權丙夏)는 1925년 현재 도평의원으로서 1926년에는 서산지역 20개면 연합진흥회 회장을 역임하였으며, 1927년에는 서산군내에 조직된 160여개의 진흥회를 통해 농사개량, 저축장려, 언문강습 등의 활동을 전개하였다. 한편 일제는 농회와는 별도로 군단위의 '지주간담회'를 수시로 조직하여 농사개량이나 소작인 통제 활동 등에 이용하였다.

〈農會 評議員〉 - 朴魯益, 金雨圭, 金炳善, 李基八, 尹恒善, 韓學東, 鄭濟鎬, 李根道, 金民濟, 韓濟東, 金宅洙, 李基南, 申說均, 李鍾高, 李憲教, 安載瑚, 金元植, 金永基, 任衝宰, 尹周榮, 李朝旭, 池東旭, 南秉烈, 柳承魯, 韓喜東, 尹承秀, 李起孝, 趙東元, 金東益, 許 燮, 朴準, 姜文善, 賈秉峻, 金翼斗, 明珪善, 李亨烈, 張慶淳,

趙載夏, 趙載元, 李教性, 李文儀.

〈農會 特別委員〉 - 島村仁助, 松浦豊一, 赤井賢兒, 白南復, 權丙夏, 韓鳳愚, 李天求, 朴準用, 韓昌東, 崔容淳, 柳幹, 李柱泰

이외에 서산지역에는 여자잡업전습소(1919년 설립), 축산동업조합[1917년 설립, 중심인물 박규화(朴奎和), 이경호(李璟浩), 류상열(柳相烈), 한창동(韓昌東), 박준용(朴準用)], 어업조합(1920년 설립), 삼림조합(1924년 설립, 1925년 조직개편) 등의 산업단체가 조직되었는데 이런 조직의 평의원도 대부분 서산지역의 지주들이었다. 특히 서산의 경우는 소금을 굽기 위하여 나무를 남벌한 관계로 일제시기에는 이미 삼림이 황폐해질대로 황폐해져 있었다. 따라서 서산, 태안지역에서는 삼림조합 활동이 군청측의 지원하에서 대단히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서산 삼림조합은, 1927년 죽세공 강습회, 죽림 재배 장려, 밤나무 조림 장려, 개량 온돌 장려 등의 활동을 전개하였는데, 당시 조합장은 군수인 이민영, 부조합장은 이기승이었다. 그리고 평의원과 구역장은 각면의 면장이, 나머지 평의원은 지역 지주들이 담당하였다.

(2) 서산의 유지집단과 '관료-유지 지배체제'

구한말의 정치·사회적 변동 과정에서 서산지역에는 이전의 사족(士族)을 대신하여 이른바 유지집단이 형성되었다. 거칠게나마 사족집단과 유지집단의 차이를 설명한다면, 사족은 법률이나 제도로 보장된 지배신분(鄉權의 담당자)임에 반해 유지(有志)는 비록 사회적으로 '반공인(半公認)된' 지위집단이기 는 하나 법이나 제도로 그 지위가 보장된 집단이 아닐 뿐만 아니라 총독부 권력에 강하게 종속된('當局信用'을 1차적 지위 지표로 하는) 일종의 하위 동맹집단이었다. 요컨대 '지방유지'란 일제가 강제와 동의에 기초한 국가 헤게모니를 지방사회 내부에 관철시키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형성한 '총독정치의 매개집단'으로서, ① '재산(재력, 특히 토지 재산)', ② '사회활동 능력(학력)', ③ '당국(當局) 신용', ④ '사회 인망(人望)'을 고루 갖춘 지방사회의 유력자집단(조선인, 일본인 포함)이었다.

유지집단의 형성문제를 다룰 때 주목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일제의 지방제도 개혁과 '관료-유지 지배체제'의 형성 문제이다. 이를테면, 조선을 강점한 이후 일제가 실시한 지방관제 개정, 군면 폐합, 조선면제(面制) 실시, 지방자치제 실시 등은 이 같은 지배체제를 형성하기 위한 기초정책에 다름 아니었다. 이런 정책의 시행과 더불어 일제는 '조선인 유력자'들과 '일본인 이주자'들을 포섭하여 '지방유지집단'을 형성한 뒤, 이를 매개로 '강제(強制)와 동의(同意)'에 기초한 국가 헤게모니(hegemony)를 지역사회 내부에 관철시켜 나갔다.

〈표-25〉 일제하 충남지역 유력자 및 자산가 분포 현황 (1932년 현재)

구분	대전	연기	공주	논산	부여	서천	보령	청양	홍성	예산	서산	당진	아산	천안	합계	
유력자	35	49	64	58	49	19	14	81	44	6	30	24	48	37	558	
자산가	5만원이상	8	5	21	36	14	16	8	14	17	9	19	14	30	21	232
	10만원이상	2	8	8	13	2	5	3	-	2	6	12	6	7	3	77
	20만원이상	7	1	-	1	-	1	1	-	-	-	3	2	2	-	18
	30만원이상	-	1	1	2	-	1	-	-	1	1	1	-	-	-	9
	40만원이상	-	-	1	2	-	-	-	-	-	-	-	1	-	-	4
	50만원이상	-	-	1	2	-	-	-	-	-	-	-	2	-	-	4
	백만원이상	-	-	1	-	-	-	-	-	-	1	1	-	-	-	3
	합계	17	15	33	56	16	23	12	14	20	17	36	26	39	24	347
합계	52	64	97	114	65	42	26	95	64	23	66	50	87	61	906	

忠淸南道 內務局 編, 『道勢一斑』1933년판 참조.

한편, '관료-유지 지배체제'란 물리적 억압기구나 이데올로기 기구를 총동원하여 일제가 형성·발전시킨 지배의 조직이나 제도, 혹은 기제(機制)나 양식(樣式)을 말한다. '관료-유지 지배체제'는 3·1운동 이후 문화정치공간에서 그 기본골격이 형성되었으나 하나의 지배체제로서 자기완결성을 가지기 시작한 것은 1931년 4월의 지방제도 개혁(체제의 제도적 기초 완성), 그리고 1932년말의 농촌진흥운동(체제의 정치·사회적 기초 완성)을 통해서였다. 이때부터 총독부권력과 유지집단은 각종 자치기구(면협의회)와 관민합동(官民合同)의 각종 위원회(농촌진흥위원회, 소작조정위원회)를 매개로 특혜와 충성심을 상호 교환하는 '보호자-피보호자 관계(patron-client relationship)'를 발전시켜 나갔다. 서산지역에도 일제의 조선지배 과정에서 '수령·사족 지배체제'가 해체되면서 '관료-유지 지배체제'가 형성되었으며, 이런 과정에서 서산지역의 유지들도 다른 지역의 유지들과 마찬가지로 자신들의 정치·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여러 가지 유지정치를 전개하였다.

먼저 일제시기 서산군의 유지집단을 언급할 때 우선적으로 주목해야 하는 자료는, 충청남도 내무부가 매년 발간한 이른바 『도세일반(道勢一斑)』이다. 이 자료에는 매년 '충남 도내의 유력자 및 자산가 분포에 관한 군별 집계'가 수록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이는 유력자는, 예를들면 도지사가 초도 순시를 할때 관료 이외에 간담회나 회식자리에 꼭 초대해야 유력인사, 즉 해당 지역내의 공직자(면협의회원, 학교평의회원, 각급 학교장 등), 반관단체(각종 조합장, 각급 학교장, 농회장 등), 또는 각종 유지단체의 임원들이었다. 아래의 표에 표집된 40명 내외의 서산유지들

〈표-26〉 일제하 서산군 유력자 및 자산가 분포 현황

구 분		1927	1932	1934	1935	1937	1938	
유력자	서산	61	30	29	40	39	42	
	충남	464	558	549	769	612	545	
자	5만원 이상	서산	21	15	20	24	31	33
		충남	233	232	221	430	307	293
	10만원 이상	서산	8	12	11	11	10	11
		충남	101	77	80	123	100	100
	20만원 이상	서산	1	3	4	5	6	6
		충남	28	18	19	48	30	32
30만원 이상	서산	-	1	1	1	2	-	
	충남	1	9	11	13	15	12	
40만원 이상	서산	-	-	-	-	-	-	
	충남	2	4	3	9	3	5	
50만원 이상	서산	-	-	-	-	-	-	
	충남	5	4	5	6	6	6	
백만원 이상	서산	-	1	-	-	-	-	
	충남	3	3	2	1	1	1	
합 계	서산	32	32	36	41	49	50	
	충남	373	353	341	630	462	449	
합 계	서산	93	62	65	81	88	92	
	충남	837	911	890	1,403	1,074	994	

忠淸南道 內務局 編, 『道勢一斑』 1928년판, 1933년판, 1935년판, 1936년판, 1938년판, 1939년판 참조. 자산가 분포가 시기에 따라 많은 차이가 나는 것은 실제로 자산가 분포가 달라졌기 때문이 아니라 매년 지세 등 세금액을 역산하여 자산을 평가하였기 때문이다.

은 중급(B stream) 유지나 하급(C stream) 유지를 제외한 일급(A stream) 유지, 즉 총독부권력층이나 유지집단 구성원들로부터 '사회적 신고 절차', 혹은 '공인 절차'를 거친 이들이었다.

1932년 10월 현재 충청남도의 전체 군수는 14개, 읍은 5개, 면은 170개였는데 이를 기초로 충남과 서산지역의 자산가나 유력자 분포를 살펴보면, 첫째, 유력자 분포는 다른 군에 비해서 다소 적었다는 점, 둘째 재산가 분포는 10~20만원대 규모의 자산가는 많았던 반면 충남지역에서 손가락을 꼽을 수 있는 부자는 없었다는 점

〈표-27〉 서산군내의 면별(面別) 자산가(資産家) 분포 현황

(1925년 현재)

면 명	10만원이상	5만원이상	1만원 이상	면 명	10만원이상	5만원이상	1만원 이상
서산면	4	8	16	해미면	2	2	7
인지면		2	7	고북면	1	3	8
부석면	3		11	안면면	1	2	8
팔봉면			8	남면			7
지곡면		2	56	태안면	8	2	2
대산면			2	근흥면		3	14
성연면			4	소원면	1	2	3
음암면			2	원북면			10
대호지면			1	이북면		1	5
정미면	2		2	합 계	23	29	202
운산면	1	2	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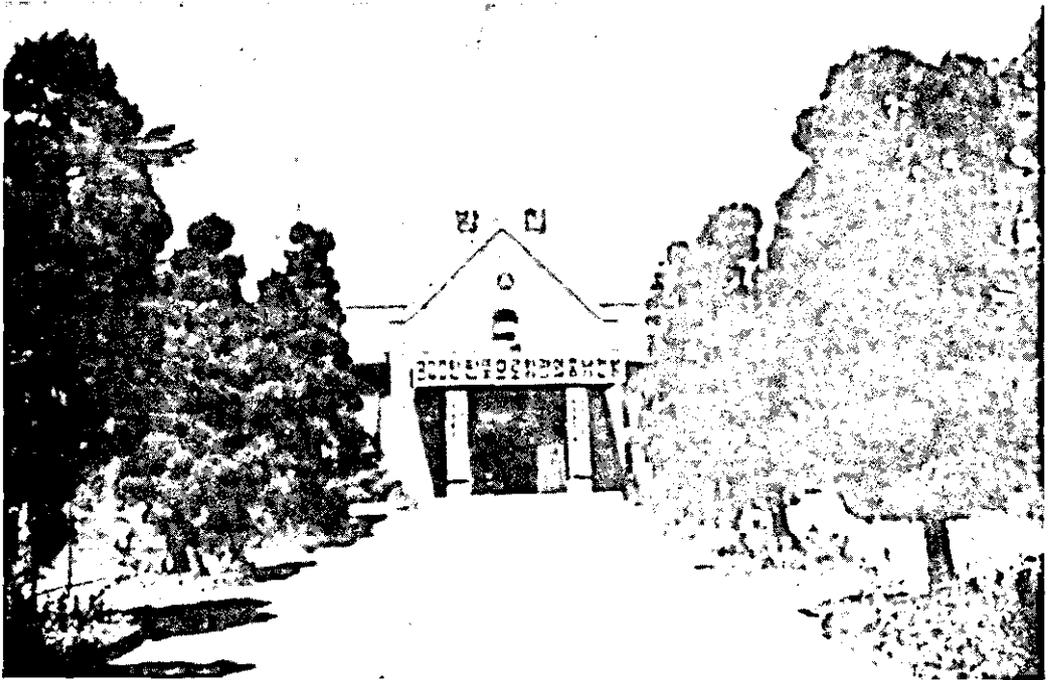
##. 『서산군지』(1927년판) 참조 작성

(태안 환동 이씨가 제외) 등이 눈에 띈다. 특히 10만원 이상의 재산소유자는 논산에 이어 충남에서 2위를 차지할 정도로 많았는데 이들은 대부분 30정보 이상의 대지주에 속하는 이들이라 할수 있다.

면별(面別)로 서산군의 자산가 분포를 살펴볼 때 주목되는 것은 태안군에 10만원 이상의 재산을 소유한 자산가들이 집중적으로 분포하였다는 사실, 그리고 지곡면에 1만원 이상의 중규모 자산가들이 무려 56명이나 거주하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태안군에 대자산가들이 많았던 것은 환동 이씨가를 비롯하여 많은 대지주들이 태안읍에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이며, 지곡면에 중규모의 자산가들이 많았던 것은 이 지역에 중규모의 지주들이 많았기 때문이었다. 전체적으로 보면 자산가가 많았던 면은 태안면, 서산면, 해미면 등 과거의 읍치지역, 그리고 부석, 고북, 안면 등 서산군의 바닷가쪽(천수만) 지역이었다. 특히 대산, 성연, 음암, 대호지면은 자산가가 거의 없는 면으로서 주목된다. 대호지면의 경우는 1만원 이상의 자산가가 1명에 불과할 정도로 부자가 없었다.

일제시기 서산지역의 유력자나 자산가들은 자신들의 정치경제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다양한 형태의 유지정치를 전개하였다. 일제하에서 만들어진 『서산군지』(1927)에 의거해 보면 서산지역에서 유지정치의 주요한 매개가 되었던 단체나 기구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었다. ① 지방위원회(1901~1910, 세무사무 보조, 서산·해미·태안 각 2명), ② 군참사(郡參事: 1909~1919, 군정 자문, 구한말 서산·해미·태안 각 2명, 군면폐합후 2명으로 축소) ③ 면협의회(1920~1945, 면

정 자문, 각면 8명), ④ 도평의회(1920~1945, 도정자문 및 의결, 1933년 도회로 바뀜, 2명), ⑤ 학무위원회(1908~?, 학사 사무 보조, 군내 각 보통학교마다 6~7명 위촉), ⑥ 학교평의회(1920~1945, 학교비 사무 자문, 20명), ⑦ 향교장의회 의(鄉校掌議會議: 1920~1945, 향교운영 자문, 8명), ⑧ 진흥회(1916~?, 진흥운동 시기 부락진흥회 새로 조직됨, 부락진흥사업 추진, 1925년 현재 146개 조직), ⑨ 농회(1926~1945, 양잠조합 등 통합 조직, 농사개량 및 농정 보조, 통상위원 40명, 특별의원 13명, 평의원 12명), ⑩ 금융조합(1908~1945, 서산·태안에 조직됨, 금융조합 이사 다수), ⑪ 서산 소방조 ⑫ 적십자사 서산위원회(위원장 1명, 특별사원 3명, 종신사원 195명), ⑬ 애국부인회 서산위원회(위원장 1인, 특별위원 1인, 통상회원 18인), ⑭ 서산 교아구제회(1918~?, 유지 의연금에 의한 교아 구제사업). 『서산군지』에 보이는 이같은 관변, 혹은 반관단체들은 서산지역에서 전개된 유지정치의 유력한 매개조직으로 기능했다. 뿐만 아니라 서산지역에 설립된 각종의 공식, 비공식적인 유지단체들도 유지정치의 주요한 매개가 되었다. 예를 들면 ① 서산유지회나 시민회, ② 서산교육회(1923~?, 지역내 교육발전 연구), ③ 미성회(1926년 조직, 사회봉사와 교화사업, 해미·고북·운산지역 유지 참여)와 같은 사설단체, 또는 ④ 각면 보통학교의 동창회나 학부형회, ⑤ 보통학교 증설 및 신설, 향만·도로 수축 등 각종 민원 관련 기성회, ⑥ 각면 별로 조직된 초



〈사진〉 옛 서산군청

기 청년회(요즘의 JC나 로타리, 라이온스클럽과 유사한 단체), ⑦ 언론기관(동아일보, 조선일보, 조선중앙일보 서산·태안 지국) 등을 매개로 활발한 유지정치를 전개하였다.

일제시기 서산군의 유지정치나 '관료-유지 지배체제'를 살필 때 먼저 주목해야 하는 것은 바로 면협의회(面協議會)와 도평의회(道評議會: 1933년 이후 道會로 바뀜)이다. 3·1운동 직후 시기 총독부 권력측은 조선의 유력자 집단을 지배체제 내로 포섭하기 위하여 면(面)에는 면협의회, 도(道)에는 도평의회를 만들어 조선인들의 정치참여를 허용하였다. 서산면의 경우는 1개면에 10명의 면협의회원이 군수의 지명으로 선출되었으며, 도평의회원은 면협의원 가운데서 도지사가 임명하였다. 물론 이때 만들어진 면협의회는 선거에 의해서 구성되는 것도 아니요, 또 의결기관도 아니었다. 다만 면협의회원들은 1년에 한 번 열리는 면협의회(의장은 면장)에 참석하여 면행정, 즉 ① 면의 세입출 예산, ② 법령의 제정 및 사용료·수수료·면부과금·부역헌품 부과 정수, ③ 차입금, ④ 예산외 의무부담 권리 폐기, ⑤ 재산처분 기타 중요사항 등을 자문·보조하는 역할을 맡았을 뿐이었다. 1923년 11월에 임기가 만료된 초대 면협의회원의 숫자는 20개면 200명이었다.

하지만 면협의회(面協議會)나 도평의회(道評議會)에 진출하는 일은 조선인 유력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 불가피한 것이었다. 왜냐하면 위의 기구에 진출해야만 자신들의 경제적 지위에 걸맞는 정치적 지위를 확보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예를들면 ① 간척지 매립·산림 이용, 어로권 확보 등과 관련한 각종의 인허가 문제, ② 호별세·영업세, 수리조합비, 삼림조합비, 농회비 등 각종 잡부담의 등급 사정문제, ③ 자녀의 유학 시의 신원보증 문제, ④ 금융조합이나 식산은행 관련 각종 정책자금 융자문제 등에 부닥쳤을 때 면협의원 직함은 상당히 유리한 입지를 마련해 주었다. 따라서 서산군내의 많은 유력자들은 상당한 정치비용이 소요되에도 불구하고 면협의회원이 되는 것을 마다하지 않았다. 특히 면협의원직을 수행하는 경우 '뒷거래 정치'(뇌물과 향응을 매개한 청탁과 로비)의 기회가 많아졌는데 이런 기회는 조선인 유력자들의 입장에서는 놓칠수 없는 것이었다. 따라서 면협의회가 개최되면 면협의회원들은 안전토론보다는 회의가 끝나고 기관장들과 함께하는 요라집에서의 '뒷풀이'에 더 많은 관심을 보였다. 전체 면협의회원들을 다 확인할 수는 없으나 서산군내에서 면협의회원을 역임한 사람들은, 대부분 유력한 동족부락의 인물들이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하여 상당한 '돈과 뺨'을 가진 인물들이었다. 면(面) 명칭 밑의 괄호안에 적힌 동리명은 면소재지 동리의 명칭이며, 숫자는 면내의 전체 동리 숫자이다.

한편, 서산지역의 유지집단이나 '관료-유지 지배체제'를 언급할 때 면협의회 다음으로 주목되는 조직이 바로 진흥회이다. 서산군 진흥회는 1916년 8월 충청남도 [도장관(道長官)=도지사 소원신삼(道知事 小原新三)] 도령(道令)에 근거하여 조

〈표-28〉 1920년대 서산군(瑞山郡)의 면협의원(面協議員) (계속 1)

面名 (面所在地 및 洞里數)	面長 및 面協議員 名單
瑞山 (邑內里:12)	(朴魯益) 島村仁助#, 小田璵市郎#, 赤井賢莪, 田泳爽#, 鄭京鎬, 和田太郎#, 大久彌太郎, 李洪馥, 柳在厚, 金雨圭#, 洪容淳, 柳在根, 柳善根, 柳泰根
仁旨 (芑堂里:11)	(韓學東) 柳正鎬, 李奎亨, 柳濬熙, 韓庸源#, 林泰來, 金章熙#, 金壬權, 曹永鎬#, 崔東?, 金雲會#, 沈在憲, 柳濬錄, 李容均, 金庸聲
浮石 (翠坪里:13)	(李鍾高) 李應淳#, 趙鍾萬, 金在實, 朴相哲, 李鴻善#, 李萬教, 李忠求, 池東旭, 李東新#, 柳鉉直, 柳弼魯, 金成奎, 金忠植, 金在九, 趙漢玉, 趙載璜, 李鍾壽
八峯 (漁松里:9)	(安載瑚) 任在準, 曹秉奎, 梁圭錫, 沈龜澤#, 申泰復, 安亨淳, 張基憲#, 文基八, 金容淑, 金容變#, 金元植, 安鍾九, 申泰儀, 安漢重, 文炯熙
地谷 (花川里:9)	(金永基) 李贊儀#, 金義坤, 任衡宰, 金教行, 宋鍾潤, 崔翼淳, 李鍾弼, 朴在善, 李鍾崙#, 崔虞淳, 韓應烈, 柳應烈, 宋鍾弼, 李建煜, 韓鎮教, 李卿雨, 韓仁源
大山 (大山里:10)	(李根道) 田夏鎮, 申弼鎬, 金東曄, 金教亨, 張明淑, 張基泰, 金奇濟#, 金東文, 金教直, 金民濟, 金昌鎬, 韓聖己, 金敬烈, 金章熙, 金昌植, 金世濟, 張基邦, 金仁煥, 金廷圭
聖淵 (坪里:9)	(韓濟東) 韓弼愚, 朴鎮萬, 朴斗棋, 金世濟, 尹殷木眞, 兪鶴老, 趙炳豪, 南龍元, 朴衡遠, 李頌和, 李源在, 尹殷植, 洪南植
香岩 (道堂里:11)	(尹周榮) 朴承益#, 柳得魯#, 權寧裁, 李榮洙, 李朝旭#, 李鍾石#, 李建豐, 金東燁, 柳爽鎬, 李玄雨, 張基萬, 金榮燦, 任爽鎬, 林柱天, 李心琦
大湖芝 (調琴里:9)	(池東旭) 南秉烈, 李光錫, 車英烈, 南相洛, 金炳甲, 李大夏, 洪淳國, 朴性壹
貞美 (天宜里:18)	(柳承魯) 南廷直, 申龍均, 權喆相#, 朴漢鳳#, 尹翊炳, 李承和, 李年鍾#, 李命求#, 李舜穆, 韓旭東, 南廷國, 申泰郁, 崔舜九, 李光泰, 韓喜東, 具喆會
雲山 (龍璋里:18)	(尹承秀) 韓昌源, 柳濬甲#, 李奎憲, 蔡萬默#, 尹用完, 柳敦衡, 張基龍, 柳澤魯, 權泰元#, 張錫奎, 權丙夏, 金東振, 崔惠徹, 金爽模, 韓百東, 柳聞魯, 金商敦
海美 (邑內里:22)	(李基南) 河原井菊次郎, 府川茂市, 林炳劉, 李在鎬, 尹璣炳#, 金東珣, 安先君#, 具文會#, 鄭在熙#, 韓鳳愚#, 金英植#, 李在錫, 安斗鎔, 尹公民
高北 (加口里:14)	(趙東元) 金東璣, 金東益, 安炳宰, 崔文煥, 朴相益, 李鍾益, 朴基全, 崔中觀, 許煜, 嚴柱衡
安眠 (承彥里:11)	(朴準?) 梁相俊, 金斗鉉#, 吳明根, 白雲台#, 金周元, 姜文善#, 田燦鳳#, 金晉圭, 片準宇, 朴準玉, 廉鐘華, 蔡始默, 朴炯來, 片準翊, 元景義, 崔東一

〈표-28〉 1920년대 서산군(瑞山郡)의 면협의위원(面協議員) (계속 2)

面名 (面所在地 및 洞里數)	面長 및 面協議員名單
南面 (達山里:9)	(賈秉峻) 金翼斗, 文錫雨, 崔昇浩#, 李圭桓#, 賈應化#, 賈秉璜, 金炳老, 金興九, 賈孔魯, 姜洪求, 成應煥, 文大炳, 李圭珍, 金炳奎, 宋允燮, 申成玉
泰安 (東門里:13)	(明珪善) 價秉文, 高橋佐右衛門, 朴泳善#, 明珪喆, 金炳善#, 金圭恒, 趙載煥, 白南駿, 韓相舜#, 徐相贊#, 李應雨, 賈鳳魯, 朴東善, 金濟說, 賈璟魯, 曹性深
近興 (龍新里:9)	(李基八) 崔慶浩, 尹世柄#, 趙載淳, 尹恒善#, 韓?, 曹秉純#, 金商俊#, 崔正基#, 李圭晉, 崔鎮燮#, 韓百教, 崔完植, 李能濟, 崔英雲
所遠 (新德里:9)	(李亨烈) 李鉉琦, 賈致橫, 宋錫浩#, 李虞薰#, 鞠安植#, 鞠一煥, 李正安, 池東憲, 李義?, 張慶淳#, 沈益之, 趙載九, 張錫圭, 池南夏, 權由先, 崔尙弼
遠北 (礪溪里:9)	(趙載夏) 韓興教#, 柳澤#, 趙棟顯, 表綸, 崔永儀, 金在昌, 趙載一, 金鎮道, 朴喜冕, 柳澣, 金容德, 金永善, 李載說, 池興澤, 崔煌圭
梨北 (浦地里:7)	(李教性) 宋炳益#, 孫興洙, 李柱弼, 趙壽顯, 趙九鎬#, 賈義永#, 李文儀#, 李柱泰, 金允權, 李昌淳, 趙直顯

『大正十三年 十月現在全鮮銀行會社公職者其他職員名錄』(1924), 「公職者之部」; 藤村 徳一編, 『朝鮮公職者名鑑』(1927); 『서산군지』(1927년판) 참조 작성. #표시를 한 인물은 2회 연속 면협의위원을 역임한 사람이다. 괄호안은 면장의 이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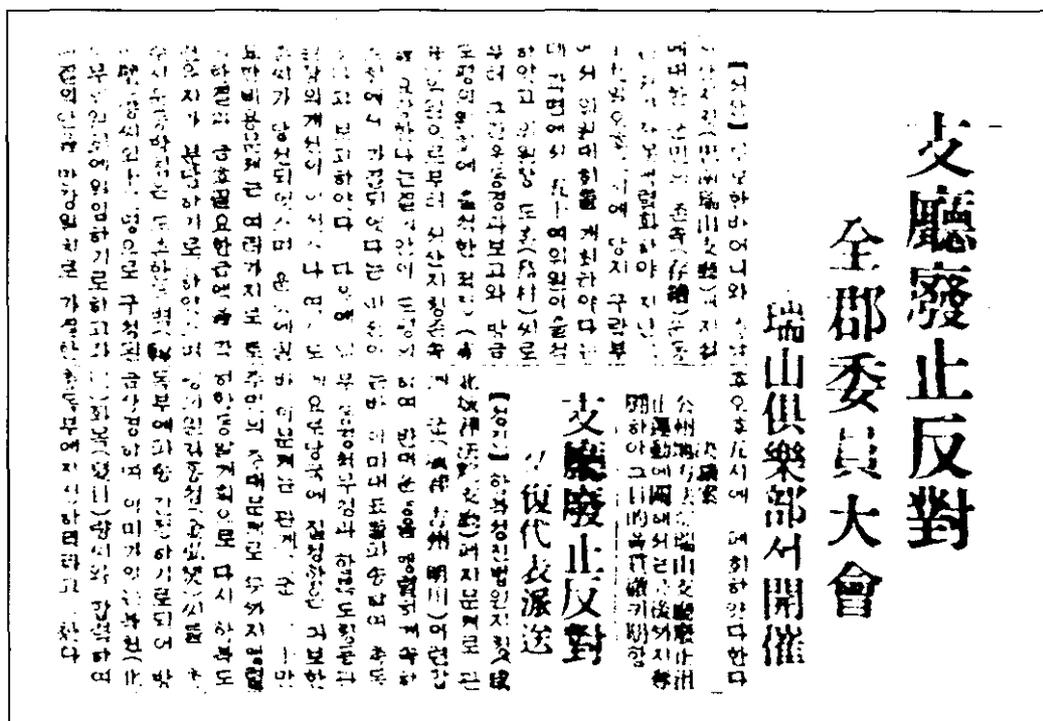
面所在地 및 洞里 숫자는 朝鮮總督府內務局 編, 『朝鮮地方行政區域名稱一覽』(1932년 판) 참조 작성.

직된 동리단위의 교풍단체(군단위 연합회)로서 주요목적은, ① 법령의 전달 철저, ② 학령아동의 취학 권유, ③ 일본어의 보급, ④ 관공서 및 학교의 연락 철저, ⑤ 강연회·연구회의 개최, ⑥ 강연회·품평회의 개최, ⑦ 신간서적·신문·잡지의 구입, ⑧ 근검저축의 장려, ⑨ 납세준비금 적립 실행, ⑩ 도로제방 등의 공동개수, ⑪ 가로수의 식수 및 보호, ⑫ 기타 진흥회원의 실행사항 독려 등이었다. 이같은 목적이 얼마나 관철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길은 없으나 태안면 남문리 진흥회 사례는 동리 유력자들을 매개로 위의 지시사항들이 대단히 적극적으로 실천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가령, 태안면 남문리 진흥회는 1916년 9월 회장 金炳善과 회원 151명의 발의로 조직되었는데 주요사업은, ① 매월 음력 보름날 군면의 지시사항 전달, ② 1922년 9월부터 야학 운영[이화학(李華鶴) 담임교수], ③ 신문 및 월보의 유통, ④ 1920년부터 '일인오승모조(一人五升牟租)' 저축 저리용자 및 빈곤 구

제, ⑤ 1923년 이래 절미저축 실시, 교량 수축비 지원, ⑥ 경로잔치 개최, ⑦ 경비 마련 위한 공동묘포 마련, ⑧ 부녀 공동양잠 실시, ⑨ 납세 완납 독촉 등이었다. 『서산군지』(1927)에 우수한 진흥부락으로 손꼽힌 진흥회는 ① 원북면 신두리 진흥회, ② 부석면 갈마리 진흥회, ③ 대산면 영담리 진흥회, ④ 서산면 석림리 진흥회, ⑤ 인지면 남정리 진흥회, ⑥ 팔봉면 덕송리 진흥회, ⑦ 태안면 동문리 진흥회, ⑧ 근흥면 용신리 진흥회, ⑨ 해미면 반양리 진흥회, ⑩ 태안군 남문리 진흥회 등이었는데, 이들 진흥회도 남문리 진흥회와 마찬가지로 위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하였다. 서산군에서는 지역유지들의 발의로 1917년부터 3·1 운동 이전 시기까지 146개의 진흥회가 조직되었으며, 회원수는 11,303명이었다. 이같은 진흥회의 조직 과정에서 총독부권력은 서산지역의 유지집단과 일종의 '지배동맹'을 결성할 수 있다.

한편, 서산의 유지집단은 유지정치에의 일환으로 여러 가지 민원해결운동(民願解決運動)에 앞장 섰는데 일제시기에 발생한 가장 큰 민원사건은 역시 서산지방법원의 폐쇄에 대한 반대운동이었다. 서산지방법원이 폐쇄된다는 정보가 알려지자 1932년 1월 적정(赤井-공의(公醫), 농회특별위원, 면협의원), 천단(川端-일본인 지주 겸 상인), 김종협(金鍾協), 한동벽(韓東璧) 등 서산군내 각면의 50여명 유지들은, "운동에 필요한 비용문제는 여러 가지로 토의한 결과 금후 필요한 금액을 각면 유지가 분담하기로 하였으며, 수시운동 방침은 도촌(島村), 한동벽(韓東璧) 양씨 외 13명으로 구성된 상무위원회에 일임할 것을 결의"한 뒤 따로 조사위원으로 선정하여, 공주와 경성을 오가면서 로비와 진정운동을 전개하였다. 하지만 진정의 효과가 미미하자 "격양한 군민은 즉시 전군유지회(全郡有志會)를 개최하고 석상에서 대표 2인을 지칭 관할권인 당진군에 파견하여 양군 연합으로 적극적 반대운동을 전개하기로 하는 한편 전군 면장과 유지 제씨의 연서(連署)로 내각을 비롯하여 십여 요로 당국에 타전하는 동시에 장문의 진정서를 발송하기로 하며 일간 전부위원회를 개최하기로 결의하였다." 당시 서산 유지들이 지청폐쇄를 반대한 이유는 첫째, 당지청은 20년의 긴 역사를 가지고 있다는 것, 둘째, 민사소송건수는 1926년 한해만 1천여건, 1931년에는 3백여건이었으며, 형사사건도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 셋째는 본군의 지리적 특수성, 즉 충남 서북단에 돌출한 지역으로 교통은 불편하나 충남 제1규모의 군이라는 점 등이었다. 그러나 이런 반대에도 불구하고 서산지방법원은 폐쇄되었다가, 1935년 10월에 다시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청으로 발족되었다.

한편, 서산지역의 유지들은 1930년대 초반 장항선이 개통되고 장항부두가 완성되자 서산을 장항과 군산에 연결시키는 문제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 1940년 서산항(입장항)이 건설되고 이어 군산항을 잇는 연락선이 운영된 것은 서산 유지들의 로비 덕분이었다. 당시 서산의 유지들은 서산항 건설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서산



〈사진〉「지청폐지반대」『동아일보』 1932년 2월 3일자 기사

면장 원창희(元昌喜)와 서산향축항기성회장 천단승춘(川端勝春), 부회장 나창헌(羅昌憲)씨 외 지방유지 제씨”는 8만여원의 거금을 들여 서산-양대간의 도로 6킬로를 건설하였는데 준공된 것은 1940년 6월 9일이었다. 당시 신문 보도에 의하면, “충남 도당국에서는 충남 서부의 보고인 서산 지방의 경제적 개발을 기도하고, 이것의 구체적 차치로 하여 삼화해운사에 서산, 장항, 군산간의 정기 항로 개설을 허가하여 주기로 하는 한편”(동아, 1940. 5. 18) 10만원의 거금을 들여 작년 팔월부터 착공하였던 서산항의 완성을 축하하는 준공식을 거행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당시 준공식에는 “관민유지 삼백여 인사 열석”하다고 하는바 이때부터 인천으로만 이어지던 서산의 뱃길이 장항군산으로까지 연결되기에 이른다. 당시 준공식에는, “도지사를 비롯하여 도간부 등 관민유지 수천명”이 참석하였으며, 식이 끝난 후에는 군산으로부터 축하입항하는 신조환(新造丸) 군서연락선(群瑞聯絡船)의 시승회(試乘會), 축하기념 씨름대회, 기타 육상경기 등이 개최되었다고 한다.

한편 서산의 유지들은 보통학교 후원회나 각종 기성회에 참여하여 성금을 기부하는 활동을 자주 전개하였다. 가령 서산지역의 유지들은, 1925년 7월 서산체육협회 주최로 서산, 당진, 홍성, 태안의 연합정구대회가 개최되었을 때, 혹은 1928년 1월 19일 서산보통학교에서 학예회가 열렸을 때, 1937년 9월 태안공립보통학교에

서 운동회가 열렸을 때 기부금을 냈다. 특히 당시는 운동회가 대단히 중요한 행사였는데 1934년 9월에 개최된 안면면 운동회 때는 흥분한 군중들이 임석경관을 구타하여 7명의 청년들이 1심에서 최고 징역 3년과 최하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는 불상사까지 발생하였다.

또한 개별 유지들의 기부활동도 심심치 않게 신문에 확인되는데 예를들면 1930년 4월 고북면 대지주 김동익(金東益)이 서산 고북면 보통학교(면장 조동원) 설립 시 5천원을 기부한 것, 1930년 3월 김광선(金光善), 이상규(李相圭), 이성로(李成魯), 신형국(申衡國), 김인수(金仁洙), 손창배(孫昌培), 김재수(金在濤), 노영조(盧永祚) 등이 서산유치원유지동맹(瑞山幼稚園維持同盟)을 조직한 것, 1929년 3월 보통학교 직원, 노동조합, 형평분사, 시계점 주인, 양조장 주인, 요리점 주인, 김영식(金英植), 한백순(韓百舜), 신규현(申奎鉉), 장원순(張元淳), 지동윤(池東潤), 김교순(金教淳), 나상인(羅相麟), 신두현(申斗鉉), 박태석(朴泰錫), 윤선병(尹瑄炳) 등이 해미유치원 음악회에 참가하여 동정금을 낸 것 등은 그 하나의 보기이다.

(3) 서산의 유력 동족마을

1930년 현재 충청남도에는 50호 이상의 동족이 모여 사는 저명한 동족부락이 여럿 있었는데 서산군의 경우는 여기에 해당하는 동족마을이 하나도 없었다. 다만 저명한 인물을 배출한 동족마을로서 서산군 음암면 유계리(大橋)의 경주 김씨 동족마을(영조 정순왕후(英祖 貞純王后)의 부친(父親)인 김한구(金漢耆)가 손꼽아지고 있을 뿐이다. 일제시기 대교 김씨의 중심인물로는 김태제(金泰濟), 김봉제(金鳳濟), 김동우(金東愚) 등이 손꼽히고 있다. 1925년 현재 서산군내에는 많은 동족마을이 있었는데 대표적인 것만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① 인지면 인정 유씨(仁旨面 仁政 柳氏) 동족마을

인정 유씨 동족마을은 인지면 야당리·애정리·둔당리 등지에 분포하였으며, 동족 인구수는 850여명에 달했다. 동족마을이 형성된 것은 대략 1395년 경이며, 입향조는 금현 유방택(琴軒 柳方澤)이었다. 인지면의 인정 유씨들은 주변의 다른 마을과 마찬가지로 '면빈(免貧)한 사람들이 2할 정도'였으며 일제하에서 활동한 유지급 인물은 유도환(柳道煥), 유양열(柳養烈), 유양록(柳養錄), 유양희(柳養熙), 유재후(柳在厚; 서산면 면협의회원, 서산문묘 수선비 부담) 등이었다. 이 가운데 유양록, 유양희, 유재후는 일제하에서 인지면 면협의회원을 역임하였으며, 유재후는 서산문묘의 수선비를 부담하기도 했다.

② 부석면 강당리 이씨(浮石面 江堂里 李氏) 동족마을

부석면 강당리에는 강당리 이씨가 많이 살고 있었는데 1925년 현재 대략 5백여 명 정도였다고 한다. 강당리에 이씨 동족마을이 형성된 것은 대략 1425년 경이었으며, 입향조는 회안대군 이방간(懷安大君 李芳幹)의 둘째아들 창녕군 태(泰)이다. 강당리 이씨들의 생활정도는 “겨우 빈곤을 면한 사람이 2할 정도”였으며, 대표적인 유지 인사는 향교장의를 지낸 이우각(李愚珪), 그리고 대지주(145정보)였던 이용구였다.

③ 성연면 성연 한씨(聖淵面 聖淵 韓氏) 동족마을

성연면 성연 한씨는 평리 부근에 약 220여명이 거주하였다. 동족마을이 형성된 것은 대략 1625년 경이었으며, 입향조는 대산 덕천마을에 살았던 월탄 한효순(月灘 韓孝純)이었다. 성연 한씨 가운데는 부자가 많았는데 대표적인 인물은 한제동(韓濟東), 한창동(韓昌東), 한창동(韓昶東) 등이었다. 한창동(韓昌東)은 부석면 취평리 거주, 1925년 현재 177정보의 토지를 소유한 대지주로서 충남 도평의회원, 서산금융조합장을 역임하였으며, 그의 부친은 구한말 중추원 참의를 지냈다. 그리고 한창동(韓昶東)은 정미면 덕마리에 거주한 172정보를 소유한 대지주였는데 그의 부친은 구한말에 승지 벼슬을 지냈다.

이같은 위세에 힘입어 성연 한씨는 면장을 배출하기도 했다. 한제동(韓濟東)은 1925년 현재 성연 면장으로서 농회평의원, 삼림조합 평의원, 학교평의원 등을 겸임하였다.

④ 고북면 가구리 김씨(高北面 加口里 金氏)

고북면 가구리 김씨는 1925년 현재 가구리에서 12대째를 이어오고 있었으며, 동족 인구수는 대략 50여명 정도였다. 생활 정도는 다른 마을에 비해서는 비교적 풍족한 편이었으며, 대표적인 인물은 김동익(金東益)과 김동진(金東璣)이었다. 김동익은 1925년 현재 273정보의 토지를 소유한 대지주로서 면협의원, 농회 평의원, 학교평의원을 역임하였으며, 고북보통학교 설립시에는 많은 기금을 제공하여 사회 인망이 높은 편이었다. 김동진은 이런 동족들의 후원에 힘입어 면협의원과 고북 면장을 역임하였다.

⑤ 안면면 승언리 박씨(安眠面 承彦里 朴氏) 동족마을

안면면 승언리에는 1925년 현재 승언리 박씨가 200여명 거주하고 있었는데 이 마을이 세력을 떨치기 시작한 것은 적수공권의 박동진(朴東鎭-1916년 사망)이 안흥진 첨절제사(僉節制使)와 충남 봉세관(捧稅官)을 지내면서 부터였다. 1925년 현재 승언리 박씨는 승언리에서 6대째 가계를 이어오고 있었으며, 대부분의 사람들

은 상당히 부유한 편이었다. 일제시기 승언리의 유지급 인물은 박준용(朴準用; 대지주, 농회 특별위원, 박동진의 아들, 인지면 거주), 박준?(朴準?; 면장, 농회 평의원), 박준옥(朴準玉; 면협의원), 박준하(朴準廈; 면서기, 학교평의원), 박준혁(朴準赫), 박형래(朴炯來; 면협의원, 간사지 매립, 보통학교학무위원) 등이었는데, 1925년 현재 박동진의 아들인 박준용은 인지면 야당리에 거주하면서 농회 특별위원을, 박준양은 안면면 면장을, 박준옥, 박형래는 면협의원을 역임하고 있었다. 안면면 승언리에는 박동진의 송덕비가 서 있다.

⑥ 남면 양잠리 적들 가씨(南面 兩潛里 積疇 賈氏) 동족마을

남면 양잠리 적들 가씨(蘇州 賈氏) 동족마을은 1445년 경에 형성된 것으로 보이며, 입향조는 가유약(賈維鎰)이었다. 1925년 현재 양잠리에는 300명의 적들 가씨가 거주하고 있었는데 이들은 부업으로 죽세공품을 제조하여 매우 풍족한 생활을 영위하고 있었다고 한다. 1913년 현재 61세였던 가우영(賈祐永)은 구한말 황단수 직관(皇檀守直官)과 용양위 부사용(龍衛 副司勇)을 역임하였다. 이런 위세에 힘입어 적들 가씨는 1925년 현재 남면의 면장은 물론이고 다수의 면협의원을 배출하였다. 적들 가씨의 중심인물은 가병규(賈秉珪), 가병준(賈秉峻; 남면 면장, 농회 평의원, 삼림조합 평의원), 가응화(賈應化; 면협의원), 가병황(賈秉璜; 면협의원), 가공로(賈孔魯-면협의원) 등이었다.

⑦ 태안면 창평리 가씨(泰安面 倉坪里 賈氏) 동족 마을

태안면 창평리 가씨도 남면 양잠리 가씨 못지 않게 위세가 당당하였다. 태안면 창평리에는 가씨 성을 가진 사람들이 13대째로 거주하고 있었는데 입향 시조는 불명이며, 동족 인구는 1925년 현재 대략 300여명 정도였다. 이들도 양잠리 적들 가씨와 마찬가지로 생활이 풍족한 편이었으며, 많은 면협의원을 배출하였다. 가병문(賈秉文; 면협의원), 가봉로(賈鳳魯; 면협의원)는 일제시기 면협의원이었으며, 가국로(賈國魯)는 154정보의 대토지를 소유한 지주였다. 그리고 가명로(賈明魯)는 일본 유학을 다녀온 인텔리였다.

⑧ 태안면 환동 이씨(泰安面 環洞 李氏) 동족 마을

김갑순에 이어 충남에서 두 번째로 큰 지주였던 태안 남문리 환동 이씨는 동족 인구수(40명)는 그리 많지는 않았으나 대토지를 기반으로 하여 상당한 위세를 자랑하였다. 입향시조는 알 수 없으나 환동 이씨는 1925년 현재 환동에서 11대째를 거주하고 있었다고 한다. 이들은 대토지 경영 이외에 임업과 잡업을 통해서 풍족한

생활을 영위하였으므로 유학생들의 숫자도 대단히 많은 편이었다. 특히 염업을 통해서 부를 축적한 이희열(李希烈)의 직계 아들과 손자들 가운데는 유력인사가 상당히 많았다. ① 이기석(李基錫) - 희열의 장남, 845정보 대지주, 서산 군수, 중추원의관, 명륜당 보수 기부, ② 이기상(李基祥) - 희열의 차남, 구한말 해미군수, 태안 화양학교 설립, ③ 이기승(李基升) - 희열의 차남, 1,296정보 대지주, 화림농원 경영, 태안금융조합장, 서산군지주회 부회장, 농회특별위원, 삼림조합 부조합장, ④ 이창진(李暢鎭) - 희열의 손자, 대지주, 해동은행 대주주, 이희열의 장손자: 양자), ⑤ 이영진(李寧鎭) - 희열의 장손자, 대지주, 다수 회사 사장, 정부수립후 초대 충남도지사, ⑥ 이성진(李誠鎭) - 희열의 손자, 120정보 대지주. 한편 환동 이씨인 이기팔(李基八)은 태안면장과 농회 평의원을 역임하였다.

⑨ 원북면 상리 조씨(遠北面 上里 趙氏)

원북면 상리 조씨는 입향조 조요경(趙堯卿) 이래 14대째 이 마을에 거주하고 있었으며, 동족 인구수는 50여명이었다. 상리 조씨는 주변 농민들에 비해 대개 부유한 편이었는데 조재길(趙載吉)은 115정보의 토지를 소유한 대지주였다. 이런 위세를 바탕으로 상리 조씨는 1925년 현재 원북면 면장을 차지하였으며, 면협의원으로 여러명 배출하였다. 원북면 상리의 중심인물은 조재형(趙載亨), 조재하(趙載夏; 면장), 조재일(趙載一; 면협의원)이었다.

⑩ 소원면 도천 윤씨(所遠面 道川 尹氏)

소원면 도천 윤씨는 소원면 시목리와 영전리, 원북면 양산리, 근흥면 안기리 등지에 150여호 정도가 거주하고 있었다. 석문의 입향조는 윤응시(尹應時)였으며, 도천의 입향조는 윤은성(尹殷聖)이었는데 바 입향 시기는 대략 1625년 경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도천 윤씨의 생활 정도는 '요호(饒戶)가 2할 정도' 였다고 한다. 도천 윤씨의 중심인물은 윤병두(尹秉斗), 윤익현(尹益憲), 윤세원(尹世元), 윤항선(尹恒善; 면협의원, 향교 장의, 농회평의원, 학교평의원), 윤동선(尹東善), 윤세영(尹世榮), 윤세병(尹世炳; 면협위원, 보통학교 학무위원), 윤세엽(尹世燁; 향교 장의), 윤철선(尹哲善; 보통학교 학무위원) 등이었는데 향교 장의나 보통학교 학무위원들이 많이 배출되었다.

앞서 소개한 10개의 동족마을 이외에, ① 팔봉면 진장리 진산 이씨(李氏)[김용숙(金容淑) - 면협의원 ; 김용섭(金容燮) - 면협의원, 학술강습소 운영], ② 팔봉면 방길리 안씨(安氏)[안재호(安載瑚) - 면장, 학술강습소 운영], ③ 성연면 오사리 고지내 이씨(李氏)[이석화(李碩和) - 향교장의 ; 이봉화(李鳳和) - 법관양성소 수

학, 통신사 전화과 주사, 서천 및 함양군수, 일본적십자사 공주지부 협찬위원], ④ 대호지 도리리 남씨(南氏)[남상록(南相洛) - 면협의원, 학교평의원; 남상익(南相翊) - 학교평의원; 남상직(南相直) - 면협의원], ⑤ 대호지 두산리 김씨(金氏)[김병갑(金炳甲) - 면협의원], ⑥ 운산면 채씨(蔡氏)[채만묵(蔡萬默) - 면협의원; 채상면(蔡相晩), 채우석(蔡禹錫), 채일묵(蔡一默)], ⑦ 고북면 양주리 양천 조씨(趙氏)[조동원(趙東元) - 면장], ⑧ 안면면 창기리 편씨(片氏)[片준우·片준익 - 면협의원; 편경구(片慶九), 편병완(片炳完)] ⑨ 안면면 고남리 최씨(崔氏)[최동일(崔東一) - 면협의원; 최문제(崔文湜) - 보통학교 학무위원], ⑩ 남면 몽산리 몽대 문씨(夢垔 文氏)[문석우(文錫雨) - 면협의원; 문석연(文錫淵)], ⑪ 태안면 평천리 평신 명씨(平薪 明氏)[명규선(明珪善) - 면장, 농회평의원 등 역임, 호조참의 명정문(明廷文)의 증손; 명규철(明珪喆) - 면협의원], ⑫ 근흥면 호락 최씨(崔氏)[최병덕(崔秉德); 최경호(崔慶浩) - 면협의원], ⑬ 원북 황곡 김씨(金氏)[김진도(金鎭道) - 면협의원; 김형배(金亨培), 김상배(金相培), 김진구(金鎭九)] 마을 등도 서산내에서 손꼽히는 저명한 동족마을이었다.

4) 일제 시기 서산의 민족운동

(1) 서산의 3·1운동

강점 이후 일제의 무단통치에 시달려온 조선의 민중들은 1919년 3월 1일 거족적인 만세시위운동을 전개하였다. 3월 1일부터 약 2개월여에 걸쳐 전개된 만세시위운동은 질적인 면에서건 양적인 면에서건 우리나라 민족운동사상의 획기적인 사건이었다. 비록 독립은 달성되지 않았으나 3.1운동의 정신은 상해임시정부운동이나 만주독립군운동으로 계승되었을 뿐만 아니라 한국민의 민족의식을 크게 고양시키는 계기로 작용하였다. 일제의 공식통계에 의하면 만세시위운동에 참여한 군중수는 대략 200만명이었으며, 피살자는 7,500여명, 부상자는 1만 6천명, 피검자는 4만 6천여명에 달했다고 한다.

3·1운동 시기 충남 각 군에서도 거족적인 독립만세 시위운동이 전개되었다. 일제측의 자료에 의하면 3월 3일의 예산 시위를 필두로 4월 30일 서천 시위까지, 충남지역에서는 14개 군(전체 군수 14개)에서 대략 134회의 시위가 발생하였으며, 참가자는 대략 6만여명 정도였다고 한다. 충남지방의 시위 사건은 대략 4월 초순경에 집중되었다. 시위양상이 구체적으로 확인되는 76건의 사건만을 근거로 시위양상을 살펴보면, 비폭력 시위 38건, 폭력시위 27건, 경찰 및 군대와의 충돌사건 11건의 순서였으며, 이를 시기별로 열거하면 3월 초순 3건, 3월 중순 13건, 3월 하순 14건, 4월 초순 45건, 4월 중순 1건 등이었다. 전국 집계를 보면 폭력시위는 전체 사건의 44.5%였음에 반해 충남지방의 폭력시위는 50%였다. 이는 충남지역의 만

세시위가 대단히 격렬한 것이었음을 반증한다.

충남지역의 만세시위가 이처럼 격렬했던 까닭은 대부분 시위가 농민들의 주도로 전개되었기 때문이었다. 3·1운동 직후 시기 공주지방법원에서 제령 17호 위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의 직업별 구성을 보면, 농민(지주 포함) 325명(78.9%), 노동자 3명(0.7%), 지식인 혹은 청년학생 46명(11.2%), 상공업종사자 34명(8.3%), 무직자 4명(1.0%)이었는데 이를 전국집계와 비교하면 첫째, 농민(지주 포함) 입감자의 비중이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는 점(전국 58.4%), 둘째, 이에 반해 지식청년이나 상공업자의 비중은 전국에서 최하위였다는 점 등이 주목된다. 이같은 충남지역의 특성은 서산지역 사례에서도 그대로 확인된다. 먼저 3·1운동 시기 서산지역에서 발생한 12건의 만세시위운동 사례를 시기순으로 열거하면 다음의 <표 29>와 같다. 서산지역에서 가장 격렬했던 시위는 4월 4일 정미면 소재지인 천의에서 발생하였다. 천의 장날의 시위는 치밀한 사전준비 끝에 이루어진 것이었다. 회고에 의하면, 사건의 주모자들은 고종의 인산날 참례를 위해 상경하였다가 태극기 1점과 독립선언서 1부를 얻어 귀향한 뒤 당시 면직원이었던 민재봉, 강태원, 송재만, 김동운, 남주원 등과 1차로 시위계획을 협의한뒤, 다시 면장 이인정과 면직원이 모의에 가담하여 거사일을 4월 4일로 결정했다고 한다. 이렇게 거사일을 결정한 이후 사건의 주모자들은 연락망을 조직하고 면장의 명령으로 각 리장에게 「도로 수선(修繕) 병목(併木) 정리의 건」을 하달하여 조직적으로 리민을 동원하였다. 당시 사건의 주모자들은 '선봉행동대'를 편성하였을 뿐만 아니라 독립선언서와 아래와 같은 가사의 애국가도 제작하여 배포하였다.

1. 백두산 정기가 한라에 솟았으니
한반도와 사해는 우리의 터전
반만년 역사와 삼천리 금수강산
빛나는 백의민족 민방에 자랑하도다.
2. 무궁화 동산을 하나님께서
태극기 물결이 세계로 뻗어 가도다
2천만동포여 피로 뭉쳐서
억만년 내 나라 가꾸어 가세.

이처럼 준비를 마친 뒤 사건의 주모자들은 4월 4일 오전 9시경 조금리에 소재한 대호지면 면사무소 앞에서 600여명의 주민들이 참가한 가운데 면장의 주도로 태극기를 게양하고 독립선언서를 낭독한 뒤 대한독립만세를 제창하면서 정미면 천의리(정미면 면소재지)까지 시가행진을 계속하였다. 그런 와중에서 일본경찰과 충돌하

게 되자 격앙된 군중들은 천의주재소를 파괴하고, 일본인 상가를 습격하여 엽총 1정과 권총 1정을 탈취·폭행한 뒤 정식으로 해산 집회를 가진 뒤 대오를 해산하였다. 시위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한 것은 오후 무렵이었다. 당일 천의면 면사무소 앞에서 경찰의 발포(?)로 1명이 주민이 사망하였는데 사망자는 대호지면 송전리 정천 이씨 마을 주민이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송전리에는 여미(정천) 이씨가 50여명 가량 거주하고 있었는데, 300여명의 송전리 주민들은 주민 살해에 항의하여 당일 오후 6시경 격렬한 시위를 전개하였다. 일제측의 자료에 의하면 천의 장날 장터에 모인 시위군중 수는 대략 8백여명이었으며, 시위의 진압은 서산과 당진에서 차출된 경관 8명과 홍성수비대 헌병 5명이었으며, 체포된 시위자의 수는 21명이었다고 한다. 천의 장터 시위사건의 주도자는 대부분 대호지면 도리리 남씨(일명 도리섬 남씨), 송전리의 정천 이씨 등이었는데, 도리 남씨는 1925년 경 도리리에 약 150명이 거주하고 있었다. 도리 남씨 동족마을은 충청관찰사를 지낸 남세건(南世健)을 입향조로 하여 이후 약 400년을 동족마을을 지켜왔으며, 생활정도는 약간 부유한 편이었다고 한다.

또한 4월 4일에는 예산군 18개소, 당진내에서 8개소, 홍성군 24개소에서 만세 시위와 산상봉화투쟁(山上烽火鬪爭)이 전개되었으며, 홍성과 예산에서는 관헌을 폭행하는 사건이 집중적으로 발생하였다. 당일 홍성에서는 경찰의 발포로 5명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5명이 체포되었다. 서산의 경우는 이날 천의 시위 이외에는 별다른 사건이 없었으나 8일 이후부터 서산의 곳곳에서는 이른바 산상봉화투쟁이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거의 비슷한 시기에 산상봉화투쟁이 예산, 서산, 홍성 일대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난 것은 당시 천도교 교단측의 조직적인 지도 때문이었다. 한 신문 기사에 의하면 1910년대 말부터 왕성한 포교 활동을 펼친 결과 천도교는 1920년대 초반 서산군에만도 교도수가 무려 5,6백명에 이르렀다고 한다. 하지만 천도교 신구파가 갈등하는 과정에서 교세가 약화되어 일제시기 내내 구파[안재덕(安載德)]신도는 1백50명, 신파[이종만(李鍾萬)] 신도는 6,70여명 선을 유지하였다고 한다. 서산지역에 천도교 구파가 강력했던 것은 구파계 중심인물인 이종린(李鍾麟, 지곡면 화천리669번지 출신), 이종일(李鍾一, 원북면 반계리 3구) 등이 이 지역 출신이었기 때문이었다. 일제시기 천도교종리원은(이종만 등의 활동가) 서산지역의 지역사회운동 과정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하였으며, 이종만은 해방 직후 서산군 인민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였다.

4월 4일의 시위에 이어 서산지역에서 시위가 집중적으로 일어난 시점은 4월 8일이었다. 정미면 수당리(여미 이씨 40여명이 거주하는 동족 마을)에서는 3백명의 군중이 시위를 전개하다가 경찰·군인(경관 4명, 보병 2명)과 충돌하여 1명의 주민이 사망했으며, 대호지면 송전리(4월 4일 천의 시위 뒷끝에 시위가 있었던 마을, 여미 이씨 동족마을)에서는 경관 6명과 보병 2명이 20명의 군중들을 향해 실탄을

〈표-29〉 서산지역의 3·1운동 개괄

사건 발생일	사건 발생지	사건 경위
3.16	해미	서산읍의 천도교인과 기독교인들이 각기 시일 예식과 예배를 끝내고 시가지를 행진하다가 수천명의 군중이 호응하여 시가지를 누비고 시위를 전개한 사건.
3.19	해미	해미에서 군중들이 남상철의 주도 아래 만세시위를 전개한 사건.
3.19	대호지	대호지면 도이리 주민 수백명이 유지인 남주원의 주도하에 만세시위를 전개한 사건.(4월 4일 시위와의 관련?)
3.21	태안	태안면 일대에 거주하는 천도교인, 기독교인이 운집하여 시위를 전개한 사건.
3.24	해미	해미 공립보통학교 졸업생 환송회때 졸업생들이 학교를 뛰쳐나와 해미 우시장 부근에서 만세시위를 전개한 사건
3.31	팔봉	팔봉면내의 각부락에서 일제히 산에서 횃불을 들고(山上 擧火 鬪爭) 만세시위를 전개한 사건.
4.1	안면	안면도 고남리(최씨 200명이 거주하던 동족마을)에서 이종헌, 이종근 등의 주도로 만세시위를 전개한 사건.
4.4	대호지	대호지면내의 이인정, 남주원 등이 천의 장날을 틈타 군중 1천명을 이끌고 시위를 전개한 사건.
4.8	성연	성연면에서 이종옥, 남명숙이 주동이 되어 성왕산에서(山呼鬪爭)만세시위를 전개한 사건.
4.10	운산	운산면에서 이봉하 등이 수평리와 용현리 주민을 선동하여 보현산에서 산상거화투쟁을 전개한 사건.
4.10	음암	음암면 부장리(부다리 유씨 70여명이 거주하는 동족마을)에서 주민들이 야밤에 횃불시위를 전개한 사건.
4.10	운산	운산면 갈산리 주민 50명이 횃불시위를 전개하다가 왜경과 충돌하여 2명이 숨진사건

국사편찬위원회 편, 『한국독립운동사자료집』: 『독립운동사』, 참조 작성.

발사하여 2명이 사망하였다. 또한 대호지면 조금리(용수동 차씨 30명, 상촌 이씨 25명이 거주하는 동족마을)에서도 경찰과 군인들이 70여명의 군중들을 향해 실탄을 발사하여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중상을 당하는 피해를 입었다. 하지만 당시 군

경의 피해는 전혀 없었다.

이처럼 일방적으로 피해를 당하자 군중들은 몽둥이와 짱들로 무장을 하고 시위를 전개하기 시작했다. 가령, 4월 10일에는 음암면내에서 50여명의 군중들이 몽둥이와 짱들로 무장하고 의도적으로 경찰에게 폭행을 가했으나 경찰과 보병의 무차별 사격으로 2명의 주민이 부상을 입었다. 또한 당일 운산면 만세시위 시위(300여명 참가) 때도 경찰과 군인들은 무차별 사격을 가하여 1명의 주민을 살해하고 2명의 주민에게 중상을 입혔다. 당시 경찰이나 헌병들의 보고전문을 통해서 확인되는 서산지역의 시위사건은, ① 정미면 천의리(4일), ② 정미면 수당리(8일), ③ 대호지면 송전리(8일), ④ 대호지면 조금리(8일), ⑤ 음암면(10일), ⑥ 운산면(10일) 등 6건의 시위사건이며, 위의 보고들에서 확인되는 사망자(5명)와 중상자(5명) 숫자는 10명이다.

(2) 서산의 농민운동

일제는 토지조사사업(1912-1918)과 산미증식계획(1920-1934)을 통해 식민지 지주제를 확립한 후 약 5천여명의 대지주를 매개로 식민지 조선의 농업을 개발하고, 농민을 수탈하고, 농촌을 통제하였다. 이같은 과정을 거치면서 조선의 농촌사회에는, 자작농민의 소작인화, 소작료의 고율화, 소작권의 불안정화, 마름의 중간수탈 등이 점차 심화되었다. 사정이 이러하자 조선의 농촌사회 내부에는 소작쟁의와 더불어 조직적인 농민운동이 활성화되었다. 일제하에서 전개된 소작쟁의는 대부분 고율소작료 문제, 재해시의 소작료 감면문제, 잦은 소작권 이동문제 때문에 발생하였다. 아래의 <표-30>에서 확인되듯이 소작쟁의는 1923년과 1924년, 그리고 1930년대 초반에 대단히 활발했는데 1923년과 1924년에 소작쟁의가 활발했던 것은 당시 소작인조합운동이 활발했기 때문이며, 1930년대 초반에 소작쟁의가 활발했던 것은 농업공황의 여파로 농민들의 생존권옹호투쟁이 격렬하게 전개되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충남지방에서 1933년에 소작쟁의가 특별히 활발했던 것은 1932년의 소작조정령에 따라 소작쟁의 조정사건이 많았기 때문이었다.

조선농회가 발간한 『조선의 소작관행(小作慣行)』(1930)에는 각 군별 소작관행이 요목별로 잘 조사되어 있다. 이것과 『서산군지』(1927)의 「서산군 소작관행」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은 특징이 확인된다.

소작료 납부형태 - 논외의 경우는 정조(打租-정작(打作), 85%), 밭의 경우는 도조(賭租-95%)가 일반적으로 관행되었다. 논외의 경우는 도조(賭租)가 14%정도였으며, 집수법(執穗法)을 실시하는 경우는 논이나 밭이나 거의 없었다.

소작료 - 타작의 경우는 5할, 도조의 경우 최고 5할, 보통 4할 5푼이었으나 점차 오

르는 추세를 보였다.

소작권 계약 - 이작표(移作票)나 패지(牌旨)를 이용하는 경우와 구두계약의 두가지 형태가 있었으나 대부분은 구두계약이었다. 소작인이 사망한 경우 소작권은 그 상속인에게 승계되는 경이 보통이나, 지주가 토지를 매매한 경우 전지주와의 계약은 무효가 되는 것이 관례였다. 하지만 春分節을 넘기면 아무리 신지주라 하더라도 소작권을 이동하지 않는 것이 관례였다. 소작계약은 대개 秋收때부터 驚蟄때까지 변경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이루어졌다. 대체로 소작권의 변동은 소작인의 사망으로 농사지을 사람이 없을 때, 농작을 게을리 했을 때, 소작료를 납부하지 않았을 때, 소작료 납부시 부정행위를 저질렀을 때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이었다.

소작기간 - 보통 최장(最長)은 무기(無期), 최단(最短)은 '한기작년(限其作年)'이었다. 하지만 이작표나 패지 형태로 소작권을 계약한 경우도 기간을 명기하지는 않은 경우가 많았다.

소작료 납부형태 - 논의 경우는 직물납(直物納-현물납), 밭의 경우는 금납(金納)과 대물납(代物納)이 보통이었다. 1930년대에 들어와서 논의 경우 대물납이 조금씩 늘어나는 경향을 보였으나 이때에도 역시 주요한 소작료 납부방법은 직물납부였다. 그러나 밭의 경우는, 논과는 달리 1930년대에 직물납이 현격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일제시기의 소작쟁의는 주로 고율소작료문제, 혹은 소작권 이동문제를 둘러싸고

〈표-30〉 일제하 충남지방 소작쟁의의 연도별 현황

구 분	충청남도		전국		구 분	충청남도		서산	
	사건수	참여인원수	사건수	참여인원수		사건수	참여인원수	사건수	참여인원수
1920	1	40	15	4,140	1928	9	286	30	3,572
1921	2	84	27	2,967	1929	11	291	36	2,620
1922	4	43	24	3,539	1930	6	233	93	10,037
1923	2	78	176	9,060	1931	12	988	57	5,486
1924	8	226	164	6,929	1932	13	444	51	2,909
1925	-	-	11	2,646	1933	26	1,040	66	2,492
1926	2	80	17	2,118	합 계	103	4,178	789	61,800
1927	7	245	22	3,285					

朝鮮總督府警務局 編, 『最近に於ける朝鮮治安狀況』(1933年版), 157~158쪽, 참조 작성

었다. 1925년 현재 서산군의 마름수는 대략 250명 정도였으며, 1인당 토지 관리 면적은 최대 60정보(소작인수 200여명 풀), 최소 6정보(소작인수 15명 풀), 평균은 20정보 내외(소작인수 70명 정도)였다. 부재지주에게 고용된 마름들은 ① 토지 및 소작인 관리, ② 소작료 취득, ③ 공과금 납부 지도, ⑤ 행정 장려·지도 사항 전달 등의 업무를 담당하면서, 소작권을 합부로 변경한다거나, 소작인과 작당하여 지주에게 불이익을 준다거나, 부역 및 각종 부담을 소작인에게 부과하는 비리행위 등을 수시로 저질렀다.

서산지역에서 발생한 소작쟁의의 전모를 다 파악할 수는 없으나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일제시기 내내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인 것으로 추측된다. 1925년의 경우 서산지역에는 5건의 쟁의사건이 발생하였는데, ① 경성지주 신태휴(申泰休)의 토지에서 발생한 소작권이동사건(참여소작인 40명), ② 경성지주 이기범(李基範)의 고을소작료 강정사건(부석면 칠전리, 소작인 23명), ③ 정미면 인지면에서 발생한 소작권 이동 분쟁사건(26명 소작인 참여), ④ 군내 지주 유중목(兪重穆)의 소작권 강제이동사건 등이 대표적인 것이었다. 그러나 이 사건들은 농회·군·면의 조정에 의해 무사히 타결되었다고 한다. 또한 서산군은 '인사상담소'라는 쟁의조정 기구를 설치하여, 소작쟁의를 방지하고 분쟁을 조정하는 활동을 전개했으나 쟁의는 줄지 않고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서산군의 경우 지주회는 유명무실한 상태였으며, 소작인단체는 아예 존재하지 않았다. 다만 재초기간중 일부 마을의 농민들이 농사공동조직(두레)을 만드는 경우는 있다고 한다. 『서산군지』(1927)는 서산군의 소작관행을 정리한 뒤 『군당국자의 금후 요망』이라는 항목을 따로 두어 정책의 방향을 설명하고 있어 흥미롭다.

① 지주와 소작인을 보호할 목적으로 일정 형식의 소작제도를 만들어 소작기간과 소작료액을 정하고 소작인으로 하여금 토지에호의 관념을 높이고 지주소작인간에 권리와 의무를 분명히하여 이해의 공평을 기할 것 (以地主及小作人保護目的設一定形式之小作制度定小作期間小作料額而使小作人奮起土地愛之觀念地主小作人間權利義務利害使得公平事)

② 군내 각 부락을 단위로 1개면 내에 여러 개의 농사소조합을 설치하여 단체적 농사개량을 도모하는 한편, 소작인 가운데 대표자를 선출하여 지주와 더불어 소작료 징수를 교섭·알선하게 한다든가 소작분쟁을 예방하고 이해를 조정하게 하여, 상호복리를 증진하고 원만하게 양해할수 있게 하며, 마름제도는 전면적으로 폐지한다. (以郡內各部落爲單位一面內設數個農事小組合以圖團體的農事改良 一方小作人中代表者與地主交涉斡旋小作料徵收豫防小作紛議調停利害互相增進福利圓滿諒解全廢舍音制度)

③ 농사소조합 설립후 운용에 마땅함을 얻지 못한다든가, 혹 마름 때문에 폐해를 시정하기 어려운 경우, 반드시 지주의 양해를 구함 없이(정부가 일정 규정을 발표하면 더

육 종을 것임)군 및 농회와 면이 농사소조합의 감독을 협력·지도하여 그 업무를 집행하고, 그 시설 개선을 장려한다.(農事小組合設立後運用不得其宜或釀出舍畜以上之弊害難保必無得地主諒解(政府發布一定規程則尤好)郡及農會面相協力指導是等小組合監督其執行業務獎勵其施設改善)

④ 수리와 관계가 편리한 땅에서는 점차 정조(집조)로 작료를 징수하며, 비료를 증시하여 지력의 증진을 도모할 것(水利灌排便利地則漸改以定租(執租)殺圖肥料增施地力增進事)

이처럼 소작권 이동과 고율 소작료문제가 주요한 분쟁대상으로 떠오르자 1927년 6월 서산 군청은 관내의 지주들을 소집하여 간담회를 개최한 뒤, “1. 소작 기간을 5년으로 확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사(事). 2. 소작료는 마름의 자택 창고 이외에 복식 운반을 폐지할 사” 등을 결의하게 했다. 그러나 이 결의는 말단지엽의 문제에 대한 개선책일뿐 정작 중요한 소작료의 고율화나 소작권 이동에 관한 사항은 빠져 있었다. 더우기 위의 결의는, “결의 동기가 소작 계급의 반항과 요구로부터 결정된 것이 아니라 지주 계급이 자진으로 결정한 것이고, 또한 지주회 자체도 합법적 결의 기구가 아닌 이상 법적 강요를 할 수 없는” 대단히 한계가 많은 결의였다. 가령, 위의 간담회에서 결의된 사항과는 무관하게 당시 일본인측 대지주 모(某)는 소작권 부여와 동시에 담 매두락에 보증금을 일원씩 징수하였으며, 조선인측 지주의 마름 모모(某某)는 소작인을 연중 2, 3회씩 자기 농사에 부여케 할 뿐만 아니라 소작료를 일차로 마름집에 운반케한 후 다시 포구까지 2차 운반을 시키는 폭거 자행하기도 했다.

동아일보 서산지국의 한 기자가, “시대는 전환되었으므로 그들(소작인)도 다소 자극이 되어 불윈한 장래에 불평이 폭발될듯하며 계급적 단결로서 대(對)지주 반항책을 강구하고 있다”라고 전망한 것과는 달리 서산지역의 소작쟁의는 그리 활발하지 않았다. 가령, 1920년대 초중반 서산지역에도 서산노동공제회[중심인물 박성돈(朴盛墩), 김영찬(金榮燦), 이종만(李鍾萬)]가 조직되었으나 다른 지역과는 달리, 소작인조합이라든가 농민조합은 하나도 존재하지 않았다. 따라서, 서산지역의 소작농민들은 “소작권 취소에 불응하여 복종을 아니치 못하나 그 불평을 호소할 곳이 없어서 다만 양천탄식할뿐”이었다. 물론 소작문제의 해결을 위해 서산지역의 지역사회운동단체들은 여러 가지 활동을 전개하고자 했다. 가령, 1927년 12월 서산노동조합, 서산청년회, 서산소비조합, 의법청년회, 조선·동아·중외일보의 각 지·분국 등 11개 단체는 불량 지주와 악습(소작료 2중운 반, 운반비 강징)을 폐지할 것을 토의·가결한뒤 불량 지주 및 마름들에게 경고문을 발송하기로 결의한 뒤 결의에 따라 1928년 2월 서산군과 공동으로 불량 지주에게 경고문을 발송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것도 법률적인 규정력이 없는 일종의 협조요청에 불과한 것이었으며,

경고의 주체도 살제는 사회운동단체들이 아니라 군청이었다. 당시 서산 군청은 분란을 일으킨 지주들에게 '통고문'을 발송하고, 군내(郡內) 지주는 직접 군청으로 초치하여 '항의적 담판(談判)'으로써 '경고' 조치를 취하였다. 이때 서산군정에 의해 악덕지주로 지목된 사람은, 군외(郡外)지주 - 장두현(張斗鉉), 우태정(禹台鼎), 이종익(李鍾翊), 오정근(吳正根), 백건삼(白建三), 김문호(金文鎬), 이용세(李容世), 이경서(李敬瑞), 장홍식(張弘植), 김형식(金鑿植), 군내(郡內)지주 - 윤해주(尹海舟), 김순제(金舜濟), 조병문(曹秉文), 최병학(崔秉學), 이주승(李周承), 류상열(柳相烈) 등이었다.

한편, 1928년 1월 서산노동청년회가 창립되었으나 이 조직도 본격적인 농민운동조직은 아니었다. 서산노동청년회는 창립총회에서 "노동소년회 설치운영의 건", "소작인 이중 부담 및 소작권 이동의 건" 등을 결의하였으나 실제적인 활동은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서산노동청년회는 1928년 4월 서산 읍내 천도교 교리원내에서 제1회 정기 총회를 개최하여 '회관 건축'과 '매(每)월례회에 강좌를 설(設)할 것'을 결의하고 집행 위원을 아래와 같이 선출하였는데, 당시 총회에서 선출된 집행위원은, 위원 : 조석구(趙錫九), 송원일(宋源一), 박연(朴演), 노영호(盧永鎬), 이철주(李喆周), 김해식(金海植), 류윤전(柳潤田), 송기정(宋基正), 김대곤(金大坤), 류기남(柳基南), 이광순(李廣舜), 박용(朴湧), 김동완(金東完), 조규창(趙圭昌), 백옥하(白玉賀), 송순일(宋淳一), 송세남(宋世男) 등이었다.

이런 가운데 1930년대 초반 농업공황이 발생하고, 농민들의 생활은 극도로 파멸해졌다. 즉 곡물과 누에고치 가격이 폭락하는 등 농업공황이 본격화하자 서산지역, 특히 잠업 종사자가 많았던 태안의 농가경제는 거의 파탄상태에 이르렀다. 1929년 현미 상품 석당 가격은 25원 48전이었으나 30년에는 21원 70전, 31년에는 14원 74전으로 떨어졌으며, 누에고치 1등급 10근당 가격은 1929년 51원 10전이었으나 30년에는 31원 24전, 31년에는 18원 37전으로 폭락했다. 사정이 이러하자 농민들은 '춘궁(春窮)과 '채귀(債鬼)'에 시달려 정든 고향을 등지거나 자식을 파는 일도 서슴치 않았다. 가령, 1930년 9월 현재 태안 금융조합의 전체 조합원 1천 7백명 가운데 3할에 해당하는 5백명의 조합원이 금융조합으로부터 지불 명령장을 받았으며, 서류로 가차압 통지가 발송된 사례만도 417건에 이르렀다는 것은 당시 태안의 경제사정이 얼마나 악화되었는가를 잘 보여준다. 당시 가차압의 대상이 되었던 것은 대부분 논밭에 서있던 추수전의 농작물들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30년 10월 태안에서는 군수가 참여한 가운데 잠업진흥대회가 열려 『잠전백만석 산출기성회』가 조직되는 등 대책없는 잠업장려 활동이 여전히 계속되었다. 여기에 더하여 1930년 12월 태안면에서는 이미 받은 잠종대금을 이중으로 징수하는 횡포까지 부렸다.

특히 1930년 말에는 어황(漁況)도 최악의 상태였다. 11월 들어 한달동안 연일

폭설이 퍼부었을 뿐만 아니라 풍랑도 심하였다. 당시의 사정을 1930년 11월 29일자 동아일보는, “일반 주민들은 이때껏 추수도 다 못하고 소금이 없어 김장을 못하는 등, 더욱이 근흥·남면·안면도·소원 등 어장 일대에서는 배가 뜨지를 못하여 고기를 잡지 못하여 어민들은 대곤란중에 있다는 바 이개월간 불어(不漁)로 인한 손해는 무려 십수만원에 달하리라 하며, 이로 인하여 각 시장에는 해물의 공급이 없어 모든 물가가 저락하는 이때에 유독 생선류의 가격은 전에 없는 고가를 보이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다.

1931년 1월 서산 천도교종리원이 시민강좌회를 열고 물가감하운동을 일으킨 것은 이같은 사정을 극복하기 위한 서산 시민 나름의 자구노력이었다. 당시 천도교종리원측이 당국자와 교섭하여 인하를 요구한 것은 차가·차지료(借家·借地料), 이발료, 전등료, 운송료, 자동차운임, 소고기·돼지고기값 등이었다. 당시 시민강좌회는 교섭위원 80인을 선출했는데 중심인물은 박용엽(朴容燁), 김용봉(金溶奉), 이민석(李玟錫), 송정선(宋精善) 외 수십인이었다. 하지만 춘궁과 채귀는 이런 노력으로 퇴치할수 있는 성질의 문제가 아니었다. 사정이 이리하자, 희망을 상실한 농민들은 자포자기의 생활을 영위할 수밖에 없었다. 1930년대에 농민들의 주색잡기가 사회문제화 한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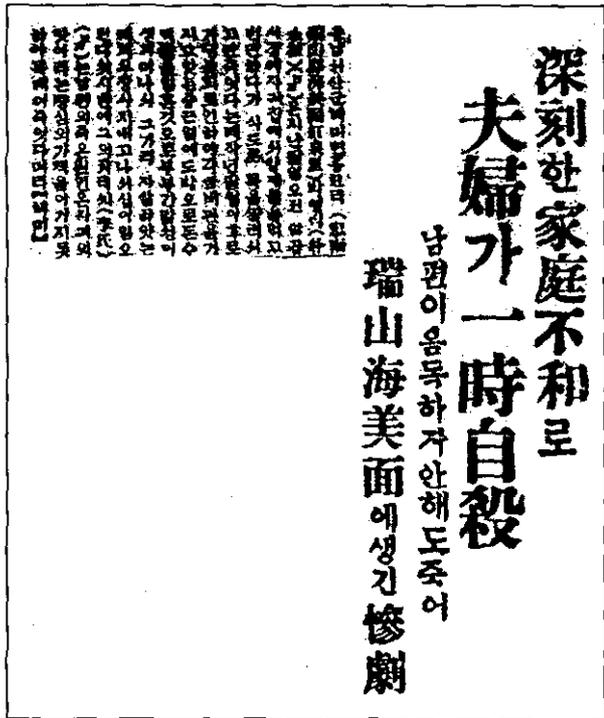
사실, 노동과 자본의 한계생산성이 제로에 가까운 사회에서는 농민들이 일할 의욕, 절약하여 저축할 의욕을 상실할 수 밖에 없다. 왜냐하면 이런 사회의 경우는 열심히 일하고 저축해 보았댔자 생활이 나아질 가능성이 별로 없었기 때문이었다. 한때 민중들이 애창했던 ‘희망가’의 한 구절 즉, “이 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너의 초이-망이 무엇이냐”라는 말은 당시 서산지역 농민들에게도 구구절절 사무쳐오는 녀두리였을 것이다. 예를들면, 충남 서산군 해미면 홍천리에 살았다는 박영식이라는 사람의 사연은 듣기만해도 안타깝다. 그는 1929년 5월 8일 자기집에서 양젓물을 먹고 발광하다가 식도로 자신의 목을 찢러 절명하였는데 그 이유는 “가정불화로 인하여 가끔 비관을 가지고 있던 중 근일에 도박으로 돈 수백원을 잃은 것으로 부터 부부간 말썬이 생기어나서 그같이 자살하였는데 겨우 장사 지내고 나서 12일 오전 그의 처 이씨는 남편의 죽은 원인은 자기의 탓이라는 양심의 가책을 이기지 못하여 목매어 죽었다”고 한다. 일제시기 서산 경찰서 관내에서 발생한 범죄사건 가운데 가장 높은 비중을 점했던 것은 ‘도박죄’였으며, 또 형사사건 가운데는 주세법 위반죄와 조선연초전매령 위반죄였다.

물론 당시 모든 조선의 농민들이 주색잡기로 세월을 보낸 것만은 아니었다. 1930년대에 접어들면서 전국 각지에서는 자신들의 처지를 개선하기 위한 생존권 옹호투쟁이 격렬하게 전개되었다. 하지만 서산군의 경우는 농민들의 불만을 해소할 수 있는 농민조합과 같은 농민 대표기구가 없었다. 따라서 서산지역 농민들의 생존권 옹호투쟁은 개인적인 수준의 쟁의나 아니면 테러형태로 표출될 수밖에 없었다.

1930년대에 들어서 혁명적 농민조합운동 등 농민들의 체제부정적인 변혁운동이 활성화되자 일제는 조선소작조정령(1932. 12)을 발표하여 지방법원의 합의부나 부·군·도의 소작위원회를 통해 소작분쟁을 조정하는 제도를 만들었으며, 1934년 4월에는 소작기간(3년) 등 소작관계 개선을 목적으로 한 조선농지령(1934)을 발표하였다. 또한 이와 동시에 일제는 조선농촌진흥운동(1932~1940)을 통해서 불철주야의 노동과 근검절약만이 갱생의 비결임을 선전하면서 농민들의 올바른 정치의식을 호도시키려 했다. “배워야 산다, 아는 것이 힘”, “고생 끝에

낙야 온다”, “티끌 모아 태산” 등의 헛구호는 제국주의 지배모순을 은폐하기 위하여 일제가 선전한 대표적인 자력갱생(自力更生)의 구호였다. 즉 일제는, 조선농민들의 가난은 구조적인 제국주의의 착취메카니즘 때문이 아니라 조선농민들의 무식함과 게으름의 결과임을 세뇌하여 폭발 일보직전 상태인 농민들의 정치적 불만을 사사화(私事化)시키려 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위의 구호는 “얕해도 이미 되어 있는 자”들이 “아무리 해도 잘 안될 사람”들에게 자랑삼아 내뱃는 비아냥,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왜냐하면 제국주의자들이 선전하는 허황한 갱생비결을 실천하다 뼈아픈 실패를 맛본 수많은 식민지 농민들은 그저 내탓이요! 내탓이요!를 되뇌이면서 자학의 한평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어찌되었든지, 이런 조치들은 미봉적인 것들이기는 하나 소작관계의 개선에 일정한 효과를 가져왔다. 예를들면 1935년 연초부터 6월까지 충청남도에서만 2,640건의 소작분쟁이 발생하였는데 이 가운데 행정지도나 유지 알선 등으로 법외에서 조정된 사건수는 1,442건, 군소작위원회에서 조정된 사건수는 581건, 당사자간의 합의로 해결된 사건은 403건, 재판소에서 조정된 것은 121건이며, 판



〈삽도〉 「심각한 가정불화로…」 동아일보 1929년 5월 15일자 기사

결까지 간 사건은 7건에 불과하였다. 이때 발생한 2,640건의 소작쟁의는 대부분 무리한 소작권이동 때문에 발생한 것이었다.

1934년 농지령 발표 이후 서산군에서 발생한 소작쟁의는 대부분 군외 부재지주의 토지에서 발생하였는데 그 이유는 군내지주의 쟁의는 소작위원회나 아니면 군면이나 지방 유지들의 조정으로 법외(法外) 조정이 가능했으나 군외지주의 경우는 이것이 어려웠기 때문이었다. 이때 있었던 대표적인 쟁의사건은, ① 1934년 11월 인천 거주 부재지주 金泰永이 토지를 매입하였다고 임의로 소작권을 해제하자[마름방규환(方奎煥), 박인희(朴仁熙)] 이북면 마산리·포지리 농민 30여명이 일으킨 쟁의사건, ② 1935년 1월 경성지주의 토지(京畝)를 관리하던 대산면 대산리 마름우씨(禹氏)가 소작권 이동에 실패하자 지곡면 소작농민들에게 도조를 인상 강징하려다가 발생한 쟁의사건 등이다.

(3) 서산의 청년운동

서산군은 교통이 불편하여 신문화의 유입이 더딘 지역이었다. 그러나 3.1운동 이후 보통학교 교육이 보급되고, 또 동경 유학생들까지 대거 귀향하면서 이른바 신문화운동이 본격적으로 전개되기 시작하였다. 서산군에 최초로 조직된 청년회는 3.1운동 직후 시기인 1920년 읍내 청년들에 의해 조직된 서산청년회였다. 1922년 7월 현재 서산청년회의 회장은 임학수였는데 이들은 중앙의 조선청년연합회 강연단을 초청하여 강연회를 조직하기도 했다. 당시 저명한 사회주의자였던 김철수(1926년 조선공산당 중앙위원 역임)는 “세계와 조선청년”이라는 제목의 강연을 했으며, 서산 출신의 고용환은 “신생활의 요건”이라는 연설을 했다. 이런 사실은 서산 지역의 청년단체가 중앙의 사회운동조직과도 일정한 연계를 가지고 있었음을 시사하나 자세한 내용은 알수 없다. 한편, 태안군에는 서령청년회보다 먼저 1921년 이충진(李忠鎭) 등에 의해 태안청년회가 설립되어 사회봉사 활동이나 자선활동을 전개하였으며, 또 서산읍내의 기독교 청년들은 엽윗 청년회를 조직하고 사회사업과 함께 소인극 공연 활동 등을 전개하였다. 하지만 3.1운동 이후 죽순처럼 결성된 초기 청년회들은 곧이어 유명무실해진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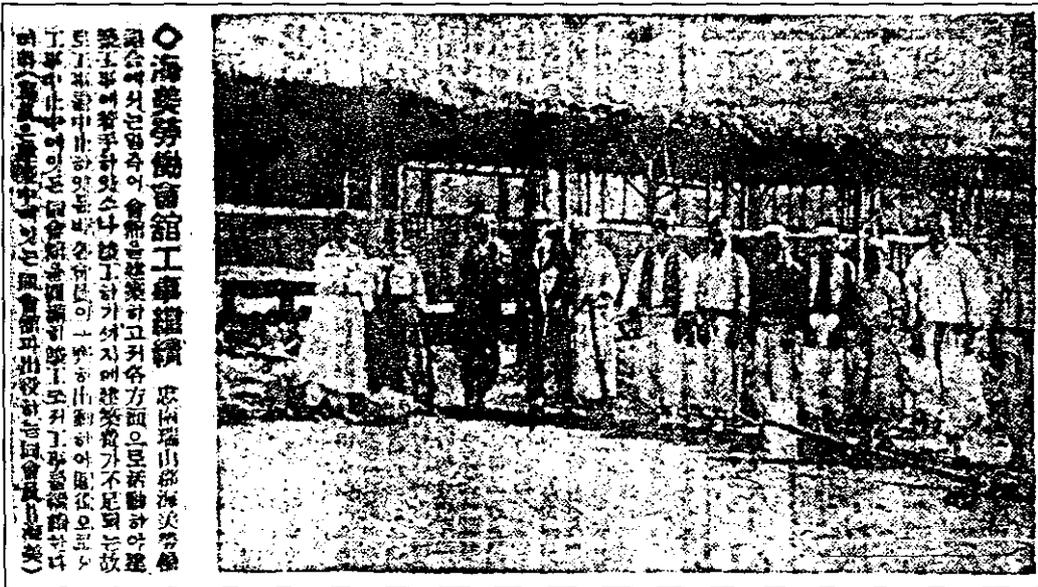
서산청년회가 유아무야된 이후 서산군의 청년운동은 1924년 4월 안병삼(安秉三) 등에 의해서 설립된 서령청년회에 의해서 주도되었다. 1925년 현재 서령청년회의 회장은 서산농회의 특별위원이었던 이천구(李天求)가 담당하였는데 이들은 서산 읍내 유지들의 협조하에서 노동야학을 운영하였다. 또한 서령청년회는 지역 유지들의 청송 가운데 1926년 3월 회원들의 출역으로 흑송 묘포(黑松苗圃)를 운영해 활동기금과 더불어 노동야학기금을 마련하고자 했다. 당시 기금마련 회의에서 결의된 취지는, “① 지식계급의 청년으로부터 노동을 숭상실행하여 일반청년에게 근로의 미풍을 장려할 사(事), ② 동회의 재산은 가급적 회원 자체의 ‘맘’으로써

노동한 결과를 축적하여 기본재산으로 할 사" 등이었다.

이처럼 1920년대 중반까지 서산지역의 청년운동은 주로 보수적인 청년유지들에 의해 주도되었다. 그러나 1927년 10월에 열린 청년회 '혁신총회'를 계기로 서산지역의 청년운동은 점차 진보적인 성향의 청년들에 의해 주도되기 시작하였다. 예를들면 회장제가 위원장제로 바뀐 것, 또는 조직의 명칭이 서령청년회에서 서산청년동맹으로 바뀐 것 등은 이를 보여주는 간접적인 증거라 할수 있다. 이런 사실은 서령청년회가 조선청년총동맹의 강령을 수용하였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시사한다. 1924년에 창립된 조선청년총동맹은 창립대회에서 "대중본위의 신사회 건설을 기도함", "조선민중해방운동의 선구가 되기를 기약함" 등의 강령을 채택하였는데, 창립대회에 참가한 단체는 223개 단체, 회원수는 37,150명이었다. 창립 이후 청년총동맹은 각지역의 청년단체에 "민중적 정신을 고무하고 계급의식을 주입"하는 활동을 전개하였다.

혁신총회에서 새로 선출된 임원은 집행위원장 전영석(田泳奭), 위원 김형식(金濬植), 류성식(柳盛植), 김천인(金天仁), 최용안(崔容安), 김창돈(金昌敦), 류기남(柳基南) 등이었는데 이들은 앞의 임원들과는 달리 상당히 진보적인 성향이 강한 인물들이었다. 위의 혁신총회에서 논의된 안건은 서령청년회 혁신에 관한 건, 독서기관 설립 건 등이었다. 이후 청년동맹 서산지부(중심인물 조석구)는 1928년 9월, 관북지역 수해구제의 건, 지부 설치의 건 등을 논의하였는데, 이는 서산지역의 사회운동이 전국 규모의 운동과 긴밀한 연관을 가지고 있었음을 볼 수 있다. 하지만 관북지방의 수해 동포를 구원하기 위한 동정금 모금활동은 경찰의 탄압으로 무산되었다. 1929년 청년동맹 간부인 이순택(李淳澤), 이일순(李一淳)과 동아일보 당진지국 기자 최병국(崔秉國) 등이 국민협회[國民協會: 1920년 1월 경무국장 환산학길(丸山鶴吉)의 지원과 지도로 조직된 친일단체] 일행과 언쟁하다가 경찰에 검거되어 취조를 받기도 했다.

1927년 10월 청년회 혁신총회 이후 서산지역의 진보적 사회운동을 주도한 단체는 서산청년동맹이 아니라 1928년 1월에 창립된 서산노동청년회였다. 1928년 1월 13일 천도교 교리원에서 창립된 노동청년회는 창립총회에서, "노동소년회 설치 운영의 건", "소작인 이중 부담 및 소작권 이동의 건"을 결의하였는데, 이때 결의된 사항들은 당시 사회주의 색채를 띄고 있었던 전조선노동당의 결의와 유사한 것이었다. 게다가 노동청년회는 지역 노동자 농민들의 이익 뿐만 아니라 전조선 노동자의 사회·경제적 이익을 수호하는 문제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 이런 사실은 서산지역의 지역사회 운동이 지역적 고립성을 탈피하여 민족 해방운동으로서의 의미를 가지기 시작 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 할수 있다. 이처럼 혁신청년운동이 활기를 띠자 서산 경찰은 즉각적으로 노동청년회에 대한 탄압을 노골화하였다. 예를들면, 1928년 4월 서산경찰은, 노조원들이 "검은색 의복에 붉은 단추를 단" 서산 노동청년회



〈삽도〉 『해미노동회관 사진』, 『동아일보』 1929년 4월 10일

노동복을 입고 다니자 불온하다 하여 착용을 금지시켰을 뿐만 아니라 간부를 경찰서로 소환하여 집회를 일체 금지할 것을 통고하는 등 탄압을 강화하였다. 1928년 4월 현재 노동청년회의 집행위원은 조석구(趙錫九), 송원일(宋源一), 박연(朴演), 노영호(盧永鎬), 이철주(李喆周), 김해식(金海植), 류윤전(柳潤田), 송기정(宋基正), 김대곤(金大坤), 류기남(柳基南), 이광순(李廣舜), 박용(朴湧), 김동완(金東完), 조규창(趙圭昌), 백옥하(白玉賀), 송순일(宋淳一), 송세남(宋世男) 등이었다.

한편 해미읍내에는 해미노동조합이 결성되어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해미노조는 1928년 2월 250여명의 조합원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되었는데(중심인물 金元濟), 이때 결의된 사항은, ① 회관 건축의 건 ② 노동야학의 건 ③ 의무금 증징의 건 ④ 조합원 소비절약의 건 ⑤ 순회 강연의 건 등이었다. 하지만 1928년 2월 조직의 마크를 경찰이 압수하는 등, 서산노동청년회와 마찬가지로 해미노동조합도 창립과 동시에 경찰의 노골적인 탄압에 직면하였다. 그 결과 1929년 2월 해미노동조합은 노조 대회를 연기하는 등 여러 가지 고초를 겪게 되었다. 하지만 이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1929년 4월에는 회원들의 출역으로 회관을 준공할 수 있었다. 해미노동조합의 중심인물인 김원제(金元濟)는 1929년 5월 조합 회관 앞에 메이데이 기념문을 게시한 혐의로 경찰에 구속되기도 했다.

한편 서산지역에는 신간회와 형평사가 조직되어 활동하고 있었다. 1927년 2월에 '민족독립 쟁취', '기회주의 배격' 등의 강령을 내걸고 창립된 신간회는 일제하에서 국내에 조직된 가장 규모가 큰 민족운동 단체였다. 특히 신간회는 민족주의자

〈표-31〉 1929년 현재 서산의 사회단체

구 분	창 립 일	창립시회원수	현재회원수	회 장
所遠青年會	1928. 4	70	70	李奎鉉
泰安早起會	1928. 8	70	50	鄭聖摸
夢湖青年會	1928.10	50	42	文錫允
瑞山勞動組合	1928. 7	70	120	朴 演
형평사서산지부	1924. 6	40	20	李弼成
갈뚝청년회	1927. 8	28	30	姜杜煥
신간지회	1928. 4	70	70	李源生
美湖青年會	1927.11	70	100	柳鼎浩
서산군청년동맹	1928. 8	40	40	趙錫九
청년동맹서산지부	1928. 8	20	33	李興植

瑞山一記者, 「(巡廻探訪) 畿湖極西端의 一大半島 (3)

中國과 隔海對峙, 『東亞日報』, 1929. 1. 14

들과 사회주의자들이 민족독립운동을 위해 함께 연대하여 조직한 이른바 '민족연합전선조직', 혹은 '좌우합작조직'이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자못 큰 단체였다. 창립 시기 신간회 지부는 전국 141개 지역(회원수 약 4만)에 걸쳐 조직되었으며, 충남지역에는 서산을 포함하여 강경(박상환, 한우석, 김성원 등), 공주(유정현, 서덕순, 윤귀영, 유인용 등), 당진(홍종관, 정형택, 심종관, 정학원 등), 대전(이화송, 이성춘, 유의영, 권경득 등), 부여(신종훈, 백남기, 박영달, 김태수 등), 예산(이종승, 김진동, 이복규, 김세환 등), 천안(이헌영, 노서호, 김시찬 등), 홍성(윤대영, 손재학, 김재한, 김홍선 등) 등지에 조직이 결성되었다. 1928년 4월에 창립된 신간 서산지회의 간부는 회장 이원생, 부회장 이윤기, 간사 김영*, 조석구, 이일순, 이순택, 유태열, 명*수, 김원재, 박원서, 신봉균, 이동만, 이광훈, 송원일 등이었는데 이들은 대부분 서산 읍내의 유력인사들이었다. 한편, 서산 형평지회는 1926년 1월에 창립되었으며, 태안에는 분사(分社)를 두기도 했는데 창립 당시 서산 형평지회의 고문은 이유복, 위원은 이학선 외 9명이었다. 1929년 1월 현재 서산군내에 있었던 사회운동 단체들을 열거하면 아래와 같다.

한편 서산지역의 청년운동을 살필 때 신문사지국을 매개로 한 언론투쟁을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일제시기 각군에 설치된 조선어신문사 지국이나 분국은 지역 사회운동의 주요한 매개로서 기능하였는 바, 언론투쟁의 주역들은 대부분 해당 지역내의 청년인텔리들이었다. 이들은 지역사회에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할 때마나 사건에 개입하여 보도기사나 지방논단 등을 통해 강력한 여론투쟁을 전개하였다.

忠南北記者大會

清州에서盛大히開催

記者團

二回總會

本月五(五)日(四)記者團主辦
 忠南北記者大會(以下三項略)
 第一回忠南北記者大會(以下三項略)
 第二回忠南北記者大會(以下三項略)
 第三回忠南北記者大會(以下三項略)
 第四回忠南北記者大會(以下三項略)
 第五回忠南北記者大會(以下三項略)
 第六回忠南北記者大會(以下三項略)
 第七回忠南北記者大會(以下三項略)
 第八回忠南北記者大會(以下三項略)
 第九回忠南北記者大會(以下三項略)
 第十回忠南北記者大會(以下三項略)

忠南北記者大會(以下三項略)
 第一回忠南北記者大會(以下三項略)
 第二回忠南北記者大會(以下三項略)
 第三回忠南北記者大會(以下三項略)
 第四回忠南北記者大會(以下三項略)
 第五回忠南北記者大會(以下三項略)
 第六回忠南北記者大會(以下三項略)
 第七回忠南北記者大會(以下三項略)
 第八回忠南北記者大會(以下三項略)
 第九回忠南北記者大會(以下三項略)
 第十回忠南北記者大會(以下三項略)



〈상도〉「충남북기자대회 기사 및 사진」, 『동아일보』 1927년 6월 11일자 기사

일제시기 서산지역에서 언론투쟁을 주도한 인물은, 이광훈(李光薰; 지국 운영 시기 1925. 5 ~), 이종만(李鍾萬; 1928. 7 ~), 윤은동(尹銀同; 1931. 12 ~), 김맹윤(金孟倫; 1931. 11 ~), 조성남(曹成男; 1934.4 ~)

김영순(金榮淳; 1935.4 ~), 김동훈(金東勳; 1935.12 ~), 이병철(李丙哲; 1936.4 ~), 장윤옥(張允玉; 1937.12 ~), 송석구(宋錫龜; 1939.5 ~), 손봉목(孫奉穆; 1932.5 ~), 이진우(李珍雨; 1936.4 ~), 이상기(李相淇; 1938.2 ~), 손태환(孫兌煥; 1938.10 ~), 김동근(金東根; 1940.2 ~) 등이었는데 이들은 서산지방에서 발생한 일련의 사건에 대한 보도기사 뿐만 아니라 「지방논단(論壇)」, 혹은 「시화(時話)」의 형태로 자신들의 주장을 여론화하여 지역문제(특히 민원문제)의 해결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

참고삼아, 『동아일보』 지방판에 소개된 민원 관련 보도, 즉 ① 1926년 1월 서산 소방조 문제에 관련 민원, ② 1927년 6월 소작관계 개선문제(특히 경성 지주의 이중 운반 강요, 운반비 강요문제)에 관한 민원, ③ 1931년 1월 서산지역 유치원 문제와 관련한 민원, ④ 1930년대 초반 해미 수리조합 문제에 관한 민원, ⑤ 1931년 1월 우편물 누장 배달 문제와 관련한 민원, ⑥ 서산지청 폐지 문제와 관련한 민원, ⑦ 태안지역 도로 개량 등에 관한 민원, ⑧ 안면도 학교증축 관련 민원 등의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친 부분은 원문을 그대로 인용한 것이며, 그렇지 않은 부분은 편의상 요약한 것이다.

사례-1) 소방조 문제에 관한 「지방논단」 - 서산지역 화재 위험 노출된 곳이 많을 뿐 아니라 화재가 잦게 발생하고 있다. 이 이유는 기재 낡았을 뿐 아니라 기타 운영상에 많은 문제점이 있기 때문이다. “부득이(不得已) 읍내 청년 제군에게 일언을 고평한다....제군은 반성하라. 이지(理智)와 의용(義勇)이 겸전(兼全)하고 생활도 유족한 제군이 어찌 지방에 화재, 아니 자기의 화재에 대하여 피안시 하려 하는가” [서산 일기자(瑞山 一記者), 「(지방논단(地方論壇)) 소방조(消防組)에 대하여」, 『동아일보(東亞日報)』, 1926. 1. 17].

사례-2) 1927년 6월 소작관계 개선문제(특히 경성 지주의 이중 운반 강요, 운반비 강요문제)에 대한 「지방논단」 - “그러나 금번의 결의가 지주계급의 도덕적 충동으로부터 성립되었다 하면 기(其)실행에 대하여 상대 계급의 감시(監視) 또는 법적 강요를 치 아니하고 다만 인도 정의를 위하여 자진 실행할 것이다. 이에 지방유지는 지주계급의 금후 태도를 주시하고 있다. 만일 악지주가 재래(在來)의 악습(惡習)으로 결의(決議)를 무시하고 실행(實行)을 태만히 할 시(時)는 공정한 사회여론으로 제재(制裁)할 수밖에 없다. 지주회 제군은 성심성의로 그 결의를 실행하라거든 대표위원을 선정하여 악지주로 하여금 회과(悔過) 실행하도록 권유하고, 만일 불응한 시는 최후수단으로 기 악행을 조사하여 비판 또는 성토에 붙이고 엄정한 여론하에 사회적으로 매장하여 사회도덕을 속청(肅淸)케 함이 결의의 본의가 될 것이며, 제군을 먹여주고 입혀주는 작인의 은혜를 보답하는 의미가 될가 한다” [서산 일기자(瑞山 一記者), 「(지방논단(地方論壇)) 지주회(地主會)의 결의(決議) - 실행에 충실하라」, 『동아일보(東亞日報)』, 1927. 6. 16].

사례-3) 1931년 1월 유치원 문제에 대한 「시화」 - “서산군의 일년 간 소비되는 술값 담배값은 30만원, 20만원이다. 이는 군내에 중학기관을 하나 설립하고도 남을 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년 경비가 7,8백원도 채 안되는 유치원이 경영난으로 1930년 여름 폐쇄되기에 이르렀다. 연초나 주류로는 소비할줄 알면서도 제2국민의 발전을 고려치 않음은 이곳 자아를 사랑하는 몸이 못되지 않는가? 有志는 깨달을 지어다” [서산 일기

자(瑞山 一記者), 『서산시화(瑞山時話)』, 『동아일보(東亞日報)』, 1931. 1. 27]

사례-4) 해미 수리조합 문제에 관한 「시화」 - “1930년 봄부터 해미 수조 결성 조짐, 조선내 기설 수리조합 중에는 우심(尤甚)한 자(者)(30여개소)에 대하여 당국도 그 구제책에 부심하고 관계 지주급 소작인이 신음 급 비난하는 바 불소함은 세소공지(世所共知)의 사실이라. 해미수리조합에 있어서는 이 사실에 감(鑑)하여 빙탄불상합(氷炭不相合)하는 수리조합을 연기 또는 중지함이 좋지 않을까?” [서산 일기자(瑞山 一記者), 『서산시화(瑞山時話)』, 동아, 1931. 1. 27]

사례-5) 1931년 1월 우편물 누장 배달 문제에 관한 「시화」 - 우편물의 배달 지체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서산·당진간의 우편물도 4-5일, 5-6일은 빠른 것이다. 그리고 음압 정미간은 2회 왕복에 1주일 이상 2주일까지 걸린다. 지척이 천리다. “서산 당진간 매일 2,3회의 정기 자동차가 있으니 직접 체송(遞送)할 수도 있지 않은가? 관계당국의 주의를 촉한다” [서산 일기자(瑞山 一記者), 『서산시화(瑞山時話)』, 『동아일보(東亞日報)』, 1931. 1. 27].

사례-6) 서산지청 폐지 문제에 관한 「지방논단」 - 충남도청 대전 이전을 계기로 지방 관공서의 이전배치문제가 지역사회의 민감한 사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서산 지청의 폐쇄문제도 그 중의 하나이다. 서산지역 유지들은 1932년 1월 시민회를 조직하고, 대표진정위원을 상경시키어 각 요로 당국을 방문케하여 진상을 조사하며 아울러 본군 민의를 진정하였으나 지청 폐쇄는 대세였기 때문에 진정의 효과는 극히 미미했다. 이에 “격양한 군민은 즉시 전군유지회(全郡有志會)를 개최하고 석상에서 대표 2인을 지청관할권인 당진군에 파견하여 양군 연합으로 적극적 반대운동을 전개하기로 하는 한편 진군 면장과 유지 제씨의 연서(連署)로 내각을 비롯하여 십여 요로 당국에 타전하는 동시에 장문의 진정서를 발송하기로 하며, 일간 전부위원회를 개최하기로 결의하다 하니 그것은 당연한 여론”이다. 서산 지청은 20년의 긴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1926년 한해만 민사소송 건수 천여건, 1931년 3백여건, 형사사건은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사건 취급 건수만을 보면 공주 지방법원 중 제1위이며 등기 건수도 제1위이다. 둘째, 서산은 충남 서북단에 돌출해 있다는 지리적 특수성 때문에 교통이 불편하나 충남 제1 규모의 군이다. “만약 민중의 이해를 불구하고라도 폐지를 단행한다고 하면 이는 행정정리의 근본 취지와 모순될 뿐더러 일반의 인식을 공연히 어지러이 할 따름이다. 이에 마땅히 서산지청을 존속케 노력하라” [서산 일기자(瑞山 一記者), 『지방논단(地方論壇) 재판소(裁判所)의 폐지 문제(廢止 問題) - 마땅히 존속(存續)케하라』, 『동아일보(東亞日報)』, 1932. 1. 28]

사례-7) 도로 개량 등과 관련한 「지방논단」 - “태안은 일대 반도로서 10개 주변 면 인구의 인후(咽喉)지대인 상업 요지이나 도로 시설이 불완전하여 소량의 강우만 있으면 소로(小路)는 막론(莫論)이오 심지어(甚至於) 시장통까지라도 이해(泥海)로 화하여 통행을 자유로 할수 없”는 지경이다. “이는 모름지기 주민의 책임감이 박약함이나 그러나 면 당국은 일반주민의 생명재산을 좌우하여 면민의 복리증진을 제(製)하는 기관이니 면내의 제반 시설이 불충분하여 면민의 생활상 지장이 있는바 에는 면당국의 책임이라 아니할수 없는 것이다. 일언으로써 당국에 부(附)하노니 하로바빠 시장통 급 동문, 서문통 도로에 사석(砂石)을 부(敷)하여... 지난번 본란을 통하여 하수구문제로도 면당국에 요망한바 있었으나 ...바라고 촉구하노라” [태안지국 일기자(泰安支局 一記者), 「지방논단(地方論壇) 태안면에 일언(一言)을 정(呈)함」, 『동아일보(東亞日報)」, 1936. 8. 1]

사례-8) 안면도 학교증축 관련 「지방논단」 - 안면도는 보통면이기는 하나 남북으로 길게 뻗은 지형적 특성, 즉 섬이 많은 까닭에 1개의 보통학교(승언리)와 간이학교(고남리)만으로는 교육육구를 충족시킬수가 없다. “배움에 주린 아동을 문맹에서 벗어나게 함이 현하의 급무중의 급무이다. 이어져 동한시할 문제이라. 면당국과 도당국은 물론이오, 지방유지들도 상황을 돌보아 우 고남, 장곡 등 방면에 보교 1개소쯤 설치하기를 요망하는 바이다” [태안 일기자(泰安 一記者), 「지방논단(地方論壇) 안면면(安眠面)에 제이보교(第二普校)를 설치(設置)하라」, 『동아일보(東亞日報)」, 1936. 8. 7]

뿐만 아니라 서산지역의 신문사 관련 청년(지국(支局) 및 분국장(分局長)과 지국기자(支局記者))들은 서산기자단을 조직하고 지역문제의 해결에 앞장서기도 했다. 예를들면, 1939년 8월 서산 영소학교(榮小學校)에서 도난사건이 발생했을 때 학교 교장이 사제지간의 정도 없이 “도적놈의 자식 당장에 죽어라”라고 노발대발하면서 경찰에 도난계를 제출하자 당시 『중선일보』 김성회(金成會), 『동아일보』 지국장 송석구(宋錫龜)가 서산기자단 명의로 경고문을 발송하고 조사위원을 맡아 교장의 사과를 받아내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4) 1930년대와 ‘해방’ 직후 시기의 서산지역 사회운동

청년운동단체를 포함한 서산지역의 지역사회운동은 1930년대에 접어들면서 경찰측의 탄압으로 점차 쇠퇴의 경향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이는 일제의 탄압에도 불구하고 조직적인 사회운동, 특히 비합법적인 지하조직활동을 꾸준히 전개한 함경도, 전라·경상도 지역의 사정과는 그 상황이 판이한 것이었다. 본디 충청남도는 고래로부터 양반 유생의 연층지(淵叢地)인 관계로 전통적으로 민족의식이 농후한 지역이었다. 하지만 일제의 경찰측 자료에 따르면 1930년대에 접어들면서 충청남 지역의 민족운동은 “성지(聖旨)의 철저, 시정(施政)의 통일 조정 및 시대 사조 등

에 따라 현재(1936년 - 필자) 전적으로 자취를 감추"었으며, "수년내 예산, 부여, 공주, 논산 등에서 산발적으로 전개된 공산주의운동도 당국의 엄중한 취체와 시대의 사조를 거스리지 못하고 불가피하게 뱀색(逼塞)되어져 현재 도내의 사상 상황은 대체로 평온"한 형편이었다고 한다.

고등법원 검사국 사상부가 편찬한 『사상회보(思想彙報)』라는 자료에 의하면 1930년대에 충남지방에서 발생한 저명한 사상사건은 ① 1930년 3월 신현정, 최영석이 천안을 호서은행으로부터 5만 7천원을 탈취하여 상해로 도피한 사건(체포됨), ② 1932년 3월 상해 대한민국임시정부(大韓民國臨時政府)의 밀명을 받고 조선총독 암살을 위해 잠입한 유진만(兪鎭萬) 사건, ③ 1932년 4월 상해 신공원에서 폭탄을 투척하여 세상을 놀라게 한 윤봉길(尹奉吉) 의거, ④ 1932년 4월 성진호 등의 치안유지법 위반사건, ⑤ 1933년 아산에서 발생한 이용하(李鎔夏) 외 11명의 치안유지법 위반사건, ⑥ 1933년 예산공립농업학교 학생들의 치안유지법위반 및 보안법위반 사건(학생비밀결사 조직사건), ⑦ 1933년에 발생한 청양(靑陽)에 있었던 결사「신조선투사(新朝鮮鬪士)」결성사건, ⑧ 1933년에 발생한 부여(扶餘)에 있어서 농촌적화공작사건 1935년 홍성(洪城)에서 발생한 한명식(韓明植)외 1명에 대한 보안법 위반 사건, ⑨ 1935년 서천(舒川) 한산면에서 발생한 농촌지도원의 보안법 위반사건 등이다.

1930년대 이후 충남지역에서 민족운동이 부진하였다는 사실은 1926년부터 1943년 상반기까지 「치안유지법 위반혐의」(결사사건취체법)로 각도 지청에 송치된 사람들의 숫자를 비교해도 쉽게 확인된다. 이를 지청별로 정리하면, 경성 5,582명, 공주 553명, 함흥 5,899명, 청진 2,886명, 평양 930명, 신의주 2,414명, 해주 361명, 대구 1,329명, 부산 1,126명, 광주 1,823명, 전주 1,515명 등이었다. 게다가 충남은 요시찰(要視察)·요주의(要主義) 인물의 숫자도 다른 도에 비해 적은 편이었다. 1938년 현재 충남의 요시찰·요주의 인물은 각각 81명, 202명이었는데, 인구비율을 따져 다른 도와 비교하면(전국을 100%, 1938년 현재 전국 인구 22,899,038명)으로 하면, ① 경상북도 11.3%, ② 전라남도 11.0%, ③ 경기도 10.7%, ④ 경상남도 9.8%, ⑤ 평안북도 7.5%, ⑥ 함경남도 7.5%, ⑦ 황해도 7.3%, ⑧ 전라북도 7.0%, ⑨ 강원도 7.0%, ⑩ 충청남도 6.7%(인구수 1,526,825명), ⑪ 평안남도 6.4%, ⑫ 충청북도 4.2%, ⑬ 함경북도 3.7%의 순서였다. 또한 도별로 사회운동 단체의 분포, 혹은 사회단체 집회취체 상황 등을 살펴보면 충남은 다른 도에 비해 지역사회운동이 상대적으로 부진한 지역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면 충남 도내 각군의 사회운동 상황은 어떠했을까? 『사상회보』에 따르면 1935년 현재까지 충남지역의 치안유지법(민족독립운동 결사 사건 관련자를 처벌하던 법률), 보안법 등 위반사건으로 옥살이를 했거나 복역 중인 사람은 993명이

〈표-32〉 ‘요시찰’ · ‘요주의’ 인물의 도별 분포 (1938년 현재)

구 분	요시찰 인물	요주의 인물	합 계	인구비율(%)
경 기	571	372	943	10.7
충 북	40	98	138	4.2
충 남	81	202	283	6.7
전 북	75	235	310	7.0
전 남	251	837	1,088	11.0
경 북	146	484	630	11.2
경 남	241	296	537	9.8
황 해	102	411	513	7.3
평 남	234	329	563	6.4
평 북	205	339	544	7.5
강 원	100	314	414	7.0
합 남	383	1,207	1,590	7.5
합 북	163	74	237	3.7
합 계	2,592	5,198	7,790	100.0

##. 朝鮮總督府警務局 編, 『最近に於ける朝鮮治安狀況』 (1938년판), 17-19쪽.

었는데, 사상사건 관련자가 가장 많았던 군은 「보안법」 위반자가 많았던 예산과 청양군이었다. 서산군은 절대 숫자로는 상위에 속하나 인구 비율을 감안하면 중간 정도 수준이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서산군의 경우는 1930년대에 이렇다할만한 운동이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자료로 확인되는 사건으로는 명향회(『동아일보』, 1939년 10월 1일)사건이 유일하나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다. 1935년 5월 현재 서산지역의 사상사건 관계자는 6명이었는데 이 가운데 수형자(출옥자)는 4명, 기소유예자는 2명이었다. 하지만 이들이 어떤 사건에 연루되어 검거되었는지는 분명치 않다.

비록, 일제의 탄압으로 1930년대 이후까지 지속되지는 못하였으나 1920년대에 전개된 서산지역의 청년운동은 ‘해방’ 공간에서 전개된 자주적 통일민족 국가 수립 운동의 밑거름이 되었다. 특히, 해방 직후 서산지역에서 인민위원회(人民委員會) 활동을 주도한 인물들이 대부분 일제하에서 혁신청년운동이나 비밀결사운동을 주도한 인물, 혹은 그 영향력하에 있었던 청년들이었다는 사실은 크게 주목해야 할 대목이다. 1945년 12월 서울에서 개최된 전국농민조합총동맹 결성대회에 군대표로 이흥식(李興植)과 조동환이 참석하였는데 이흥식은 일제시기 서산 청년동맹의

〈표-33〉 일제하 충남지방 사상사건의 군별 현황 (935년 5월 현재)

구 분	치 안 유지법	보안법	폭력행위 등 처벌법	기 타 사상범죄	동맹휴교	기타 주의자	합계
대 전	12	21	6	10	1	16	66
조치원	1	29	11	2	0	15	58
공 주	15	80	11	16	7	9	138
강 경	20	34	13	17	2	29	115
부 여	4	37	23	24	4	46	138
서 천	3	22	12	0	2	49	88
보 령	7	14	4	0	0	17	42
청 양	7	114	27	1	1	16	166
홍 성	10	22	21	17	8	16	94
서 산	6	70	7	3	0	17	103
당 진	10	8	8	3	5	20	54
예 산	8	137	3	1	2	24	175
온 양	12	6	0	0	3	23	46
천 안	2	38	0	4	0	26	70
합 계	117	634	146	98	37	323	1,353

「忠淸南道下の思想概況並同道論山夫餘靑陽禮山及唐津郡各思想善導機關の活動狀況」, 高等法院 檢事局 思想部, 『思想彙報』제6호, 昭和11년 12월 17~23쪽).

위원장을 역임했던 인물이었다. 그리고 1945년 11월에 개최된 전국인민위원회대표자 대회에 서산군 대표로 참석한 양근영(운산)·전삼갑(서산)·이병희(태안) 등도 일제하에서 청년운동을 주도한 인물들이었다. 회고에 의하면 양근영·전삼갑 등은 6.25과정에서 처형되었고, 이병희는 대전교도소에 수감되었다고 한다.

1946년 현재 서산군 인민위원회 위원장은 이종만(李鍾萬; 60세, 천도교인)이었으며, 청년동맹의 위원장은 김동운(金東雲; 당시 35세, 한약상), 부위원장 김대원(金大遠; 32세, 과자상)이었으며, 인민위원회 가입자는 1백명, 농민조합 가입자는 2백명, 노동조합 가입자는 80명, 실업자동맹 가입자는 40명, 청년동맹 가입자는 35명, 정의청년동맹 가입자는 35명 등이었다. 이들 외에 서산지역에서 유명했던 좌익활동가는 윤덕병(尹德炳)이었다고 한다. 그러나 서산지역의 좌익세력은 1946년에 접어들면서 본격화된 미군정과 우익의 총반격, 특히 1946년 가을에 있었던 이른바 '추수봉기'로 말미암아 급격히 세력을 상실하였다. 1946년 10월말 서산에

서도 토지의 균등분배, 쌀의 공정한 분배, 미소공동위원회의 조속한 재개 등을 요구하며 격렬한 소요사태를 야기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또한 우익단체로는 독립촉성협의회(獨立促成協議會) 서산지부 등이 유명하였다. 당시 서산 독촉의 가입자는 60명이었으며, 회장은 현직 군수인 이종철(李鍾喆), 위원장은 이금호(李競鎬: 51세, 한학 협찬회 간부), 부위원장은 이광순(李廣淳: 48세), 조양순(趙亮淳) 등이었다. 이밖에도 해방후 서산군에는 협찬회(協贊會: 회장 羅昌憲, 전 도평의회원, 40세), 의열대(50명), 광복청년회(80명), 기독교청년회 [가입자 25명, 회장 김진태(金鎭泰), 48세 목사] 등이 조직되어 있었다.

서산시지 제2권 **시업의 역사**

인 쇄 : 1998년 4월 일

발 행 : 1998년 4월 일

편 찬 : 서산시지 편찬위원회

발행처 : 서 산 시

인 쇄 : 대전충남인쇄공업협동조합

작업자 : 청 오 인 쇄 소

(0455)64-6366

